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황 및 정책개선 방안

연구책임자 : 이 미 정 (본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윤 덕 경 (본원 연구위원)

이 현 혜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이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이미정·윤덕경·이현혜(2015).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황 및 정책 개선 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한국의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 연구를 통해 양성평등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여성정책 Think-Tank이다.

발 간 사

아동·청소년·장애인은 자기방어 능력이 미약하여 성폭력 피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크고, 피해 후유증의 강도와 지속성에 대한 우려도 성인보다 높습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증대로 다양한 법제도와 서비스가 도입되고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법률도 꾸준히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지원 제도와 서비스에 접근하기까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며, 최근에 도입된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아동·청소년·장애인과 그 보호자들이 지원체계를 이용한 경험을 토대로 서비스를 평가하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종사자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문제점을 검토하고 지원 서비스 및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연구를 위해 개별 인터뷰에 응해주신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와 그 보호자 분들, 피해자 지원을 위해 현장에서 부딪힌 경험을 알려주신 종사자 분들과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구를 위해 애써주신 연구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연구 결과로 관련 정책이 개선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 10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 장 이 명 선

연구요약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증대로 잔술조력인 제도, 진술분석전문가 양성 및 배치, 피해자 법인제도 등 다양한 법제도와 서비스가 도입되고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법률도 꾸준히 개선되었지만 지원대상 피해자들은 2차 피해 및 지원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지원 현황을 조사하여 문제점을 검토하고 지원 서비스 및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2. 연구방법

성폭력피해자 지원 현황과 관련된 심층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전국 성폭력상담소와 해바라기센터 대상 설문조사 실시, 둘째,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실시, 셋째, 지원기관 관리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실시, 넷째, 국선변호사 대상 인터뷰 실시, 마지막으로 경찰청, 법무부, 스마일센터의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담당자 및 전문가 대상 면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에게 적합한 피해자 지원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포럼을 개최하였다.

II.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피해 현황 및 관련 법·제도

1.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 관련 연구

가. 아동·청소년성폭력 피해자 관련 연구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는 성인여성 피해자보다 피해후유증의 강도와

지속성 문제가 더 심각하고, 친족이 가해자인 경우 양육문제가 발생한다(이인선 외, 2014). 특히 가정과 관련한 문제를 이미 겪고 있을 확률이 높다(이미정 외, 2013) 특히 친족성폭력인 경우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고질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고, 안전 문제에 취약하기 때문에 가해자 외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광범위하고 철저한 안전 계획이 요구된다(이인선 외, 2014). 하지만 지원기관이 현실적으로 가족에 개입하기 어렵고 전문화·표준화된 가족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이 보급되어 있지 않다(이인선 외, 2014).

성인 기준으로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 과정은 아동 피해자의 진술조사를 어렵게 만들어 진술 반복 문제, 진술 신빙성 문제를 키우며 이로 인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된다(원혜옥, 2011).

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관련 연구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대다수가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적장애인은 성적으로 이용당하는지 여부나 가해자의 의도를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폭력에 취약하다.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신뢰관계자 동석을 통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 피해사실에 대해 구체적이며 일관된 진술을 하도록 도와 진술 신빙성을 높여야 한다.

2.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 발생 현황

가.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발생 현황

2014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 분석」자료(윤덕경 외, 2014)를 참조하여 현황을 살펴보았다. 아동·청소년 중 여성 피해자의 비율이 강간·강제추행·성매수·성매매강요 모든 유형에서 90% 이상이며,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일 경우보다 가족이나 친척을 포함한 지인인 경우에 범죄 지속성이 높았고, 특히 강간의 경우 68.8%가 아는 사람에 의한 것이었다.

나. 장애인 성폭력 피해 발생 현황

2013년 장애인성폭력상담소의 전체 성폭력 상담건수 중 장애인피해로 인한 것이 95.5%이며, 이 중 지적장애와 정신장애 피해자의 비중이 81.2%로 대다수인데,

특히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비율은 73.3%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전국성폭력 상담소협의회 장애상담소권역, 2013). 피해자 연령층을 보면 19세-65세 미만이 60%이고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27.7%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친족을 포함하여 평소 알고 지낸 사람의 비율이 67.6%, 이 중 장애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사, 종교인, 복지시설 종사자, 서비스 제공자인 비율이 5.3%, 채팅을 통한 피해는 7.5%로 나타났다.

3.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관련 법·제도

가. 성폭력피해자 국선변호사

성폭력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는 성폭력피해자가 수사, 재판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진술을 요청받는 등 2차 피해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 의견진술을 통한 적극적인 형사절차 참여권을 보장받도록 하는데 필요한 제도이다. 아동과 장애인성폭력피해자에게 제공되던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2013년 6월부터 모든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운용실태 면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된 국선변호사의 활동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이선경, 2014). 공판 기일 및 심문기일 통지가 누락되거나 공판기일 변경 신청 수용 불가, 의견진술권 부당 제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출석 확인 규정 부재, 공판기록 열람과 등사 불허 문제 등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기인하는 문제들이 있다.

나. 진술조력인

아동이나 장애인은 시간, 장소, 사건의 순서 및 인과 관계 대한 표현이나 이해도가 낮고 타인에 의해 진술이 오염될 가능성이 높는데, 수사 및 재판에서 이들의 특성에 맞게 조사하거나 의사소통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이 성폭력이나 아동학대범죄 피해자인 경우 이들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증개하고 보조하여 피해자 2차피해를 방지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지킬 전문인력인 진술조력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법무부, 2015).

다. 신뢰관계자 동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등에 관한 법률」에 성폭력피해자가 수사나 재판과정에 있어서 편안한 환경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신뢰

관계에 있는 자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 동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제22조의 2)을 신설하였는데(1997.8.22., 일부개정, 1998.1.1. 시행), 성폭력처벌법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청소년성보호법에는 성폭력처벌법과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다만 법 적용대상이 아동·청소년으로 제한된다.

4.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가.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아동), 해바라기센터(통합형)등이 있다. 2014년도 사회보장위원회(국무총리 주재)를 통해 기능 조정 및 명칭일원화의 결정으로 기존의 ‘해바라기아동센터’는 ‘해바라기센터(아동)’으로,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는 ‘해바라기센터(통합형)’으로 명칭을 수정하였다. 2015년도 현재 해바라기센터(아동)은 전국에 8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과 지적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다. 해바라기센터(통합)은 전국에 10개소와 거점센터 1곳이 설치되어 운영중이다(여성가족부, 2015a).

나.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규모

상담건수를 보면 성폭력상담소는 시설수가 감소했음에도 2007년 124,591건에서 2014년 146,750건, 여성긴급전화 1366은 2007년 160,899건에서 2014년 265,792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여성가족부, 2013a; 2015d). 전체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 총 예산액은 2003년 31여억원에서 2013년 232여억원으로 약 7배 정도 증가하였다(여성가족부, 2013c; 2014b).

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6조제 1항 내지 제34조제 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법률조력인 선임비용, 보복범죄 보호 장치 마련 및 민간 범죄피해자 단체 지원 등을 하고 있다.

라. 스마일센터

범죄 사건으로 인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등 심리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의학적 진단, 심리평가, 심리치료, 법률상담, 재활교육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범죄발생으로 인해 자신의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피해자를 위해 생활관 입소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¹⁾ 2015년도 현재 서울1개소와 울산을 제외한 각 광역시 1개소씩 총 6개소가 운영 중이다.

Ⅲ.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설문조사 분석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지원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상담소와 해바라기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129명이 응답하였다. 아동·청소년·장애인성폭력피해자의 경우 학교 등 교육기관이나 경찰을 통해 지원기관에 오는 비율이 높았다. 지원을 위한 대기 시간은 길지 않았으며 종사자의 이직, 후임자 구인 등 종사자의 지속적 근무 상황은 좋지 않았다.

의료·심리치료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신속한 증거 채취에 관련한 어려움과 장애인 피해자를 위한 정신과 진료 제공이 어렵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에서는 진술녹화 및 국선변호사 연결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피해자 조사에 변호사가 동석하는 비율이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모두 40% 미만 이었고 비전담인 경우 더 낮았다. 진술조력인은 아동 사례에서 27.1%가 연결이 잘 되지 않았다고 응답하고 76.8%만이 피해자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다고 응답해 개선점으로 꼽혔다.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판사의 이해도에 대해서도 아동 46.6%, 청소년 43%, 장애인 40.2%만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가족지원 및 사후 관리에 있어 가족상담 진행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 역량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높았다.

시설유형별로는 상담소보다 해바라기센터에서 전담/비전담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상담소의 경우 형사사법과정에서의 조사 및 공판에 피해자와 동석하여 지원하는 비율이 높았다. 기관 간 협조 정도에서는 전반적으로 상담소보다 해바라기센터가 협조 비율이 높았는데 특히 건강가정지원

1) 스마일센터 사이트를 참조하였다. <http://resmile.or.kr/> 접근일자 2015.10.18

센터, 사회복지기관, 검찰, 심리치료기관,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 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가 잘 되었다.

IV.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지원 사례 분석

1. 아동성폭력피해자 지원 사례 분석

아동성폭력 피해자 사례 4건을 통해 지원체계 경험을 살펴보았다.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성폭력피해를 인지하지 못하며 사춘기 초기의 아동은 또래 친구들을 상담자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보호자가 피해사실을 즉각 알기 힘들었다. 가해자는 아동의 생활 반경에서 접촉한 지인이나 가족, 친지 등 잘 알고 있던 사람인 경우가 많았다. 피해 이전에는 지원센터에 대해 알지 못했으며 아동의 피해사실을 인지한 부모들은 외부에 알리지 않고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인터넷 정보 검색으로 대응책을 찾기도 했다. 병원이나 경찰과 우선 접촉한 후 지원센터에 대해 안내받는 경우도 있었다. 연구에 참여한 4명 중 3명이 피해자지원 서비스로 많은 도움을 받았고 서비스 제공자에게 고마움을 느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아동의 안정과 부모-아동 관계 개선 측면에서 심리상담 과정에 높은 호응을 보였다. 동종 피해당사자 모임에 대한 평가와 요구가 높았다. 보호자들은 형사사법 절차로 넘어가기를 꺼리기도 하는데 가해자 처벌이 미약할 것이라는 예상, 보복의 두려움, 가해자에 대한 연민, 재판 참여에 대한 저항감 등이 이유였다.

형사사법 절차를 밟은 보호자들은 학교를 통한 신고접수, 보호자의 직접적 신고 등 다양한 경로로 경찰과 접촉하였다. 신고한 참여자 모두 경찰서가 아닌 지원센터의 진술녹화실에서 담당경찰과 함께 진술녹화를 하였다. 일시와 장소에 대해 명확히 진술하기가 힘든 아동피해자의 특성 때문에 피해자를 배려하려는 진술담당관의 노력은 전문성이 결여되어 역부족인 측면이 있었다. 진술에 신뢰관계자로 부모가 동석하기도 하였지만 진술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침묵을 지킬 것을 요구받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아동이 부모 앞에서 진술하기가 불편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뢰관계자로 지원기관의 상담자가 동석하기도 했다. 또한 별도로 아동의 진술과정을 돕는 진술조력인이 동석하기도 하였으나 일관성이 없었다.

공판에 대개 피해아동 당사자는 참석하지 않고 보호자가 참석하거나 국선변호인, 지원기관에서 참석하였다. 가해자 측은 아동의 의사표현력이 약한 약점을 노려 피해아동의 진술 신빙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측의 고통이 가중되고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재판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지원기관에서 진술녹화를 시작한 피해자들은 원활히 국선변호인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국선변호인과 대면 시점이 빠르고 변호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연락이 원활했으며 공판에 동석하는 등 적극적 법률 지원을 받은 경우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부정적

으로 평가한 피해자들은 직접적인 연락이 원활하지 못한 것, 문의 사항에 답을 주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불만사항으로 지적했다.

2. 청소년성폭력피해자 지원 사례 분석

청소년피해자들은 중고등학교 학생으로서 학교 교사나 교우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신고와 지원 절차를 밟기도 하였다. 통합지원기관에 대한 정보를 피해사실 인지 이전에 알고 있던 경우는 없었으며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음에도 피해 이후 지원기관 관련 정보를 상기하지 못했다. 피해자지원 정보를 특히 늦게 접한 사례에서 피해자는 안정을 취하지 못했으며 경찰의 부적절한 진술 조사와 지원기관에 대한 정보 미제공으로 고통이 가중되었다. 참여자들은 지원기관의 지원이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고 특히 사춘기에 있는 자녀와 보호자가 원만한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주는 심리적 지원 서비스에 만족도가 높았다. 당사자모임은 매우 한정적으로만 운영이 되어서 극소수만이 당사자모임을 통해 도움을 받았다고 회고하였으며 다른 피해자에게서는 당사자 모임을 통해서 고충을 나누고 싶다는 요구가 드러났다.

경찰 수사 과정에 있어 피해상황을 수차례 상기시키는 반복된 진술조사, 공개된 곳에서의 피해상황 진술 등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한 측면과 2차 피해에 대한 인식 부재가 드러났으며 성폭력피해의 증거 확보 노력, 피해자 안정 후 녹화를 통한 진술, 국선변호인과 진술조력인 확보 등의 과정을 적절히 수행하지 않은 사례가 보였다. 사이버 성폭력의 심각성 인지도가 낮아 담당수사관이 화해와 조정으로 종결하려 시도하고 범죄행위로 다루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피해자 측은 다양한 경로로 가해자 측의 합의 요구를 전달받았으며, 특히 가해자 가족으로부터 직접 피해자측에 연락이 간 경우 심리적으로 동요하였다. 대개의 피해자들은 공판에 출석하여 피해 과정을 상기하는 상황을 꺼려 출석하지 않았다. 출석하는 경우 범행을 부인하거나 타당하지 않은 변명을 하는 가해자의 태도에 심리적 타격과 분노를 느꼈다. 또한 가해자가 예상보다 가벼운 형을 받았을 경우엔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재피해, 피해자의 심리적 동요에 대한 염려 등으로 고통받았다.

국선변호인을 요청했으나 선임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으며 참여자의 절반 이상이 국선변호사가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사건 해결 초기부터 원활히 국선변호사와 연락이 되고 접촉이 잦은 경우, 정보 제공에 적극적이고 답변 내용이 명확한 경우, 피해자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경우에 만족도가 높았다.

국선변호인의 법률적 지원이 미흡한 경우 피해자들은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한 통합지원센터의 상담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였다.

3. 장애인성폭력피해자 지원 사례 분석

지적장애인은 성범죄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고, 피해사실을 외부로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따라서 사건에 대한 대응이 늦고, 피해자 조기 개입 및 보호가 어렵게 되는데, 특히 연령이 어릴수록 이러한 어려움이 심화되었다. 피해신고는 피해자 본인보다 보호자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가해자는 대부분 친분이 있는 권위자나 친족으로서 피해자의 취약하고 미약한 지적능력을 알고, 낮은 자기방어능력 등의 약점을 범죄와 그 은폐에 이용하였다. 가해자가 친족인 경우, 피해자의 보호자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개입 시기를 놓치거나,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지원기관으로의 접근은 피해자가 공식 지원체계로 연결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였으며, 기관의 신속한 서비스 연계능력이 피해자 보호 및 회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통합지원서비스는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건 이후의 재적응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

연계되어 있는 경찰 서비스는 조사 시작부터 사후관리까지 피해자와 보호자를 철저하게 보호함으로써 이들이 안정을 취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반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지적장애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질문으로 인해 진술이 왜곡되기도 하고, 공판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제도상의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국선변호사에 전담/비전담 여부에 따라 서비스 수행과 만족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V. 형사사법절차 등에서의 피해자 지원 현황

1.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본 형사사법과정에서의 지원 현황

가.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

장애인 성폭력상담소나 해바라기센터의 대다수가 경찰단계에서 국선변호사가 지정되어 도움을 받고 있었다.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난 반면 일반적인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해서는 전문성, 적극성, 피해자와의 소통, 수사와 재판에 참여, 지원기관과의 협업 면에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가해자 변론과의 중복성도 지적되었다.

나. 진술조력인 제도

진술조력인이 장애 특성 이해 부족과 소통능력 부족, 아동발달 특성 등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을 되지 않는 점과 3급 지적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 미배치 문제, 피해자 특성 파악에 필요한 시간과 기회 부족, 진술조력인의 전문성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신뢰 부족 문제가 드러났다.

다. 비디오 녹화진술과 신뢰관계자 동석

조사관의 임상 경력과 대상에 대한 이해 및 조사기법 등 전문성 여부에 따라 녹화 진술에 따른 만족도에 차이가 있었다. 신뢰관계자로는 국선변호사가 대개 동석하며 상담원, 교사, 가족의 동석에 대한 인식은 사례마다 차이가 많았다.

라. 기타 피해자 지원제도(상담 의료, 지역사회 전문기관 연계 등)

아동이나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 지원은 대부분 해바라기센터로 연계하고 있으며, (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해바라기센터 외에 지역의 성폭력전담 병원 또는 상담소와 연계되어 있는 병원을 통해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에는 장애진단이나 주거지원 등 생활지원과 자립지원도 해야 할 경우가 많았다. 많은 (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성폭력 장애인 피해자 발생 시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하는 전문의료기관의 부족으로 연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상담원 간의 전문성 차이 문제, 남성 피해자, 친족 피해자 및 가족을 위한 특화된 지원기관의 부재도 지적되었다.

2.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본 피해자 지원 현황

가. 의뢰인 지정 이후 국선변호사 역할

의뢰인이 지정된 이후 연락하여 면담 날짜를 잡고, 피해자 조사와 관련하여 수사관과 일정 및 피의자 조사내용에 대응하고, 검찰과는 추가조사 및 대질조사에

대해 상의하고,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접근하는 경우 조치를 취한다. 재판 일정 상 공판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재판 결과를 확인하고 검사나 판사와 증인신문 사항을 사전에 논의한다.

나. 장애인성폭력피해자 사건의 어려움

장애인성폭력 사건은 진술조사에 있어 의사소통을 위해 라포 형성이 중요하다.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및 항거곤란 상태의 장애’를 갖고 있다는 점이나 피의자의 ‘피해자 장애상태 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어 치열하게 다투게 된다.

다. 피해자 진술조사와 관련된 주요 이슈

피해자는 성폭력이라는 충격적 사건을 경험하고 형사사법과정에서 피해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하기 어렵고, 진술의 법적 의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므로, 국선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진술의 법적의미, 정확한 진술의 중요성 및 방법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속한 진술조사에 앞서 피해자의 심리적 신체적 안정을 고려해야 하며 진술오염 방지를 위해 신뢰관계자 동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라. 성폭력 사건 공판 진행에 있어서 재판부의 차이

국선변호사의 의견 진술에 대한 허용 여부 및 허용 정도가 재판부별로 상이하다. 수사 및 공판 자료 접근에 있어서도 재판부별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자료 접근으로 인한 정보의 제한은 의뢰인을 지원하는 국선변호사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서울지역보다 지방 재판부의 사건에서 아쉬운 점이 지적되었다. 법원의 성폭력전담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지속적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마. 성폭력피해자 국선변호사 운용 관련 문제

국선변호사라는 인적 자원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동·장애인·청소년 피해자 지원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의뢰인의 요청 역시 국선변호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초기에 공지할 필요가 있다. 보수 청구에 필요한 증빙자료 준비에도 애로사항이 있어 보수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VI. 정책개선 방안

1. 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관련 향후 과제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에 대한 홍보를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피해자들이 피해 발생 후 신속히 적절한 지원기관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연관된 의료지원, 수사지원, 심리치료 지원의 협력체계와, 지원기관간의 유기적 연계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민간상담소의 활성화한다. 아동·청소년·장애인 대상 성폭력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장애인을 위한 전문치료와 성폭력 피해 가족 치료를 위한 전문센터를 설립하며, 보호시설을 확충한다. 지원기관에서는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남아와 남자청소년 피해자 지원 방식을 개선한다.

2. 형사사법절차상 성폭력피해자 지원 개선 과제

피해자 국선변호사 서비스에 대한 관리 방안으로 의뢰인, 지원기관을 통한 모니터링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확대해 지원 전문성과 효과성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보수 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역량을 키운다. 진술조력인은 진술 조사 전에 피해자와 라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사전면담을 현실화하며 그 구체적인 역할을 명시한다. 또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진술조력인의 역할과 권한을 인정하도록 인식을 제고하며 조력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아동과 장애인피해자에 있어 진술조력인 지원을 의무화한다. 진술조사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전문가 서비스에 대해 피해자에게 실효성있게 전달하고, 일관성 있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역량을 키운다. 신뢰관계자 동석 여부가 피해자 진술에 중요하다. 지나치게 다양한 전문가의 진술 참여는 피해 아동·청소년·장애인에게 혼란과 당혹감을 줄 수 있어 피해자 배려에 노력해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가 어떤 유형의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하든지 유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관 전체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방법	5
가.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5
나. 성폭력 피해자 사례 인터뷰	7
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인터뷰	11
라.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전문가	12
마. 포럼 개최	13
II.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 현황 및 관련 법·제도	15
1.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 관련 연구	17
가. 아동·청소년성폭력 피해자 관련 연구	17
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관련 연구	20
2.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 발생 현황	24
가.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발생 현황	24
나. 장애인 성폭력 피해 발생 현황	27
3.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관련 법·제도	30
가.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31
나. 진술조력인	34
다. 신뢰관계자 동석	36
4.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38
가.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	38
나.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규모	46
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	50

라. 스마일센터	51
III.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설문조사 분석	53
1. 조사대상자 특성	55
2. 성폭력 피해자의 기관 이용 경로	56
3. 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 상황	60
4.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61
가.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61
나. 시설유형별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비교	67
5. 기관유형별 기관 간 협조 정도 비교	71
6. 소결	73
IV.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례 분석	75
1. 아동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례 분석	77
가.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의 접촉	77
나.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의 서비스	82
다. 형사사법기관	88
라. 국선변호인과 법률조력인	92
마. 소결	97
2. 청소년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례 분석	99
가.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의 접촉	99
나.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의 서비스	107
다. 형사사법기관	110
라. 국선변호인과 법률조력인	122
마. 소결	129
3. 장애인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례 분석	131
가.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의 접촉	131
나.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의 서비스	138

다. 형사사법기관	142
라. 국선변호인과 법률조력인	152
마. 소결	155
V. 형사사법절차 등에서의 피해자 지원 현황	157
1.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본 형사사법과정에서의 지원 현황	159
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159
나. 진술조력인 제도	168
다. 비디오 녹화진술과 신뢰관계자 동석	174
라. 기타 피해자 지원제도(상담 의료, 지역사회 전문기관 연계 등) ...	184
2.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본 피해자 지원 현황	194
가. 의뢰인 지정 이후 국선변호사 역할	195
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사건의 어려움	197
다. 피해자 진술조사와 관련된 주요 이슈	199
라. 성폭력 사건 공판 진행에 있어서 재판부의 차이	201
마.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운용 관련 문제	204
VI. 정책개선 방안	207
1.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관련 향후 과제	209
가. 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개선	209
나.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 서비스 개선	212
2. 형사사법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개선 과제	212
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개선 방안	212
나. 진술조력인 제도 개선 방안	214
다. 진술조사 및 신뢰관계자 동석 관련 개선 과제	216
라. 공평한 형사사법 지원 서비스 제공	218
마. 관련 법 개정	219

■ 참고문헌	221
■ 부 록	225
부록 1. 성폭력피해자 지원 현황 조사 설문지	227
■ Abstract	237

표 목 차

<표 I -1>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황 설문 내용	6
<표 I -2>	아동성폭력 피해자	8
<표 I -3>	청소년성폭력 피해자	8
<표 I -4>	장애인성폭력 피해자	9
<표 I -5>	성폭력 피해자 심층면접 조사 내용	10
<표 I -6>	심층면접 조사 대상	11
<표 I -7>	지원기관 종사자 심층면접 조사 내용	12
<표 I -8>	전문가 인터뷰	13
<표 I -9>	포럼 내용	13
<표 II-1>	장애인의 등급	20
<표 II-2>	범죄유형별 아동·청소년 피해자 성별	24
<표 II-3>	범죄유형별 아동·청소년 피해자 연령	25
<표 II-4>	아동·청소년 범죄유형별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 분포	25
<표 II-5>	아동·청소년 범죄유형별 피해자 장애여부	26
<표 II-6>	아동·청소년 범죄유형별 범행장소	27
<표 II-7>	성폭력 피해 장애인의 장애유형	28
<표 II-8>	장애인 성폭력 피해 피해 유형	28
<표 II-9>	성폭력 피해 장애인 및 가해자의 연령	29
<표 II-10>	장애인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29
<표 II-11>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형사절차 지원관련법 제·개정 현황(2010~2014년)	36
<표 II-12>	해바라기센터(아동)의 사업 내용	41
<표 II-13>	해바라기센터(통합형)의 사업내용	43
<표 II-14>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수 및 운영실적	46
<표 II-15>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 예산액	48

<표 II-16> 연도별 범죄피해구조금 지급현황	51
<표 III-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55
<표 III-2>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기관 이용 경로	56
<표 III-3>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 상황	60
<표 III-4>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의료·심리치료 서비스	61
<표 III-5>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형사사법 서비스	64
<표 III-6>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가족지원 등 서비스	66
<표 III-7> 기관유형별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서비스 만족도 비교	68
<표 III-8> 기관유형별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비교	69
<표 III-9> 기관유형별 기관 간 협조 정도 비교	71

그림 목 차

[그림 II-1] 여성긴급전화 1366 서비스 제공 체계	40
[그림 II-2] 해바라기센터(아동)의 조직도(표준안)	42
[그림 II-3] 해바라기센터(통합형)의 조직도(표준안)	45
[그림 II-4]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수	47
[그림 II-5]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 예산액	49
[그림 II-6] 스마일센터 조직도	52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방법	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자기방어 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장애인은 성폭력 위협에 취약하다.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정책적 관심 증대로 최근 다양한 법제도와 서비스가 도입되었다. 피해자 지원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법률이 꾸준히 개선되었는데도, 고소 사건의 25% 사례에서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이미경, 2012).¹⁾ 피해 청소년이 공개된 검사실 조사에서 수치심을 느끼고, 증인 심문 과정에서 과거의 성경험을 추궁당하고, 법정에서 피해 동영상을 보게 하는 검사 측 요구로 큰 상처를 받기도 한다(이미정 외, 2013). 피해자 지원서비스의 질이 기관별로 상이하여, 제공되는 정보나 서비스 내용과 질에 차이가 있다(이미정 외, 2013).

2012년 서울해바라기센터 자료에 의하면 아동성폭력 형사소송 과정의 현실적 어려움을 인식하고 고소하지 않는 비율은 47.9%에 달하였다(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2012). 2011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1년 9월부터 피해자 법률조력인제도가 신설되어, 이러한 성폭력피해자의 고충에 대응하고 있다.²⁾³⁾

이와 더불어 성폭력 피해아동 및 장애인에게 수사·재판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보조하는 진술조력인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
- 1)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장애인은 가해자 존재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피고 측의 반복 질문으로 혼란스러워하기에 이들 특성에 부합하는 조사와 신문 방식이 필요하다(이미경, 2012).
 - 2) 법률조력인 서비스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실시되다가, 2013년 6월 이후에는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게로 확대되었다.
 - 3) 서울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 의하면 2012년과 2013년 기간 동안 국선변호사 참여는 약 3배, 진술조사전문가 참여는 1.5배 증가하였다(서울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2013). 제도 시행 초기인 2013년 국선변호인 제도 조사에 따르면, 동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3년 2월 기준 3,367명이 지원을 받았고 이용자 중 만족하는 비율이 47.5%, 불만족 30.9%에 달하고 있다(백미순 외, 2013). 불만 사항은 법률조력인과 연락이 어렵고, 형사사법 절차에 대해 충분한 설명 제공이 부족하며, 법률조력인의 적극적 역할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다(백미순 외, 2013).

4 ●●●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황 및 정책개선 방안

관한 특례법' 개정⁴⁾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 신체적·정신적 장애인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 피해자의 수사·재판을 돕기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가 2013년 12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로 응급지원 단계 및 형사사법 과정에 의료, 상담치료, 법률지원 서비스 제도가 크게 개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응급지원 단계, 형사사법 과정, 사후관리 단계에서 아동·청소년·장애인 지원에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지원 현황을 조사하여 문제점을 검토하려고 한다. 특별히 최근 도입된 법률조력인 및 진술조력인 제도와 이전부터 활용되던 진술분석전문가 제도에 집중하여 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의 해바라기아동센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원스톱지원센터, 장애인성폭력상담소, 민간단체 운영 성폭력상담소 종사자를 면담하여 피해자 지원 현황 및 어려움을 파악하고 최근에 도입된 법률조력인과 진술조력인의 역할에 대해서도 조사하려고 한다. 법률조력인 및 진술조력인의 형사사법 과정에서의 역할과 한계를 검토하려고 한다. 이외,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종사자 및 전문가와의 업무협조 현황을 파악하려고 한다. 둘째, 형사사법 과정에 참여하는 법률조력인, 진술조력인 등 전문가 면담을 통해서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제도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한다. 셋째,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각 단계에서 경험하는 피해자 지원서비스 이용 경험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한다. 법률조력인, 진술조력인,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및 전문가의 업무 협조 현황 파악과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어 자기방어 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및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4) 효과적 지원을 위해서 진술조력인은 아동·장애인과 라포를 형성하고 이들의 특성을 이해해야 하는데, 진술조사 시점에 첫 대면하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역할 수행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다수의 진술분석전문가가 진술조력인으로 일하고 있어, 진술조력인의 역할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토가 필요하다.

2. 연구방법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황을 적절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피해자가 지원받은 경험,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경험, 국선변호사의 피해자 지원 경험에 대한 심층적인 자료 수집이 필요하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황과 관련된 심층적 자료 수집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전국 성폭력상담소와 해바라기센터 대상 설문조사 실시, 둘째,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실시, 셋째, 성폭력상담소, 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기관 관리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실시, 넷째, 국선변호사 대상 인터뷰 실시, 마지막으로 경찰청, 법무부, 스마일센터의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담당자 및 전문가 대상 면담을 실시하였다.

가.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1) 조사대상 및 방법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의 피해자 지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초안을 성폭력상담소 및 해바라기센터 전문가 5명에게 발송하여 서면자문을 받았고 이를 토대로 수정하여 설문지 최종본을 만들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및 해바라기센터에 설문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이메일로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조사대상은 전국 성폭력상담소, 장애인성폭력상담소, 통합상담소, 해바라기센터 관리자 및 종사자이다.

설문조사는 2015년 9월 15일부터 10월 9일 기간 동안 실시하였다.⁵⁾ 설문 대상 기관인 성폭력상담소, 장애인성폭력상담소, 통합상담소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회원 124개소를 대상으로 소장 외 1인(각 상담소 2부) 설문지

5)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모집단은 해바라기센터의 경우 전국 34개 센터인데,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응답 협조공문을 발송하였다. 민간상담소의 경우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회원기관 상담소가 모집단인데,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본 연구원의 요청으로 설문협조 공문을 발송하였다.

6 ●●●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황 및 정책개선 방안

응답을 요청하였으며, 해바라기센터는 전국 34개소를 대상으로 부소장 외 2인(각 센터 3부) 설문지 응답을 요청하였다. 설문지 응답은 상담소(성폭력 상담소, 장애인성폭력상담소, 통합상담소)가 77명, 해바라기센터(아동형, 위 기지원형, 통합형)가 52명으로 총 129명이 응답하였다.

2) 조사내용

기관의 특성과 업무 내용을 고려하여 지난 1년간 기관에서 수행한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황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표 I -1> 참조).

<표 I -1>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황 설문 내용

영역			질문 항목
기관 이용 경로			피해자 유형별(아동·청소년·장애인) 본인이 직접 내방, 보호자 동행, 지인 소개, 기관이 피해자 발굴, 교육기관 연계, 경찰 연계, 검찰 연계, 병원 연계, 보호시설 및 상담·복지기관 연계, 건강지원센터 연계, 해바라기센터 연계, 상담소 연계, 범죄피해자센터 및 스마일센터 연계, 지역아동센터 연계,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여성긴급전화 1366 연계
서비스 지원 애로사항	기관 상황		피해자 서비스 대기 시간, 공간 여건, 종사자의 높은 이직율, 종사자 채용의 어려움
	서비스 지원 현황	의료·심리치료 서비스	신속한 증거채취 및 증거채취 지원의 어려움, 신속한 산부인과 진료 제공 및 지원의 어려움, 신체외상 진료 제공 및 지원의 어려움, 정신과 진료 제공 및 지원의 어려움, 심리치료·상담치료 제공 및 지원의 어려움
		형사사법 서비스	진술 녹화 지원 어려움,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연결의 어려움,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및 비전담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조사시 동행,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및 비전담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피해자 지원 만족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및 비전담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성폭력 이해도, 진술조력인의 피해자 지원 만족도, 진술조력인의 성폭력 이해도, 지원한 사례의 진술녹화 범정 증거 채택, 경찰의 성폭력 이해도, 검찰의 성폭력 이해도, 수사과정 동행 지원, 재판과정 동행 지원, 판사의 성폭력 이해도
		가족지원 등 서비스	가족상담 진행 어려움, 보호자의 심리치료·치료회복프로그램 거부, 피해자 보호 역량 부족 가족, 거주지 방문 서비스 제공,

영역			질문 항목
			사후관리, 사례관리 제공
유관기관 간 연계			해바라기센터(아동), 해바라기센터(통합형), 해바라기센터(위기형), 성폭력 피해상담소, 장애인성폭력 피해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쉼터, 장애인성폭력 피해자 쉼터, 산부인과 외과 등 전문의료기관, 정신과 및 심리평가·심리치료 관련 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검찰, 지자체 공무원, 학교, 지역아동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기관, 여성긴급전화 1366,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나. 성폭력 피해자 사례 인터뷰

1) 조사대상 및 과정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피해자 및 보호자 대상으로 인터뷰를 4월 15일부터 10월 6일까지 실시하였다. 성폭력상담소, 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를 통하여 피면접자를 섭외하였다. 이들 기관을 통해 지원 받은 아동·청소년·장애인피해자를 소개받아 피해 당사자나 보호자를 면접하였다.⁶⁾

피해자 및 그 보호자의 사례는 서울, 충남, 전북, 경북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걸쳐 성폭력상담소, 장애인성폭력상담소, 통합상담소, 해바라기센터의 운영자에게 조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피면접자 섭외를 부탁하였다. 피면접자를 소개 받은 후에는 전화 통화로 조사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면접일시를 정하였다. 정한 일자에 면접 시작 전에 익명성 보장과 조사 목적을 대면 설명 후 서면으로 인터뷰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면접 진행 중 원치 않으면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면접은 피해자가 피해 당시 상황에서 시작하여 사건 전후 상황을 진술하고, 면접자는 중간에 연구 취지에 적합한 질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

6)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것이지만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터뷰 대상자 대부분이 피해자의 보호자이다. 보호자가 피해자 지원과정 및 문제점에 대해 당사자를 대신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시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와 보호자의 입장이 상이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은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8 ●●●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황 및 정책개선 방안

였다. 면접은 면접자 1명과 피면접자 1명이 1시간에서 2시간에 걸쳐 1회씩 진행하였으며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피해당사자인 장애인과 보호자가 피면접자가 되어 면접자 1명과 피면접자 2명으로 진행하였다. 피면접자의 동의를 받고 녹음한 후 채록하였다.⁷⁾

<표 I-2> 아동성폭력 피해자

사례 번호	인터뷰	피해자 성별	연령	피해 연령	피해유형	피해 장소	가해자	고소 여부
	대상							
C-1	어머니	여	만13세	만12세	강간	피해자 집	이복 오빠	고소
C-2	어머니	여	만10세	만7세 ~만9세	추행	가해자 집	사촌 오빠	고소 안함
C-3	어머니	여	만10세	만8세 ~만9세	추행	학원	학원 원장	고소
C-4	위탁모	여	만12세 (추정)	만8세 (추정)	강간	중국-북한 접경지대 아동 보호소	보호소 운영자	고소

<표 I-3> 청소년성폭력 피해자

사례 번호	인터뷰	피해자 성별	연령	피해 연령	피해유형	피해 장소	가해자	고소 여부
	대상							
A-1	어머니	여	만16세	만12세 ~만15세	강간	피해자 집	친부	고소
A-2	어머니	여	만16세	만16세	강간	친척 집	친족의 동거남	고소
A-3	어머니	여	만14세	만13세	강간미수 폭행	동네 외진 곳	동네 주민	고소
A-4	어머니	여	만15세	만14세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채팅	고소

7) 인용은 피면접자가 진술한 내용을 연구진이 임의로 변경하지 않고 비문까지 그대로 인용하되 관련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이나 길게 중복되는 내용이 나오는 부분은 중략하였다. 피해자 관련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성명이나 지명, 단체명은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피면접자의 구분을 위해 사례번호를 부여하였다.

사례 번호	인터뷰	피해자 성별	연령	피해 연령	피해유형	피해 장소	가해자	고소 여부
	대상							
					음란물소지 강요행위	(채팅)	상대 (성인)	
A-5	아버지	여	만16세	만16세	강간	노래방	소개팅 상대 (청소년)	기소 실패 (화간)
A-6	피해자	여	만18세	만14세 ~만17세	성추행(여동생 도 같은 피해) 강간	집	오빠 (청소년~ 성인)	고소

<표 I-4> 장애인성폭력 피해자

사례 번호	인터뷰	피해자 성별	연령	장애 유형	피해 연령	피해 유형	피해 장소	가해자	고소 여부
	대상								
D-1	어머니	여	만8세	지적장애 3급	만6세 ~만8세	성추행	학원	학원 강사	고소
D-2	언니	여	성인	지적장애 3급	만42세	성추행 강간	자활 작업장	작업장 지도인 (비장애)	고소
D-3	어머니	여	만22세	지적장애 2급	만20세	2건 1.강간 2.강간	모텔	1.친구 2.친구	고소 2건
	피해자								
D-4	어머니	여	만20세	지적장애 2급	만20세	성추행 (언니도 같은 피해)	친척 집	백부	고소
	피해자								

사례는 모두 14건이고 피면접자는 모두 16명이다. 아동피해자의 보호자 4명, 청소년피해자 보호자 5명과 피해당사자 1명, 장애인피해자 보호자 4명과 피해당사자 2명이다. 사례번호는 기호와 숫자의 조합으로 부여했으며 아동피해 사례는 C, 청소년 피해 사례는 A, 장애인 피해 사례는 D로 구분하였다.

2) 조사내용

심층면접의 내용은 성폭력 피해자가 겪은 피해 내용과 보호자의 인지 시점, 피해자 지원기관에 접촉하기까지의 경로, 지원기관 이용 경험, 경찰 수사 관련 경험, 검찰 조사와 재판 단계에서의 경험 및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걸친 국선변호사의 지원이 어땠는지 파악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표 I-5> 성폭력 피해자 심층면접 조사 내용

구분	내용
피해 상황 및 피해 인지	-피해 당시 상황, 피해 내용 -보호자의 피해 인지 시점, 경로 -주변의 배려 혹은 주변으로부터의 피해
피해자 지원기관 경험	-지원기관에 접촉하기까지의 지연과 이유 -피해자지원기관을 찾는 수단과 접촉 경로 -지원 신청 단계에서의 어려움 -지원받은 서비스의 종류(의료/형사사법절차/심리상담) -타 기관과의 연계 여부 -지원받은 서비스에 대한 의견 및 만족도
경찰 수사 관련 경험	-경찰 신고 여부(미신고시 이유) -신고 후 사건 접수 단계에서 경찰 대응 -피해자 진술 횟수 -첫 진술 장소(경찰인지 지원기관인지) 및 진술녹화 여부 -진술녹화시의 어려움 및 신뢰관계자, 조력인 동석 여부
검찰 조사 단계	-검사의 피해자 이해와 배려 정도 -기소 여부 및 불기소 시 이유 -보호자에 대한 사건 설명 등 태도
재판 단계	-가해자 측 변호사의 부적절한 공격 여부 -판사의 대응 -재판 결과와 항소 여부 -재판 참석 여부와 불참 시 이유 및 참석자가 누구인지
국선변호인	-국선변호인 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은 시점 -국선변호인과 연락이 수월했는지 -진술녹화/경찰수사/검찰조사/재판에 참석했는지 -피해자 문의 내용과 변호인 답변 과정 및 내용 -만난 횟수와 과정 -서비스 만족도 -불만족시 이유

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인터뷰

1) 조사대상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 아동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장애인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황에 대한 파악이 미진한 현실을 고려하여 본 지원기관 종사자 인터뷰에서는 장애인성폭력상담소의 비중을 높였다.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는 전문가 중 다년간의 경력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소장 및 부소장 등 16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여건이 서울 등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여건이 열악한 것을 고려하여 피면접자를 전국적으로 골고루 섭외하려고 노력하였다.

대상자 선정 후 먼저 전화 통화를 통해 조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 기간은 2015년 7월~8월 2개월간이며 조사 방법은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가능한 일대일로 진행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동시에 2명을 면접 진행하기도 하였다. 피면접자 동의하에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였고, 추후 녹취록을 작성하여 활용하였다.

<표 I-6> 심층면접 조사 대상

사례 번호	지역	기관	사례 번호	성별	기관
A	서울, 경기권	성폭력 상담소	I	경상권	성폭력 상담소
B		성폭력 상담소	J		성폭력 상담소
C		성폭력 상담소	K		성폭력 상담소
D	충남권	성폭력 상담소	L	전라권	성폭력 상담소
E	경상권	성폭력 상담소	M	서울, 경기권	성폭력상담소
F	충남권	성폭력 상담소	N		해바라기센터
G		성폭력 상담소	O		해바라기센터
H	전남권	성폭력 상담소	P		해바라기센터

2) 조사 내용

심층면접의 내용은 피해자 지원 제도 중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진술조력인 제도, 비디오 녹화 진술 및 신뢰관계자 동석, 의료 및 상담 지원 등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표 1-7> 지원기관 종사자 심층면접 조사 내용

구분	내용
국선변호사 제도	활용정도 및 대상, 활용 효과,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전문성, 제도에 대한 만족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진술조력인 제도	활용정도 및 대상, 활용 효과, 진술조력인의 전문성, 제도에 대한 만족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비디오 녹화 진술과 신뢰관계 동석	활용정도 및 대상, 진술이 이루어진 장소, 경찰(검찰)의 전문성, 제도에 대한 만족도, 활용 효과, 신뢰관계자 동석에 대한 조사관의 태도, 신뢰관계자 동석인 범위, 신뢰관계자 동석에 대한 만족도 등
기타	의료지원, 상담지원, 심리치료지원, 교육, 지역사회 전문기관 연계 등

라.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전문가

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는 형사사법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던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획기적인 변화이다. 해당 제도의 도입 취지 및 운용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관련 전문가에 대한 인터뷰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면담 내용 중 2인의 국선변호사와 스마일센터장과의 인터뷰 내용은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다. 국선변호사는 2인의 인터뷰 내용은 LAW-1과 LAW-2, 스마일센터장은 SML-1로 표시하여 인용하고 있다.⁸⁾

8) 활발하게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활동을 하는 분을 소개받았고 진술조력인은 해당 분야 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분이였다.

<표 I-8> 전문가 인터뷰

일시 및 장소	인터뷰 대상 및 내용
2015. 6. 5. (금) 13:00 교대역 인근	-피해자 국선번호사 2인 면담 -국선번호사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인터뷰 내용 인용 LAW-1 LAW-2
2015. 9. 24. (목) 10:00 경찰청 성폭력대책과	-진술분석전문가 담당 면담 -진술분석전문가 제도 및 운용 관련
2015. 9. 24. (목) 14:00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피해자 국선번호사 담당 면담 -피해자 국선번호사 제도 및 운용 관련
2015. 9. 24. (목) 15:30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진술조력인 담당 면담 -진술조력인 제도 및 운용 관련
2015. 9. 25. (금) 15:30 서울 스마일센터	-스마일센터장 면담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진술조사제도 관련 -인터뷰 내용 인용 SML-1

마. 포럼 개최

장애인성폭력 피해자 대다수가 지적장애인이다.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에게 적합한 피해자 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포럼을 개최하였다.

<표 I-9> 포럼 내용

일시 및 장소	포럼 내용
2015. 2. 17. (화) 15:0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4층 회의실	-주 제 : 지적장애인 성폭력특성과 피해자 관점의 의미 -발표자 : 이현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 -토론자 : 민병윤,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

Ⅱ.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 현황 및 관련 법·제도

1.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 관련 연구	Ⅰ
2.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 발생 현황	Ⅱ
3.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관련 법·제도	Ⅲ
4.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Ⅳ

1.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 관련 연구

가. 아동·청소년성폭력 피해자 관련 연구

피해자 지원기관이나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은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가 당면한 복합적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성인여성 피해자와 다른 특화된 서비스가 필요하다. 가족개입의 필요성이 훨씬 크며, 피해후유증의 강도와 지속성 문제가 더 심각하고, 친족이 가해자인 경우 양육문제가 발생한다(이인선 외, 2014: 184-185).

아동·청소년이 보호자와 형성한 애착정도나 신뢰관계는 성폭력을 예방하는 보호요인이 될 수 있는데(이유진 외, 2012: 26), 피해 아동·청소년은 성폭력 사건 이전에 가정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확률이 높는데, 종종 성폭력 문제와 더불어 소원한 가족관계, 경제적 어려움, 가정폭력 피해, 어머니의 자녀보호 능력 미약이 위험요인으로 파악되기도 한다(이미정 외, 2013).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도 가족의 도움 없이 지원기관의 통합적 서비스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당사자뿐 아니라 가정과 관련된 문제를 복합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이유진 외, 2012: 193). 특히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가족에 있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고질적인 문제들이 나타나고 안전 문제에 취약하기 때문에 가해자 외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광범위하고 철저한 안전 계획이 요구된다(이인선 외, 2014: 59). 비교적 화목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가족의 경우에도 자녀의 성폭력 피해 사실이 주는 충격과 그로 인한 보호자들의 잠재된 갈등 악화, 피해 사실이 외부로 노출되는 데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등 가족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 있다(이인선 외, 2014: 60-61). 하지만 지원기관 종사자들은 현실적으로 가족에 개입할 필요가 있을 때도 기관이 접근하기 어렵다고 보고하고, 전문화된 가족 상담·치료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이인선 외, 2014: 137-138).

피해자들은 때로 성폭력 피해 후유증으로 심리적 위축, 우울감, 불안감, 불면증, 자기조절의 어려움, 자해, 자살생각, 두려움, 분노, 관계 부적응을 경험하는데,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학교와 교사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지

만 학교 관계자가 피해자의 피해 후유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적응이 힘들 수 있고 학업을 중단하기도 한다(이미정 외, 2013). 성인 피해자들은 피해 이후 성기능과 성활동 감소를 보이지만 아동기나 청소년기 성폭력 피해자들은 성적인 활동에 있어 혼란스럽고 과잉된 성활동을 보이며 이런 이유로 반복해서 성폭력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권희경·장재홍, 2003: 36) 그러므로 피해자 지원기관이 피해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전반을 고루 사정하고 학교 및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이인선 외, 2014: 61).

「2013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 동향분석」에서도 7세 이하 유아의 경우에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33.3%, 친인척에 의한 피해가 16.7%에 달했고 8세 이상~13세 이하의 피해자 중 70%가 친족이나 친인척이 가해자였다(이인선 외, 2014: 13).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에 있어서는 대다수가 면식범이며 39.3%가 근친에 의한 친족성폭력이었다(한정수 외, 2015: 180).

친족성폭력은 아동기부터 장기간 지속되어 청소년기에 드러나는데 그 이전까지 가족의 다른 구성원들은 사건을 축소하거나 부인하면서 가족 외부로 사건이 노출되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외부 지원은 물론이고 가족 내에서도 지지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다(이미정 외, 2013). 그 유형으로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가해자로서 처벌을 받게 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것을 염려한 어머니가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하는 경우, 가해자가 남자 형제일 때 가족의 해체나 아들의 장래를 염려해 부모가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거나 행동을 비난하는 경우, 형사사법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피해 자녀에게 가해자를 위한 탄원서를 쓰도록 강요하는 경우 등이 있다(이유진 외, 2012: 194).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탄원서가 현재처럼 감형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법적 효력을 없애야 한다는 견해도 나타났다(이유진 외, 2012: 189). 친족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은 가족의 비난, 회유, 협박으로 죄책감과 분노를 경험하다, 가족의 와해를 두려워하여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 노출 초기부터 종결까지 통합적 사례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 범죄에 있어 피해아동의 진술이 중요한 유죄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절차에서 피해아동의 진술과 증언의 신빙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행하게 되는데 형사절차상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방안이 충분히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아동이 정신적·심리적 피해를 받아 진술이 번복될 위험도 발생하며 이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한다(원혜옥, 2011: 10). 수사 과정에서 잦은 소환, 중복질문 등은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다(원혜옥, 2011).

아동 피해자는 자기 방어능력이 부족하며 수사나 공판과정에서 이들의 증언이나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에, 가족구성원, 신뢰할 수 있는 자,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원혜옥, 2011; 정진수, 2000). 아동 피해자를 조사할 때 아동의 언어 구사에 대한 이해, 아동조사 기법에 대해 훈련받은 전문가가 담당해야 한다(황만성, 2004). 또한 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언어능력, 인지능력, 정서상태, 아동의 가족 및 생활환경에 대한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가해자의 영향력 하에 있는 아동은 두려움에 학대나 폭력을 자책하거나 가해자를 두둔하려는 경향을 보이는데, 아동조사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정진수, 2000: 20).

성인 기준으로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은 진술 반복과 대질신문으로 과거의 고통을 재연해야 하고, 이 고통스러운 과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 받게 되어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가해자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거나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원혜옥, 2011: 2-3).

가해자의 처벌과 개입 문제에 있어서는, 2010년 이후 아동대상 성범죄에 대해서 중형주의 정책을 실현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10%에 못 미치는 신고율, 40%에 불과한 기소율, 36%를 겨우 넘는 구속률 등 대부분 가해자는 형사사법 절차를 빠져나가고 있다(원혜옥, 2011, 2). 유죄 판결은 받은 가해자도,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에 있으나 친족성범죄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등 가해자의 특성에 따른 교육이 미비했다(이인선 외, 2014: 153-154).

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관련 연구

기존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다수가 지적장애인데, 2013년 전국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상담통계 자료에 의하면 지적장애피해자 비율이 73.3%, 정신장애 7.9%, 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 등 신체적 장애피해자의 비율은 14.3%로 나타났다(전국성폭력상담소 협의회 장애상담소 권역, 2013). 성폭력 피해자 대다수를 구성하는 지적장애인을 중심으로 이들의 정의 및 특성 등에 대해서 살펴보자.

1) 장애인의 정의

<표 II-1> 장애인의 등급

지 적 장 애 인	제1급	지능지수가 35 미만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평생동안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제2급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제3급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자 폐 성 장 애 인	제1급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제2급	ICD-10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제3급	제2급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지수가 71 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하여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 신 장 애 인	제1급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나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정신병을 진단받은 지 1년 이상 지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2. 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한 증상기(症狀期)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3. 반복성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의욕 및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이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4.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제2급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과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 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2. 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있는 증상이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3. 만성적인 반복성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의욕 및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이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4. 만성적인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제3급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 아니하지만, 증상이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반복성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이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⁹⁾, 2015.10.12 접근.

장애인중 성폭력피해자 대다수가 지적 장애인인 점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 제343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제시된 관련 부분을 살펴보자. 지능지수 50-70이하로 교육을 통한 재활이 가능한 경우 지적 장애 3급, 지능지수 35-50미만이며 지도 감독 하에 숙련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작업이 가능한 경우 지적장애 2급, 지능지수 35미만이며 일상생활과 작업에 있어 판단

9)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 등)의 [별표 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이 힘들고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지적장애 1급으로 판정한다(<표 II-1> 참조).

2) 장애인 성폭력피해자의 특성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대다수가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기에 앞서 지적장애인의 특성에 대해서 검토해보겠다. 이성과의 교류 및 성적행동과 관련된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보면 성에 대한 정보와 주의력과 기억력이 부족하며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있어 미숙한 점이 있고 또래와 함께 하기보다 혼자 지내는 경향이 있고, 가해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여 성적으로 이용당하거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김한정·박용숙, 2003: 51; 배화옥, 2012; 이현혜, 2008).¹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장애인은 반복해서 학대를 당하거나, 피해 이후 자기보호에 어려움이 많다(배화옥, 2012; 이현혜, 2008). 장애인 특성에 대한 이해 및 전문상담원 부족으로 성폭력 피해 여성 장애인 지원에 어려움 많고, 장애인 주변인의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피해자와의 의사소통이 어렵다(이현혜, 2008). 2008년 전국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를 당한 성인장애인 비율은 3.6%인데, 가해자는 모르는 사람 35.5%, 학교 시설 관계자 31.8%, 친척 및 가족 13.6%로 나타났다(배화옥, 2012). 피해에 대한 대응으로 무시하거나 참은 비율이 67.6%로 높고 진정·고발 조치를 취하는 것은 5%에 불과하고, 성폭력 피해 경험을 상담하지 않은 이유는 ‘타인에게 알리기 싫어서’가 61.6%로 나타났다(배화옥, 2012).

장애여성의 경우 자신이 당한 성폭력 피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이들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김정혜, 2010).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부족이 문제가 되는데, 언어구사 능력의 한계를 고려하여 이들의 신체언어가 담긴 진술 장면을

10) 그런데, 일반인의 편견과 달리 지적장애인의 성적발달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김은주, 2000).

녹화영상으로 기록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김정혜, 2010).

3) 외국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연구

미국에서 장애아동이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오랫동안 일화로 언급되다가, 체계적인 연구는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 관심을 받기 시작했는데, 장애인 대상으로 발생하는 범죄 중 가장 빈번한 것이 성폭력이다(Sobsey, 1994: 52, 87). 장애아동과 장애인은 특히 성학대(sexual abuse)나 성폭력(sexual assault)을 당할 위험이 높으며, 피해를 당했을 경우 심각하고 만성적인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215명 장애인 학대에 대한 앨버타(Alberta) 대학 연구에 의하면 가해자의 집단은 장애인 서비스 제공자(유급직원이나 자원봉사자), 이웃이나 지인, 가족구성원, 동료 장애인이다(Sobsey, 1994: 71, 75). 가해자의 48.1%는 장애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데, 가해자 중 장애인 서비스 제공자가 2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낯선 사람인 경우는 6.6%에 불과하다(Sobsey, 1994: 76).¹¹⁾ 앨버타(Alberta) 대학 연구에 의하면 39.1%가 신고하지 않음, 37.2% 신고 되었으나 고소되지 않음, 14% 무죄판결 받음, 7.9% 유죄판결 받음, 1.9% 미확인으로 나타났다(Sobsey, 1994: 79).¹²⁾

장애가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직접적 원인이 이들의 취약성 때문이라고 생각하데, 웨스트콧(Westcott)은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모두 사회적 권력 관계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Westcott, 1993: 43). 장애인이 성폭력 위험에 더 취약한 이유는 장애 자체가 문제이기 보다 장애에 대한 사회의 대응과 더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고 지적한다(Sobsey, 1994: 87).

11) 가해자를 더 구체적으로 보면 친가족 15.6%, 위탁양육 가정구성원 5.8%, 계부모 2.5%, 이웃 및 지인 16.5%, 동료장애인 9.1%, 운전서비스 제공자 5.3%, 일반 서비스 제공자(generic service provider)가 7.4%이다(Sobsey, 1994).

12) 피해자의 74%는 정신지체, 14.9%는 청각장애, 37%는 복합적 장애를 갖고 있다(Sobsey, 1994).

2.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 발생 현황

가.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발생 현황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발생 현황을 보여주기 위해 2014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동향 분석」자료(윤덕경 외, 2014)를 참고하여 제시하려고 한다.¹³⁾ <표 II-2>는 범죄유형별 아동·청소년 피해자 성별을 보면 예상했던 대로 다수가 여자인데, 강제추행의 경우 남아의 비중이 8.8%에 달하고 있다. 범죄유형별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연령분포가 <표 II-3>에 제시되어 있다. 강간 피해자 분포를 보면 13세-15세의 비율이 가장 높아 42.1%이고 그 다음이 16세 이상으로 41.1%이다. 피해자 중 초등학교생 연령층인 7세-12세의 비율도 16.5%에 달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강제추행 피해자를 보면 16세 이상의 비율이 34.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7세-12세 31.1%, 13세-15세 29.2%이다. 강제추행 피해자 중 12세 이하 유아 및 아동의 비율은 36%로 전체 3분의 1을 넘고 있다. 성매수와 성매매 강요 피해자 중에는 13세-15세의 비율이 가장 높아 각각 50%, 62.6%로 나타났다.

<표 II-2> 범죄유형별 아동·청소년 피해자 성별

(단위: 명, %)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매강요
여 자	100.0	91.2%	92.4%	96.3%
남 자	0.0%	8.8%	1.1%	0.0%
미 상	0.0%	0.0%	6.5%	3.7%
합계	100% (856)	100% (1,753)	100% (184)	100% (107)

자료: 윤덕경 외(2014),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p.38 <표 II-18>를 토대로 재구성하였음.

13)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와 관련하여 소개되는 내용은 2014년 윤덕경 외 보고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분석」을 참고하였다. 보고서에 제시된 표를 재구성하였고, 각 표에 자료의 출처를 밝히고, 이들 표를 토대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표 II-3> 범죄유형별 아동·청소년 피해자 연령

(단위: 명, %)

피해자 연령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매강요
6세 이하	0.4%	4.9%	0.0%	0.0%
7세-12세	16.5%	31.1%	6.5%	2.8%
13세-15세	42.1%	29.2%	50.0%	62.6%
16세 이상	41.1%	34.6%	42.9%	34.6%
미 상	0.0%	0.2%	0.5%	0.0%
합계	100% (856)	100% (1,753)	100% (184)	100% (107)

자료: 윤덕경 외(2014), p.39 <표 II-19>를 토대로 재구성하였음.

표로 자료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별 범행 지속 형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회성 가해는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일 경우, 아는 사람인 경우, 가족·친족이 각각 94.4%, 63.7%, 27.8%인데 반해 지속적 가해인 경우 모르는 사람이 5.5%, 아는 사람이 36.2%, 가족·친족이 71.2%였다(윤덕경 외, 2014: 46). 아동·청소년의 경우 가족·친족에 의한 가해의 피해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II-4> 아동·청소년 범죄유형별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 분포

(단위: 명, %)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매강요
전혀 모르는 사람	24.6%	55.8%	13.6%	9.3%
아는 사람	51.4%	31.7%	63.6%	43.9%
가족 및 친척	17.4%	9.5%	0.0%	0.0%
미 상	6.5%	2.9%	22.8%	46.7%
합계	100% (856)	100% (1,753)	100% (184)	100% (107)

자료: 윤덕경 외(2014), pp.42-43 <표 II-24>를 토대로 재구성하였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유형별로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에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위의 <표 II-4>를 보면서 범죄유형별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의 분포 차이를 살펴보자. 강간의 경우 남자친구, 학교 선후배, 이웃, 안면 있는 사람,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을 포괄하는 “아는 사람”에 의한 것이 절반을 넘는 51.4%이다(<표 II-4>참조). 가족·친척도 “낯선 사람이 아닌 아는 사람” 범주에 포함되므로 강간 피해의 68.8%가 아는 사람에 의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강제추행의 경우는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에 의한 비율이 55.8%를 차지하고, 성매수와 성매매강요의 경우 “아는 사람”에 의한 비율이 각각 63.6%, 43.9%로 나타난다. 성매수의 경우 60.3%가 인터넷채팅을 통해 안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이다.

<표 II-5> 아동·청소년 범죄유형별 피해자 장애여부

(단위: 명, %)

피해자 장애여부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매강요
장애없음	89.6%	97.1%	92.4%	96.3%
신체장애	0.5%	0.1%	0.5%	0.0%
지적장애	9.8%	2.7%	0.5%	0.0%
신체+지적장애	0.1%	0.1%	0.0%	0.0%
미 상	0.0%	0.0%	6.5%	3.7%
합계	100% (856)	100% (1,753)	100% (184)	100% (107)

자료: 윤덕경 외(2014), pp.40 <표 II-22>를 토대로 재구성하였음.

위에 <표 II-5>에 제시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범죄유형별 피해자 장애여부를 살펴보자. 범죄 유형 중 강간의 경우 장애인 피해자의 비율이 가장 높아 10.4%에 달한다. 장애피해자 중에는 지적 장애자의 비율이 높아 9.9%에 달하여, 지적장애자가 성범죄, 특히 강간에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사건의 경우 2명 이상의 피해자가 연루된 경우가 8.9%이고, 강제추행은 16.5%로 나타났다(윤덕경 외, 2014: 44).

<표 II-6> 아동·청소년 범죄유형별 범행장소

(단위: 명, %)

피해 장소	강간	강제추행
피해자의 집	13.6%	7.8%
가해자의 집	16.7%	8.7%
여타 거주지 및 폐가	19.3%	8.6%
주택가 및 이면도로	3.3%	8.8%
학 교	0.9%	4.8%
주차장	1.1%	1.4%
호텔·여관·펜션 등 숙박업소	21.8%	3.9%
백화점·시장가게·식당술집·유흥업소·찜질방	7.8%	19.9%
야외·거리·산야·대중교통시설 등	3.6%	24.9%
공중 화장실	1.8%	2.2%
자동차안	4.8%	5.0%
학원 및 보육시설	0.7%	2.3%
기타	4.7%	1.8%
합계	100% (856)	100% (1,753)

자료: 윤덕경 외(2014), pp.48-50 <표 II-31>를 토대로 재구성하였음.

가해자의 집, 피해자의 집, 제3자의 집, 피해자·가해자 공동주거지, 폐가 등 주거지에서 발생한 비율이 가장 높아 강간 49.6%이고 그 다음으로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가 21.8%로 나타났다. 강제추행의 경우 거주지에서 발생한 비율은 25.1%, 야외 등 24.9%, 상업시설 19.9%로 나타났다. 성추행에 비해 강간이 실내공간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다.

나. 장애인 성폭력 피해 발생 현황

장애인성폭력의 상담통계를 통해 장애인성폭력 피해현황을 소개하려고 한다. 다음에 소개하는 자료는 2013년 전국 20개소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수집된 상담통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장애

상담소권역, 2013). 2013년 장애인성폭력상담소의 전체 성폭력 상담건수 중 장애인피해로 인한 것이 95.5%이며, 이 중 지적장애와 정신장애 피해자의 비중이 81.2%로 대다수인데, 특히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비율은 73.3%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표 II-7> 성폭력 피해 장애인의 장애유형

계	신체적장애(240, 14.3%)				정신적장애(1,359, 81.2%)		기타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언어	지적	정신	
1,673 (100%)	79 (4.7%)	52 (3.1%)	49 (2.9%)	60 (3.6%)	1,227 (73.3%)	132 (7.9%)	74 (4.4%)

자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장애상담소권역(2013), p.2 <표2>

장애인성폭력 피해 유형 중 강간 및 유사강간이 59.4%이고 성추행은 35.3%이다. 피해자 연령층을 보면 19세-65세 미만이 60%이고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27.7%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연령층은 19세 미만 미성년의 비율은 12%에 불과하고 61%가 성인에 의해 발생하였다. 가해자가 파악되지 않은 비율을 제외하고 가해자 비율을 산출하면 성인 비중은 더 높아질 것이다.

<표 II-8> 장애인 성폭력 피해 피해 유형

계	강간 및 유사강간	성추행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음란 전화	기타
1,673 (100%)	992 (59.4%)	592 (35.3%)	-	11 (0.6%)	2 (0.1%)	76 (4.6%)

자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장애상담소권역(2013), p. 5 <표6>

<표 II-9> 성폭력 피해 장애인 및 가해자의 연령

피해자	성별	계	7세미만	7-13세 미만	13-19세 미만	19-65세 미만	65세 이상	미파악
	여	1,618 (100%)	5 (0.3%)	66 (4.1%)	380 (24%)	984 (60.1%)	47 (3%)	136 (8.5%)
	남	55 (100%)	-	7 (13%)	13 (24%)	25 (45%)	-	10 (18%)
	계	1,673 (100%)	5 (0.3%)	73 (4.3%)	393 (23.4%)	1,009 (60%)	47 (3%)	146 (9%)
가해자	계	1,914 (100%)	-	21 (1.0%)	212 (11%)	865 (45%)	291 (16%)	525 (27%)

자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장애상담소권역(2013), pp. 3-4 <표3>과 <표5>를 토대로 재구성

장애인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자. 친족을 포함하여 평소 알고 지낸 사람의 비율이 67.6%로 대다수에 해당된다. 이 중 친인척 및 배우자·애인이 가해자인 비율이 18.3%이다. 장애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사, 종교인, 복지시설 종사자,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비율도 5.3%이고, 채팅을 통한 피해는 7.5%로 나타났다.

<표 II-10> 장애인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관계		빈도	비율	비고
친족및친·인척	(의)부모·형제	155	(8%)	친밀한 관계 혹은 평소에 알고 있는 관계 (67.6%)
	4촌 이내혈족	67	(4%)	
	2촌 이내혈족	28	(1.5%)	
	기타	28	(1.5%)	
배우자		6	(0.3%)	
애인		55	(3%)	
직장 관계자		100	(5%)	
동네 사람		554	(29%)	

관계	빈도	비율	비고
동급생, 선후배	192	(10%)	
교사·강사	29	(1.5%)	
종교인	16	(0.8%)	
복지시설 근무자	37	(2%)	
서비스 제공자	20	(1%)	
채팅 상대자	147	(7.5%)	
모르는 사람	243	(12.6%)	
기타	237	(12.3%)	
계	1,914	(100.0%)	

자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장애상담소권역(2013), p. 4 <표4>

3.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관련 법·제도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지원제도는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들은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부족하고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증언, 증거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등 취약함을 보이기 때문에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의 참여 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함)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함)은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지원에 관한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다.

본 절에서는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인, 진술조력인,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에 관한 법적 근거와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 제도들은 성폭력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를 보장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진술을 보조하며, 피해자의 심리적, 정서적 지원을 위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한다는 점에서 아동, 청소년, 장애인인 성폭력 피해자의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1)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관련 법¹⁴⁾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는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 재판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진술을 요청받는 등 2차 피해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 의견진술을 통한 적극적인 형사절차 참여권을 보장받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제도이다.

성폭력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는 2011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되었는데, 아동·청소년 성범죄피해자의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하였다(제18조의 6, 2011.9.15. 개정, 2012.3.16. 시행). 이후 2012년 성폭력처벌법에서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를 재차 도입하였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규정에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 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 규정에 의해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검사 또는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27조, 2012.12.18. 개정, 2013.6.19. 시행).

피해자 변호사의 업무는 피의자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며,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등사가 가능하고, 모든 소송행위에 있어 피해자를 위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질 수 있다(제27조, 2012.12.18. 개정, 2013.6.19. 시행). 검사는 국선변호사 선정을 통하여 형사절차상 피해자 권익이 보장되도록 할 수 있다(제27조, 2012.12.18. 개정, 2013.6.19. 시행).

2)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운용

아동과 장애인성폭력 피해자에게 제공되던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2013년 6월부터 모든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확대되었다. 피해자 국선변호

14) <http://www.law.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사이트, 접근일자 2015.10.12,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인용함.

사제도의 도입으로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변호사의 권한이 확대되었다(박선영, 2014).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주요 역할은 경찰 및 검찰의 수사와 공판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하고,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 제공 등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법무부, 2014).

국선변호사는 검사의 직권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선정되는데, 성폭력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법무부, 2014).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는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변하기 위한 것인데,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운용실태를 보여주는 111명 피해자 국선변호사 대상 설문조사에 의하면 제도적으로 보장된 국선변호사 활동에 제약이 있다(이선경, 2014).

동 조사에 의하면 국선변호사에게 공판기일이나 심문기일 통지가 잘 되지 않는 것이 지적되는데, ‘공판기일 통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64.9%, ‘구속적 피의자 심문기일 통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70.3%로 높게 나타났다(이선경, 2014).¹⁵⁾ 이것에 대해서 법원이나 검찰의 행정처리 절차상의 문제로 발생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법원이 공판기일 통지를 누락하거나 피해자 변호사 선정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변호사 성명에 연락처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박선영, 2014).¹⁶⁾ 공판기일이나 피의자 심문기일 통지가 잘 되지 않은 것은 국선변호사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박선영, 2014).

법원 측에서 통지가 되지 않아서 국선변호사가 공판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지를 받고도 참석하지 않은 국선변호사도 있다. 재판부에서 공판기일을 통지하였어도 피해자 국선변호사 출석율이 높지 않아 이들의 역할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최영아, 2014).

이와 관련하여 다른 의견은 공판 출석을 위해서는 공판기일이 국선변호사가 참석 가능해야 하는데, 위의 이선경(2014) 조사에 의하면 국선변호사가 공판기일 변경 신청시 수용되는 비율은 20.7%로 낮게 나타났다. 재판부에서 국선변

15) 수사 및 재판과정이 잘 통보되지 않는다 72%, 경찰·검찰과의 협력 잘 된다 41%, 잘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50.9%로 나타났다(이선경, 2014).

16) 법원에서는 선정서에 국선변호사 연락처가 있으면 연락한다고 한다(박선영, 2014).

호사 출석을 확인하는 비율은 28%, 의견진술권 행사에 경험이 있는 비율 29.2%로 나타났고 의견진술도 ‘피해정도, 처벌 불원 여부, 증거신청에 관한 의견, 피해자 보호 관련 상황’에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의견진술권 행사가 부당하게 제한된 경험을 없다는 비율이 63%로 나타나서(이선경, 2014). 의견진술권 행사 및 절차와 범위에 대한 국선변호사의 인식 부족이나 이들에 대한 법원의 인식이 부족한 것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최영아, 2014).

법률이나 대법원 규칙에 공판절차 중 피해자 국선변호사 출석 확인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출석여부 확인은 재판부에 따라 다르게 실행되고 있다고 한다(박선영, 2014).¹⁷⁾

피고인측의 인권침해 심문에 대해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이의제기할 권한이 허용된 비율 19.8%로 피해자 국선 변호사의 이의제기 허용에 대한 요구가 86.4%에 달한다(이선경, 2014).¹⁸⁾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피고인측 심문에 대한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이의제기권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된다(최영아, 2014).

이선경(2014) 조사에서 응답자 90.5% 소송기록 열람·등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56.8%가 허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 23.9% 허용되는 경우, 허용된 경우 적시에 이루어진 경우 37.5%, 열람 및 등사범위가 제한적인 경우 46.0%로 나타났다(이선경, 2014). 공판기록 열람과 등사는 재판장 허가사항인데 서류나 증거물 열람 및 등사가 피해자를 위한 법률적 조력과 방어에 필요하다는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고 한다(박선영, 2014).

피해자 등이 증인을 위한 증인지원관을 신청한 경우 수용된 비율은 22.3%,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진 비율이 16.2%,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비율이 11.7%로 나타났다(이선경, 2014).¹⁹⁾

17) 서울중앙지방법원 성범죄전담재판부의 대다수 재판부에서는 국선변호사 출석여부 확인하고 있다(박선영, 2014).

18) 우리나라 형사소송 구조상 유죄 입증의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피해자는 당사자 위치에 있지 않아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진술 범위가 제한적이어 검사를 통해서 피해자의 입장을 전달하게 되어 있다(박선영, 2014). 형사소송법 등 관계법령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이의신청권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합리적 범주 내에서 법원에 적절한 소송지휘권 과 검사의 이의신청권을 활용하여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박선영, 2014).

나. 진술조력인

1) 진술조력인 관련 법²⁰⁾

진술조력인은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아동, 장애인 등과 같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하여 그들의 진술을 보조하는 사람이며,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적으로 있어 왔다(신서영, 2013:148).

성폭력처벌법은 2012년 진술조력인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형사절차상 조력을 위해 진술조력인을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2012.12.18., 전부개정, 2013.6.19. 시행), 진술조력인과 관련된 5개의 조항을 두고 있다.

진술조력인 양성과 관련해서는 “법무부장관은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을 양성하여야 하고, 양성한 진술조력인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35조 제1항, 제3항). 진술조력인의 자격 및 양성에 대해서는 법무부령으로 정하고 있다(제2항).

13세 미만의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피해자의 수사과정에서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검사 및 경찰의 직권이나 피해자 혹은 법정대리인 신청에 의해 진술조력인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제36조 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할 수 있고(제2항), 조사과정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의사소통 능력 및 특성 등에 관한 견해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제4항). 진술조력인 수사절차 참여에 대한 절차와 방법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제5항, 제6항).

법원은 증인신문에 있어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직권 혹은 검사, 피해자,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 신청

19) 피해자 국선변호사 수당에 대해서 만족하는 비율 13.5%, 만족하지 않는 비율 26.1%이고 보통은 51.4%로 나타났고, 의뢰인이 법률조력의 범위를 넘어서 무리한 도움을 요청하거나 휴일 및 심야에 전화하는 경우 25.2%로 나타났다(이선경, 2014).

20) <http://www.law.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사이트, 접근일자 2015.10.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인용함.

에 따라 진술조력인을 참여하도록 할 수 있으며(제37조 제1항), 이것이 가능함을 피해자,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에게 고지해야 한다(제2항). 진술조력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중립적 입장을 가지고 진술이 올바르게 전달되도록 노력하고(제38조 제1항), 직무상 습득한 피해자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면 안된다(제2항).

2) 진술조력인 제도

진술조력인은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이 성폭력이나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관련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하여 피해자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려고 발견에 노력하는 전문인력이다(법무부, 2015).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낮은 수사관이나 가해자 변호사와 대면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은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이 과정에서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고충으로 수사과정에서 아동·장애인의 의사소통이 어렵다(법무부, 2015). 대다수 성폭력 사건은 당사자 외 제3자 증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피해자와 피신고인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된다.

수사 및 공판에서 조사관이 아동·장애인의 특성을 특성에 맞게 조사하거나 의사소통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인데, 이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진술조력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법무부, 2015).

진술조력인은 진실성, 중립성, 아동·장애인의 심리와 아동·장애인의 발달 특성에 대해 이해, 진술 평가능력, 의사소통과 의사표현을 중개하고 보조하는 능력, 관련 법률·수사·재판 과정에 대한 지식, 보고서 작성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김태경 외, 2013: 5-11). 진술조력인은 아동 연령별, 장애인의 증상·장애 등급별 특성과 의사소통 상 특수성을 전달하여 조사자의 이해도를 높여 조력하고, 진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진술자의 표현능력, 언어구사의 독특성 등을 평가하고(김태경 외, 2013: 6-7), 피해자를 대상으로 효과적으로 질문하는 방식에 대해서 법정에서 의견을 피력해야 한다(김태경 외, 2013).

다. 신뢰관계자 동석²¹⁾

성폭력처벌법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의 수사, 재판과정에 가족, 상담소 활동가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 피해자가 조사받는 동안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법원은 성폭력범죄²²⁾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하고(제34조 제1항), 이것은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된다(제2항).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는 성폭력처벌법과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다만 법 적용대상이 아동·청소년으로 제한된다.

<표 II-11>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형사절차 지원관련법 제·개정 현황(2010~2014년)

법률	제도	법률 공포일 (시행일)	주요 제·개정 내용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2012. 12. 18 (2013. 6.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 대리인은 형사절차 상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음 - 변호사는 피해자 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음
	진술조력인	2012. 12. 18 (2013. 6.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5조(진술조력인 양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소통·의사표현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 조력을 위해 진술조력인을 양성해야 함 • 제36조(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가 13세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

21) <http://www.law.c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사이트, 접근일자 2015.10.12,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였음.

22)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및 제15조(제9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범죄를 범한 경우를 말한다.

법률	제도	법률 공포일 (시행일)	주요 제·개정 내용
			애로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함 • 제3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 피해자가 13세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 애로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 신문에 참여할 수 있게 함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2010. 4. 15 (2010. 4. 15)	• 제29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 범죄 피해자의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와 신 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해야 함
		개정 2012. 12. 18 (2013. 6. 19)	• 제34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피해자에게 불리 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해서는 안 됨
아동·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2011. 9. 15 (2012. 3. 16)	• 제18조의6(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인선임의 특례)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는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음 -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공판절차 출석권을 가짐 - 변호인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 적인 대리권을 가짐 -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국선변호 인을 지정
		개정 2012. 12. 18 (2013. 6. 19)	• 제30조(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인선임의 특례)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는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 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음 - 변호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27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준용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2010. 4. 15 (2010. 4. 15)	• 제18조의4(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함에 있어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해야 함
		개정 2011. 9. 15 (2012. 3. 16)	• 제18조의4(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 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동석하게 해선 안 됨
아동학대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진술조력인	2014. 1. 28 (2014. 9. 29)	• 제16조(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 등 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를 준용함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접근일자 2015.10.12

4.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가.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²³⁾

1) 성폭력상담소

성폭력 피해상담소는 1994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성폭력상담소의 주요 업무는 성폭력 피해에 관하여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여성가족부, 2015a : 65), 초기 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 지속상담 및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례관리를 시행한다(이미정 외, 2013: 41). 필요가 있는 피해자와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등의 연계하고,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수사 와 재판에 피해자와 동행하며, 그 외 학교나 공공기관 등에서 성폭력 예방 홍보 및 교육을 제공하며, 성폭력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고,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방문 상담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상담 및 예방교육을 수행한다(여성가족부, 2015a: 65-74).

2) 성폭력보호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성폭력보호시설이 운영 중인데, 주요업무는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상담 및 치료지원, 자립 및 자활 교육 및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의료지원을 하며, 피해자에 대한 수사 및 법원 증인신문이 있을 때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와 같은 사법처리에 관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한다(여성가족부, 2015a: 77).

입소대상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 15조에 따라,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지적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피해자로서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입소가 가능하고(여성가족부, 2015a: 80), 보호기간은 피해자가 초·중·고·대학교 등에 재학 중인 경우 특별

23) “가. 성폭력피해자 상담 및 보호”와 관련하여 “2015년 여성아동권의 증진사업 운영 지침”을 참고하였다.

지원보호시설에서 2년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하며, 19세가 될 때 까지 입소가 가능하다(여성가족부, 2015a: 81). 또한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주소지 밖의 지역에서 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취학 지원을 제공하고, 시설입소증명과 같은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발급하여 학교장에게 전·입학을 요청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82). 피해자가 장애인의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라, 장애인보호시설에서 보호기간은 2년 이내로 입소자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심리적 안정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장애인 보호시설 입소자가 2회 이상 연장을 원할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 연장을 지원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81).

3)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6을 근거법령으로 356일 24시간 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이 설립되었는데, 주요기능은 폭력피해자의 위기상담과 긴급보호를 위해 초기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신고접수 및 상담을 통해 상담소나 보호시설과 112 또는 119와 같은 유관기관에 연계하거나 의료·법률구조기관 또는 보호시설 등 다양한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여성가족부, 2015a: 322). 여성긴급전화 1366의 또 다른 주요 기능은 피해자가 긴급피난할 수 있도록 임시보호시설인 긴급피난처를 제공하는 것인데, 위기상황에서 숙식지원이 필요하거나 안정과 상담·치료 등을 필요로 할 때, 보호여성의 대상에 맞추어 시설별로 보호대상을 지정하며 가능한 유사한 시설에 보호하는데, 임시보호기간은 3일 이내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필요시 7일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상황에 따라 전문시설로 연계한다(여성가족부, 2015a: 327, 331).



자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사이트(<http://womenhotline.or.kr>)의 ‘여성긴급전화 1366’ 웹페이지, 지원서비스 안내도. 2015.10.20 접근.

[그림 II-1] 여성긴급전화 1366 서비스 제공 체계

4) 해바라기센터(아동형)

2014년 7월에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의 기능 조정 및 명칭일원화를 결정하였는데, 3개 센터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일원화하였으며, 2015년부터 기존의 ‘해바라기아동센터’는 ‘해바라기센터(아동)’으로 명칭을 수정하였다(여성가족부, 2015b: 7).²⁴⁾ 2015년도 현재 해바라기센터(아동)은 전국에 8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요 기능은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과 장애인을 위해 의료 지원, 심리 평가 및 치료, 면담, 법률서비스 지원, 가족 상담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여성가족부, 2015b). 센터 운영시간은 09:00-18:00까지이지만, 종사자별로 탄력근무를 하고 있어, 피해자의 수요가 많은 요일이나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토록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 운영시간 외의 시간은 재택당직근무제를 통해 24시간 상담 및 치료지원 연계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b: 111-112).

24)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 해바라기센터 아동형과 통합형을 중심으로 소개하려고 한다. 이 두 가지 이외에 해바라기센터 위기지원형이 있는데, 이 유형의 센터는 아동·청소년·장애인성폭력 피해자가 방문하면 진술조사 이후 해바라기센터 아동형, 통합형, 장애인성폭력 상담소와 협력하여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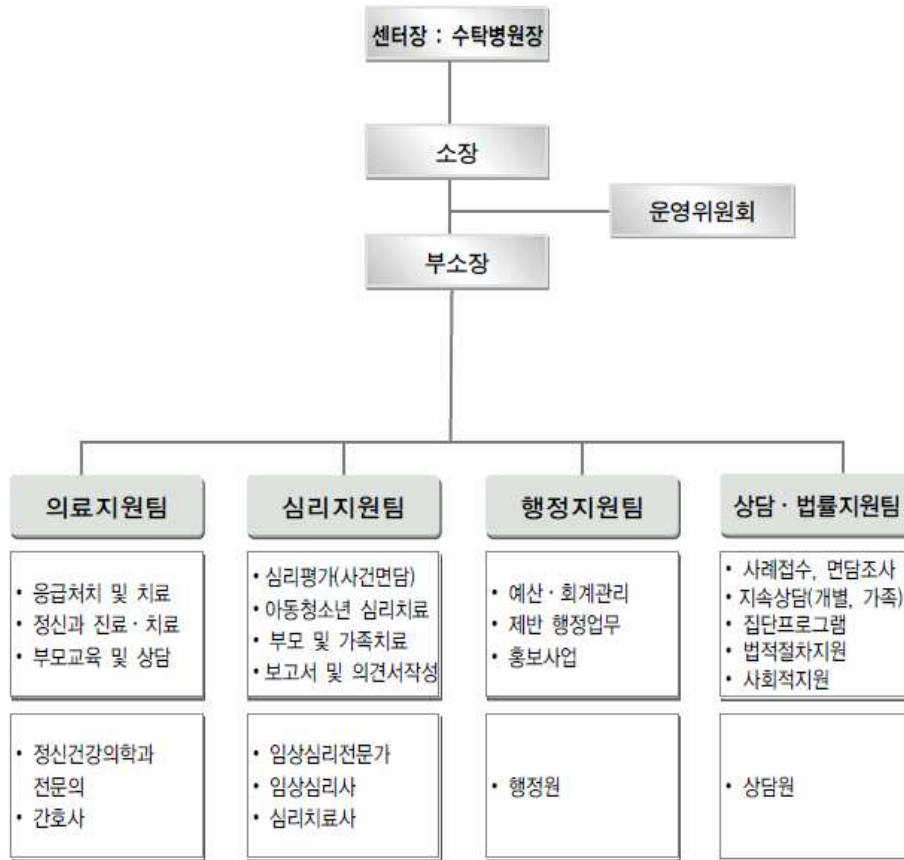
<표 II-12> 해바라기센터(아동)의 사업 내용

사 업	내 용
피해자에 대한 의료, 상담, 치료 서비스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 - 성폭력 피해유형에 따른 외상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정도 진단 및 증거채취 포함 - 성폭력 피해자 정신건강의학과적 우선 치료 서비스 및 운영기관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대기 시간 최소화를 위해 인근 (소아)정신건강의학과가 있는 병원과의 연계 치료 - 성폭력 피해자 가족을 위한 상담 및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사건조사 및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조사(수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시)수사관련 진술내용 등 영상물 녹화 • 증거물 확보 등을 위한 법의학 연계시스템구축 - 성폭력 피해자 법적절차에 따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업무 진행 - 기타 법적절차 전반에 관한 지원
피해자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지원체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긴급전화 1366,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청 등 긴급 구조 지원체계 구축·운영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가 그룹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아)정신건강과의사, 산부인과 등 의료전문가, 아동심리학자, 사회복지자, 법률가, 임상심리전문가, 임상심리사, 성폭력상담전문가 등 인력풀 구성 - 피해사례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사실정보 수집 및 분석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연계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보호 등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연계지원 서비스망 구축 -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자원공유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DB구축
기타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례연구 - 센터의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적, 잠재적 아동 및 부모 대상 홍보 - 외부 인사를 포함한 자체적인 운영위원회를 구성, 센터 운영 관련 주요사항 자문

자료: 여성가족부(2015b), 『2015년 해바라기 센터 사업안내』, p. 113.

해바라기센터(아동)의 조직도를 보면, 센터장, 소장, 의료지원팀, 상담·법률지원팀, 행정 지원팀을 두며 시·도와 협의하여 팀명 변경 및 그 외 필요한 팀과 팀장을 둘 수 있다.

해바라기센터(아동) 조직도(표준안)



※ 소장이 비상근일 경우에는 반드시 상근 부소장을 두어야 함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문변호사는 상근 근무를 필요로 하지 않음

자료: 여성가족부(2015b), 『2015년 해바라기센터사업안내』, p.114.

[그림 II-2] 해바라기센터(아동)의 조직도(표준안)

5) 해바라기센터(통합형)

2014년도 사회보장위원회(국무총리 주재)를 통해 기능 조정 및 명칭일원화의 결정으로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는 ‘해바라기센터(통합형)’으로 명칭을 수정하였고, 2015년도 현재 해바라기센터(통합)은 전국에 10개소와 거점센터 1곳이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여성가족부, 2015a: 9). 주요업무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를 위하여 1년 365일 24시간 의료 서비스, 수사 및 법률 지원, 상담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그 외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자원을 제공하고,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장애인, 도움이 필요한 성인을 위하여 의학적 진단 및 평가, 치료, 사건조사 지원, 법률지원 서비스, 가족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여성가족부, 2015b: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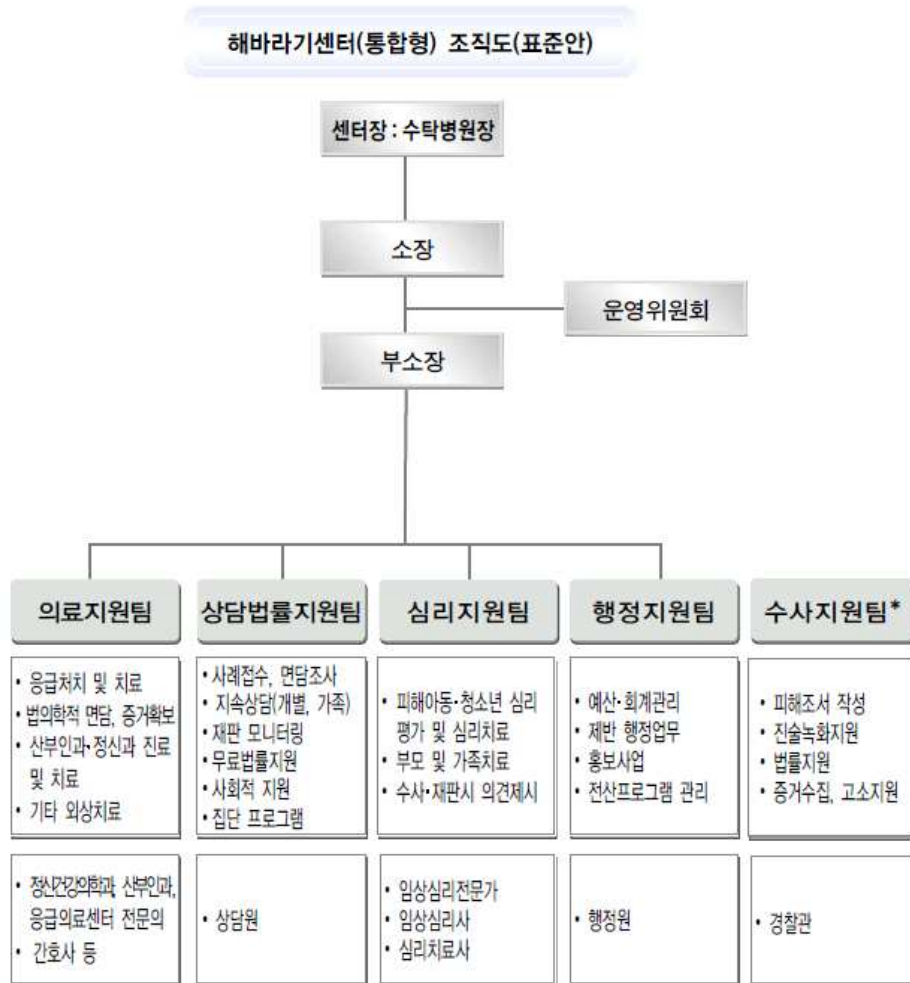
<표 II-13> 해바라기센터(통합형)의 사업내용

사업	내용
상담 및 심리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시간 사례접수, 면담조사를 통한 전문적 사정(assessment) -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심리안정 조치 - 사례관리실천 : 사례회의, 지속상담 - 치료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상담, 가족상담 • 놀이치료, 미술치료 -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자원동원을 통한 사회적 지원 - 가족캠프, 부모모임, 피해자 모임 등 집단 프로그램
의료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시간 응급조치 및 응급치료 - 신체사정, 법의학적 면담 - 외과 및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치료 - 피해자 진료 및 진단서 발급지원 - 성폭력증거채취 응급키트 조치
수사·법률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 및 소송절차에 대한 정보제공 - 증거물 수집 - 조사 지원 : 진술조서 작성, 진술녹화 실시 등 - 성폭력 피해자 법적절차에 따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법률구조사업을 통한 소송지원 • 재판 모니터링 및 신뢰자 동석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원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그룹 운영 : 의료인(소아정신건강과의사,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법률가, 종교인, 사회복지학자, 심리학자 등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문 및 자원동원 - 긴급구조 지원체계 운영 및 지역연계망 구축 • 1366, 아동보호전문기관, NGO 기관들과의 연대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 -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예산 및 회계 관리 - 홈페이지 관리 - 홍보사업 - 표준행정시스템 전산화 관리(표준행정시스템 전산화는 제7장 [참고1] 표준행정시스템 운영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사용함) - 제반 행정업무

자료: 여성가족부(2015b), 『2015년 해바라기센터사업안내』, p. 118.

조직 및 업무 분담을 보면 해바라기센터(통합)는 센터장(병원장), 소장, 부소장, 상담법률지원팀, 의료지원팀, 심리지원팀, 행정지원팀을 두고 있으며, 시·도와 협의하여 팀명 변경 및 그 외 필요한 팀과 팀장을 둘 수 있다. 수사지원팀은 지방경찰청 소속으로 센터와 협력관계를 유지한다(여성가족부, 2015b: 119).



자료: 여성가족부(2015b), 『2015년 해바라기센터사업안내』, p. 119.

[그림 II-3] 해바라기센터(통합형)의 조직도(표준안)

나.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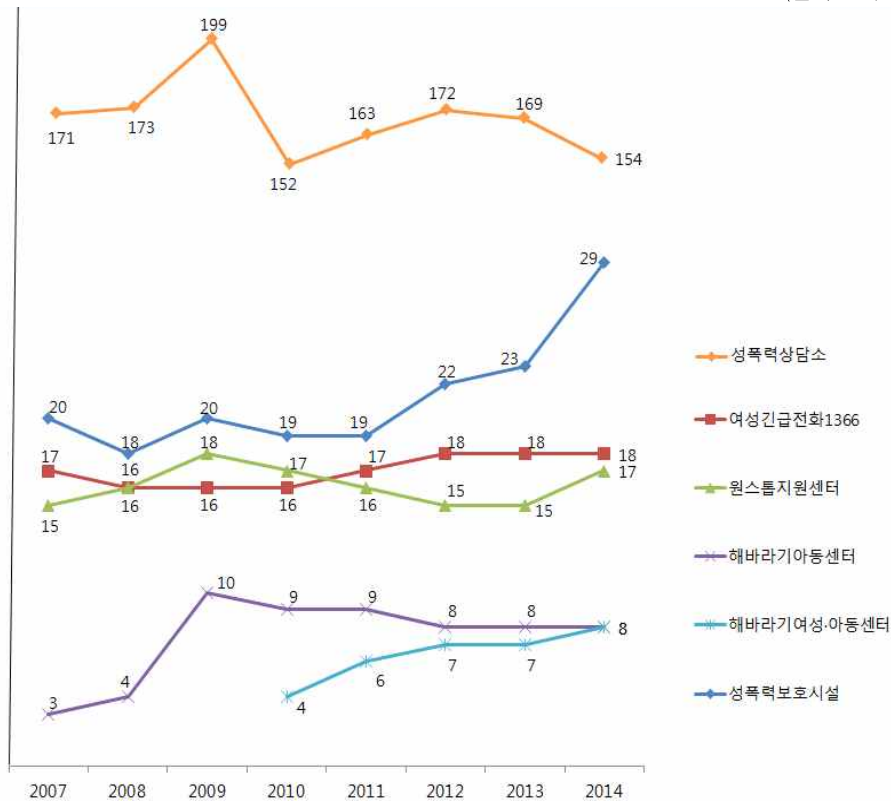
1)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수 및 피해자 지원 현황

<표 II-14>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수 및 운영실적
(단위 : 개소, 명, 건)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 성폭력상담소								
- 시설개소수	171	173	199	152	163	172	169	154
- 상담실적 건수	124,591	145,247	155,902	138,900	129,983	144,692	145,446	146,750
○ 성폭력보호시설								
- 시설개소수	20	18	20	19	19	22	23	29
- 입소자 수	355	437	312	282	226	236	238	258
○ 여성긴급전화 1366								
- 시설개소수	17	16	16	16	17	18	18	18
- 상담실적 건수	160,899	158,635	190,859	183,240	191,050	223,109	253,616	265,792
○ 원스톱지원센터								
- 시설개소수	15	16	18	17	16	15	15	17
- 피해자 수	9,352	10,074	10,471	21,056	13,625	14,423		
○ 해바라기아동센터								
- 시설개소수	3	4	10	9	9	8	8	8
- 피해자 수	1,004	1,060	1,292	2,464	2,246	2,752		
○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 시설개소수	-	-	-	4	6	7	7	8
- 피해자 수	-	-	-	2,166	3,210	4,480		

자료: 여성가족부(2013a), “2012년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적”, 여성가족부(2013b), “2012년도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실적 보고”, 여성가족부(2013c),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여성가족부(2014a), “2013년 성폭력 피해자 등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사업안내”, 여성가족부(2014b),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여성가족부(2015a), “2014년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적”, 여성가족부(2015d), “2014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단위 : 개소)



자료: 여성가족부(2013a), “2012년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적”, 여성가족부(2013b), “2012년도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실적 보고”, 여성가족부(2013c),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여성가족부(2014a), “2013년 성폭력 피해자 등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사업안내”, 여성가족부(2014b),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여성가족부(2015c), “2014년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적”, 여성가족부(2015d), “2014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그림 II-4]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수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수 및 상담실적 건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폭력상담소의 경우 다른 시설과는 달리 2007년 171개소에서 2014년 154개소로 감소추세를 보였고, 성폭력보호시설은 2007년 20개소에서 2014년 29개소로 9개소가 증가하였다. 여성긴급전화 1366은 2007년 17개소에서 2014년 18개소로 1개소 증가하였으며, 원스톱지원센터는 2007년 15개소에

서 2014년 17개소로 증가하였다. 해바라기아동센터의 경우 2007년 3개소에
서 2014년 8개소로,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는 2010년 3개소를 시작으로
2014년 8개소로 증가하였다.

각 시설의 상담실적 건수 및 피해자 수를 살펴보면, 성폭력상담소의 경우
시설개소수는 줄었지만 상담건수는 2007년 124,591건에서 2014년 146,750
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와 반대로 성폭력보호시설은 개소수가 증가하였지
만, 상담건수는 2007년 355건에서 2014년 258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하
지만 이는 전년도 상담건수 238건에 비해서는 약간 증가한 수치이다. 여성
긴급전화 1366의 경우, 상담건수는 2007년 160,899건에서 2014년 265,792건
으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2)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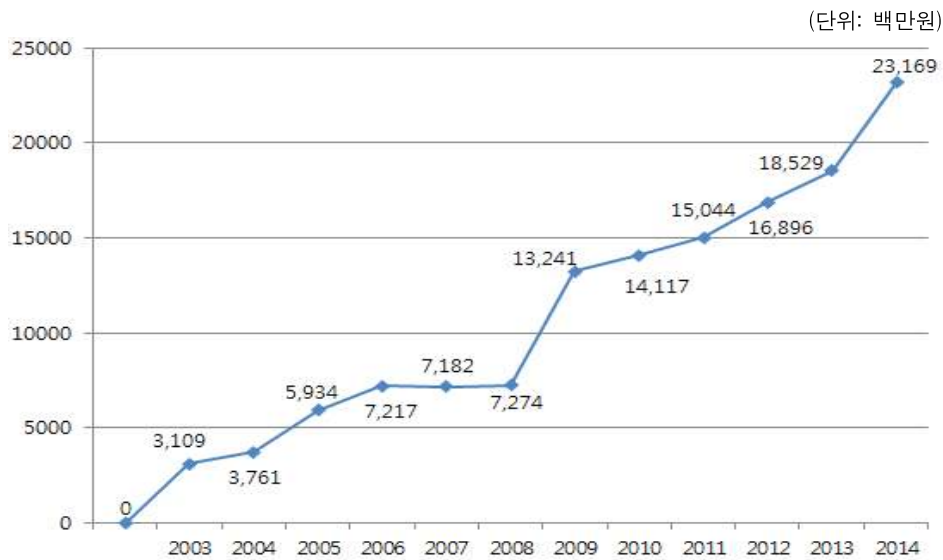
<표 II-15>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 예산액
(단위 : 백만원, 개소)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 운영지원 예산액	3,109	3,761	5,934	7,217	7,182	7,274	13,241	14,117	15,044	16,886	18,529	23,169
○ 성폭력상담소												
- 운영 지원액	1,642	1,669	1,773	1,915	2,107	2,459	2,440	2,704	2,926	2,997	3,374	3,587
- 총 상담소 수	117	95	143	173	171	173	164	160	165	176	169	154
- 지원받는 상담소 수	62	63	65	65	65	85	88	87	87	87	92	96
- 운영 평균지원액	26.5	26.5	27.3	29.5	32.4	28.9	27.7	31.1	33.6	34.4	36.7	37.4
○ 성폭력보호시설												
- 운영 지원액	307	373	435	522	617	719	755	2,078	1,223	1,878	2,174	2,897
- 총 보호시설 수	12	15	16	17	20	18	19	21	22	23	23	29
- 지원받는 보호시설 수	12	15	15	15	17	18	18	21	22	23	22	23
- 운영 평균 지원액	25.6	24.9	29.0	34.8	36.3	39.9	41.9	99.0	55.6	81.7	98.8	99.9
○ 여성긴급전화 1366												
- 운영 지원액	1,160	1,216	1,277	1,277	1,340	1,354	1,554	2,083	2,306	2,418	2,657	2,893
- 총 1366 수	16	16	16	17	17	16	16	16	17	17	17	17
- 지원받는 1366 수	16	16	16	16	16	16	16	16	17	17	17	17

50 ●●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황 및 정책개선 방안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 운영 평균지원액	72.5	76.0	79.8	79.8	83.8	84.6	97.1	130.2	135.6	142.2	156.3	170.2
○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 센터 통합
- 운영 지원액	-	-	1,004	2,153	1,768	1,392	1,665	2,455	2,351	2,351	2,525	
- 총 센터 수	-	-	8	14	15	16	18	17	16	15	15	
- 지원받는 센터 수	-	-	7	13	14	14	16	17	17	16	15	
- 운영 평균지원액	-	-	143.4	165.6	126.3	99.4	104.1	144.4	138.3	146.9	168.3	
○ 아동성폭력전담센터 및 통합센터												
- 운영 지원액	-	503	1,445	1,350	1,350	1,350	6,827	4,797	6,238	7,252	7,799	13,792
- 총 센터 수	-	1	3	3	3	4	10	13	15	15	15	34
- 지원받는 센터 수	-	1	3	3	3	4	10	10	13	15	15	34
- 운영 평균지원액	-	503.0	481.7	450.0	450.0	337.5	682.7	479.7	479.8	483.5	501.9	405.65

자료: 여성가족부,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각년도.



자료: 여성가족부,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각년도.

[그림 II-5]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 예산액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 예산액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폭력상담소는 2013년 기준 16.4여억원에서 2014년 35.8여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성폭력보호시설은 2003년 3.07여억원에서 2014년 28.9억원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은 2003년 11.6여억원에서 2013년 26.5여억원으로 증가하였다. 해바라기센터는 2014년 기준 137여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의 운영지원 총 예산액은 2003년 31여억원에서 2013년 232여억원으로 약 7배 정도 증가하였다.

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6조제 1항 내지 제34조제 1항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한 부의금을 비롯해 형사사건으로 중상해 장애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조력인 선임비용, 보복범죄 보호 장치 마련 및 민간 범죄피해자 단체 지원에 쓰인다(법무부 인권국 사이트, 검색일자 2015.10.12)²⁵⁾

범죄피해구조금은 지급 건수는 2004년 74건에서 2014년 331건으로 약 4.5배, 최근 5년 지급액은 2010년 3,416,782천원에서 2014년 7,070,624천원으로 증가했는데 이러한 증가의 배경을 보면 2010년 8월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유족구조금이 3000만원에서 실직소득에 비례하여 최대 6,650만원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고(이미정 외, 2013: 54.),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 건수가 2012년에 비해 2013년과 2014년에 약 2배 이상 증가함으로써 전체 범죄피해구조금이 증가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을 볼 수 있다(<표 II-16> 참조).

25) <http://www.hr.go.kr/> 법무부 인권국 사이트를 참고하였다. 접근일자 2015.10.12.

<표 II-16> 연도별 범죄피해구조금 지급현황

(단위: 건,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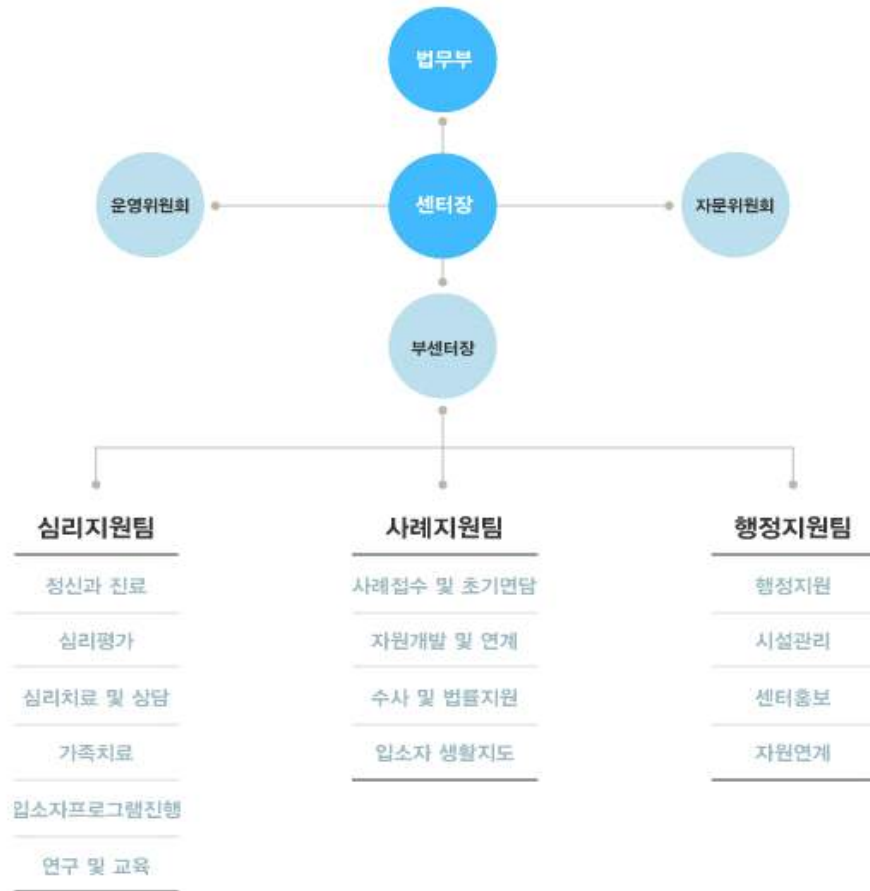
구 분	합 계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포함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2008년	155건	1,411,000	141건	1,345,000	14건	66,000
2009년	205건	2,204,833	196건	2,158,333	9건	46,500
2010년	209건	3,416,782	196건	3,299,614	13건	117,168
2011년	287건	5,410,033	242건	4,991,479	45건	418,554
2012년	291건	6,250,686	244건	5,668,115	47건	586,175
2013년	312건	7,912,273	227건	6,796,756	85건	1,115,517
2014년	331건	7,070,624	233건	6,056,915	98건	1,013,709

자료: 법무부 인권국 사이트(<http://www.hr.go.kr>)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자료실, ‘연도별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현황(2014)’. [접근일자 2015.10.12]

라. 스마일센터²⁶⁾

2010년에 법무부가 전국범죄자피해자지원연합회에 위탁하여 범죄피해자 복지센터인 스마일센터를 설립하였고, 2015년도 현재 서울 1개소와 울산을 제외한 각 광역시 1개소씩 총 6개소가 운영 중이다. 스마일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과 같은 강력범죄 사건으로 인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등 심리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의학적 진단, 심리평가·치료, 법률상담, 재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범죄발생으로 인해 자신의 거주지에서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를 위해 생활관 입소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스마일센터에는 정신과 전문의, 임상심리전문가, 간호사, 사회복지사, 행정요원,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상주하며 피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직 및 업무 분담을 보면 스마일센터는 법무부, 센터장,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부센터장, 심리지원팀, 사례지원팀, 행정지원팀을 두고 있다.

26) <http://resmile.or.kr/> 스마일센터 사이트를 참고하였다. 접근일자 2015.10.18



자료: 스마일센터 사이트(<http://resmile.or.kr>), 조직구성, 접근일자 2015.10.18

[그림 II-6] 스마일센터 조직도

Ⅲ.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설문조사 분석

1. 조사대상자 특성	55
2. 성폭력 피해자의 기관 이용 경로	6 5
3. 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 상황	0 6
4.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1 6
5. 기관유형별 기관 간 협조 정도 비교	1 7
6. 소결	2

1. 조사대상자 특성

<표 Ⅲ-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조사 결과	
		빈도	%
기관 소속지역	수도권	35	27.1
	강원·충청권	27	20.9
	경상권	42	32.6
	전라·제주권	25	19.4
	합계	129	100.0
기관유형	성폭력상담소	47	36.4
	장애인성폭력상담소	16	12.4
	통합상담소	14	10.9
	해바라기센터(아동형)	16	12.4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	23	17.8
	해바라기센터(통합형)	13	10.1
	합계	129	100.0
기관 설립연도	5년 이하	22	17.5
	5년 초과 ~ 10년 이하	48	38.1
	10년 초과 ~ 20년 이하	48	38.1
	20년 초과	8	6.3
	합계	126	100.0
재직기간	1년 미만	10	7.8
	1년 이상 ~ 3년 이하	47	36.4
	3년 초과 ~ 5년 이하	20	15.5
	5년 초과 ~ 10년 이하	37	28.7
	10년 초과 ~ 20년 이하	14	10.9
	20년 초과	1	0.8
	합계	129	100.0

주: 1. 표본수는 총 129명이다.

- 센터 소속지역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 강원·충청권은 강원, 대전, 충북, 충남, 경상권은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전라·제주권은 광주, 제주, 전북, 전남이다.
- 설립연도에 대해 3명 무응답이다.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상담소와 해바라기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각 유형 기관의 소장, 부소장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문의하였다.²⁷⁾ 응답자는 총 129명이다. 조사대상자의 기관 소속지역, 기관유형 및 설립연도, 재직기간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표 III-34>에 제시되어 있다.

기관이 소속된 지역을 살펴보면, 경상권이 32.6%,로 가장 많았으며, 수도권이 27.1%, 강원·충청권이 20.9%, 전라·제주권이 19.4%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은 성폭력상담소가 36.4%로 가장 많았으며,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이 17.8%, 장애인성폭력상담소와 해바라기센터(아동형)이 각각 12.4%, 통합상담소가 10.9%, 해바라기센터(통합형) 10.1%의 순으로 나타났다.

설립연도의 경우 5년 초과 ~ 10년 이하가 38.1%, 10년 초과 ~ 20년 이하가 38.1%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뒤이어 5년 이하가 17.5%, 20년 초과가 6.3%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직기간은 5년 이하가 5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이상 ~ 3년 이하가 36.4%로 가장 높았으며, 5년 초과 ~ 10년 이하가 28.7%, 3년 초과 ~ 5년 이하가 15.5%, 10년 초과 ~ 20년 이하가 10.9%, 1년 미만이 7.8%, 20년 초과가 0.8%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성폭력 피해자의 기관 이용 경로

<표 III-2>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기관 이용 경로
(단위 : %)

구분		피해자 유형	거의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자주 그렇다	합계
(1)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연계되었다	상담소	아 동	15.4	30.8	25.0	28.8	100(52)
		청소년	9.1	37.9	28.8	24.2	100(66)
		장애인	19.1	34.0	27.7	19.1	100(47)

27) 조사 방법 및 자료수집 과정은 서론의 연구방법 절에 제시되어 있다.

Ⅲ.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설문조사 분석 ●● 59

구분		피해자 유형	거의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자주 그렇다	합계
	해바 라기	아 동	13.5	40.4	36.5	9.6	100(52)
		청소년	3.8	42.3	40.4	13.5	100(52)
		장애인	15.7	54.9	19.6	9.8	100(51)
(2) 경찰을 통해 연계되었다	상담소	아 동	32.7	14.3	34.7	18.4	100(49)
		청소년	9.2	26.2	33.8	30.8	100(65)
		장애인	18.0	36.0	22.0	24.0	100(50)
	해바 라기	아 동	5.8	21.2	11.5	61.5	100(52)
		청소년	5.8	17.3	17.3	59.6	100(52)
		장애인	0.0	21.2	25.0	53.8	100(52)
(3) 해바라기센터(아동형)에서 연계되었다	상담소	아 동	63.6	25.0	4.5	6.8	100(44)
		청소년	63.0	27.8	3.7	5.6	100(54)
		장애인	65.9	18.2	4.5	11.4	100(44)
	해바 라기	아 동	46.7	48.9	2.2	2.2	100(45)
		청소년	50.0	45.8	2.1	2.1	100(48)
		장애인	60.9	37.0	2.2	0.0	100(46)
(4)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에서 연계되었다	상담소	아 동	66.7	19.0	4.8	9.5	100(42)
		청소년	59.3	24.1	3.7	13.0	100(54)
		장애인	71.4	11.9	2.4	14.3	100(42)
	해바 라기	아 동	29.3	34.1	17.1	19.5	100(41)
		청소년	26.8	39.0	12.2	22.0	100(41)
		장애인	34.1	34.1	12.2	19.5	100(41)
(5) 해바라기센터(통합형)에서 연계되었다	상담소	아 동	54.2	16.7	6.3	22.9	100(48)
		청소년	48.3	27.6	5.2	19.0	100(58)
		장애인	44.7	21.3	6.4	27.7	100(47)
	해바 라기	아 동	61.4	31.8	4.5	2.3	100(44)
		청소년	54.5	38.6	4.5	2.3	100(44)
		장애인	65.9	31.8	0.0	2.3	100(44)
(6) 성폭력상담소에서 연계되었다	상담소	아 동	63.4	22.0	14.6	0.0	100(41)

구분		피해자 유형	거의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자주 그렇다	합계
		청소년	36.7	38.8	22.4	2.0	100(49)
		장애인	46.3	41.5	9.8	2.4	100(41)
	해바 라기	아 동	60.8	35.3	2.0	2.0	100(51)
		청소년	53.8	32.7	13.5	0.0	100(52)
		장애인	59.6	30.8	7.7	1.9	100(52)
(7)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연계되었다	상담소	아 동	82.9	12.2	4.9	0.0	100(41)
		청소년	70.2	25.5	4.3	0.0	100(47)
		장애인	61.9	26.2	9.5	2.4	100(42)
	해바 라기	아 동	80.8	13.5	5.8	0.0	100(52)
		청소년	76.9	17.3	5.8	0.0	100(52)
		장애인	33.3	45.1	13.7	7.8	100(51)
(8)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연계되었다.	상담소	아 동	46.9	44.9	8.2	0.0	100(49)
		청소년	39.7	41.4	15.5	3.4	100(58)
		장애인	54.3	30.4	10.9	4.3	100(46)
	해바 라기	아 동	58.0	36.0	4.0	2.0	100(50)
		청소년	41.2	52.9	3.9	2.0	100(51)
		장애인	56.9	39.2	2.0	2.0	100(51)

- 주: 1. 상담소 집단 표본수는 77명, 해바라기센터의 표본수는 52명이다.
2. 위 표에 대한 질문 문항은 지난 1년간 귀 센터 및 상담소에서 지원하시는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은 어떠한 경로로 왔는가에 대한 것이다.
3. 조사대상은 성폭력상담소, 장애인성폭력상담소, 통합상담소, 해바라기센터(아동형, 위기지원형, 통합형) 담당자이다.
4. 아동이나 청소년이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으로 표시하였다.
5. 조사대상 기관이 성폭력상담소이거나 해바라기 센터인데 성폭력상담소 및 해바라기센터 연계에 대해서 질문 받은 경우 여타 상담소 및 여타 해바라기 센터로부터의 연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다.
6. ()은 사례수이다.

앞의 <표 III-35>는 상담소와 해바라기센터에서 지원하는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이 어떠한 경로로 기관에 오게 되었는가를 묻고 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학교 등 교육기관이나 경찰을 통한 연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학교 등 교육기관의 소개로 방문하게 된 경우가 상담소는 아동 53.8%, 청소년 53%, 장애인 46.8%, 해바라기는 아동 46.1%, 청소년 53.9%, 장애인 29.4%로 나타났다. 대체로 학교 등 교육기관의 소개로 방문하게 된 비율이 아동의 경우 상담소에서 더 높고 장애인의 경우 상담소가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다.

대체로 경찰의 소개로 연계된 비율이 여타 기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대체로 경찰의 소개로 방문하게 된 경우가 상담소는 아동 53.1%, 청소년 64.6%, 장애인 46%, 해바라기는 아동 73%, 청소년 76.9%, 장애인 78.8%로 나타났다. 대부분 경찰의 소개로 방문하게 된 비율이 아동, 청소년, 장애인 모든 범주에서 해바라기의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 경찰과 해바라기의 연계가 긴밀함을 보여주고 있다.

상담소나 해바라기 기관 입장에서 볼 때 대체로 해바라기센터 아동형을 통해 연계된 비율은 해바라기 위기지원형 및 해바라기 통합형에 비해서 낮게 나타났다. 해바라기 위기지원형으로부터의 연계는 상담소보다는 해바라기센터에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반면, 해바라기 통합형으로부터의 연계는 해바라기센터보다 상담소에서 훨씬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해바라기 통합형은 여타 유형에 비해서 보다 완결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타 해바라기 유형으로의 연계가 빈번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만하다. 반면, 상담소는 해바라기와 달리 장기적인 상담과 지지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형과의 연계가 활발한 것으로 이해된다.

성폭력상담소로부터의 연계는 해바라기보다는 상담소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장애인성폭력상담소로부터의 연계는 상담소보다는 해바라기로 더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부터의 연계는 해바라기보다 상담소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이 긴급한 상황에 있는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핫라인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연계 역할이 미약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3. 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 상황

<표 III-3>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 상황
(단위 :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합계
(1) 접수된 피해자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길다	상담소	49.4	48.1	2.6	0.0	100(77)
	해바라기	21.2	59.6	15.4	3.8	100(52)
(2) 우리센터 혹은 우리 상담소는 피해자가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공간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상담소	9.1	9.1	44.2	37.7	100(77)
	해바라기	5.8	5.8	44.2	44.2	100(52)
(3) 우리센터 혹은 우리상담소에서는 종사자의 이직이 잦은 편이다	상담소	14.7	53.3	21.3	10.7	100(75)
	해바라기	21.2	42.3	30.8	5.8	100(52)
(4) 우리센터 혹은 우리상담소에서는 종사자가 이직하면 후임자를 구하기가 어렵다	상담소	6.5	31.2	41.6	20.8	100(77)
	해바라기	15.4	34.6	42.3	7.7	100(52)

- 주: 1. 상담소의 표본수는 77명, 해바라기센터의 표본수는 52명이다.
 2. 위 표에 대한 질문 문항은 지난 1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과관련된 기관 현황에 대한 것이다.
 3. 조사대상은 성폭력상담소, 장애인성폭력상담소, 통합상담소, 해바라기센터(아동형, 위기지원형, 통합형) 담당자이다.
 4. 아동이나 청소년이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으로 표시하였다.
 5. ()은 사례수이다.

위의 <표 III-36>는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기관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피해자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오래 기다리는가에 대해서 그렇다는 비율이 상담소 2.6%, 해바라기 19.2%로 나타나,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담소에 비해서 해바라기에서 대기시간이 길다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 해바라기를 방문하는 피해자가 더 많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상담소와 해바라기 공히 피해자에게 편안한 공간 환경을 제공한다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양질의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종사자의 지속적 근무이다. 종사자의 이직이 잦다고 응답한 비율은 상담소 32%, 해바라기 36.6%로 나타났는데,

매우 그렇다는 비율인 상담소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종사자가 퇴직한 후 후임자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비율은 상담소 62.4%, 해바라기 50%로 상담소에서 더 높게 나타났지만 후임자를 찾는 데 상담소와 해바라기 모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 수 있다.

4.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가.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표 Ⅲ-4>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의료·심리치료 서비스
(단위 : %)

구분	피해자 유형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합계
(1) 피해자를 위해 신속한 증거채취 혹은 증거채취를 받도록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아 동	3.1	17.3	41.8	37.8	100(98)
	청소년	2.7	13.5	43.2	40.5	100(111)
	장애인	4.3	19.1	35.1	41.5	100(94)
(2) 피해자에게 산부인과 진료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데 혹은 제공받도록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아 동	3.0	9.0	36.0	52.0	100(100)
	청소년	3.4	8.5	36.8	51.3	100(117)
	장애인	5.1	9.2	36.7	49.0	100(98)
(3) 기타 신체외상 등 의료 진료를 제공하는 데 혹은 제공받도록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아 동	0.0	5.0	42.6	52.5	100(101)
	청소년	0.8	6.8	41.5	50.8	100(118)
	장애인	4.0	8.1	38.4	49.5	100(99)
(4) 피해자를 위해 정신과 진료를 제공하는 데 혹은 제공받도록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아 동	2.0	12.2	33.7	52.0	100(98)
	청소년	1.7	10.4	35.7	52.2	100(115)
	장애인	4.9	12.7	29.4	52.9	100(102)
(5) 심리치료 혹은 상담치료를 제공하는 데 혹은 제공받도록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아 동	4.8	10.6	33.7	51.0	100(104)
	청소년	4.2	10.9	34.5	50.4	100(119)
	장애인	7.8	13.7	30.4	48.0	100(102)

- 주: 1. 표본수는 129명이다.
 2. 위 표에 대한 질문 문항은 지난 1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대상 의료 및 심리치료 지원 서비스 제공에 대한 것이다.
 3. 조사대상은 성폭력상담소, 장애인성폭력상담소, 통합상담소, 해바라기센터(아동형, 위기지원형, 통합형) 담당자이다.
 4. 상담소와 해바라기센터에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연계, 동행을 통해 지원한 모든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5. ()은 사례수이다.

<표 III-37>는 상담소와 해바라기센터에서 제공하는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의료 및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상담소와 해바라기센터에서 증거채취, 산부인과 진료, 신체 외상에 대한 진료, 심리·상담 치유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다. 그런데, 신속한 증거채취 및 증거채취 지원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다는 비율이 아동 20.4%, 청소년 16.2%, 장애인 23.4%로 여타 범주의 서비스 제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장애인 피해자를 위해 정신과 진료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비율도 17.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심리치료 및 상담치료 제공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비율은 아동 15.4%, 청소년 15.1%, 장애인 21.5%로 나타났는데, 전반적으로 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비율이 아동 및 청소년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I-5>는 상담소와 해바라기센터에서 제공하는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에 관한 현황을 보여준다. 피해자 진술녹화 및 관련 지원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도 잘 연결되는 편인데, 청소년의 경우 아동과 장애인 피해자에 비해 잘 연결되지 않는 비율이 22.6%로 높게 나타났다. 피해자 조사시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가 동석하는 비율은 아동 38.3%, 청소년 38.9%, 장애인 39%로 동석하지 않는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전담이 아닌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동석하는 비율은 아동 23.2%, 청소년 26.6%, 장애인 26.3%로 전담 국선변호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만족도는 전담 국선변호사의 경우 아동 57.8%, 청소년 54.8%, 장애인 55.7%로 절반 이상이고, 비전담 국선변호사는 아동 31.7%, 청소년 43.4%, 장애인 30.4% 전담 변호사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해도는 전담 국선변호사의 경우 아동 65.8%, 청소년 63.9%, 장애인 62.8%로 나타나고, 비전담 국선변호사는 아동 33.4%, 청소년 35.9%, 장애인 31.6%로 나타나 전담 국선변호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였다.

진술조력인 연결이 잘 되지 않는 비율은 아동 27.1%, 청소년 25%, 장애인

19.7%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경우 연결이 잘 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동과 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 증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것을 고려할 때 진술조력인이 필요한데 잘 연결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진술조력인에 대한 만족도는 아동 68.7%, 청소년 69.9%, 장애인 72.9%로 국선변호사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술조력인이 피해자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에 동의하는 비율은 아동 76.8%, 청소년 77.4%, 장애인 81.4%로 높게 나타났다. 진술조력인의 역할이 형사사법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의사소통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이들의 비율은 더 높아야 할 것이다.

지원한 피해자 사례의 진술녹화물이 법정 증거로 채택된 비율은 아동 78.8%, 청소년 74.5%, 장애인 80%로 높게 나타났다. 증거로 잘 채택되지 않는 비율이 청소년 피해자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자 특성에 대한 경찰의 이해도가 높다는 점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아동 67.7%, 청소년 66%, 장애인 64.6%로 응답자의 3분의 2 수준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질문에 대한 검찰의 이해도가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아동 45.6%, 청소년 49.5%, 장애인 45.6%로 경찰에 비해서 훨씬 낮았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판사의 이해도가 높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한 비율은 아동 46.6%, 청소년 43%, 장애인 40.2%로 검찰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소와 해바라기센터 종사자가 경찰·검찰 수사과정에 동석하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비율은 아동 60.2%, 청소년 62.6%, 장애인 64.9%이고, 재판과정에 동행하는 비율은 아동 54.3%, 청소년 58.9%, 장애인 58.5%로 경찰·검찰의 수사과정 동석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I-5>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형사사법 서비스

(단위 : %)

구분	피해자 유형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합계
(1) 피해자 진술을 녹화하는 데 혹은 녹화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아 동	6.3	11.6	31.6	50.5	100(95)
	청소년	4.6	13.8	32.1	49.5	100(109)
	장애인	4.2	12.5	31.3	52.1	100(96)
(2) 피해자 국선변호사(전담변호사와 비전담변호사 모두 포함)를 요청하면 잘 연결되는 편이다	아 동	5.4	11.8	51.6	31.2	100(93)
	청소년	7.5	15.1	47.2	30.2	100(106)
	장애인	4.4	9.9	54.9	30.8	100(91)
(3)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피해자 조사시 동석하는 편이다	아 동	40.7	21.0	28.4	9.9	100(81)
	청소년	41.1	20.0	32.6	6.3	100(95)
	장애인	42.7	18.3	25.6	13.4	100(82)
(4) 전담이 아닌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피해자 조사시 동석하는 편이다	아 동	50.0	26.8	18.3	4.9	100(82)
	청소년	50.0	23.4	22.3	4.3	100(94)
	장애인	50.0	23.8	20.0	6.3	100(80)
(5)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의 피해자 지원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	아 동	12.0	30.1	37.3	20.5	100(83)
	청소년	12.9	32.3	34.4	20.4	100(93)
	장애인	12.7	31.6	32.9	22.8	100(79)
(6) 전담이 아닌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피해자 지원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	아 동	19.5	48.8	26.8	4.9	100(82)
	청소년	18.3	47.3	29.0	5.4	100(93)
	장애인	17.7	51.9	24.1	6.3	100(79)
(7)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성폭력 피해 및 피해자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아 동	4.9	29.3	37.8	28.0	100(82)
	청소년	8.5	27.7	39.4	24.5	100(94)
	장애인	6.4	30.8	35.9	26.9	100(78)
(8) 전담이 아닌 국선변호사는 성폭력 피해 및 피해자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아 동	12.3	54.3	30.9	2.5	100(81)
	청소년	14.1	50.0	32.6	3.3	100(92)
	장애인	10.1	58.2	29.1	2.5	100(79)
(9) 진술조력인을 요청하면 잘 연결되는 편이다 ※ 진술조력인을 직접 요청하지 않아도 지원 사례에서 진술조력인의 도움이 필요했던 경우를 고려하여 응답해주시시오	아 동	10.0	17.1	34.3	38.6	100(70)
	청소년	6.6	18.4	40.8	34.2	100(76)
	장애인	5.6	14.1	38.0	42.3	100(71)
(10) 진술조력인의 피해자 지원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	아 동	7.5	23.9	47.8	20.9	100(67)

구분	피해자 유형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합계
	청소년	6.8	23.3	50.7	19.2	100(73)
	장애인	5.7	21.4	52.9	20.0	100(70)
(11) 성폭력 피해와 피해자 특성에 대한 진술 조력인의 이해도가 높다	아 동	4.3	18.8	37.7	39.1	100(69)
	청소년	4.0	18.7	42.7	34.7	100(75)
	장애인	2.9	15.7	45.7	35.7	100(70)
(12) 우리가 지원한 피해자 사례의 경우 진술 녹화물이 법정 증거로 잘 채택된다	아 동	0.0	21.3	47.5	31.3	100(80)
	청소년	3.3	22.2	47.8	26.7	100(90)
	장애인	1.3	18.8	47.5	32.5	100(80)
(13) 경찰 수사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와 피해자 특성에 대한 경찰의 이해도가 높다	아 동	13.1	19.2	46.5	21.2	100(99)
	청소년	11.3	22.6	44.3	21.7	100(115)
	장애인	13.5	21.9	45.8	18.8	100(96)
(14)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와 피해 자 특성에 대한 검찰의 이해도가 높다	아 동	10.9	43.5	40.2	5.4	100(92)
	청소년	10.3	40.2	41.1	8.4	100(107)
	장애인	12.0	42.4	40.2	5.4	100(92)
(15) 경찰·검찰 수사과정에 동행·동석하여 피해 자를 지원하는 편이다	아 동	12.9	26.9	26.9	33.3	100(93)
	청소년	11.2	26.2	24.3	38.3	100(107)
	장애인	11.7	23.4	29.8	35.1	100(94)
(16) 재판과정에 동행·동석하여 피해자를 지원 하는 편이다	아 동	11.7	34.0	18.1	36.2	100(94)
	청소년	10.3	30.8	20.6	38.3	100(107)
	장애인	11.7	29.8	20.2	38.3	100(94)
(17) 재판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와 피해자 특성에 대한 판사의 이해도가 높다	아 동	10.2	43.2	45.5	1.1	100(88)
	청소년	7.0	50.0	41.0	2.0	100(100)
	장애인	8.0	51.7	36.8	3.4	100(87)

주: 1. 표본수는 129명이다.

- 위 표에 대한 질문 문항은 지난 1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게 제공된 형사사법 서비스 지원에 대한 것이다.
- 조사대상은 성폭력상담소, 장애인성폭력상담소, 통합상담소, 해바라기센터(아동형, 위기지원형, 통합형) 담당자이다.
- 상담소와 해바라기센터에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연계, 동행을 통해 지원한 모든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 ()은 사례수이다.

다음 <표 III-6>는 상담소와 해바라기센터가 제공하는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대상 가족지원 및 사후관리, 사례관리 지원에 대한 현황이다. 가족상담 진행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아동 67%, 청소년 74.5%, 장애인 78.9%로 높게 나타났다. 보호자가 피해자 심리치료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거부하는 비율은 아동 17.6%, 청소년 23.6%, 장애인 20.9%로 청소년 피해자 보호자의 경우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아동 72.4%, 청소년 88.2%, 장애인 90.1%로 매우 높게 나타나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가족이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원을 위해 피해자 거주지를 방문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아동 17.2%, 청소년 23%, 장애인 34.8%로 청소년피해자 특히 장애인피해자를 위해서 상담소 및 해바라기에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종결된 사례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아동 63%, 청소년 62.9%, 장애인 73%로 장애인피해자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고, 사례관리는 아동 83%, 청소년 82.5%, 장애인 87.2%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6>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가족지원 등 서비스
(단위 : %)

구분	피해자 유형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합계
(1) 가족상담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 여건 상 어려움으로 가족상담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표시해주세요.	아 동	1.0	32.0	40.2	26.8	100(97)
	청소년	0.9	24.5	43.6	30.9	100(110)
	장애인	0.0	21.1	40.0	38.9	100(95)
(2) 보호자가 피해자 심리치료 및 치료회복프로그램을 거부한다	아 동	11.3	71.1	15.5	2.1	100(97)
	청소년	10.0	66.4	20.0	3.6	100(110)
	장애인	9.4	69.8	14.6	6.3	100(96)
(3) 피해자를 보호하는 역량이 부족한 가족이 많은 편이다	아 동	1.9	25.7	44.8	27.6	100(105)
	청소년	1.7	10.2	55.1	33.1	100(118)
	장애인	1.0	8.9	48.5	41.6	100(101)
(4) 지원을 위해 피해자 거주지를 방문하는 편이다	아 동	39.1	43.7	13.8	3.4	100(87)
	청소년	42.0	35.0	17.0	6.0	100(100)

구분	피해자 유형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합계
	장애인	36.0	29.1	17.4	17.4	100(86)
(5) 종결사례에 대해 사후관리를 하는 편이다	아 동	5.0	32.0	35.0	28.0	100(100)
	청소년	4.3	32.8	37.9	25.0	100(116)
	장애인	4.0	23.0	31.0	42.0	100(100)
(6) 필요한 경우 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아 동	0.0	17.0	35.0	48.0	100(100)
	청소년	0.0	17.5	35.1	47.4	100(114)
	장애인	0.0	12.9	32.7	54.5	100(101)

주: 1. 표본수는 129명이다.

2 위 표에 대한 질문 문항은 지난 1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게 제공된 가족지원 등 서비스에 대한 것이다.

3. 조사대상은 성폭력상담소, 장애인성폭력상담소, 통합상담소, 해바라기센터(아동형, 위기지원형, 통합형) 담당자이다.

4. 상담소와 해바라기센터에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연계, 동행을 통해 지원한 모든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5. ()은 사례수이다.

나. 시설유형별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비교

<표 Ⅲ-7>는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 만족도에 있어서 상담소와 해바라기센터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에 대한 만족도는 상담소보다 해바라기센터에서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비전담 국선변호사에 대한 만족도는 역시 해바라기센터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진술조력인에 대한 만족도도 상담소보다 해바라기센터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I-7> 기관유형별 국선번호사 및 진술조력인 서비스 만족도 비교
(단위 : %)

구분		피해자 유형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합계
(1) 피해자 국선전담번호사의 피해자 지원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	상담소	아 동	22.0	36.6	26.8	14.6	100(41)
		청소년	21.6	39.2	23.5	15.7	100(51)
		장애인	24.3	37.8	18.9	18.9	100(37)
	해바 라기	아 동	2.4	23.8	47.6	26.2	100(42)
		청소년	2.4	23.8	47.6	26.2	100(42)
		장애인	2.4	26.2	45.2	26.2	100(42)
(2) 전담이 아닌 피해자 국선번호사의 피해자 지원은 전반적으로 만족스 럽다	상담소	아 동	38.5	43.6	15.4	2.6	100(39)
		청소년	32.0	42.0	22.0	4.0	100(50)
		장애인	36.1	50.0	8.3	5.6	100(36)
	해바 라기	아 동	2.3	53.5	37.2	7.0	100(43)
		청소년	2.3	53.5	37.2	7.0	100(43)
		장애인	2.3	53.5	37.2	7.0	100(43)
(3) 진술조력인의 피해자 지원은 전반적 으로 만족스럽다 (상담소/해바라기 비교표)	상담소	아 동	13.3	30.0	43.3	13.3	100(30)
		청소년	10.8	27.0	48.6	13.5	100(37)
		장애인	9.1	24.2	54.5	12.1	100(33)
	해바 라기	아 동	2.7	18.9	51.4	27.0	100(37)
		청소년	2.8	19.4	52.8	25.0	100(36)
		장애인	2.7	18.9	51.4	27.0	100(37)

- 주: 1. 상담소의 표본수는 77명, 해바라기센터의 표본수는 52명이다.
 2. 조사대상은 성폭력상담소, 장애인성폭력상담소, 통합상담소, 해바라기센터(아동형, 위기지원형, 통합형) 담당자이다.
 3. 아동이나 청소년이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으로 분류하였고, ()은 사례수이다.

<표 Ⅲ-8> 기관유형별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비교
(단위 : %,명)

구분		피해자 유형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합계
(1) 경찰·검찰 수사과정에 동행·동석하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편이다	상담소	아 동	4.4	11.1	31.1	53.3	100(45)
		청소년	3.4	8.5	30.5	57.6	100(59)
		장애인	2.2	4.3	37.0	56.5	100(46)
	해바라기	아 동	20.8	41.7	22.9	14.6	100(48)
		청소년	20.8	47.9	16.7	14.6	100(48)
		장애인	20.8	41.7	22.9	14.6	100(48)
(2) 재판과정에 동행·동석하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편이다	상담소	아 동	4.4	20.0	17.8	57.8	100(45)
		청소년	3.4	19.0	20.7	56.9	100(58)
		장애인	2.2	13.3	22.2	62.2	100(45)
	해바라기	아 동	18.4	46.9	18.4	16.3	100(49)
		청소년	18.4	44.9	20.4	16.3	100(49)
		장애인	20.4	44.9	18.4	16.3	100(49)
(3) 지원을 위해 피해자 거주지를 방문하는 편이다	상담소	아 동	21.7	50.0	21.7	6.5	100(46)
		청소년	28.8	35.6	25.4	10.2	100(59)
		장애인	15.6	24.4	26.7	33.3	100(45)
	해바라기	아 동	58.5	36.6	4.9	0.0	100(41)
		청소년	61.0	34.1	4.9	0.0	100(41)
		장애인	58.5	34.1	7.3	0.0	100(41)
(4) 종결사례에 대해 사후관리를 하는 편이다	상담소	아 동	2.0	34.0	48.0	16.0	100(50)
		청소년	1.5	34.8	48.5	15.2	100(66)
		장애인	0.0	18.0	38.0	44.0	100(50)
	해바라기	아 동	8.0	30.0	22.0	40.0	100(50)
		청소년	8.0	30.0	24.0	38.0	100(50)
		장애인	8.0	28.0	24.0	40.0	100(50)
(5) 필요한 경우 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상담소	아 동	0.0	26.5	42.9	30.6	100(49)
		청소년	0.0	25.4	41.3	33.3	100(63)
		장애인	0.0	18.0	38.0	44.0	100(50)

구분		피해자 유형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합계
	해바 라기	아 동	0.0	7.8	27.5	64.7	100(51)
		청소년	0.0	7.8	27.5	64.7	100(51)
		장애인	0.0	7.8	27.5	64.7	100(51)

- 주: 1. 상담소의 표본수는 77명, 해바라기센터의 표본수는 52명이다.
 2. 위 표에 대한 질문 문항은 지난 1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대상 의료 및 심리치료 지원 서비스 제공에 대한 것이다.
 3. 조사대상은 성폭력상담소, 장애인성폭력상담소, 통합상담소, 해바라기센터(아동형, 위기지원형, 통합형) 담당자이다.
 4. 상담소와 해바라기센터에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연계, 동행을 통해 지원한 모든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5. ()은 사례수이다.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 현황을 상담소 및 해바라기센터 기관 유형별로 비교해보자(<표 III-8> 참조). 검찰·경찰 수사과정 동행·동석하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비율은 상담소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을 보면 상담소의 경우 아동 84.4%, 청소년 88.1%, 장애인 93.%, 해바라기센터의 경우 37.5%, 청소년 31.3%, 장애인 37.5%로 상담소에서 훨씬 높게 나타났다. 재판과정에 동행·동석하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비율은 상담소의 경우 아동 75.6%, 청소년 77.6%, 장애인 84.4%, 해바라기센터의 경우 34.7%, 청소년 36.7%, 장애인 34.7%로 역시 상담소에서 높게 나타났다. 상담소의 경우 형사사법과정에서의 조사 및 공판에 피해자를 동반하여 지원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보여준다.

피해자의 거주지를 방문하는 비율은 상담소의 경우 아동 28.2%, 청소년 35.6%, 장애인 33.3%인 반면, 해바라기센터의 경우 4.9%, 청소년 4.7%, 장애인 7.3%로 상담소에서 높게 나타났다. 종결사례에 대한 사후관리 비율은 상담소의 경우 아동 64%, 청소년 63.7%, 장애인 82%이고, 해바라기센터의 경우 62%, 청소년 62%, 장애인 64%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장애인 사후관리 비율이 상담소에서 높다. 사례관리 비율은 상담소의 경우 아동 73.5%, 청소년 74.6%, 장애인 82%이고, 해바라기센터의 경우 92.2%, 청소년 92.2%, 장애인 92.2%로 해바라기센터에서 높게 나타났다.

5. 기관유형별 기관 간 협조 정도 비교

<표 Ⅲ-9> 기관유형별 기관 간 협조 정도 비교

(단위 :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합계
(1) 해바라기센터(아동)	상담소	8.8	26.3	42.1	22.8	100(57)
	해바라기	0.0	4.2	31.3	64.6	100(48)
(2) 해바라기센터(통합형)	상담소	5.8	13.0	44.9	36.2	100(69)
	해바라기	0.0	8.9	28.9	62.2	100(45)
(3) 해바라기센터(위기형)	상담소	9.1	20.0	47.3	23.6	100(55)
	해바라기	0.0	4.5	29.5	65.9	100(44)
(4) 성폭력 피해상담소	상담소	1.4	8.3	44.4	45.8	100(72)
	해바라기	0.0	11.5	50.0	38.5	100(52)
(5) 장애인성폭력 피해상담소	상담소	1.6	15.6	29.7	53.1	100(64)
	해바라기	0.0	5.8	34.6	59.6	100(52)
(6) 성폭력 피해자 쉼터	상담소	1.4	9.9	42.3	46.5	100(71)
	해바라기	0.0	3.9	39.2	56.9	100(51)
(7) 장애인성폭력 피해자 쉼터	상담소	0.0	20.0	40.0	40.0	100(55)
	해바라기	2.1	22.9	20.8	54.2	100(48)
(8) 산부인과 외과 등 전문의료기관	상담소	2.7	5.5	42.5	49.3	100(73)
	해바라기	0.0	5.9	33.3	60.8	100(51)
(9) 정신과 및 심리평가·심리치료 관련 기관	상담소	2.6	13.2	42.1	42.1	100(76)
	해바라기	0.0	3.8	34.6	61.5	100(52)
(10)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10.8	21.5	44.6	23.1	100(65)
	해바라기	0.0	5.9	37.3	56.9	100(51)
(11) 경 찰	상담소	1.3	1.3	42.9	54.5	100(77)
	해바라기	0.0	7.7	40.4	51.9	100(52)
(12) 검 찰	상담소	8.7	27.5	47.8	15.9	100(69)
	해바라기	4.3	21.7	54.3	19.6	100(46)
(13) 지자체 공무원	상담소	0.0	17.4	49.3	33.3	100(69)

74 ●●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황 및 정책개선 방안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합계
	해바라기	6.3	10.4	52.1	31.3	100(48)
(14) 학 교	상담소	4.0	18.7	52.0	25.3	100(75)
	해바라기	0.0	18.8	58.3	22.9	100(48)
(15) 지역아동센터	상담소	9.2	29.2	43.1	18.5	100(65)
	해바라기	4.2	14.6	60.4	20.8	100(48)
(16) 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소	25.4	28.6	31.7	14.3	100(63)
	해바라기	3.9	23.5	56.9	15.7	100(51)
(17) 사회복지기관(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 시설 및 관련 상담 및 복지기관)	상담소	4.1	13.7	56.2	26.0	100(73)
	해바라기	0.0	1.9	73.1	25.0	100(52)
(18)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소	2.7	9.3	45.3	42.7	100(75)
	해바라기	0.0	19.2	26.9	53.8	100(52)
(19)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상담소	11.9	14.9	37.3	35.8	100(67)
	해바라기	2.0	22.4	40.8	34.7	100(49)

- 주: 1. 상담소의 표본수는 77명, 해바라기센터의 표본수는 52명이다.
 2. 위의 표는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연계에 있어서 기관 간 협조가 잘 되는가에 대한 것이다.
 3. 조사대상은 성폭력상담소, 장애인성폭력상담소, 통합상담소, 해바라기센터(아동형, 위기지원형, 통합형) 담당자이다.
 4. ()은 사례수이다.

기관유형별 피해자 지원 유관기관 연계 현황을 비교해 보자(<표 III-9> 참조).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연계와 관련된 해바라기 아동형과의 협조는 상담소 64.9%이고 해바라기 95.9%로 해바라기에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해바라기 통합형과의 협조는 상담소 81.1%이고 해바라기 92.2%로 해바라기에서 더 높다. 해바라기 위기형과의 협조는 상담소 70.9%이고 해바라기 95.4%이다. 전반적으로 해바라기 센터와의 협조가 잘 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상담소보다 해바라기에서 더 잘 되고 있다.

성폭력상담소와 협조가 잘 되는 비율은 상담소 90.2%, 해바라기센터 90.3% 유사하게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성폭력상담소와의 협조는 상담소

82.8%, 해바라기센터 94.2%로 해바라기센터에서 더 높게 나타나, 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해바라기센터 내방객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센터와 관련된 기관 유형별 협조 정도를 비교해보자. 성폭력 피해자 센터와 협조가 잘 되는 비율은 상담소 88.8%, 해바라기센터 96.1%이고, 장애인성폭력 피해자 센터의 경우 상담소 80%, 해바라기센터 75%로 상담소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산부인과 외과 등 전문의료기관과의 협조는 상담소나 해바라기센터에서 90% 이상으로 유사하게 높고, 정신과 및 심리평가·심리치료 기관과의 협조는 상담소 84.2%, 해바라기센터 96.1%로 해바라기센터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경찰과의 협조는 상담소와 해바라기 모두 90%이상으로 높고, 검찰과의 협조는 상담소 63.7%, 해바라기센터 73.9%로 경찰에 비해 낮는데 상담소보다 해바라기센터와의 검찰의 협조 정도가 더 높다. 지자체 공무원과의 협조는 모두 80% 이상으로 유사하다.

학교와의 협조는 상담소 77.3%, 해바라기센터 81.2%로 해바라기센터에서 조금 더 높다. 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상담소 67.7%, 해바라기센터 94.2%이고, 지역아동센터 61.6%, 해바라기센터 81.2%로 해바라기센터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의 협조 비율은 상담소 46%, 해바라기센터 72.6%, 사회복지기관과의 협조는 상담소 82%, 해바라기센터 98.1%로 해바라기센터에서 더 높다. 여성긴급전화 1366와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와의 협조 비율은 각각 상담소 88%, 해바라기센터 80.7%, 상담소 73.1%, 해바라기센터 75.5%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6. 소결

본 장에서는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였다. 설문조사의 목적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기관의 지

원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려는 것이다. 민간상담소 및 해바라기 센터를 통해서 의료, 상담, 치유지원을 포함하여 최근 도입된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의 운용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해바라기와 민간상담소의 경우 경찰의 소개로 연계된 비율이 여타 기관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 비율은 아동, 청소년, 장애인 모든 집단에서 해바라기에서 훨씬 높게 나타났다. 경찰과 해바라기의 연계가 긴밀함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 성폭력상담소로부터 이루어지는 연계를 보면 해바라기 보다는 여타 상담소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장애인성폭력상담소로부터의 연계는 여타 상담소보다는 해바라기로 더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상담소와 해바라기센터 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전담과 비전담 국선변호사에 대한 만족도는 상담소보다 해바라기센터에서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진술조력인에 대한 만족도도 상담소보다 해바라기센터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 현황을 상담소 및 해바라기센터 기관 유형별로 비교해 보면, 검찰·경찰 수사과정 동행·동석하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비율은 상담소에서 높게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연계와 관련된 해바라기 아동형과의 협조는 상담소에 비해 여타 유형의 해바라기센터와의 협조가 더 긴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상담소가 여타 상담소 및 해라기센터와 협조하는 정도는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성폭력상담소의 경우를 보면 일반 상담소보다 해바라기센터와 더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해바라기센터와 상담소의 연계와 협조를 강화하는 것이 향후 과제이다.

IV.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례 분석

1. 아동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례 분석 77
2. 청소년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례 분석 99
3. 장애인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례 분석 131

1. 아동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례 분석

가.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의 접촉

1) 보호자의 피해사실 확인 단계

가) 피해 아동의 피해 사실 보고 지언

아동은 성폭력 피해를 당하여도 그런 사실을 보호자에게 즉각적으로 반드시 알려야 하는 피해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연령이 어릴수록 그 경향이 두드러진다.

아, 세 번 네 번 되는데 자기도 정확하게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모르는데? 했더니 애 말이 “어릴 때” 정확하게 한 1학년인지 2학년인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모여서 자고 이럴 때 가끔씩 그런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왜 그러면 말 안했어?” 그러니까 “엄마, 나 그때는 어려서 그게 나쁜 걸 몰랐는데 이제 조금 커서 학교에서 성추행 성폭력 [교육받고 알았어요].”(C-2)

제가 너무 1년 동안 아이 혼자서 그런 일을 겪고 있었다는 게, 제가 몰랐던 저도 너무 미안했고 조금 더 빨리 얘기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C-3)

아동이 자신이 겪은 일을 성폭력 피해로 인지하는 경우에도 초등학교 고학년 등 사춘기 초기에 들어선 경우 성인과 상담하여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곤 한다. 보호자보다 또래 친구들을 상담자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보호자 역시 피해아동의 불안정하거나 회피하는 행동에 대해 사춘기의 징후라고 생각하고 다른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애가 이제 저한테 말하기 전에 친구 2명한테 먼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제가 알게 됐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부모들이 생각하면은 자식이 나한테 제일 먼저 얘기해줬으면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네요?] 네, 그거에 대해서 처음엔 “왜 엄마한테 그런 일이 있었음 먼저 얘기를 했어야지, 왜 친구들한테 먼저 얘기를 했냐?” 그랬더니 이제 무서워서 그랬고... 그 나이 때에는 사춘기가 오는 나이고, 그 나이 때에는 우선 엄마보다는 친구를, 더 먼저 상담하는 사람을 친구를 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제가 그 전까지는 개가 나에 대한 그 뭐 어떤 선입견? 아니면 벽? 이런 게 있었다고 하니

까. [그 시기가 또 예민한 시기잖아요.] 예예예... 뭔가 행동이 다르고 아 이상하다 그런 거 느끼셨나요? 따님이 말하기 전에?] 말하기 전엔 몰랐어요. 네, (C-1)

또한 사춘기 초기의 또래문화 중심 사고로 인해 성인책임자나 보호자에게 피해자 본인 대신 교우를 통해 피해 사실이 알려지게 될 수 있다.

이제 고민을 털어냈대요. 털어냈는데...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줌마, 제가 지금 OO이랑 같이 있는데 이거는 시간을 더 끌면 애가 얘기를 안 할 거 같아서” 자기가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OO이는 옆에 있니?” 그랬더니 있대. 그래서 바꾸라 그랬더니 막 훌쩍 울다가 이제 받은 거예요. (C-1)

아동 성폭력 가해자는 낯선 사람보다 아동의 생활 반경에서 접촉한 지인이나 가족, 친지 등 잘 알고 있던 사람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피해 아동의 발화로 보호자에게 피해 사실이 알려지기까지 더욱 시간이 걸리게 된다. 아동의 입장에선 자신이 아는 어른들끼리 싸우게 된다는 사실이 무섭기도 하고 자신이 그런 큰 상황을 몰고 오는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이 두렵기 때문이다. 보호자 역시 피해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주변의 다른 사람들 시선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나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 지원기관에 사건을 접수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더 길어진다.

그때만 해도, 하고 남자들이 알면 난리 날까 봐, 그냥 우리끼리 눈치봐 갖고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중략) 그냥 그렇게 정리를 하고 왔지요. (중략) 우리 신랑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저하고 자는데 애가 막 이불을 뒤집어쓰고 (중략) 커튼 식으로 해놨는데 막 그거를 몸매다 휘감는 거예요. 휘감아가지고 이게 다 무너지고 난리가 났어요, 밤에. 어 그래서 우리 신랑이 (중략) 아니 왜 난리 나냐고 재가 왜 저러냐고 그래서 아빠한테 말 안하러다가, 왜냐하면 [가해자가 조카인데 남편] 형제간에 굉장히 돈독한 사인데, 안 할라다가 저 혼자는 너무 화도 나고 어이 없고 그래서, 아 말했어요. (중략) (C-2)

그런데 아이는 아빠한테 얘기할 건지를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무서워해요? 아빠가 알까봐?] 네 아빠가 알면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걸 아니까 혹시라도 좀 일이 (중략) 어른들끼리 싸우면 되게 막 좀 일이 커진다는 생각을 아이들은 하는 거 같아요. (C-3)

남편은 처음에 신고를 하자고 했었는데 저는 좀 주변에 알려지는 것도 두렵고 해서 생각을 좀 해보자. (중략) 선생님이랑 아빠랑 싸움이 날까 봐 그게 무섭기는 했었지만 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아빠가 물어봤을 때 선생님이 벌을 받았으면 좋겠냐고 아이한테 물어봤을 때 그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확 다 하더라고요. (C-3)

나) 보호자의 돌봄이 여의치 않은 경우

만일 보호자가 피해 아동의 방과후 시간을 적절히 보살펴 주기 힘든 상황인 경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도 그 사실을 알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저희가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오후에 애들 학교 갈 때 학교 거의 끝날 때쯤에 나갔다가 새벽에 들어왔거든요. 장사가 이제 2시에 끝나고, 집에 오면 2시 아니면 3시 이래서 항상 자는 거밖에 못 봤어요. (C-1)

또한 아동이 재난이나 여타의 상황으로 인해 요보호 상태에 놓인 아동이라면 최종적으로 성폭력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보호자의 돌봄 아래 놓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 시간 동안 아동 당사자는 성폭력 피해 이외에도 여러 형태의 고통을 겪게 되며 그 결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해리성 기억상실 증세를 보인다. 이런 경우에 보호자가 신체적인 피해 흔적을 발견하더라도 피해 사실을 아동으로부터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제 깨끗이 닦아주려고 고개를 숙이다가 이렇게 음부 주변을 제가 봤죠, 우연히. 다 씻겨가서는 데리고 와서 조금 누워보라 그래갖고 보니까 흉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중략) [그러면 기해자가 누군지 파악도 어렵고 그렇겠네요?] 그러긴 한데 애가 일관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중략) 애가 기억해내는 거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기억해 내는 거에 한계가 있고 또 한국에 와서, 제가 이렇게 키우면서 보니까, 한국에 와서 그 이후의 일은 다 기억을 해요. 근데 북한에서, 중국에서의 일은 기억을 못해요, 잘. 조각조각이에요, 기억이. (중략) 지금은 굉장히 뽕뽕해요, 아이가. 그때에 비하면 뭐 엄청 많이 아이가 뽕뽕해지고 이랬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좀 말을 알아듣거나 자기 표현을 한다거나 이런 거 자체가 많이 어려웠을 때예요. (C-4)

2) 지원 기관 접근

가) 피해자 지원기관 인식 부재

연구에 참여한 피해아동 4명 모두 피해자 지원센터를 이용하였으며 아동 보호자들 중 사건 인지 시점에서 통합지원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던 참여자는 아무도 없었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기관이 있다는 사실을 기존에 학교 등에서 배포한 교육자료를 통해 접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피해자 입장이 되기 전에는 크게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보호자는 어떤 대처부터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는 경우가 많았다. 학교에서 배포하는 성범죄나 성폭력에 대한 교육자료를 통해 지원기관 안내를 충분히 받았다고 하기 어려웠다. 또한 학교 측에서 학생에 대한 성폭력 사건 발생 시에 보호자에게 적절한 가이드를 제시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교감 선생님 연락이 와서 얘기를 하자 이래 가지고는 학교를 갔더니 자기네 규칙상 그거는 자
동으로 신고 예, 규칙상 신고가 해야 된다. [안 그러면 과태료를 물어요] (중략) 이제 교감 선
생님이 하는 말이 그래도 어우, 요즘에는 단체로 당하는 피해 사례도 많고 그러는데 천만다행
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략) [그러면 학교 측에선 어떤 어드바이스를 안 줬나요?
어디를 가서 상담을 좀 받으라든지]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C-1)

학교에서도 가끔 이제 성교육 관련된 그런 것도 오니까 [유인물이 와요? 그런 게 좀 도움이 되
세요?] 다 아는 얘기라고 그냥 한번 읽고 저도 버려버리는 [내용들이 어떤 건가요?] 어 그냥 간
단한 기초, 기초적인 거 뭐, 그런 일들은 아는 사람한테서 제일 많이 일어난다 (중략) [어디다
뭐 연락을 해라 이런 얘기는 없었나요?] 그거는 제가 눈여겨보지는 않았는지 잘 기억은 안 났
어요. (C-3)

학교에서 교육자료를 통해 지원기관에 대해 알린 경우, 보호자는 아동이 다니는 학교 등에서 배포한 교육자료를, 피해 사실 인지 후에 다시 찾아보 고 나서야 비로소 지원기관에 대해 알게 되기도 한다.

얼핏 옛날에 학교에서 뭐 이렇게 애들 성폭력 성추행 관련해서 그 교육 전단지들 보내줬는데
무슨 해바라기 어찌구, 해바라기가 좀 특이하잖아요, 해바라기 뭐가 생각나가지구 '해바라기'
했더니 그게 딱 나오는 거예요. (C-2)

나) 초기 접근까지의 시행착오들

아동의 피해 사실을 인지한 부모들은 외부에 알리지 않고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대체로 인터넷 정보 검색으로 대응책을 찾아본다. 이런 경우 검색어를 무엇으로 하는지에 따라 지원서비스에 연결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달라진다. 관련기관에 연결이 되더라도 ‘성폭력’, ‘성추행’ 등의 단어로 피해 사실을 정확히 보고하지 못하여 즉각 적절한 서비스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아동성폭력’, ‘아동성추행’ 등을 검색어로 입력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해바라기 아동센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처음에는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어디다가 문의를 해야 할지. 상담을 받아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아봤는데 000 그쪽으로 연결이 됐나 봐요. 그런데 (상담) 예약이 많이 밀려있어서 예약을 해야 된다. 거기서는 단순 상담인 줄 알았나봐요. (C-1)

인터넷으로 뭐 이런 그 뭐 있잖아요. 친척간 이런 거 (중략) 결국은 돌려 돌려 해가지고 나중엔 저희집 근처에 있는 그 복지관인가 거기를 연결시키는데 거기도 예약을 해야 되고 또 어디 뭐 자원봉사 하는 그런 데로만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탐탁치가 않은 거예요. [처음엔 어떤 거를 찾으신 건가요?] 저도 기억이 잘 안나요. 하여튼 거기 저 해바라기센터란 거를 몰랐어요. [거기다가 성추행 성폭력은 치지 않으셨나요?] 그렇게 안 치고 아마 뭐 근친...아니, 근친, 친척 그...[근친상간이라고] 근친상간 아니면 뭐 친척간 그런, 그런 거가 돼서 부모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일단 몰라고 했거든요. (C-2)

그래서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서 (중략) [뭐로 치셨어요, 키워드를?] ‘성추행’으로, 아, 아동성추행. [성추행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해바라기 센터랑요, 그리고 저기였었는데 윈스톱지원센터. (중략) 제가 아이들이 있으니까 전화로 여기저기 알아볼 수가 없어서 남편한테 이제 윈스톱지원센터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이런이런 데가 있다고 하니까 (중략) 24시간 상담이 되는 데가 그쪽 윈스톱지원센터라서. (C-3)

[해바라기는 그거 알고 얼마 정도 있다가 연락하시게 됐나요?] 알고 나서 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인터넷으로 어떻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데를 찾아보다가 해바라기, 그때 당시에는 좀 유일했던 거 같아요. (C-4)

다) 타 기관을 통한 연결

지원기관에 우선 접촉하는 대신 병원이나 경찰과 우선 접촉한 후 안내를 받는 경우도 있다. 성폭력 피해 사실이 경찰에 신고되면 경찰에서 피해자 측에 지원기관에 대한 안내를 하거나 지원센터에서 조사와 지원을 동시에 시작하게 된다.

학교에서 알면 조사관이 배정이 되나봐요, 자동으로. (중략) [경찰이니까 해바라기센터에서 만나자 이렇게요?] 예, 진술을 받아야 되니까, 거기에서 진술녹화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만나고 그러시더라고요. (C-1)

나.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의 서비스

1) 지원 서비스에 대한 피해자 측 평가

가) 전반적인 평가

지원기관에 연계되기까지는 다소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연구에 참여한 4명 중 3명이 지원 서비스로 많은 도움을 받았고 서비스 제공자에게 고마움을 느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따님은 상담 다니고 그러면서 많이 좋아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어 많이 좋아졌어요, 엄청 도움 많이 받았어요. (C-1)

좋아졌어요, 나중에는 개가 가고 싶어 했어요, 요즘도 조금 자기가 우울하고 그러면은 엄마 우리 해바라기센터 다시 안 가? 이래요. (해바라기센터의 상담)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중략) 아 제가 신랑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대한민국 그 많은 정책 중에 진짜로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한 거는 이번 (해바라기센터)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C-2)

해바라기에서 어 제가 지금까지도 굉장히 고마워하는 이유가 저도 그 당시엔 감정적으로 많이 동요가 되고 힘들고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정확한 중심을 잡고 가고 이럴 상황은 좀 아닌 거죠, 너무 저 인생에서 그런 일을 겪고 그런 거를 처리를 하고 이러는 거는 많이 이제 좀 부대끼고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해바라기에서 아이를 이렇게 조사하고 상담하고 이러는 과정을 정말 세심하게 아이가 힘들지 않게 그런 과정들을 다 하시더라고요. (C-4)

나) 접수과정

온라인 검색 등으로 정보를 알게 되고 처음 지원기관에 접촉을 시도했을 때 보호자의 예상과 달리 공감과 안내를 충분히 받지 못한 경우 불신과 아쉬움을 나타냈다. 성폭력 피해자라는 사실 자체에 당혹감을 크게 느낄수록 전화 등으로 피해사실을 발설하는 데 곤란함을 느낀다. 그에 따라 피해자 측에서 자연스럽게 피해를 호소할 수 있도록 지원기관 전화 접수자가 대화를 이끌어주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려고 전화를 드린 거였었는데 (중략) 저희 주소지가 □□쪽이라서 □□ 그쪽으로 전화를 드렸을 거예요 (중략) 이 아이가 이런 일을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서 아 정말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가해자를 처벌해주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되겠냐 했더니 그럼 경찰서로 신고하세요 (중략) [오라는 얘기는 안 하고] 그런 얘긴 안 하시고 그냥 경찰서로 신고하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 진전이 되지도 않고 정말 전화통화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서 그냥 전화를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중략) [□□은 신뢰가 안 간다?] 네네 신뢰가 안 가고. (C-3)

진술하고 나오면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 □□원스톱지원센터로 전화를 먼저 드렸었잖아요. [네] 나오는데 그 담당자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상담은, 아이 상담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냐 그래서 저희 그냥 ◎◎해바라기센터로 이미 예약 잡아왔다고 하니까, 아, 아우 글루 하셨나고 뭐뭐 혹시 저희가 잘못된 거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C-3)

(◎◎해바라기센터와의 통화에서) 처음에 제가 얘길 꺼내기는 조금 그랬어요 여보세요 한 번 하고나서 무슨 일이 뭐 자녀 분이 어떤, 그쪽에서 처음 얘기를 실타래를 풀어주시기를 원했는데 (C-3)

C-2의 경우 지원기관에 처음 상담 접수를 할 때 즉각적인 대면상담과 대응을 예상하였으나, 예상과 다른 현실에 당황하였다. 센터의 상담인력에 비해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원기관에서 당황한 보호자에게 대기 기간 동안 취해야 할 행동 가이드를 적절히 제시하여 향후 상담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대처하고 신뢰를 쌓았다.

전화를 했더니 이제, 그때 한 40일 50일 기다리라고 했어요. [해바라기에서요?] 예. 그래서 저는 정말 두 번 충격 먹었죠. 이렇게 많다니, 상담하는 사람이. 그래서 저는 한두 명 정도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센터에 가봤더니 너무 많으신 거예요, 상담 선생님들 너무 많고. 한테 예약이 하루 그냥 폴로 차 있더라고요. (중략) 전화로 처음에 할 때 그래서 일단은 40일인가 50일인가 더 기다려야 되니까 어머님 그때까지 그런 상태로 자꾸 캐묻지도 말고 이제 (가해자와) 만날 기회 있으면 일단은 피하고 고렇게만 해달라고 저는 그때 만날라고 시택하고 만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할라고 했거든요. 근데 상담하면서 일단 그걸 해주셨어요. 이제 급한 처방을 해주신 거죠. (C-2)

다) 지원과정

전반적으로 지원기관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답한 참여자들은 심리상담 과정에 높은 호응을 보였고 특히 부모교육 상담을 통해 아동과의 관계 개선이 된 측면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아동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에는 보호자와의 유대감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관계 개선이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말하는 게 틀려요. 이제 그냥 뭐 평상시에는, 그 저에는 말 잘 안하고 이렇게, 막 그런 애는 아니지만 많은 거를 얘기하고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친구처럼 얘기해요. (중략) 예, 신기해요. 처음에는 ‘아휴 내가 여기 왜 왔지? 내가 여기 왜 다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도움 하나도 안 되는 것 같고 내 얘기만 하다 오는 거고, 내 생각만 얘기하다 오는 거고 그런데 점점 (중략) 제가 상담을 받고 실생활에서 제가 계속 응용해서 써먹고 있더라고요. (C-1)

그분하고 상담하면서 전 아 전문가가 괜히 전문가가 아니구나. 들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바뀌어야 되는구나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C-2)

C-1의 사례에서는 상담 지원 초기 과정에서 받게 된 회기로는 다소 부족하다는 결론에 동의하고 연장을 통해 심층적인 상담과 가족 상담을 한 결과 피해아동과 보호자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처음에는 센터 가서 5회기, 정신과 선생님이 5회기를 내렸어요. 심리치료를. 그래서 이제 5회기 다닐 때까지만 해도 애가 마음의 문을 안 열었었거든요. 심리치료하시는 그거 하시는 그 상담 선생님도, 저는 더 필요하다고 계속 느끼고 있었고, 이 선생님도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상담할 때 이렇게 막 애가 마음의 문을 안 열고 그냥 수박겉핥기로 그냥 상담가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생각이 있으시더라고요. (중략) 그리고 그 소장님이랑 넷이서 이렇게 넷이서 애 아빠랑, 한번 상담을 했죠. ○○이 없었을 거야 아바. 얘기하면서 자기가 한번 상담을 해보겠다. 일주일에 한 번씩 팀장님께서 직접 인제, 상담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족 상담을 같이 항상, 올 때 가족이, 어, 엄마 아빠랑, 먼저 ○○이랑 상담하고, 그다음에 엄마아빠랑 상담하고 이래서 한번 센터가면 거의 기본이 두세 시간 상담하고 그리고 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하자 해서 계속 그걸 꾸준히 받았죠. 그래서 애가 처음에는, 그 상담선생님이랑 또 거의 비슷했는데 점점 점점 갈수록 애가 이제 그, 뭐지, 자기 마음을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C-1)

보호자들은 때로 사법 절차로 넘어가기를 두려워한다. C-3은 성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을 외부로 발설하기를 매우 두려워하였는데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사건이 커지고 학교 등에 알려질 것을 우려하여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한 주변인들의 말을 듣고 가해자가 집행유예 등을 통해 처벌을 약하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여 합의를 통해 종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원기관에서 피해아동이 상담을 받은 이후 아동의 가해자 처벌 의사와 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피해사실을 인지한 지 2주 만에 신고를 하였다.

경찰서에 신고를 나중에 하긴 했거든요. (중략) 아이가 얘기하고 나서 2주 정도 뒤에. 센터에 아바 한 번 갔다 오고 나서 그다음 날인가 바로 했던 거 같, 그쯤 센터에 한 번 방문하고 나서 그즈음에 했어요. (중략) 아이 학교에 먼저 알려질까 봐서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었고. (중략) 그분들은 이제 말씀을, 신고를 해도 어차피 초범이고 상습이라는 말이 붙기는 하지만 집행유예로 나올 가능성이 많다. (중략) 차라리 고소하는 대신에 돈을 더 받고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아이가 어떻게 그거 (중략) 남편은 처음에 신고를 하자고 했었는데 저는 좀 주변에 알려지는 것도 두렵고 해서 생각을 좀 해보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쪽 가해자 쪽이랑 만나고 했더니 그 쪽에서도 신고는 하지 말아 달라 조금 얘기를 더 해보, 더 얘기를 하자고 해서 중간중간 얘기를 했었는데 음 합의 얘기도 잘 안됐었구요. 나중에 저희 아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C-3)

이제 센터에서 약간 그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니까.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는 게 낫겠다. 그 주변에서...어 주변사람들한테 쉽게, 저희 가족들 외에는 알릴 수 없는 상황이니까 누구에게 물어보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는 걸 이걸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또 많이 경험하신 분들이 그렇게 또 한 번씩 얘길 해주시니까 이게 조금 생각이 많이 바뀌는 데 도움이...[그래서 어디로 가셨어요? 신고하러?] 신고는...아 제가 전화로 알아보고 전화 드렸던 거 같아요. 그래서 △△, □□ △△ 경찰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된다 하셔가지고. (C-3)

C-4의 경우에는 피해 사건 당시 아동이 국내에 있지 않았던 특수한 경우로 사건 진행 과정에서 국외에 주재하는 가해자가 피해 아동을 계속 슬하에 보호하려고 시도했다. 보호자는 초기에 형사 재판 과정보다는 피해 아동을 가해자와 분리하는 조치만을 원했으나 지원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분리를 위해서는 사법적 절차로 넘어가야 함을 인지하였다. 또한 아동이 탈북 과정에서 겪은 고통으로 인해 기억력과 언어 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에 적절한 보조자가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기관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요청하였다. 보호자는 이 과정에서 지원기관을 힘든 과정을 함께 버틴 동지적 관계로 이해하였다.

애 말을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계신 분이 상담을 하다가, 또 장애 아이를 상담하시는 분을 따로 또 모셔오고 뭐 섭외하고 그런 과정을 정확하게 돕기 위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애쓰시더라고요. (중략) 해바라기에서 모든 조사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나서 이제 그 해바라기 안에서 의논들을 많이 하셨던 거 같아요. 이런 경우가 쉽지 않은 경우니까. 늘상 일어나고 이런 상황들은 아니잖아요. 상황이 또 중국에서 일어난 상황이고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 진술을 하는 거를 얼만큼 신빙성이 있어서 믿어줄 것인가 이런 거. 그런 거 놓고 많이 고민하고 그러셨던 거 같아요. 내부의 그거를 거쳐서 이거는 정확하게 법원에서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문제지, 그렇지 않고는 애를 분리할 방법이 없다 이런 결정을 하셨던 거 같아요. [아, 그 보호자랑?] 네 그분이랑. [그 보호자랑 법적인 뭐가 있었나요?] 그런 건 아니죠. (중략) 저는 이 일을 이렇게 재판까지 가서 이렇게 복잡한 상황으로 벌어질 줄은 모르고 해바라기에게 부탁을 하면, 아, 이런저런 상황이 있으니까 당신(피의자)이 키우는 거는 좀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데려간다는 거는 포기를 하세요. 이렇게 뭐 조정을 해주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제가 뭘 너무 몰랐던 거죠. (중략) 해바라기하고 저는 오랫동안 고생한 거는 이 아이를 그분한테서 분리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한 건데 자기는 혐의가 없으니까 데려 가겠다 그러면서 공격을 해오는데,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그렇게 공격을 해오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C-4)

다만 C-4의 경우에 참여자는 지원기관에서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 확보나 검증 과정이 따로 실시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았다고 회상하였다. 성폭력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의사의 피해 사실 확인이나 성폭력 피해자일 가능성에 대한 판단 여부는 후에 공판 과정에서 중요한데 이 부분이 명확하게 판단되지 않거나 후에 다른 의사에게 맡겨질 경우 가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러면 처음에 해바라기에서 사진 같은 건 찍었나요? 신체부위 그런 거 상처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 거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 봐요. [그건 아닌 거 같은데.] OO이라 그래서 OO에 아이를 데리고 갔거든요. 그래갖고,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제가 이런 상황에 동석은, 동석을 제가 안 했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의사가 검진을 했으면 소견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사진과 진배없는 그런] 그런 거겠죠. 거기에서는 원인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그런 상황들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중략) 의사들도 이게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의사로서의 책임으로 보면 모른다는 게 맞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해서 생겼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 (C-4)

C-1의 사례에서는 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동종 피해자 모임을 통해 매우 긍정적인 경험을 하였다. 다른 보호자는 이와 같은 동종 피해자 모임에 참여하여 피해 아동과 그 부모들이 서로 고충을 나눔으로써 치유가 가능하리라 생각했지만 해당 지원기관을 통해서도 피해자 모임에 참여할 수 없었다.

애가 더 좋아져가지고 뭐지, 거기서, 센터에서 이렇게 모임 같은 것도 있었고 연극도 보여주었고 몇몇 그...보니까 그냥 외부사람한테 이렇게 성폭행당한 그런 사람들 말고 친가족 그 안에서 일어난 그러한 사람들만 이렇게 모임을 갖더라고요. 만약에 센터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 가족들, 항상 오는 가족들이 있더라고요. 그 가족들만 모여서 같이 하고 밥 먹고 뭐 이런 것도 하고 (중략) 그냥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너무 자연스럽게 그 일을 얘기를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오픈하고, 오픈해서 막 얘기하고 애들끼리도 막 서로 막 처음 편하게 되게 그러더라고요. 애들은 애들인데 어우, 깜짝 놀랬죠. 그런데 그 어머니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데 가서는 말도 못하는 걸 여기서는 이렇게 편하게 얘기해서 너무 좋다. (중략) 그런 모임 많이 갖고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C-1)

엄마들이 이거 막 하소연을 하고 싶은데 할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정말 뭐 동질감 있는 엄마들끼리 막 하면은 뭐 울어도 정말 속 시원하고 억울한 이야기를 막 해도 정말 속이 막 개운하고 하면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똑같은 처지다 보니까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엄마들도 치유가 될 거 같은데 (중략) 그러니까 애들도 더 응 우리는 자기네들끼리 서로 그렇게 하면서 아 나만 그런 거 아니구나. 그리고 그 와중에는 뭐 지혜롭게 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하다 보면은 해피바이러스가 좀 돌아 보면은 애들도 바로 또 회복이 되고 할 텐데. 그기 위해서도 서로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엄마들도 그냥 다 대기실에서 앉아만 있고 커피만 마시고 핸드폰만 하고. (C-2)

다. 형사사법기관

1) 경찰 서비스

연구에 참여한 아동피해자 보호자들은 다양한 경로로 경찰과 접촉하였다. C-1의 피해자는 학교를 통해 경찰로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을 하였고 수사관의 안내를 통해 지원기관에서 조사를 시작하였다. C-3의 피해자는 부모가 직접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C-4의 경우엔 경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검찰 조사부터 시작하였는데 역시 지원기관에서 진술녹화를 시작하였다. 신고 절차를 밟은 참여자 모두 일선경찰서가 아닌 지원기관에서 진술녹화를 하는 것으로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경찰과의 첫 대면에 대해 친절하고 설명도 충분했다고 응답하였다.

그쪽(경찰서)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분께서 만나자고 했는데 만나자는 장소가 ○○○해바라기센터에서 만난 거죠. 그 수사관님이. 그때 처음 만날 때 변호사님이랑 수사관님이랑 같이 해바라기센터에서 만나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만나게 됐어요. (중략) 진술을 받아야 되니까, 거기에서 진술녹화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만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C-1)

경찰서는 한번도 가지 않았거든요. 부르시진 않더라고요. [전화를 해서?] 전화를 해서 신고를 했더니 이제 수사관 바로 배정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아이 진술을 녹음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어디서 했나요?] 그때는 □□ 원스톱 지원센터로 갔어요. (중략) 생각보다 경찰서에서 많이 친절하시더라고요. 전화하면은 설명 다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하더라고요. (C-3)

C-3의 사례에서는 경찰 신고와 진술녹화를 마친 후 바로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지 않고 일주일 정도 공백을 두었는데 피해자 측에 그 이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

저희 신고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 뒤에, 일주일 정도 뒤에 가해자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바로 하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저희는, 어, 저희가 듣기로는 이제 그런, 13세 미만의 그런 죄에서는 바로 구속이 되고 이렇게 일이 좀 빨리 진행이 되는 줄 알았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바로 구속이 되고 그렇지 않는더라고요. (C-3)

2) 진술녹화

가) 녹화과정의 어려움

성폭력 피해자들은 진술과정에서 피해 상황을 기억에서 복구해내고 해당 행위에 대해 진술하는 데에 곤란을 겪는데 아동의 경우에는 특히 일시와 장소에 대해 명확히 진술하기 힘들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확인을 하는 과정을 힘들어 했다. 진술을 진행하는 경찰이나 검사의 진행 능력이 이러한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었다. 또한 아동이 얼마나 안심할 만한 진술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지가 중요했다.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네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너무 지겹다고 빨리 하고 가고 싶다고 계속 그러기는 하더라고요. (중략) 아이가 알아서 얘기를 할 수, 해야지만 그게 객관적인 진술이 되는 거라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저는 조금 질문을 다른 식으로 바꾸면 아이한테 [예를 들면 어떤 질문을 하셨나요? 어떤 식으로?] 뭐, 가장 최근에 원장 선생님이 너한테 그런 짓을 하셨을 때는 언제였니? (중략) 언제쯤이었는지를 먼저 기억을 해야 되고, 그게 잘 기억이 안나면 이제 [거기서 꼬이는 거예요?] 네 거기서부터 잘 안 풀리는 거 같은 생각이 들고, 집에 와서 나중에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서 진술하는 거 이외에도 또 몇 번이 더 있었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하다보니까 아이는 이제 그때 입었던 옷 같은 걸 다 기억을 하거든요. (C-3)

[진술을 했어요?] 예, 애가 말을 잘 못하고 이러니까 [진술할 때는 어땠나요?] 그래서 그게 과정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어요. (C-4)

나) 진술녹화시 동석자

진술은 신뢰관계자로 부모가 동석하기도 하고, 아동이 부모 앞에서 진술하기가 불편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상담자가 동석하기도 했다. 부모가 동석하는 경우엔 진술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침묵을 지킬 것을 요구받았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별도로 아동의 진술과정을 돕는 진술조력인이 동석하기도 하고, 피해아동의 진술로 부족한 경우 보호자의 진술을 추가로 받기도 하였지만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지는 않았다.

[진술할 때는 어머니가 지켜보셨나요?]아니요, 저는 못 들어가게 하고 [밖에서 보셨나요?] 아니요 밖에서도 못 봤어요. (C-1)

[진술조력인이라곤 혹시 또 없으셨나요? 처음에 그 진술할 때.] 아! 그분이었어요. 제가 아까 말했던 분이. 조력인? 그분 처음 한 번 봤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주셨어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이제 다 들어주시 말라고 이렇게, 평상시랑 똑같이 행동 하라고 [그분은 한 번만 만났나요?] 예, 그때 한 번. (중략) [그분 역할은 뭐였나요?] 그분 역할이요? 그 진술조력, 그, 그분이라고 제가 그날 한 번 봐서 잘 모르겠는데. (C-1)

진술할 때 제가 옆에 같이 앉아 있고 진술을 하긴 했는데 어 예 제가 모르는 얘기도 조금 더 많이 하고(중략) 날짜 개념 때문에 그러는데 대중 어느 정도인지는 기억을 하니까 그래서 정확한 날짜를 말을 안 하니까 그 나중에 그 녹취록 부분이 다 날짜는 없더라고요. 언제 언제였 이런 것도 뭐 그냥 지난겨울, 가을경(C-3)

저는 옆에 앉아 있긴 했지만 어떤 말도 해선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중략) 기억을 못하는 것도 옆에서 언제쯤이라고 내가 중간에 쯤 ‘그때쯤이지 않았을까?’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탁 터질 것 같은데 전혀 얘기를 말을 못하게 하니까 그게 조금 많이 답답하긴 했어요. (C-3)

아이가 진술했던 부분이랑 가해자 분 진술했던 부분이 처음에는 안 맞는 부분이 조금 있다 하셔 가지구 이제 경찰서에 진술하셔서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신 적도 있고 시계가 그때가 아니다 얘기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걸 경찰이 확인을 다시 해야겠다 말씀을 하셔서 어, 아이를 한 번 더 데리고 가야 되나 했었는데 아이는 웬만하면 되도록 진술을 안 받도록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추가로 한 번 더 진술을 했었어요. (중략) 제가 다시 가서 그거 아니구 이제 아이가 그날 입었던 옷까지 다 기억을 하고 그날 입었던 옷을 뭐뭘 입었다구 얘기를 해줬더니 그쪽에서도 이제 아이 진술에 많이 이걸 두시는 거 같더라고요. 옷까지 기억을 하는데. (C-3)

[해바라기에서 진술녹화)하실 때 어디 같이 동석하거나 지켜보셨나요?] 그러진 않고 저는 이제 데리고 왔다 갔다만 [그럼 진술하는 거 보지는 않으시고요.] 아 그렇죠.(C-4)

3) 검찰 조사 과정

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가해자와의 공방 속에서 여러 차례 아동과 보호자가 조사를 받기도 하였고 조사 초기에는 불분명했던 아동의 진술이 점차 명확해지면서 기소까지 진행되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검찰 측이 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하고 효과적인 진술을 하게끔 기회를 주려고 노력하였다. 노력

에도 불구하고 역부족인 한계도 보였다.

그걸 아주 아이에 맞게 잘한다고 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굉장히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애가 좀 무서워도 했겠어요. 낮설고]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같이 다니고 엄마라고 의지하고 살고 있고 이러니까 같이 가서 손 잡고 있고 같이 다니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는 그렇게 불안해하거나 이리지는 않더라고요. (중략) [어머니는 그림 조사하고 그럴 때 몇 번쯤 동행했어요?] 검찰에 갔던 거가 제 기억에 한 네다섯 번 간 거 같아요. (C-4)

같이 살았던 사람들을 사진을 보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해내는 거야. 막 반가워하면서, 아이가. [검사님도 놀랐겠어요?] 확신을 가지신 거죠. 그래서 검사님도 그렇고 조사관님도 그렇고 (중략) 검사님이 그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는 기소를 한 거죠. 그래서 재판이 시작된 거죠. (C-4)

4) 공판과정

공판은 가해자 측과 공방이 오가면서 여러 차례 열리게 되기도 한다. 대개 피해아동 당사자는 참석하지 않고 보호자가 참석하거나 국선변호인, 지원기관에서 참석하였다. 피해자 가족은 첫 공판 현장에서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이나 가해자 측과의 공방 등을 힘겨워하였고 이후 공판에 참석하지 않기도 하였다. 가해자 측은 피해아동의 진술 신빙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 가족의 고통이 가중되었고 진술 신빙성 문제로 인해 가해자에 유리한 판결이 나기도 하였다. C-4의 사례에서는 아동이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해 해리성 기억장애를 앓고 있지만 피해 사실에 관한 부분들만은 명확히 일관되게 진술을 했는데도, 여타 다른 상황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 사실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신체적인 부분과 관련된 과목 전문의의 판단만 참고되었고 아동의 정신적인 부분과 관련된 과목의 전문의가 아동이 진술한 피해 사실에 대한 신빙성을 논하는 과정은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된 전문의들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두 번째 공판부터 저흰 안 갔어요. (중략) 첫 번째 공판 가서 아 뵈는데 되게 거기 앉아.....물론 짧게 끝나긴 했는데 거기 앉아서 그걸 듣고 있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C-3)

[공판은 몇 번 했나요, 1심에서?] 모르겠어요. [간 가는 한 번 정도 가셨나요?] 많이 갔죠. [법정에 많이 갔어요?] 증인으로 서는 건 한 3번 갔던 거 같아요. [어, 그런데 아이는 여러 번?] 아이는 안 갔어요. [그럼 그 공판이 여러 번 열렸나요?] 그렇지요. [꽤 많이 열렸네요.] 네 1심 2심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번 열렸죠. 1심에서는 주로 이제 이 아이가 말하는 아빠(가해자)가 이 사람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를 이제 공방을 처음에는 하다가 그다음에는 그럼 이 아이의 말이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 그리고 이제 거기서 1심에서 결정 내려진 거 가지고 검사님이 항소를 하셔서 2심에서는 내내 이 아이의 말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믿어야 될 건가 이 문제 가지고선 계속 전문가들이 나와서 공방이 있었죠. (중략) [그러면 1심에서 무죄가 된 결정적인 이유는, 말에 좀, 말을 뒷받침하는 그런 게 약하다, 신빙성이 약하다 그게?] 그렇죠. 애가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막 이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뭐 일관성은 있지만 뭔가를 말하는 일관성은 있지만 이 아이가 다른 상황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기억이 없잖아요? 중국이나 북한에서의 어떤 기억들이 애가 딱 정확하게 있지를 않으니까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늘상 이러구 사는 거예요. 자기 기억이 없으니까. (중략) [“아저씨가 그랬니?” 이랬더니 “그러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한번도. [그런데 왜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일관적으로 얘기하는데 다른 기억들에 대해서는 애가 기억이 오락가락하니까 오락가락하니까 다른 거가 그렇게 기억이 없는 걸로 봐갖고 이것도 그렇다고, 꼭 그렇다고 볼 수가 없다 이런 어떤 판단이...(C-4)

(성기에 흉터들이 생긴)원인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그런 상황들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중략) 의사들도 이게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의사로서의 책임으로 보면 모른다는 게 맞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해서 생겼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C-4)

라. 국선변호인과 법률조력인

1) 법률전문인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제공

사법절차를 밝은 경우 피해자는 지원기관에서 진술조사를 하면서 국선변호인에 대한 안내를 받았고, 국선변호인의 지원을 받겠다고 의사를 밝힌 후에 지원기관을 통해 지원을 신청하였다.

네,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진술하는 날 그날 물어보시더라고요, 국선변호사로 하실 거냐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더니 바로 대, 대, 대신 해주시더라고요. (C-3)

C-1의 사례 역시 지원기관을 통해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만났으며, 연구 참여자가 피해자의 부모인 동시에 가해자의 부모이기도 한 상태여서 피해

자 국선변호사와 가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을 모두 받았다.

[가해 아드님은 변호사를 썼었나요?] 거기 국선변호사를 썼어요. [국선변호사들요?] 예, 예.
(C-1)

C-4의 가해자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국외에 있는 자신의 보호소에 피해 아동을 다시 데려가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보호자는 많은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검찰에서 기소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국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으며 14년도에 실시된 2심 과정에서 법률전문인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지 못했다.

너무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이분한테. 엄청난 공격이 저한테. [어떤...?] 보라, 나는 혐의가 없으니까, 너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한 거다, 애를 내놔라, 데려가겠다. 그런 (중략) 이 아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저는 아는 거잖아요, 아이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그러면 그 해바라기하고 저는 오랫동안 고생한 거는 이 아이를 그분한테서 분리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한 건데 자기는 혐의가 없으니까 데려가겠다 그러면서 공격을 해오는데,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그렇게 공격을 해오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더라고. [2심이 언제 끝났나요?] 작년 겨울, 여름에. 여름에 끝나고 나서 [14년도 여름에?] 예 [굉장히 길었네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제가 몇 달 동안은 굉장히 힘들게, 작년에 굉장히 힘들게 보냈어요. [국선변호사가, 좀 쓰셨나요? 국선변호사 안 쓰셨나요? 있지 않았나요?] 이쪽에는 검찰에서 기소를 한 거기 때문에 변호사가 없었어요. (C-4)

2) 원활한 연결과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국선변호인이 배정이 된 이후 피해자가 변호인으로부터 첫 연락을 받는 시점이 사례마다 각각 달랐고 이후 상담에 있어 용이함이나 변호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폭에 있어 격차가 있었다.

가) 최초 연락 시점과 상담 진행

C-1의 피해아동과 보호자는 지원기관에서 진술녹화를 하는 날 바로 국선 변호사와 대면하였고 이후 연락과 상담도 원활히 진행되었다.

[거기서 처음 만나신 거네요, 해바라기 센터에서?] 네, 그때 처음 만나서 뭐 사건 과정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자세히 알려주셨고 그리고 나중에는 인제 합의서 부분을 얘기를 했을 때도 “그러면 어머니, 제가 직접 만나서 ○○이(피해자) 의견을 물어보고 개가 해주겠다 하면 하고 아니면 안해주겠다 그러면 제가 안 할게요.” 이러면서, 사무실로 제가 두 번인가 찾아가가지고 둘이 따로 대화도 나누고 뭐 그때그때 궁금한 거 있으면 뭐 물어보기도 하고. (C-1)

C-3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는 피해자 보호자의 연락처를 지원기관으로부터 받아 진술녹화 기록 열람에 관한 동의를 얻는 시점에서 연락을 취해왔다. 재판 전까지 대면한 적 없이 전화통화로 기록 열람과 가해자 합의에 대한 동의를 문의하기 위해 1~2회 연락하였고, 재판에 관한 우편 송달물을 2주에 한 번 확인하는 등의 이유로 재판 날짜 등의 정보를 피해자에게 적절한 시기에 알려주지 못하였다.

따로 재판 전까지 만나본 적은 없구요, 전화통화 한두 번 정도만 [어떤 전화 통화하셨나요?] 재판..... 근데 사실 제가 좀 그랬던 게 저희 변호사 분이 바쁘신 건 아시긴 한데 첫 재판 날짜가 잡혔을 때, 어 모르고 계셨었어요. (중략) 그때가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일요일날 진술을 했었거든요, 그때 일요일날 했는.....[전화번호만 받았나요?] 전화를 네, 나중에 저한테 문자를 주셨던 거 같아요. (중략) 아이 녹취록 기록 말씀 하시면서 본인이 그 아이가 녹취록 한 걸 보시려면 부모님 동의가 필요하다고 [동의해 달라고] 네 동의해 달라고 문자 한번 보내주세요, 그러고서 간단하게 끊으셨던 거 같아요, 그리고나서 저, 제가 문자를 보내드려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번호가 유선 번호였어요, 그래서 저는 문자가 들어가는 줄 모르고 혹시 다른 번호, 휴대폰 번호로 저한테 연락을 주실 줄 알고 계속 일주일 정도를 기다렸었던 거 같아요, 기다리다가 연락이 없어서 제가 다시 한번 연락을 드렸더니 그 번호로 그냥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는 거였다고 그래서 문자 보내드리고 나서 그 가해자 쪽에서 그 합의 얘기하셔서 제가 변호사분께 그때 다시 전할 드렸더니 아 2주에 한 번씩 그걸 확인을 하신대요, 재판...그 송달...은 우편물을. 근데 아마 그때 안 걸려진 거 같다고, 그때 제가 전화드렸을 때 재판이 일주일인가 그 정도밖에 안 남았었거든요, 아마 그때 안 걸려진 거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안 걸려졌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2주에 한 번씩 그걸 확인을 하신대요, 재판 일정 같은 거를. (중략) [그러면 대면은 못했나요?] 어, 첫 재판 날짜에 처음 얼굴 뵈었어요. (C-3)

나) 조사와 공판 과정에서의 지원

C-1은 국선변호사가 진술녹화 시점부터 피해 아동과 동석을 하고 전 과정

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보호자들이 동일인이었기 때문에 가해자 국선뿐 아니라 피해자 지원 국선변호사에게도 가해자에 대한 선처를 위해 법률적 조언을 구했는데 본래는 피해자 지원의 영역이 아니었지만 피해자 가정에 대한 지원으로써 법률적 조언을 얻을 수 있었다.

변호사님이 아무래도, 남이 아니고 가해자가 남이 아닌 오빠기 때문에 어, 그 자기는 ○○이를 변호를 해야 하는데, 피해자를 변호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랬죠 가해자도 좀 어떻게 선처하는 방법으로 좀 음, 막 교도소 가고 막 그러는 것보다 이제 좀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그런 데 교육할 수 그쪽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얘기를 많이 해주셨죠. 이렇게 이렇게 하고 뭐...(C-1)

C-3의 연구 참여자는 재판정에서 변호사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이렇게 할 긍정적인 기억이 없었지만 합의 과정에서 있었던 상황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적극성에 대해서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했으며 국선변호사가 피해자 측과 직접 상담 대신 지원기관과 업무 협조 차원의 연락을 자주 취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공판에서는 국선변호사가 뭘 했나요?] 아니 별로 하시는 거 없었어요. [아무것도 안했어요?] 그냥 출석했는데 확인 한번 하시던데요. [국선변호사 왔나요? 이렇게?] 네네 (C-3)

[국선변호사가 해준 게 뭐가 있나요? 그 이후에?] 어...중간에...첫 번째 공판 끝나고 나서 첫 번째 공판 끝나고 두 번째 공판 전에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해서 합의를 했어요. 합의서를 쓰긴 썼어요. 합의서를 쓰면서, 인제 처음부터 이렇게 좋게 합의가 된 게 아니라 얘기가 많이 많다가 합의가 된 상황이라서, 변호사 분이 이제 그런 상황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서 제출해 주시겠다고, 원활한 합의가 된 게 아니고 부모님이 뭐 이런 상황이어서 좀 빨리 끝내고 싶어하시는 상황이어서 한 합의다, 그리고 뭐 저희 이제 해바라기 센터로 따로 전화하셔서 거기에서 아이(가) 받은 검사랑 뭐 이런 거 따로 요구하셨던 거 같아요. (중략) 그래서 뭐 의견서 내실 때 좀 참고하실 만한 거 받아서 아마 같이 내신 거 같으시더라고요. [아 국선변호사가?] 네 센터 쪽에서는 국선변호사분이 많이 신경 써주신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직접 전화, 센터로 전화하셔서 뭐 이것저것 물어보고 하셨었으니까. [아, 어머니랑 자주 연락은 안 했지만 필요한 거는 그 자료, 진술 자료] 예 뭐 필요한 거 [그다음에 저기 자료 갖다가 자기 의견서를 제출] 네 이런 거를 해주신 거 같아요. (C-3)

다) 국선변호인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초기 대면 시점도 빨랐고 진행 과정에서 연결이 원활했으며 공판 과정 내내 적극적 법률 지원을 받았던 C-1은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가해자 국선변호사 지원도 동시에 받았던 입장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피해 가정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C-1의 경우 연구 참여자가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보호자이자 가해자의 보호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피해자 본인이 이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지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 친족성폭력 청소년피해자인 A-6의 경우엔 피해자 국선변호인이 보호자에게 가해자를 위한 절차를 안내하는 것을 듣고 위축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같은 가족 내에서 일어난 사건의 경우 가해자 국선변호사와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업무 영역이 확실히 구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선변호사는 잘 도와주셨나요?] ○○이(피해자)쪽 국선변호사님은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어요. (중략) 그런데 거기(가해자) 국선변호사님은 피해자, 저기 뭐야, 가해자 입장인 변호사기 때문에 봤을 때 대충대충 할라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막 나서서 안해 주시고 그냥 뭐, 뭐지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를 해도 “아우 뭐 그렇게 해요.” 뭐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C-1)

C-3의 보호자는 예상보다 1심 재판에서 가해자에게 무거운 형벌이 내려진 것에 대해, 국선변호인의 노력보다는 가해자가 받은 심리검사 결과에 원인을 두었다. 2심 결과를 기다리면서 변호사로부터 약속받은 연락을 못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사건 진행 전반에 걸쳐 직접적인 상담과 연락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족도가 비교적 낮았다.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뢰인의 요구보다 앞서서 챙겨주지 않은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생각보다 많이 세게 나왔어요. [좀 놀래셨겠어요] 네 저는 정말 집행유예로 바로 나올까봐 조금... [그랬을 때 어땠어요? 그걸 확인하셨을 때] 음 처음에 보여주셨을 때 되게 많이 쪼끔 놀랐어요. 너무 생각보다 많이 나온 거 같다는 생각도 했었구.....[납편은 뭐라 그러세요?] 납편은..... 납편도 조금, 예. 생각보다 조금 세게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그만큼 벌 받을 짓을 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범죄자 그 심리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온 건지 어떤 건지 그것 때문에 영향을 많이 준 게 아닐까 그런 얘기를 했었었거든요.(C-3)

2심은 선고가 났는데 제가 지금 선고 결과를 몰라요. [아, 2심이 났어요?] 네. [아... 국선 변호사는 지금도 아직도 있나요?] 네네, 근데 제가 지금 그동안에 조금 중간에 집안에 일이 있고 막 이래가지구 변호사분한테 선고 결과, 아, 그리고 첫 번째 공판 끝나고 나서 만약에 선고 결과나 뭐 항소 여부 이런 거 알고 싶으시면 문자로 다 알려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싫어하시는 부모님도 계셔서 만약에 원하시면 해드리는데 원하시냐고 하셔서 저는 문자로는 알려달라고 말씀 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바로 있으면 바로바로 알려주시는 건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C-3)

제가 요구하는 부분은 음 잘해주세요. 먼저 챙겨서 해주시는 부분은 (중략) 그럴 시간은 없으신 거 같아요. 친절히 이런 저런 [국선변호사에 대한 전반적으로 만족도는 1부터 10이라면 한 몇 점쯤 주겠어요?] 전 한 4점이에요. (중략) 통화할 때 아이 걱정도 좀 해주시길 하시고(C-3)

마. 소결

아동성폭력 피해자 사례 4건을 통해 지원체계 경험을 살펴보았다.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성폭력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며 사춘기 초기의 아동은 또래 친구들을 상담자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보호자가 피해사실을 즉각 알기 힘들었다. 가해자는 아동의 생활 반경에서 접촉한 지인이나 가족, 친지 등 잘 알고 있던 사람인 경우가 많았다.

연구에 참여한 피해아동 4명 모두 피해자 지원센터를 이용하였으나 보호자들 중 이전에 지원센터에 대해 알고 있던 참여자가 없었다. 학생에 대한 성폭력 사건 발생 시에 학교 측에서 보호자에게 적절한 가이드를 제시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아동의 피해 사실을 인지한 부모들은 외부에 알리지 않고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대체로 인터넷 정보 검색으로 대응책을 찾아왔으며 검색어를 무엇으로 하는지에 따라 지원서비스에 연결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달라졌다. 병원이나 경찰과 우선 접촉한 후 지원센터에 대해 안내받는 경우도 있었다.

연구에 참여한 4명 중 3명이 지원 서비스로 많은 도움을 받았고 서비스 제공자에게 고마움을 느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답한 참여자들은 아동의 안정과 부모-아동 관계 개선 측면에서 심리상담 과정에 높은 호응을 보였다. 동종 피해당사자 모임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었고 참여하지 못한 경우 모임을 통한 심리 치유를 희망하였다.

보호자들은 형사사법 절차로 넘어가기를 꺼리기도 하였다. 가해자 처벌이 미약할 것이라는 예상, 보복의 두려움, 가해자에 대한 연민, 재판 참여에 대한 저항감 등이 이유였다. 형사사법 절차를 밟은 보호자들은 학교를 통한 신고접수, 보호자의 직접적 신고 등 다양한 경로로 경찰과 접촉하였다. 신고한 참여자 모두 경찰서가 아닌 지원센터의 진술녹화실에서 담당경찰과 함께 진술녹화를 하였다. 진술녹화시에 아동들은 피해 상황을 복구하는 데 따르는 스트레스뿐 아니라, 비교적 일시와 장소에 대해 명확히 진술하기 어려워하는 아동피해자의 특성 때문에 반복적으로 질문을 받는 것 등, 부드럽게 진행되기 힘든 진술 분위기를 힘들어하였다. 피해자를 배려하려는 진술담당관의 노력은 전문성이 결여되어 역부족인 측면이 있었다. 진술 시에는 신뢰관계자로 부모가 동석하기도 하였지만 진술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침묵을 지킬 것을 요구받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아동이 부모 앞에서 진술하기가 불편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뢰관계자로 지원기관의 상담자가 동석하기도 했다. 또한 별도로 아동의 진술과정을 돕는 진술조력인이 동석하기도 하고, 피해아동의 진술로 부족한 경우 보호자의 진술을 추가로 받기도 하였다.

공판에 대개 피해아동 당사자는 참석하지 않고 보호자가 참석하거나 국선변호인, 지원기관에서 참석하였다. 가해자 측은 아동의 의사표현력이 약한 약점을 노려 피해아동의 진술 신빙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측의 고통이 가중되고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재판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아동의 진술 신빙성 문제로 재판에 참고된 전문의들이 성폭력 피해자의 정신적인 트라우마에 대해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원기관에서 진술녹화를 시작한 피해자들은 원활히 국선변호인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국선변호인과 첫 연락을 하게 된 시점은 제각기 달랐다. 이후 변호인의 개입 정도와 피해자에 대한 적극성 면에서도 사례마다 편차가 매우 컸다. 초기 대면 시점이 빠르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연락이 원활했으며 공판에 동석하는 등 적극적 법률 지원을 받은 경우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피해자들은 직접적인 연락이 원활하

지 못한 것, 문의 사항에 답을 주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불만 사항으로 지적했다.

2. 청소년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례 분석

가.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의 접촉

1) 보호자의 피해사실 확인 단계

가) 보호자에게 피해자가 직접 호소

청소년피해자 참여자 6명 중 3명이 가해자와 한집에서 기거하면서 피해를 입었고 이중 2명은 혈연관계에 있는 가족에게 피해를 입었다. 피해청소년이 여성인 경우 자신의 보호자에게 직접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은 대개 동성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데 A-1 피해자는 어머니와 심리적 거리감은 상대적으로 가까웠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어머니와 평소 거주 공간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친부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었고, 자신의 발설로 인해 어머니에게 심적인 고통을 주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었다. A-2는 평소 어머니와 가깝게 지냈으나 잠시 친족의 집에 맡겨졌다가 성폭행 피해를 입고 즉시 어머니에게 연락을 취하였다. 하지만 A-6의 경우엔 딸 둘이 모두 미성년인 아들에게 피해를 입은 사실을 듣고 어머니가 아무런 조치나 반응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다른 가족들은 모두 남자이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전하기 어려웠다고 하였다. 반면 A-1의 어머니는 평소 가해자인 친부에 대해 어머니가 느끼고 판단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피해자를 바로 가해자에게서 분리하고 신고 조치를 취하였다. A-3은 평소 어머니와 가깝게 지내지만 실외에서 심한 폭행을 당한 후라 의식이 없어 연락을 취하지 못했다.

아빠가 이케 좀 약간 욱설이 섞인 말로 이렇게 어, 했는데 “아! 나, 죽고 싶어!” 했는데 “그냥 죽어버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이 아이가 베란다 문을 열고 뛰어내리려

고 하는데 ‘어! 이거 뭐지!’ 그리고 “너 왜 이래!” 그러면서 제가 꼬집어 내렸어요. 당시 그냥 앞에 화분이 있어가지고 선뜻 뛰어내리지는 못했던 상황이구요. 만약에 화분이 없었다면 뛰어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아, 죽고 싶어, 죽고 싶어.” 이런 식으로 계속 저한테 어필을 하더라고요. ‘아, 이거는 뭔가가 있다. 왜 그러지?’ 그래서 헌테, 핑 장히 당황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빠를 봤는데. 식탁에 앉아 있는데 ‘이게 뭐지?’ 느낌이...축 이 이렇게, 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베란다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얘기를 해라, 상상하게 하지 말고 얘기를 해라, 무슨 일이나 그랬더니.....아빠가.....자기를 추행을 했다는 거 예요. 만지고 그 당시 딱 거기까지만 듣고 “알았다.” 그리고 아이 옷을 입히고 나왔어요. 아이 를 데리고 일단은 나왔어요. 거기서 더 이상 무슨 말을 어떻게 들으면 저도 이 사람도 아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좀 더 많은 얘기를 들어야 될 거 같아서. 그런데 이미 벌써 해는 막 저가지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아들을 불러놓고, “엄 마가 오늘 못 들어갈 거 같다. 너도 들어가지 말아라.” 일단은, 일단은 분리를 시켜놔 버렸었어 요. 너 친구 집에서 하룻밤 자라. 아이를 데리고 호텔 방에 가지고 많은 얘기를 했어요. 상상 이상인 거예요. (A-1)

[아이가 어릴 땐 추행을 하잖아요. 강간이 처음 시작된 건....]그거를 이 아이가 확실하게 기억 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간을 여러 번?] 이 아이는, 이 아이는 지가 생각하기에는 두 번? 한 번? 뭐 이런, 그게 강간인지 뭔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성폭력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걸 조사중에는 얘기를 하지 못했구요. [그런 자기가 좀 더 심한 걸 당했다 그럴 때는 엄마한테 이렇게 신호를...] 예, 보냈는데, “엄마가 갈게, 오지 마.” 내가 “엄마 갈 건데 뭐.” 그때가 가서, 다다음날, 다음날 가기로 했는데 다다음날 이틀을 건너 뛰고 간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아이는 아빠한테 몸쓸 짓을 당했던 상황이었구요. 그리고 이제 화가 이만큼 나 있는 상황에서 그 일이 벌어졌던 거죠. [이틀 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 예예, 그래서 모텔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엄마한테 얘기를 다 하나요?] 예, 인제 뭔가를 이렇게 기억나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느 일부분만 들었어도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니깐, 이 아이가 다 내뱉지를 앓더라고요, 저, 저에게. 다 내뱉지를, 그니깐 아무리 구슬리고 이렇게 해도 다 내뱉지를 앓더라고요. (A-1)

말을 못하고 그냥 울더라고요. 그냥 엄마, 울면서, 그 이모네 집으로 OO로 빨리 오라고 그래 서 제 직감이 그런 거 같아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A-2)

우리 신랑이 그때 다리 수술을 했었어요. 그래 제가 집에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래도 딸 혼 자 이제 있는 것도 그렇고 또 이모하고는 엄마보다도 더 그러니까 엄마보다 더 좋아하고 따르 던 이모거든요. 그 이모가 자식이 없어서 우리 딸을 갖다가 되게 이빠라 하고 마치 이모 딸처 럼 그렇게 이제 지내던 사이였어요. 그래가지고 아빠도 수술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모할뎜 니 집에 가서 있어라. 거기 가면 OO에서 우리가 살다 왔기 때문에 OO에 친구들도 있고 그래 서 이모네 집에서 놀면서 친구도 만나고 하라고 이모한테 보냈는데 이모하고 그냥 동거중인

남자한테 이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A-2)

동생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빠가 이상하다고 (중략) 네. 그래서 어디 건드렸냐고 물어봤는데 가슴 만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동생이 저랑 이제 말을, 엄마한테 말을 확실히 해야겠다고 그래서 엄마한테 한 번 더 말씀드렸는데 엄마가 못 들은 건지 아니면 들었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가만히 있는 건지 가만히 있더라고요? (중략) 아빠한테 말을 해야 하나? 아니면 큰오빠한테 (중략) 근데 남자들한테 말하기엔 좀 그런 거예요. 좀 그래갖고 말을 못했어요. (A-6)

나) 관련된 타인/기관을 통해 피해를 알림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참여자 6명 중 3명이 학교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청소년기에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만큼 피해청소년이 학교에서 교사나 친구 등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고 이후에 학교를 통해 경찰에 신고되거나 보호자에게 전달되었다. A-3은 심각한 폭행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에게 발견되었다. A-5의 피해자는 아버지 혼자 자녀들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정의 자녀로 평소 훈육이 엄한 아버지 대신 학교의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A-6의 경우엔 학교를 통해 신고가 되기 전, 몇 년에 걸쳐 친족성추행과 성폭행이 일어나는 동안 보호자에게 호소했는데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이후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보호자가 피해자를 지지하지 않았으며 진술 조사에서 피해자는 어머니를 거부하고 학교의 담임교사를 신뢰관계자로 동석시켰다.

보니까 올 시간인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봐, 문자를 보내봤, 아니 문자를 했는가? 문자를 해봤, 아 전화를 해봤는데 안 받으니까 문자를 보냈는데... 그.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문자 답장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없는 상황이었어요. 학교에 전화해도 학교도 전화를 안 받고요. (중략) 어떤 동네 아주머니 (중략) 그분이 큰일 났다, 택의 아이. 따님이 성폭행 당했다고, 빨리 나오라고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동네 지금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중략) 동네 들어오자마자 하우스에 있으니까 일단 와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듣구요. 왜냐면 다 보이는 길이거든요? (중략) 가보니까 아주머니가 밖에 서 계셨고 저 딸내미 안에 있으니까 가봐라 하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완전 피, 물에서 피 보여 가지고 아주머니가 입고 계셨던 핫바지, 농사 지으시니까, 핫바지를 입혀주고 우의를 잠바를 덮어주고 (중략) 옷은 벗어놓고 피 지혈하라고 감아주고 머리는 피 흘리니까. 위에서도 상의를 머리를 감아주고 그 상의를 그 입고

있었던 얇은 잠바, 4월이니까 잠바를 덮어주고 밑에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안 입은. 아무것도 없어. 하의는 아무것도 없어. 없는 상황에서 아주머니가 보호해주고 경찰하고 그 엠브런스 불러 주시고. 그런 상태에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A-3)

혼자 고민하고 또 친구한테도 이제 이런 고민 털어놨는데, 엄마나 선생님한테 빨리 얘기를 하라고, 너 혼자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얘길 했는데 저한테 얘기 못하고 학교 상담 선생님한테 얘길 했어요. 상담 선생님이 이거는 이제 경찰관 학교 담당 경찰관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불러서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OO경찰서 가서 사이버에다가 신고를 했어요. (A-4)

제가 원체 애들한테 무섭게 역할을 하니까, 아빠한테는 얘기를 못하고 학교 측에, 담임선생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던가 봐요. 그러가지고 이라고저라고 담임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담임선생님이 먼저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중략) 나가지를 못한다고 했더니 응급적으로 처치를 해갔고 담임선생님이 경찰서로 OO경찰서로 수사과로 전화를 했는가 봐요. (중략) 전화가 왔더라구. 그 여자 분한테. 그래서 어디냐 그런 게 OO경찰서라고 핸드폰에도 바로 메시지, 바로 전화를 해달라고 메시지 적혔더라고 그래서 인자 전화를 하고 조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아버님을 급히 지금 만나고 싶다고 왜, 용건이 뭐냐고 했더니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 전화상으로는 얘기를 못하잖더라는 거예요. (중략)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아무래도 갈 수가 없는. 그냥 한참 있다가 우리 애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나까 뭐냐 하면 애가 전화 하는 얘기가 시방 순경아저씨하고 대학병원에 가는 중이라고, 오는 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A-5)

제가 학교를 잘 안 나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무슨 일 있냐고 여쭙보셔서 제가,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학교 나오기 싫다고 [그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한테? 그게 언제가요?] 그게 고등학교 2학년. 가을쯤? [여름방학 지나서?] 네.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이거 신고하자고 말씀하셔서 신고를.. 학교에서 신고해주셨어요. (중략) 삽입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자는 척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피하긴 했는데 몇 번 삽입을 했어요. [그럼 그게 중학교예요?] 그제.. 중학교 3학년? (중략) 엄마한테 말을 했어요. 오빠가 좀 이상하다, 몸을 만진다. 근데 엄마가 별 말씀을 안하시더라구요. (중략) 고등학교 1학년 들어와서 친구를 만났는데 개가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하는 거 보면 저를 많이 신뢰하는 것 같구나, 해서 저도 그 친구한테 말을 했어요. 우리 오빠가 이렇다, 엄마한테도 말했는데 엄마도 별로 반응이 없다. 친구가 신고를 하래요. 그게 제일 편할 거 같다고 (중략) 너무 오랜 시간동안 당했고 엄마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엄마도 별 반응이 없으시고. 친구한테 얘기를 해봤자 친구는 얘기만 들어줄 뿐 저한테 도움이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뭐라도 해주실 거 같아서..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어요. (A-6)

2) 지원 기관 접근

가) 피해자 지원기관 인식 부재

A-1의 피해자는 소재지의 일선 경찰서로 신고를 했으나 지원기관에 대한 안내를 전혀 받지 못했다. A-6의 피해자는 학교에서 받은 교육 내용에 지원기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상세하지는 않았고, 자신의 상황과 관련성을 크게 못 느껴서 지원기관에 피해사실을 접수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같은 학교에서 같은 교육을 받았으며 피해자와 대화를 나눠 온 교우 역시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도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있다는 교육 내용을 상기하는 대신 경찰 신고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였다. 평소 학교에서의 교육 시에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서 가까운 통합지원센터 등을 우선적으로 상세히 안내받아야 할 필요가 보였다.

경찰서에서는 해바라기센터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 것 같았어요. (A-1)

친구가 신고를 하래요. 그게 제일 편할 거 같다고 [경찰에?] 네. 근데... 그건 좀 무섭더라고요. 그냥 딱 경찰이라는 그 말 단어 때문에? 그냥 뭔가 좀 두려웠어요. 평소에 뭐 연락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뭐 배우고 그러진 않았나요? 요즘은 성교육이나 성폭력 예방교육..] 항상 두 달에 한 번씩은 배우죠. 경찰 분들이 오셔서 (중략) [그다음에 이런 피해를 당하면 어떻게 해라, 이런 것도 얘기를 해요?] 네. 어디.. 그 뭐지? 여성단체가 거기를 전화를 하든가, 아니면 경찰한테 전화를 해라. 아니면 생활지도부 선생님들도 항상 기다린다고 (중략) 해바라기라는 그거는 알려주진 않았어요. [뭐 명단 이런 게 있었어요? 아님 그냥..] 그냥 이렇게 화면에 비춰서 그냥 [알아서 찾아가라, 이렇게] 네. (A-6)

나) 초기 접근까지의 시행착오들

A-1은 특히 피해자지원에 대해 정보를 늦게 접한 경우로, 장기간에 걸친 친부의 성폭행과 불안정한 가정 상황 속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깊게 겪고 있었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조사와 수사, 지원정보 안내 등 매뉴얼이 체계적으로 전달되고 실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사법기관 담당자들이나 일반인들이 개인적인 판단과 통념에 따라 피해자를 다루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심적인 고통을 가중시켰다. 만약 피해자 측에서 피해

사실 인지 이후 곧바로 지원기관에 신속하게 접근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사건 해결을 시도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곳에서 피해자 지원에 대한 정보를 받는지 여부가 이후 피해자의 상처 회복에 큰 영향을 준다. A-2의 피해자는 피해자 지원기관에 대한 정보 없이 우선 가까운 병원으로 갔지만 해당 병원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려주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다가 이제 OO경찰서라는 곳으로 가게 됐어요.[왜 해바라기로 안내를 안 해 줬죠?] 그러니까요, 제가 그거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라도 알았으면 해바라기로 바로 넘어가서, 바로 그니까 그 상황을 몰랐던 게, 저는, 이게, 인제 신고를 하고 남편을 성폭행, 저기 뭐예요, 결론은, 사건은 성폭행인데, 모든 조사는 어떻게 뭐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게 돼 있었어요. 하게 됐어요. 그런데 결론은 OO경찰서에서 한 거라고는 사건 조사를 해서 남편을, 아빠를, 구속시키는 거밖에,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일밖에 하지를 않았던 거죠. (중략) 이제 해바라기센터를 사회복지사를 통해 알게 됐는데, 저는 거기 해바라기센터에 가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거기 인제 8월에 OO구청 사회복지사가 해바라기센터 있다고 해서 가보신 거네요.] 예, 간 거예요. 갔는데, 똑같은, 똑같은 진술을 받아야 되는 장소더라고요, 거기도 변호사 선임을 해주고 똑같이 녹화를 하고 그런 장소더라고요,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저는 여기저기서 계속 떠돌아다녔었어요. (A-1)

일단 우리 딸부터 병원으로 데리고 갔죠. [병원은 근처에 있는 다른 병원을 알아봐서 가신 거예요?] 예 처음에 가까운 병원 갔는데 거기에서는 그런 걸 안한다고, 그런 진료는 따로 하는 병원이 있다고 그래서, XX대학교 병원 거기 이제 거기에서 그런 일을,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데리고 거기를 소개해줘서 거기서 갔었어요. (A-2)

다) 타 기관을 통한 연결

A-1이 늦게나마 피해자지원에 대한 정보를 접한 것은 성폭력 피해를 입은 자녀의 치유를 위해 어머니가 근로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가정의 상황을 주민센터 사회복지팀에 전하면서였다. 피해자들이 어떤 시점이나 경로로든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접촉 가능한 경로를 파악하고 정보 전달력을 높이는 방안이 요구된다.

병원을 통한 지원기관 접근도 가능하다. A-2는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병원을 소개받고 진료를 하며 지원기관에 연결이 되었다. A-3은 범행장

소에 방치된 피해자가 폭행으로 찢어진 상처가 워낙 깊어서 봉합을 할 수 있는 응급실부터 찾았으며 그곳에서 성폭력 관련 담당 의사가 성폭행에 대해서는 강간미수로 판단한 후 원스톱지원센터가 있는 병원을 안내하였다.

그때 제가 일을 다 그만둔 상태고,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한 달 벌어서, 하루 벌어서 이렇게 막 일당 받아서 이렇게 생활하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내가 이만저만해서, 우리, 친부성폭행이 있어서, 아이가 자살 시도를 하고 힘들어해서 내가 아이 옆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생활비가 깎여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도와달라 했더니, 어우, 이 사람들은 더 놀라는 거죠. 친부성폭행? 어떡하지? 이러다가 자기네들은, 내가, 이 아이가 자살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아요. 여튼 어쨌든. 아우, 근데 막 검찰에서도 연락오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게 생활비를 도와줄 수 있.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다가, OO구청 복지과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복지사하고 제가 연결이 되면서 복지사가 “어머니, 성폭행을 당한 아이들은 해바라기센터라고 있습니다. 연결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예, 저 복지사가 연결을 시켜줬어요. 직접 전화해가지고, 그 해바라기센터로 연락을 해서...[그러면 그러면 그때 7월엔가 처음 따님 그런 걸 알게 되고, 해바라기센터로 간 건 몇 월이예요?] 9월이죠, 8월, 8월 말이니깐 9월 달 돼서....[한 달쯤 지나서 그랬어요?] 예, 1차 재판이 끝나고 있는 상황에서, 예, 1차 재판이 끝나고 있는, 1차 재판을, 그 하기 이틀 전에, 네, 한 달이 지난 상태였었어요. (A-1)

[병원 안에서 안내를 받아서] 예 거기서 여기 해바라기센터를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오셔서 그 다 이렇게 그, 절차를 밟아주시더라고요. (A-2)

어느 정도 조치를 하고 성폭행 있다,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그런 담당 분이 오셔서지고 다 정보를 채취하더라구요. (중략) [의사 선생님이 와서 하셨나요?] 근까 성폭력 관련되는 분이었던 것 같아..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중략) 미수, 미수. 근데 워낙 상처가 심해서 완전히 통통 부어가지고요. 완전히 합쳐서 21센치.. 이마하고 이마하고 여기 가운데 그..[미간...] 눈썹 미간이 함몰골절, 그리고 그 옆에 그 6센치, 6센치? 5센치였나? 그 총 합해서 21센치의 외상...(중략)그날은 저녁에 가서 밤에 꿰매서 바로 가라카는 거예요.(중략)여기 여기서는 입원할 상황이 아니라서요. [왜요?] 그니까 아 증세가 그렇다는 거죠. 정신과.. 뭐랄까? 폐쇄병동이나..[아, 그런 데 갈 필요 없다?] 여기는 입원 못 시킨다. 그러면서.. 대구의료원이 원스톱센터가 있다...(중략)이런 케이스 경우에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그 안정을 시키기 위해선 입원시켜야 되는데 입원할 데가 없어요. 그 아이가 들어갈 병실이 없는 거예요. 병동도 0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럴 때는 원스톱, OO의료원. [그분이 소개시켜주셨네요?] 네. 고거를 그 때 저희 아주버님 오서 와가지고 아주버님 다 수속 해주셨는데 OO의료원에 잡고 그와 동시에 여기 해바라기센터를, 아동센터를 소개받았어요. (A-3)

A-4의 경우에는, 급변하는 통신 서비스 상황에서 사이버성폭력을 보다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를 볼 수 있다. 직접 대면이 없는 성폭력 피해로서, 보호자 역시 처음에는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했으나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던 경찰관이 사이버수사대로는 가해자 처벌을 하기 힘든 현실을 안내하며, 성범죄로 강력계에 수사의뢰할 것을 권하면서 원스톱지원센터에 대해 소개하여 지원기관에 대해 알게 되었다.

사이버 폭력예다가 신고를 했었는데 인제 아시는 지인이 그 경찰청에 계세요. 그분이 사이버에 서는 약하다, 다루는 게. 강력계나 이제 그런 쪽으로 옮겨 달라고 해라. (중략) 원스톱이요? 아시는 경찰 분이 이렇게,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중략) 제가 아시는 경찰 분이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이런 거는 강하게 다뤄야 된다. (A-4)

A-5의 피해자는 학교 선생님을 통해 경찰에 신고가 되고 그곳에서 바로 해바라기센터가 있는 병원으로 경찰과 동행하였으며 병원에서 자녀의 피해 사실을 확인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치료와 지원접수까지 마쳤다. A-6 역시 학교 선생님을 통해 경찰에 신고가 되고 경찰에서 해바라기센터를 안내하여 지원을 받게 되었다.

나와 갖고 인자 한 게 그런 얘기를 허더라고 얘가 강간을 당해가지고 이려고저러고 이러했다고 했다고 하면서 OO대학교병원 해바라기센터 (중략) 거기에 있는 해바라기센터 직원들이 먼저 치료부터 먼저 부모 허락을 허야한다, 부모 동의를 얻어야 된다 해 갖고 동의를 해주소, 그러는 것을 거시기를 허드만. 그래서 참번에는 째째허구 제 생각엔 인자 해야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 인자 참 거시기도 모르고 했어. 가만 생각하니까 안 되겠네. 직원들이랑 형사들 두 분이 따라왔드만 남자분들이. 동의를 빨리 해야만이 애 치료를, 치료를 해주겠다는 걸루, 그래서 동의를 했어요. (A-5)

성폭력을 당해서 이제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경찰 그. 경찰아저씨? 아저씨분이 여기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여기서 거기서 상담도 받고. (A-6)

나.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의 서비스

1) 지원 서비스에 대한 피해자 측 평가

가) 전반적인 평가

참여자들은 대체적으로 원스톱지원센터와 해바라기에서 받은 심리적 정서적 지원 및 법률적인 지원에 대해 도움이 되었으며 고맙게 생각한다고 평가하였다. 국선변호인의 서비스가 부실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더욱 의지가 되었다. 또한 사춘기에 있는 자녀와 원만한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주는 심리적 지원 서비스에 만족도가 높았다.

예, 감사하게도, 아니 정말, 그 해바라기센터에서 많은 것을, 울고, 저한테 털어놓지 못한 모든 것을 거기 털어냈던 거예요. (중략) 정말 감사하게도 해바라기센터하고 연결이 돼서 적절한 치료는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A-1)

해바라기센터에서 오신 선생님은 친절하게 잘해주셨고 병원에서도 친절했던 거 같아요. (A-2)

해바라기센터에 최OO선생님한테 이야길 하니깐 그분이 알아보고 저한테 다시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갖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A-2)

너무 잘 도와주셨어요. 정말 그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사고 당해서 멍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해야 되는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원스탑하고 국선변호사님하고 두 분이 진짜 잘해줬어요. (중략) 원스톱, 해바라기 거기는 할 말이 없어요. 정말 잘 해주셨다고 생각하는데 (A-3)

아이가 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고, 싫어하지 않고 오는 것만 해도 다행이고 또 와서 상담선생님한테 자기 마음에 있는 거 풀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도움 받고 있는 거죠. (A-4)

나) 접수과정

병원을 통해 해바라기센터로 바로 접수가 되는 등 진술 녹화 이전 단계부터 지연 없이 지원기관에 접촉한 경우에는 초기에 필요한 검사 과정이나 상담 과정까지 무리없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피해자의 치유에 도움이 컸다.

여기 해바라기센터를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오셔서 그 다 이렇게 그 절차를 밟아주시더라고요.(중략)국과수에 보낼 거. 그거 검사부터 하고(중략) (센터)선생님이 알아서 다 처리해 주셨어요. (중략) 그다음에 치료 들어가고요. [산부인과 진료요?] 산부인과 진료랑 이제 입쪽에 상처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중략) 치료 하고 혈액 검사 같은 거 하고 그랬던 거 같고요.(중략) [치료를 하고 나서는 또 어떤 과정이 있었나요, 딸에 대해서?] 국선변호사님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너무, 그러니까는 그 사람은 이제 그 신고를 한 상태에서 그 사람을 이제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국선변호사님 소개시켜주면서 그분이 이제 일을 맡아 주실 거다 그렇게 이야길 하더라고요. (A-2)

한 2주 정도 입원하다가 대구의료원에서 있다가 (중략) 정신과 선생님이, 소장님 소개로 알고 있었는데 연락하면서 날을 잡았어요. 예약하고. 택시타고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오셔가지고는 어떤 도움을 받으셨나요?] 아이하고 따로 따로 상담을 받았고 뭐 아이는 아이대로 하나 그 단계적으로 그 처음에는 자존심이나 그런 거를 회복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사건을 직시하는 단계도 있었고 (A-3)

[해바라기는 언제 알았어요?] 해바라기는 보호소에서 나와서 [경찰이, 해바라기 있다] 네. 거기 상담 받으면 좋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해바라기.] 네. [가서 상담하고?] 그러면 그 시점에 해바라기 찾아간 시점에는 막 고소, 그 조. 재판 중이었나요? 아니면 고소한 상태였나요? 오빠가 소년원 들어가고 나서. [들어가고 나서? 그러면 그, 신고하고 소년원 들어가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렸나요?] 좀 오래 걸렸어요. [반년?] 거의 반년 (A-6)

다) 지원과정

피해자들은 심리적 정서적인 부분의 지원을 장기적으로, 장소나 시간 상의 곤란한 점을 고려해 받고 있었다. 특히 다른 가족들과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피해당사자가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지원자가 생겼다는 사실이 회복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었다. 동행서비스, 파견서비스, 상담연장 등 피해자 각각의 요구나 상황에 맞게 서비스하고 있는 부분이 보였다.

당사자모임은 매우 한정적으로만 운영이 되어서 A-1만이 당사자모임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도움을 받았다고 회고하였으며 다른 피해자에게서는 피해당사자 모임을 통해서 동질감과 위로를 받고 고충을 나누고 싶다는 요구가 드러났다. 국선변호인의 법률적 지원이 미흡한 부분은 지원기관을 통해 도움 받았다고 회고하기도 하였다.

[지금 따님은 어떤가요?] 지금은 아주 건강해요, 아주 건강해요. 자기가 여군이 되겠다는, 뭔가에 대한 목표가 있고요. 그 목표를 위해서, 공부는, 정말 이 아이가 공부를 못했던 원인은 (중략) 이유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지가 공부를 하려고 하고요. (중략) 많은 연결을 시켜주는, 저가 아는 대로, 아는 대로, 지가 알고 여기서 또 해바라기센터에서도 또 그 같은 또래,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중에도 연결이 돼서 많이 했었어요. 연결을 하려 그러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 아이가 해바라기센터에 가는 게 첩피한가 봐요. 왜냐하면 학교 조퇴를 해야 되고(중략) 계속 갔었어요. [방학 때?] 계속, 그러니까 매주 매주. [좋아해요, 가는 거?] 예, 가는 건 참 좋아하는데 이때는 학교를 가는 게 조퇴를 해야 되고 선생님 나 지금 병원가야 되는데요. 무슨 병원인지 알잖아요. 제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심리치료 받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학교는 새로 시작하기 위한 고등학교의 첫길인데 이 아이가 조퇴를 하고 또 받는 게 이번에 갖어야 되는데 “엄마, 나 가기 싫어.” 정신과 치료약 받아야 되는데 “엄마, 나 가기 싫어.” 이러더라고요. (A-1)

[따님이 그러면 계속 약 처방을 받았나요?] 예, 같이 받았어요. 저랑. [그러면은 약을 계속, 계속 먹고 있네요?] 예, 계속 먹고...[부작용은 없나요?] 아니, 부작용은 그닥 없어요. [괜찮아요?] 예, 복용을 하다가, 지가 순간에 끊어버리더라고요. (A-1)

[심리지원이나 이런 거] 예, 지금 받고 있어요. [1월부터 쪽 받고 계신 거예요?] 어 그게 이제 우리가 제가 여기 △△에 이제, △△은 작은 도시이다 보니까 △△에서 뭘 하게 되면은 이제 소문이 날 확률이 되게 많아요. 전부 다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 사람 △△에 있는 센터 말고 ○○ 쪽에서. 그러니까 △△이 아닌 다른 지방 쪽에서 도움을 받았으면 한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 지금 오시는 선생님이 □□ 오시는 분, □□에서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 아니라 ○○인가? 그쪽에서 이제 일을 하다 오시는지 모르겠지만은, 항상 그쪽에서 이렇게 오시거든요. [어디로 오세요?] 여기 집으로, 저희 집으로. (A-2)

학교를 다니니까 시간이 없어요. (중략) 시간이 없어서 가지도 못하고 뭐 또 간다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려면은 그때마다 막 피곤해요. 그게. 막 뭐라고 핑계낼 수가. 어떻게 병원을 간다 그러면 뭇 때문에 가냐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중략)(방문 상담사 선생님을) 좋아하고, 저하고도 한번 (상담을)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딸애도 좋아하는 거 같아요. (A-2)

제가 제일 답답한 것은 이제 좀 다른 피해자 우리 ○○이 나이 또래에서 그런 피해자를 이렇게 좀 만나서 어떤 식으로 애들을 대해주는지 좀 알고 싶은데 그걸 알 수 있는, 또 다른 사람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일을 당했다면 아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애를 이렇게 잘 돌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취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일단 부끄럽고 첩피하고 하니까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들도 있을 거 같아서 이렇게 이제, 저는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고한테 또 그 이제 애들을 어떻게 신경을 써주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A-2)

변호사는 도움이 안 되고 필요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 같아요. [얘기를 한 거나 안 한 거나 결과가 그냥 예, 똑같이 답답하고 똑같이 궁금하니까. 물어보나 안 물어보나 뭐 안 물어 본 거랑 똑같은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해바라기센터에 최OO선생님한테 이야길 하니까 그 분이 알아보고 저한테 다시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갖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A-2)

오늘 가는 날이다 하면 알았어요 하면서 여기(해바라기)서 동행서비스가 있어가지고 OO까지 차로 데려오서 가지고. 데려다주시니까. (A-3)

자기가 뭐 속상, 학교에서 속상하던 집에서 속상하던 일단은 상담선생님한테 와서 울면서 얘기도 하고 속상한 거 있으면 [아, 여기 와서.] 예, 자기 얘기를 들어줄 대상이 있는 거고 또 인제 선생님하고 인제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얘기도 할 수. 하고. 그니까 선생님들도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저한테 얘기를 안 하니까.. 하지 않는 상태이구 상담을 어떻게.. 아이가 어떤 고민을 얘기하면 집에서 인제 부모님들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도. 인제 아이 말만 저기하면 안 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저두 딸 때 그냥 들어보면.. 선생님한테 얘기 해주구 (중략) 그 상태에서 상담도 안 받고 그냥 그대로 있고 그랬으면은.. 뭐, 그 생각만 계속 하고 (A-4)

상담을, 해바라기에 센터 상담을 가잖아요? 거기 가면서 많이 치유가 됐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중략) 처음에는 좀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게 있는데 중간쯤 거의 끝날 때쯤 마지막에 또 했어요.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면 선생님 만나면 주로 이런 저런 얘기하고.] 네. [그렇게 쪽 하구.. 본인이 하기에 그게 많이 도움이 된 거 같아요?] 네. 처음에는 가기는 싫었어요. 처음에 어떻게 당했냐?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처음엔 싫었어요. 근데 이제 몇 번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일상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그냥 좀 그냥 오빠가 보고 싶냐? 그렇냐고 그런 거 물어보니까 괜찮았어요. (중략) 그래도 말을 하고나니까 후련하긴 했어요. (A-6)

다. 형사사법기관

1) 경찰 서비스

가) 일선 경찰서의 관련 매뉴얼 숙지 부족

피해상황을 돌이키고 명확하게 진술하기 위해 거듭 생각해야 하는 일은 성폭력 피해를 재차 당하는 것만큼 힘든 과정이다. 또한 이런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할 필요를 충분히 설명하고 보다 원활히 진술할 수 있도록 안정을 적극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범인의 검거’라는 일선 경찰서의

의무감이 이런 배려보다 우선하여 피해자의 안정보다 범인 검거에 필요한 정보 습득만이 우선시될 수 있다.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를 접한 일선 경찰서가 어떤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해야 하는지 관련 매뉴얼이 확실하게 전달되어야 할 필요를 A-1의 사례가 특히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친부에 의한 지속적인 성폭력 피해를 들은 보호자는 공개된 장소에서 반복해서 여러 경찰에게 자녀가 성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을 발설하면서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 경찰의 대응은 차분하지 못하고 흥분상태로 신고를 접수하였으며 피해 당사자 청소년을 보호자가 데리고 왔을 때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지 못하였다.

아이가 아,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엄마, 하지 마.”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그랬더니 그냥 엄마랑, 그냥 엄마 있는 곳에서 살고 싶다, 단절을 원하더라고요. 그 단절이, 되진 않을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생각을 하고 제가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중략) 바로 OO경찰서로 새벽에 찾아갔는데 예, 찾아가서, 아이가 성폭행을 당했다, 현관 입구부터가 저지를 당하더라고요. 뭇뻘에 오셨는데요. 그랬더니, 그 말을 [하기가...] 저 거기 주민인데, 정말 걸어서 5분 거리에 경찰서가 있었거든요. 그니까 제가 마트를 갈려면 경찰서를 지나가야 되는 입장인데, 항상. 근데 그, 하, 내가 애, 어, 이러다. 아,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 그랬더니 안내해 준 곳이 그냥 거기 민원실로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또 제가, 제가 “저희 딸이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뭐 막 전화를 하고 “어 뭐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는데 여기 와 있어.” 뭐 이렇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형사들이 와갖고 “무슨 일이에요?”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현관 앞에서. “어딴데요, 당한 당사자가 어디 있어요?”, “저희 딸이고요, 제가 지금 보호를 하고 있고요”, “누구한테 당했어요?” 걸 제가 뭐라고 해요. [너무 좀 당황스러우셨겠네요.] 예, 거기서부터 제가...[이건 좀 아니다...] 예, 어, 내가 잘못 찾아왔네. 저희가 TV에서 보면 성폭력전담반 뭐 무슨 전담반 이런 게 있잖아요. 저희가 뭐 형사 25시 이런 이런 스토리를 보면 리얼스토리 이런 거를 보면 직접 찾아가서 딱 대면해서 얘기를 하구 어느 정도 보호가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너무 트인 곳에서, 것도 경찰서 현관 입구에서 (중략) 조사를 받을 때는 어른도 사실은 쉼없는 문젠데...[어린이를...] 어린이를, 딱 갔을 때, 딱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A-1)

또한 성폭력 피해자에게 “성숙하다”고 말하고, 가해자인 친부가 체포되는 과정이 이웃에게 고스란히 노출되는 등 2차 피해에 대한 경찰의 인식 부재가 드러났다. 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피해자 안정 후 진술녹화

를 통해 진술조사를 하는 과정도 초기에 실시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피해 72시간 이내에 산부인과 진료와 검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 시행되지 않아 공판에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

[경찰서에서]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아이를 데리고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신고를 했다. 오래 더라, 가자. 순순히 따라오는 거예요. 이 아이도 도움을 그렇게 받고 싶었던 것이겠죠.. 저 강력계 5반으로 오라 그래서 거기 갔는데... 들어갔는데 정말 깜짝 놀란 게 형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큰 방에서 여러 명이 일하는?] 예... 아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아, 저 애. 그 느낌이 오잖아요. 아, 재구나.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아, 애가 상당히 크네요. 성숙하네요.” 이거예요. 순간 전 너무 화가 났어요. (A-1)

아파트에 한 동네에서 살았던, 내 친구들이 아래층에서 살고 위층에서 사는데. 어우. 그러더니 어느 순간 나한테 딱 그래. 엄마, 아빠가 경찰서, 경찰에 구속되는, 경찰아저씨한테 잡혀가는 걸 내 친구가 봤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 제가 그거, 그 점에 대해서도 배려를 부탁드렸거든요. 저희가 재개발민, 재개발 이주다, 어차피 한 동네에서 와가지고 한, 한 아파트에 이렇게 다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다 아는 사람이다. 이 아이들의 손가락부터 다 알고 있는 사람이다, 사람들이다 라고 조용히 그냥 해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이미 벌써 노출이 돼버린 거예요. (A-1)

산부인과를 가라, 가자, 뭐, 해바라기가 있다, 이런 거를 전혀 저희는, 그 진술만 받기에만 급급했던 거예요. OO경찰서도 이게 지금 [국선] 변호사 선임을 해서 그냥, 그냥 진술만 하는 거에 급했고요. (A-1)

성폭력전담반이라고 했으면, 어느, 그니까, 물론 자기가 나한테 조서를 받았어도, 아이가 데리고 왔을 때는 어느 정도, 여경 정도가, 엄마를 배제, 엄마 나가있으세요 했을 때는 1:1로 남자하고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형사지만 남자잖아요. 이 아이는 벌써 남자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여경이라도 한 분 계셨으면 어땠을까 라는 배려를, 저는 그 상황에서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따님도 그 얘기를 하나요? 그때 경찰에 가서 처음에 뭐 하고 그런 게 너무 힘들었다.] 예,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고문이었어요, 정말. 조서가 아닌, 고문이었어요. 고문이었고 (중략) 연락을 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갔으면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기다리고 있어라. 난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아이는 안에서, 안에서 무슨 어떻게 뭘하는지 변호사를 기다리고 있고, 그니까 그 조사시간이, 조사, 조서를 꾸미는 시간이 단 몇 분밖에 안 됐는데 기다리는 시간은 세, 두 시간 반이었었어요.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는 가고, 그 남자 형사들하고 같이 가서, 진짜 뺄뺄하니, 저는 얼굴도 쳐다보기 민망하었어요. 뺄뺄하니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는 그 상황이었고요. 정말 배려가 없었어요... 더더군다나 친분데[친부인데], 예, 예, 그런 거에 대해선 확실한 배려가 있

있어야 될 거 같아요...경찰서를 전 선택을 전 선택을 잘못했던 거 같아, 동네를 가는 게 아닌 데...딱 퍼뜩 생각나는 게 가까운 경찰서잖아요.(A-1)

A-3의 피해자는 지원기관에 바로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A-1의 경우처럼 반복된 진술조사, 공개된 곳에서의 피해상황 진술 등은 겪지 않았지만 범인을 확인하고 검거하는 과정에 경찰이 매진하면서 피해자의 회복을 고려하지 않고 계속 전화로 연락을 해왔다.

가해자를 잡아야 되는데 이리서 오고 저리서 오고 또 묻고, 묻고, 묻고, 묻는 거예요. 상황, 당시 상황을. 저한테만 묻는 게 아니라 OO이한테도 묻고요. [경찰이요?] 그거이 문제였어요. [그거는 따님이 너무 힘들었겠네요. 그러면 따님은 OO읍에 나와 있을 때요?] 그러니까 사건 당시, 당시.. [병원에 있을 때?] 네. 진짜 잡아야 된다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중략) 성범죄자는 나중에 들어보니까 진술을 하고 그거를 갖고 잡는 게 보통인데 (중략) 처음에는 문자, 카톡으로 왔거든요? 보면서 이거가? 이거가? 그래서 누가, 누가? 아, O 소장님이 같이 와서 보셔서 병원 병실에서 이 사람 본 적 있나? 이 사람.. 이거 봤나 체크하고 그거 몇 번.. 병원.. OO에 있었을 때도 있었고 OO에서도 있었는데 그쪽에서도 뭐 적어가니까 그쵸? 범인은 어느 정도 상황에서 교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에 OO이 보여주는 몇 장, 5장 정도 사진이 있었는데, 다 섞어놓고 사진이 있었는데 아니면 아니라고 하나 하는데 딱 한사람만 모르겠다. (중략) 확실하게 그렇다는 말은 입에서는 안 나왔어요. 근데 그쪽에 경찰 쪽에서...[아... 조사..] 자백을 했대요. 자백을 했대요. (A-3)

경찰청 분들은 다 전답이라 그거만 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많이 왔다갔다 하지 않는데 그냥 범인, 가해자 잡이라는 위엄이 넘쳐가지고요. 그쪽에 오히려 시골쪽에 있는 그쪽이 너무 전화도 오고 자다가 또 전화오고 아침에 전화오고..[밤에도 막 전화하고 그래요?] 전화 왔어요. (A-3)

A-4의 피해자는 신원을 속인 성인 남성에게 온라인 채팅을 통해 언어적/성적인 폭력을 당했는데 사이버수사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 진지하게 범죄로 다루지 않고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로 가볍게 생각하는 수사 태도를 보였다. 그로 인해 피의자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으니 좋게 해결하라는 태도를 피해자 측에 보였으며, 수사관이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신고된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가해자를 용서하고 덮고 넘어가는 것이 아이에게 좋다는 권고를 하기도 했다.

제가 이제 OO경찰서 가서 사이버에다가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했는데 거기서도 하는 말이 뭐 지금 다 이런 놀이를 한 대요, 애들끼리. 자꾸 보면은 같은 또래 애들끼리도 하기 때문에 이제 부모 불려서 이제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하고 이제 해서 마무리를 진대요, 고등학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중략)이 사람만 유독 아예 노예 취급을 하고 너 나가지 마, 시키는 대로 해, 빨리 나와, 항상 이런 식으로 일케 되게 억압적으로 했더라구요. 보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카톡 내용 다 캡처를 해서 신고를 했고 와서 보니까 26살이었어요. 학생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경찰이 하는 말이 너무 화가 나는 게. 그래두 이렇게 출두 하라니까 바로 오는 것 보면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지는 않다. 이 말이 너무 화가 났어요. (A-4)

사이버수사관에서는 어.. 신고를 하면 접수가 돼버리면 사건화가 되니까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기를 원했어요. 그러구 원했다기보다는 어..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저한테 선택을 하라고 했는데 여자수사관이, '하면은 아이가 힘들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분도 아이 키우는 입장이고 또 그 계통에 있다 보니까 아, 이게 정말 아이가 정말 힘들지 않고 진행이 되는 거를 염려를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힘들어진다, 그 사람이 전화를 하니까 바로 내려온다고 했고 이제 와서 보니까 잘못했다고 한다. 그니까 이제 용서하는 쪽으로 했는데. 제가 아시는 경찰 분이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이런 거는 강하게 다뤄야 된다. (중략) 만약에 제가 아는 분이 없었다면? 사건도 그냥 덮었어졌을 거 같기도 하고 [아, 그 경찰관.] 네. 아는 분이, 그니까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없었다면? 그러구 사이버에서는 심각성을 안 두고 있는 거 같아요. 네. 진짜 심각한데 그다지 심각성을 이렇게 보지 않는 거 같구 사이버 수사대에서. 그러는 거 같구 다 경찰관들이 남자 분들이라. 남자 분들이라. 그나마 저는 그래도 아시는 분이 안내 해줘서 이리이러 보니까. 그래서 순조롭게 된 거 같고 (중략)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같았어요. 저만 막 너무 혐오스럽고 어떻게 그런 말을 쓰는지 (A-4)

(가해자가 피해 아동에게 온라인 채팅으로) 내, 내 저기 썩 거를 니 입에다 싸줄 테니까는 뭐 니 에미, 애비가 니 그런 꼴을 알면은 참도 좋아하겠다, 막 이런 (말을 보냈어요.) [나오라 그러는데 안 나온다고 (성적이고 폭력적인 말을 했군요?)] 네. 진짜 그러니까 공갈 협박에 진짜 언어폭행도 들어가요, 너무 심해요. (중략) 그리고 진짜 조사하러 (가해자가 경찰서에) 올 때, 그러니까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전화를 해서 오라고 해서 (가해자가) 왔어요. 그리고 나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피해자 보호자와 가해자들) 분리를 시켜갖고 그 사람 오는 걸 얼굴도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요. 들어오니까 저희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강력계, 이렇게 형사관가? 거기서 불렀을 때는 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가해자가)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그러더라고요. (중략) 경찰관이 들어오더니 니가 뭐 잘못했는데 무릎 꿇고 있냐고 일어나라고 (중략)그니까 (채팅에 응한 피해자) 아이도 잘못이 있다, 이런 느낌을 (수사관으로부터) 받아요. 그러니까 너무 불쾌해요, 그런 게. 예, 그게 너무 불쾌해요. 그니까 실제로, 실제로 진짜 성폭행당한 부모들의 심정은 어떨까,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사이버 상으로도 이렇게 모욕적인 말 듣고 이런 것도 그러는데 (A-4)

2) 진술녹화

가) 녹화과정의 어려움

A-1은 아동시기부터 장기간에 걸쳐 친부에게서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강압적인 진술 분위기에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진술해야 했으며 진술조력인도 배정받지 못했다. 또한 진술녹화실이 구비되지 않은 서에서 진술 후 진술녹화를 위해 다른 경찰서로 넘겨지는 등 비효율적인 수사과정에서 여러 번 진술을 반복하면서 피해자의 상처가 더 깊어졌다.

자꾸 아이를, 그니깐, 기억을 짜내라고 하는 거예요. 몇 월 며칠이나, 언제? 어디서? 계속. 이 아이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기억을 짜내기 위해서는 막, 막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아, 그냥 애 아, 엄마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언제? 이 아이가 나를 물어보는 거니까, 가니까 아이가 막 눈물 범벅이 되어 있는데 엄마, 나 가슴이 여기가 너무 아파. (중략) “엄마, 나 기억도 안 나는데,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아빠가 나를 만지고 손가락을 넣고 입을 갖다 대고 이랬는데 엄마 나보고 몇 월 며칠 날에 어떻게, 아빠가 어떻게 했는지 나 보고 몇 월 며칠을 생각을 하래.” (A-1)

배려가 너무 없었어요. 결론은 또 다른 경찰서로 또 넘어갔어요. 왜냐면 진술 녹화를 해야 된 대요. 진술 녹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 뭐, 진술서를 다 받아놓고...진술 녹화를 해야 된대요. 거기는 여경도 있을 거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을 거라고(중략)[OO에 가선 뭘 하셨어요?] 거기서는 이제, 엄마를, 엄마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아이에게 의사를 물어 보드래, 여경이 오셔가지고, 그니까, 그, 변호사, 여변호사님까지 오셔가지고, 변호사님하고 경찰이 차, 그거 시, 녹화를 했었어요. [아, OO에 가서 녹화를 했어요?] 예, 똑같은 얘길 똑같이 해야 되고, 똑같이 얘길 했는데, 녹화, 그, 거기서 딱 끝나는 줄, 거기서 녹화가 끝남과 동시에 아빠를 유치장으로 송치를 시키고 저희가 집으로 들어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끝내주면 좋은데 계속 저희가 경, OO경찰서로, 아니 그니깐, OO경찰서로 그 이후로도 세 번인가 더 갔었어요. [세 번 가신 건...] 보충을 해야 된다고...[아, 내용을 보충...] 이 사람을 구속시키기 위해 선 보충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생각해내라, 언제 쫓인지 생각해내라. 사실은 그 생각해내는 게 너무나 끔찍스러운 거였는데. 아, 그래서 저는 생각, 아, 이게 뭔가가 이게 정확하게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니깐, 그 사건이 일어난 자체 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제가 느꼈어요. (중략) 진술이라기보다는 어쩌면 고문에 가까운, 그런 행위였었어요. (A-1)

이와 달리 A-2는 사건 직후 초기에 병원치료를 우선 받았고 안정을 취한 후 진술녹화실이 있는 지원기관에서 진술을 1회 실시하고 추가 진술은 더 이상 없었다. A-3도 비슷한 과정을 밟았으나 폭행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이 있어 보다 긴 요양이 필요했던 점, 범인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수사관들은 A-3의 가해자인 범인을 특정하고 검거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해 요양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수사관이 수시로 진술을 요구하고 전화로 연락을 취하였다.

[맨처음에 병원에 가서 해바라기센터로 해가지고 치료를 받고 치료받은 날 바로 진술녹화 들어간 거예요?] 아니요, 이제 하고 어, 다시 날을 잡아가지고 (중략) 빠른 시일 내에 날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이제 우리가 너무 정신도 없고 힘도 없는데 막 어지럽고 그래서 일단 우리 딸 안정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고, (중략) 그 녹음하는 데가 없었고 그래가지고 그 녹음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기로 간 거 같아요. [네 그럼 1월 2일에 XX대 해바라기에서 기본적인 걸 하고 안정을 좀 취한 다음에] 1월 5일에 [OO해바라기 가서 비디오 녹화 같은 걸로 하셨어요?] 네.(중략)[진술을 한 번 했어요? 그날 한 번 하고는 안 했어요?] 예. (A-2)

[OO의료원에 가셨네요? 원스탑에? 거기서는 뭘 했나요?] 거기서 그니까 실제 상황이죠. 아이 그 뭐 아이한테 아이에게는 그 뭐야? 진술.. 진술. [진술하고] 진술 받고 [따님이 말을 잘 했나요?] 네. 처음엔 두 번 나왔어요. 한 번 어느 정도 하다가 좀 어려워하니까 어느 정도까지 하다가 또 다음날인가? 또 한 번. (중략) 좀 답답하게 하기는 했는데 좀.. 중간 가니까 좀 어려워 하더라고요. (중략)경찰이. 그니까 한 방향으로 누가 와서 얘기 성범죄 전담 와서 그 사람 통해서 어떻게 연결되고 수사가 이뤄지는 게 아니라 각자가 각자대로 오고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그 사고 기억 다시 살아나서 그 반복적으로 폭행당하는 거잖아요? 진술하는 거는. 그거를 갖다가 저한테 묻고 아한테 묻고 계속 그거를 반복했던 것이 제일 안타까워요. (중략) 경찰청 분들은 다 전담이라 그거만 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데 그냥 범인, 가해자 잡이라는 위업이 넘쳐가지고요. 그쪽에 오히려 시골쪽에 있는 그쪽이 너무 전화도 오고 자다가 또 전화오고 아침에 전화오고.[밤에도 막 전화하고 그래요?] 전화 왔어요. (A-3)

그 전화 때문에 많이 지쳤어요. 거기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대놓고 병실에서 할 수 없으니 10시 쯤 돼서 잠들었다 싶으면 전화가 오고 또 거기서 이야기 할 수 없으니까 밖에 나가야 되고 그런 일이 좀 많았어요. [따님도 그럼 많이 힘들었겠어요.] 내가 대답할 수 없는 내용을 물을 때는 물어봐야 되는데 자고 있거나 그러면 깨울 순 없어요. 제가 너무 안쓰러워서. 깨울 순 없으니까 지금 자고 있니까 나중에 좀 부탁드립니다 하니까 또 두 시간 좀 있어서 또 전화가 오고 계속 일어났으면 전화가 오고 그게 제일 힘들었던 거 같아요. 나머지는 뭐 크게.. 진짜로 도움만 받고. (A-3)

신고 접수 직후 경찰 동행 하에 해바라기센터가 있는 병원에 간 A-5는 안정기간 없이 당일날 바로 녹화진술을 하고 밤늦은 시각에 귀가하였다. 그러나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에 재조사를 위해 재차 해바라기센터에 방문하였다.

밤 11시가. 11시가 넘었으면은 형사들이 끝나면 차를 태워갖고 갈라고 기다리고 두 명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원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분들도 피곤하니까 그럼 먼저 가보소, 내가 승낙을 해서 먼저 보냈어요. 그러면 인자 그것이 끝나면은 전화를 허라, 전화를 허면은 애를 실어다주고, 저하고 애를 실어다주겠다라는 걸로 집예를. 그래 인자 녹화 끝나고 진료를 제가 택시를 불러가지고 집으로 갔죠. 가갔고 집에서 저는 또 형사 되는 분한테 인자 전화를 해줬어요. 집으로 왔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으니까 ○○경찰서에 조사하러 형사 되는 분이 여여여 ○○해바라기 센터에 오라 그래서 인자 애하고 함께 델꼬 함께 갔죠. 대학교 센터로 가갔고 인자 재조사를 해야겠다고 남자가 그런 일은 없다 그런 걸로 해가지고 녹화로 방송을 재방, 수사를 해야겠다고 걸로 델꼬 갔어요. 간계, 좀 있으니까 형사, 그 ○○ 형사, 담당되는 사람이 왔드만. 대학병원에 해바라기 센터잉. 거 와갔고 조사하는 내용을 짝 끝나고 끝나고 나서 녹화방송을 하고 나는 그냥 형사를 별도로 거시기 인자 거기서 얘기를 했어요. 여것이 어떻게 된 사실이나고 물어봤어요. 근가 인자 조사는 일단 끝났는디 안했다고 한다. 일단은 딸을 다시 녹화방송(진술녹화) 재수사를 허고 한 다음에 또 불러들인다. 조사를 호야졌다라는 것을 그 얘기를 하더라고. (A-5)

나) 진술녹화시 동석자

청소년의 경우 신뢰관계자가 진술에 동석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지만, 피해자가 정서적으로 의지할 만한 동석자가 있는 것은 피해 상황을 구성하여 전달해야 하는 피해자의 심리적 위축을 감소시켜 준다. 수사관 외에 동석자가 있는 경우엔 보호자나 상담사, 국선변호인 등이 피해자와 함께 들어갔다. A-6의 피해자는 동석자로 어머니 대신 담임교사를 택했는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자녀인 데다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두둔하였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가해자인 오빠가 진술하는 시점에서 어머니의 강요로 그 자리에 동석해야 하기도 했다. 경찰에서 이처럼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A-6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해 진술녹화 직후 어머니 및 다른 가족들과 피해자를 분리하여 보호조치 하였다.

[어머니랑 같이 있었나요?] 아니요, 저는 따로 있었어요. [아이 혼자 있고?] 예. [그런데 그 진술.... 조사 하는 사람이 남자 경찰이었나요?] 예. (A-1)

[국선변호사 말고 그때 뭐 또 진술할 때 옆에 도와주고 그런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나요?] 전혀 없었어요. (A-1)

[녹음실에 누구누구 들어가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그때 그 경찰에서 여자분 여자 경, 여경이 오신 거 같아요. 오시고 우리 OO이 하고 그때 변호사님 같이 아마 들어가셨? 들어가셨을 거 같아요. (A-2)

[국선변호사는 오셨나요?] 예, 오셨어요. [진술할 때 오셨나요?] 음, 둘째날이었던 거 같아요. (A-3)

[해바라기에서 진술녹화 들어갔잖아요? 세 시간 정도 안에 누구누구 들어갔었어요?] 안에가 여직원. 여직원들이 들어갔어요. [여직원이면. 경찰요?] 아마 경찰 아마 되는 거 같아요. [한 명 이요?] 한 명. [여자 한 명과 따님 둘이] 예, 예. 근게 녹화방송 할 때는 한 명. 딸하고 한 명 들어가갖고 한 세 시간 정도. (A-5)

경찰서를 가서 진술을 하고 그날 엄마가 오셔서...[진술은 어떻게 뭐 그냥 이렇게 경찰서 가면 막 책상 있고 큰 막.. 그런 데서 했어요?] 네. [혼자 갔어요? 담임선생님도 같이 갔어요?] 담임 선생님. [힘들지 않았어요? 진술할 때?] 많이 울었어요. 근데.. 경찰.. 그니까 엄마, 엄마를 불렀어요. 진술하기 전에. 근데 엄마가..[아, 그럼 경찰 도착하고 엄마를 부른 거네요?] 네, 그래서..[엄마가 좀 당황했겠어요] 당황하기도 했고 엄마가 저를 보자마자 화를 내더라구요. [왜?] 뭐하는 거냐고, 이게 뭐냐고,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일단 진정하고, 이제 OO이 진술할 건데 진술하는 거 들으시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담임선생님이랑 들어갈래, 아니면 엄마랑 들어갈래? [진술실은 따로 또 방에 들어간 거예요?] 네. (중략) 저는 담임선생님이랑 들어가겠다고 말씀드렸죠. [진술실에 담임선생님이랑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경찰관] 네. [이렇게 여자 분 이렇게 있고, 예.] 그래서 진술. 진술 끝나고 엄마가 저한테 오셨어요. 엄마가 미안하다고. [진술하는 거 힘들지 않았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처음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 것도 처음이고 (중략) 제가 이제 집을 가기 좀 그런 거예요. 경찰아저씨가 보호소로 그냥 바로 가자고. (A-6)

오빠 진술하러갈 때, 그때 제 생일이었어요. 근데 원래 오빠 진술할 때는 안 가도 되는데 엄마가 제가 일어나자마자 그러더라구요. 가서 취소해달라고 말씀드리라고. [경찰에?] 네. 그래서 그날 원래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도 안 가고 오빠 진술하는 데 따라갔어요. 근데 어쩌다보니까 그런 말을 안 하고 나왔어요. 저는 일단 따로 나왔어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갔죠. [오빠 진술하는 건 못 들었어요?] 네. 못 들었어요. [근데, 그럼 가고 싶지 않지 않았어요? 거기에?] 많이 가기 싫었죠. (A-6)

3) 검찰 조사 과정

A-1 피해자는 초기에 접촉한 경찰서에서 진술을 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증거확보를 실시하지 않아서 피해자 진술 외의 증거가 없었다. A-2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부터 가해자 측의 지속적인 연락을 받았다.

[증거는 진술 말고 다른 증거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A-4)

그래갖고 이제 전화 오면 그렇게 얘기하려고 최OO선생님이 가르쳐준대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중략) [해바라기에 문의하시기 전에 한 서너 번 전화가 왔어요, 가해자 가족한테?] 예, 그리고 변호사한테도 한 서너 번 연락이 온 거 같고 (A-2)

A-4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직장 관할지검, 주소지 관할지검 등으로 계속 사건이 옮겨지느라 사건이 오랫동안 제대로 수사되지 못하였고 도중에 피의자가 도주하였는데도 도주 사실이 피해자 가정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 측은 법이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심리적 공포를 느꼈다. 이런 상황에서 검거 이후 검찰로부터 가해자 측의 합의 의향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더욱 불신이 쌓였다.

인제 검찰에 넘겼죠. 검찰에서 이 사람이 수원인가 그쪽으로 요청을 했나 봐요, 직장이 거기라서? 수원으로 요청을 했어요, 그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지방경찰. 지방, 아니, 인천! (중략) 그런데 이 사실을 뭐 연락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제가 다 연락을 해봐서 얘기했더니, '아 수원으로 옮겨졌어요' 또 수원에 전화했더니 한창 '또 인천으로 옮겨졌어요'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건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못하셨겠네요.] 네. 그니까 수사도 들어가기 전에 옮기고, 옮기고, 옮기고 그러다가 작년 9월쯤엔가? 또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몇 달이 지나도 전화를 했더니 도주했대요, 그렇게 도주했으면 피해자한테 연락을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그 사람이 와갖고 막말로 우리 아이 납치해가고 그러면 어떻게 책임질 거냐? 그랬더니 검찰에서 그 많은 사건 도주했다 그래서 알려주면 개인한테 알려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아이한테는 그 사람이 도주했으니까, 이런 말 하면 공포잖아요, 아이한테 얘기하지 못하고 인제 원래 이제 아이 픽업하러 다녔었으니까 이제 계속 다니고 학원 끝나고 올 때는 큰 길가로 꼭 가라. 농칠 경우에는 엄마한테 전화해서 출발한다고 해라, 그럼 엄마가 마중 나가겠다. 그런 식으로 또 이제 공포 속에서 살았었죠 (A-4)

검찰에서도 그거는 물어봤었다. 피해자가 옆에 있는데 아 지금 옆에 있는 상황이다, 전화번호를 줘도 되겠느냐? 합의 의향이 있느냐? 물어 봤었다, 그때도 (합의를) 거절했었다. (중략) 5월 달에 저희가 신고를 했고 그리고 계속 그 몇 달 그러니까 조사하기도 전에 수원지검으로 옮겨지고 또 거기서 할려고 하니까 또 인천지검으로 옮겨지고, 그래서 인천지검에서 조사는 했어요, 그리고 지금 피의자가 옆에 있다 하면서 합의 의향 있느냐? 어, 연락처를 가르쳐줘도 되느냐? 이제 이런 전화를 받았었고 그다음에 연락이 없어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제가. 검찰청에. 그랬더니 도주한 상태다. 그러니까 그게 작년 9월, 10월일 거예요, 아마. (A-4)

4) 공판과정

재판 과정에서 출석한 피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타당하지 않은 변명을 하는 가해자를 목도하며 더욱 심리적 타격을 입기도 했다. 또한 자신이 입은 피해 상황을 재판을 위해 묘사할 때에 보호자가 듣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도 했다. 한 가정 안에서 일어난 친족 성폭행의 경우엔 특히 더욱 그러했다.

아이가 더 분노를 했던 게, 아빠는, “난 안했다. 저 아이가 거짓말하는 거다.” [재판에서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판사님이 ‘왜 아이가 아빠를 가지고 거짓말을 할까요?’ 그래, ‘나는 기억이 없다. 머리를 다쳐서.’ (A-1)

엄마가 들으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밖에 나가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재판에서요] 밖에 나가 있고 저는 저대로... [어머니는 그 내용을 알고 싶으셨나요?] 사실은, 알아야 될 거 같았어요, 근데 아이가, 굳이 엄마는 몰라도 돼. [나기라 그런 건 재판, 판사가 나가라 그런 거?] 예, 판사님이 나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가 원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 같아요. (A-1)

A-2는 강간에 대해 징역 3년을 얻도 받은 가해자 처벌이 미흡하다며, 출소 이후 다시 피해자 근처에 거하거나 보복을 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표시했다. 반면 가해자가 폭행과 강간미수에 대해 15년 징역에 30년 팔찌를 1심에서 선고받은 A-3의 경우엔 1심 이후 합의를 했음에도 2심 역시 같은 형을 받아서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를 염려하였다.

징역 3년에 (중략) 성교육인가 뭔가 그거 교육 몇 시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전자발찌는 안 찬다. 그 검사님이 징역 7년인가 징역 7년에 전자발찌 채워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판사가 이제 그

걸 [많이 낮췄군요.] 예. 처음이고, 또 이렇게 자수하고, 죄를 뉘우친다는 이유로 형을 그렇게 낮췄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음, 자수도 지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이제 증거가 다 있는 상황이라서 지가 발뺌을 못하니까 이모가 증거도 다 있고 하니까 좋게 말할 때 빨리 가서 자수하라고 (중략) 이모가 병원에서 OO이가 그 했던 거 증거 자료 그거 이제 보고 이야기 대충 이제 잠깐 검사 같은 걸 이제 하기 전에 OO이가 잠깐 이야기하고 그래가지고 이모가 자수하라고 그 처음에는 안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중략) 그런 일 없다고 그러더니 진짜 안 그랬다고 그러니까 안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OO이한테 이제 확실하게 문자, 지가 있었던 거를 문자로 남겼거든요. 그리고 녹음 해는 게 있어요. (중략) 그것 딱 들려주니까 이모한테 들려줬어요. 그러니까 이모가 증거도 다 있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미안하다고 하면서. (A-2)

(검사가 구형한 형량) 그것도 모자르죠. 왜그나하면 그런 놈들은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그렇게 딱 형을 내리면 그것만 딱 받고 나오면은 저는 찢값 치렀다 생각하고 떳떳하게 얼굴 들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딸이 이런 일을 당했지만 저도 어, 새아빠한테 그런 일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딸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면 이게 평생을 가더라고요. (중략) 그런데도 그러니까는 많이 이렇게 힘든데, 평생을 힘든데, 그런 놈들은 3년이면 3년, 7년이면 7년. 거기에 판사가 내려준 그 기간만 빼고 나면 지네들은 아무 그게 없잖아요. 오히려, 내가 어련에 이렇게 해보니까 어 좋더라, 스틸 있더라 지네들은 그러고 다닐 거 아니에요. 지네들은 그러고 다니는 동안에 우리 딸은 또 다른 피해자들은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 건데 (A-2)

그놈이 3년 살고 나오면 만약에 이모하고 같이 산다, 이모 주변에서 기웃거리거나 아니면 합의 해달라고 해서 안 해줬다고 우리 또 여기 집도 다 알거든요. 여기 와서 자고 가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해꼬지를 한다 그럴 경우 우리도 예방책을 세워야 되는데 저놈은 3년 살고 나오면은 뭐 그 어느 단체에서든지 경찰에서든지 뭐 어디 뭐에서든지 그 이후로는 신경을 안 써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내가 그놈을 형을 살고 나오면은 그놈 죽여야 되는지. 어째야 되는지. 지금 그 생각밖에 없어요. 3년이란 세월이 긴 세월이 아니거든요. (A-2)

[재판은 좀 빨리 신속하게 좀 됐겠네요?] 네. 그래도 첫 번째까지는.. 아 그니까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어떤지 한번 공주에 있는 거기(정신병원) 갔다가.. 그거를 약물로 억제하는 그거를 시험도 했다고 들었어요. (중략) 지금 15년 나왔는데 합의를 하면 어느 정도 나왔냐 제가 물어봤거든요? 7-8년? 그 정도지 싶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결국은 2심 때는 합의해도 하고 그 사람 다시 정신감정 받았는데 문제 있다고 나왔거든요? (중략) 근데 (정신적 문제가) 처음엔 왜 안 나왔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죠? 근데 그렇게 나오기는 나왔는데 형은 똑같이 15년, 30년. 팔찌 30년..[2심도요?] 예. 나왔어요. 그쪽에 옆에서 들으니까 왜 합의 봤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소리 나올 정도. (A-3)

2심 결과 나고 나서 연락이 와서 한 장 좀 써달라고 근까 그때 합의했었던 그. 그런 저거를 원하지 않는다는 그 내용 다시 한 번 또 썼어요, 제가. 그때 전달을 했는데 그 뒤에는 알 수가 없어요. [2심 끝나고 그렇게 쓰셨어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예. 네. 2심 결과 보고 일단은 저도 인간이고 애들 키우는 입장이라. (A-3)

A-4의 경우 법원의 조사관에게서 가해자와의 합의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불쾌감을 느꼈다. 가해자와의 어떤 종류의 합의도 받아들일 의사가 없음을 검찰 조사에서부터 밝혔으며 가해자 처벌에 있어 의식 교정을 위해 성교육 이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연락 온 데가 법원. 조사관이래요. 조사관인데 합의 의향 없냐고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중략) 그리고 좀 제가 불쾌한 의사 표현을 했어요. 왜 자꾸 합의를 저기를 하느냐? 그 사람 그러구 협박. 공갈 협박 그거 있던데 그것까지 다 들어가 있느냐? 했더니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인제 만약에 공갈, 협박까진 하지 않았다면 또 나이드 속이지 않았다면 조금은 내가 생각해보지 않겠지? 그 아이가 며칠 동안 공포에 그 떨고 있었고 나도 그 사람이 한 얘기 다 이렇게 카톡 상으로 한 얘기가 다 믿어져서 나도 공포스러운데 아이는 얼마나 그랬겠느냐? (중략) 그 조사관이 그럼 아이는 학교를 잘 다니고 있느냐? 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치료를 받고 있느냐? 병원을 다니느냐?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갖고 해바라기 아동센터에서 지금 상담선생님한테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런 얘기 하고 그럼 아이한테 이런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거 얘기하냐 그러더라고요. 아이한테 그런 얘기 하지 못한다. 그러구 (중략) 했더니 뭐 공탁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중략) 왜 자꾸 합의 얘기를 하고 그러느냐? 했더니 조사관이 아, 나는 조사관이고 피해자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저기하는지 물어보게 돼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절차상으로.] 예, 합의를 하려고 유도하는 건 아니고, 오해는 하지 말아라,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중략) 그런데 해바라기 여기 선생님이 상담선생님이 열어보니까 굉장히 잘못했다고 반성문을 많이 올렸대요. 그런데 그런 사람 특징이 그거잖아요. 말로는 반성은 없나, 겁나게 하고 그다음에 행동은 저기가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뭐 합의를 하거나 공탁을 하거나 그런 건 원치 않지만 이 사람은 분명 교육을 받아야 된다. (A-4)

라. 국선변호인과 법률조력인

1) 법률전문인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제공

대개는 통합지원기관을 통해 국선변호사 제도에 대해 안내받고 변호사를 소개받았는데 지원기관에 접촉이 늦은 경우 경찰을 통해 안내받기도 했다. 국선변호인 제도가 있다는 것,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등을 어느 정도

상세히 안내받았는지는 불명확하다.

국선변호사님 소개시켜주면서 그분이 이제 일을 맡아 주실 거다 그렇게 이야길 하더라고요.
[성함이란 연락처를 받으신 거예요?] 네. 그 거기에서 이제 연락을 하셔가지고 오셨더라고요.
해바라기센터에. (A-2)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죠. 그런 범죄 휘말린 것도 처음이었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진짜 아 이거 사건 어떻게 되나? 생각하고 있는 중에 변호사님을 소개받았더라
구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진짜 너무 고맙, 고마웠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이 열렸다 싶
어서. (A-3)

예, 그리고 국선변호사가 선임이 됐다는 거를 여기 (해바라기)상담선생님이 작년에 말씀을 해
줘서 알기는 아는데 (A-4)

[국선변호사 혹시 연락 받았어요?] 네. [경찰이 소개시켜줬나요? 누가 알려줬나요?] 흠, 경찰?
(A-6)

A-5의 경우에는 국선변호사제도에 대한 안내는 받았으나 절차상의 어떤
오류로 인해 국선변호사가 배정되지 않았다. 국선변호인의 연락을 못 받은
상태에서, 강간죄로 피의자를 기소할 수 없다는 검찰의 공문을 받았고, 이
후 항고를 하기 위한 법적 대응 절차를 보호자가 혼자 알아보고 있었다.

{국선변호사에 대해} 그런 건 안 했어요. [아니면 연락을 받으셨는데 안 한다고 하신 거예요?] 아니, 근게 왜냐하면 대학병원의 거 있는 분들한테 그 뭐냐면 국법 변호사를 국법 변호사를 여
기서 할까요? 그러면 아저씨가 그러면 할까요? 다른 디서 국법지원 받을까요? 여기서 받을라
요? 물어보드라고 그러면 어차피 할 거 같으면 여기서 받으나 대학병원 거기서 하는 거기에서
국법을 거시기하니까 그러면 거기서 지원을 해달라고 승낙을 해줬어요, 싸인을 해줬어요. [아,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너무나도, 검찰에서도, 이렇게 터무니없이 이
렇게 검찰에서도 터무니없이 이렇게 끝났다라는 걸로 무시없이 그냥 가치없이 검찰도 말 한
마디 부모 역할 해서 부모 불러갖고 이렇다 저렇다 말 한마디 없이 부모가 전화하니까 끝났다
고 법무사 가서 서비스 지원 받을라면 한번 물어보라고 그 한마디만 받으면 굉장히 서운터라
구요. [국선변호사 만나셔가지고 전화를 하신다든지 만나서 얘기를 하든지 이런 걸 전혀 안 하
셨어요? 누구라고 연락도 못 받으시고.] 예, 연락도 못 받았지. 암 것도 안 받고 (A-5)

2) 원활한 연결과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국선변호인마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있어 격차가 있었다. 연락이 잘 되는지, 어느 정도 피해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하는지, 피해자 측에 먼저 연락을 해주는지에 있어 차이가 많았다. A-1의 경우엔 변호사와 원활히 연결이 되지 못하고 정보제공에 있어서도 적절한 시기에 제공하지 않는 등 장기적인 친족성폭행이라는 피해에 비취볼 때 변호인의 서비스가 상당히 미흡하였다.

지금도 이 사람이, 항소를 했어요. 항소를 해갖고 (1심에서는 6년형을 받았는데 2심에서) 4년형을 받았다는 것도 저는 제 변, 그니까 우리 변호사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아무한테도 못 듣고, 그쪽, 상대방 조카한테, 4년을 받았다. 1심에서는 제가 갔어요. 몇 월 며칠에, 이케 핸드폰으로, 몇 월 며칠에 재판이 있고, 재판 결과도 나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항소가 됐는데 어느날 사건 번호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제가. (A-1)

[항소를 했으면 지금, 지금 또 이쪽에 변호사를 또 요청할 수 없나요?] 아니 그냥 그 변호사님 쪽으로 쪽 갔는데...[계속 도와주세요? 첫 번째 국선변호사가?] 한데 그 변호사는 또 바쁘신 거예요. 그 변호사님이 “4년 받았대요.”라고 저한테 말도 안해 줬어요. 그냥, 그냥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나는 그 변호사님이 뭐 재판장에 온 거는 딱 한 번 봤어요.(중략)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히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되죠?”라고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A-1)

항소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벌을 더 주기 위해서, 어머니, 이거 뭔가 뭔가 뭔가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법, 법에 대한 문외한인 저는 어떤 도움을 받고 싶은데...[1심 재판할 때도 그분이 안 도와,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예, 그냥...(중략) OO경찰서에서도 제가 변호사님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국선변호사로 됐다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아, 1심에, 1심, 1심재판, 거기, 그러니까, 이거 판결나기 전에 또 한 번 있잖아요. [거기 나타났나 이거죠?] 거기서 한 번 봤어요. 제가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서는 얼굴을 봤나요?] 안 봤어요. 저는 못봤어요. [안 보고, 그냥, 이름이 누구래더라.] 예. (A-1)

A-2와 A-4 역시 국선변호인과 원활히 연락이 되지 않는 점에서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느꼈다. A-2는 국선변호인의 미흡한 지원을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법률적인 지원을 받음으로써 해결했다.

변호사님하고는 특별하게 뭐 연락하고 주고받은 게 별로 없어요. 한두 번 정도 하고 어떤 내용인지 변호사님은 제가 전화를 안 하면 연락이 없었어요. [먼저 연락을 하지 않으면 먼저 전화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잘 모르더라고요. 어떻게 되는지, 변호사님 자체가 모르던데요. 그래가지고 (중략) 사건 내용은 아는데 자세히 아는 거 같진.....아니 사건 내용은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그날 같이 아마 들어갔던 걸로 기억, 들어갔을 거 같아요. 그날 같이 오셨으니까 그 시간에. 그래 가지고 그런데 이제 저보고, 그러니까는 재판 들어갔을 때 그 상황들을 하나도 모르고 있는 거 같았어요. (중략) 예를 들어서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거 아니에요. 이제 어떤 일이 있었고 뭐 왔네 어쨌네 확인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모르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뭐 물어보면 저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전화할 땐가 그때는 그, 뭐고, 법원에선지 해바라기에선지 아무도 자기한테 어떤 연락이 없으면서 모르,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건 진행 절차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잘] 예, 예. 그래가지고 자기가 알아보고 전화를 준다고 하더니만 그 뒤로 또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거기에는 내가 돈을 주고 하는 게 아니니까 관심이 없나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A-2)

국선변호사가 선임이 됐다는 거를 여기 상담선생님이 작년에 말씀을 해줘서 알기는 아는데 그 때 당시에 뭐 재판이 진행된 것도 아니고 조사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검찰에서 검찰로 이렇게 넘겨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연락은 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연락이 온 적이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재판으로.. 여기 상담 선생님이 열람을 해보니까 10월 3일에 이제 재판 들어간다고 하길래 제가 9월 24일날, 그 변호사 연락처를 달라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중략) (국선변호사 사무실 직원) 변호사님이 오늘 안 계시니까 내일 나오시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전화를 해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혹시 연락을 못 받을 경우 문자를 남겨주세요, 했어요. 그랬는데 그, 아! 그 전에 자기가 한 번 다시 열람을 해보고 나서 연락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중략) 그래도 혹시라도 내일 또 연락이 안 되면 문자를 해 달라, 그럼 연락을 다시 드리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연락이 안 왔어요. (중략) 그러구 이제 변호사가 전화 오나 안 오나 봤는데 오늘까지도 하나도 전화 안 왔어요. (A-4)

반면 A-3은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적절한 설명과 지지를 받았으며 연락도 원활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느꼈다.

[국선변호사는 오셨나요?] 예. 오셨어요. [진술할 때 오셨나요?] 음... 둘째날이었던 거 같아요. 제가 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첫째날은 거기 소장님이신가? [O 소장님?] 예, 예, 그분하고 같이 했고요. 둘째날인 거 같애. 둘째 날에 오셔서 같이 이야기를 들었던 거 같은 기억이...[변호사 분에 대해선 어떻게 소개를 받으셨나요?] 거기서 그냥 변호사님. [그러면 변호사님 거기서 만나서 변호사님은 어떤 설명을 해주셨나요?] 그때요? 그때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차근차근 하나하나 해야 되는 일을 가르쳐 주셨던 거 같아요. 지금 입장에서

어떻게 지금 뭐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앞으로 가는지를 설명해주셨던 거 같은데.[설명을 들으셨을 때 많이 도움도 되고 안심도 되고 그러셨어요?] 예. 그렇죠. (A-3)

[국선변호사는 경찰 다 연락해주고 다 하고 잘 도와주셨나요?] 예. 예. 계속 계셨어요. 뭐 물어볼 거 있으면 전화하면 받으시고 아니면 와서부터 옆에 건물 연결되고 있으니까 바로 옆에 와서 가서 거기서 만났다가 얘기하고 검찰에 가야될 때도 같이 가주시고 [변호사님이?] 예. 예. [어, 많이 도와주셨네요?] 예. 너무 많이. (A-3)

가) 조사와 공판 과정에서의 지원

국선변호인 대신 줄곧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법률적인 조언을 얻었던 A-2는 재판과 선고 이후의 정보에 대해서도 국선변호인의 연락을 받지 못했으며 변호사에 대해서는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다. A-3은 가해자와의 합의에 있어 합의가 가벼운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와중에 국선변호인의 조언을 듣고 염려를 덜었다. A-6는 법률적인 도움은 받았으나 피해자의 보호자가 가해자의 보호자와 동일한 상황에서 국선변호인이 양측의 보호자인 어머니의 법률적 지원 요청을 받고 피해자와 의논 없이 가해자를 지원하는 듯한 인상을 남겼다. 친족 성폭력에 있어 피해자 국선변호인이 가해자 측 국선변호인의 업무 영역에 속하는 일에 명확히 선을 긋지 않고 개입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위축감을 준다.

[지금 징역 상태에 있나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아무한테도 연락이 없으니까. [국선변호사는 2심 때도 같은 분이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 사람한테는 아예 그냥 신경을 안 쓰는 거 같아서 아예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있었고 이제 두 번째 그거 집행 들어갔을 때 결과를 이제 해바라기센터에서 선생님이 결과를 그때 보러 법원에 갔었는가 봐요. 그래갖고 그렇게 판결이 났다고. [2심 때는 따로 변호사를 못배셨어요?] 우리는 우리는 그 뭐고, 그 사건이 있고 그거 진술 그거 녹음하고 할 때 그때 한 번 보고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뭐 바뀌거나 변호사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아닌지도 모르시고?] 예. 변호사 그분이 오셔서 그날 같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했던 거 같은데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은 우리 일에 아무 관여를 안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A-2)

[변호사한테 어머니가 연락을 취한 게 몇 번이나 하셨어요?] 한, 한, 두세 번에서 서너 번 되지 싶어요. [뭐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여쭙보려고 하신 거예요?] 네. 그랬는데 그러고 이제, 또 어떻게 해서든지 형을 좀 많이 살게 해주고 (중략) [국선변호사님을 바꿔달라든지 아니면

뭐 이게 좀 하는 일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한번 얘길 해보셨어요? 그런 것을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돈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략) 돈을 안 받고 하는데 내 일처럼 그렇게. 솔직히 돈을 받아도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돈도 안 받고 그렇게 하는데 내 일처럼 신경을 써주잖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일단 재판이 이제 그놈이 형을 많이 살기를 바랐는데 3년밖에 안된다 하니까 저는 모든 게 자포자기가 된 거고 (A-2)

[2심에서 합의를 하신...] 2심에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요?] 너무 기니까 15년은. [변호사는 뭐라 그러시나요?] 그때는 그 변호사님 ** 때문에 계셨는데 제가 그거를 전화를 드렸죠. 아무래도 모르니까. 그거 안 되가지고 좀 원스톱에 전화했는가? 어디 전화했는데 변호사님이랑 또 연결이 되가지고 도움 주셨어요. [뭐라 그러세요? 그 변호사님이? 합의한다 그러니까?] 그니까 그때는 뭐를...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내용으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까 뭐라고 하셨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근데 굉장히 마음이 안정되는 거를 기억 나요.(중략)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일단은 얼마라고 드릴 수는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한 0000 정도는 제가 안 그랬나 말씀해줬고 조언해주셨고 그 외에도 음... 그니까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지 그런 것도 제가 물어봤어요. 그것도 다 가르쳐 주셨고요. (중략) 갑자기 아예 잊고 있었던 합의라는 말이 합의라는 말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뭐 그 사람한테 제 마음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근데 합의 하면 그 사람을 그러니까 그 돈으로 받고 이제는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 전제기 때문에 진짜 제가 마음이 어려웠어요.(중략)합의하면 아예 그 사람이 어느 정도 형이 나오는지. 그죠. 바로 나오면 아무래도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용서할라 해도 용서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니까 합의 해버리면 혹시 그 사람한테 죄를 묻지 않는 거 아니냐? (중략) 그니까 그거 물으려고 연락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거 아니니까 그런 걱정 말고. (A-3)

세 번째는 엄마 때문에 갔어요. (중략) [세 번째는? 엄마 땀에?] 네. 엄마가 오빠 신고 취소 좀..[해달라고?] 네. 어떻게 안 되냐고 그래서 갔어요. 가서 말씀드렸는데.. 얘기가 뭐 법원에다가 무슨 뭐였지? 뭘 써서 보내면 아마 취소가 될 거라고 하시더라구요. (중략) 나를 위해서 변호사를 해준다는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렇게 얘기 했어요?] 얘기를 못했죠. [그럼 좀 당황스러웠겠네요?] 그니까 엄마한테 시달려가지고 이제 그거 상의하러 갔는데 그 사람은, 아 그거 할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네. 나중에 저한테 그러더라구요. 아, 엄마한테 그랬어요. 신고 취소는 안 될 거라고 그러더라구요. [누가요?] 변호사가. [아 그럼 엄마한테 또 다르게 얘기한 거네요?] 아니.. 아, 두 번째도 엄마 땀에 갔고 세 번째도 엄마 땀에 갔어요. 두 번째에 엄마한테, 엄마가 취소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자기가 이렇게 하면 취소가 될 거다 해서 갔는데 세 번째에 또 갔어요. 갔는데 아마 취소가 안 될 거라고. 그러더라구요. (A-6)

[(국선변호사가) 좀 설명을 해줬나요? 지금 경찰이 해서 검찰에..]네. [검찰에서는 공판이 있고] 그런 설명을 해주셨어요. (A-6)

나) 국선변호인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국선변호인의 지원이 큰 도움이 되었다는 피해자도 있었지만 대부분 도움을 받은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연락이 원활하지 못한 점, 피해자와 사건에 무관심해 보인다는 점, 조언이 충분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저는 도움받은 게 없어요, 솔직히. 국선변호사님한테 도움받은 게 없어요. (A-1)

[국선변호사 배정을 받으셨지만 생각 떠오르는, 나 어떤 거 도움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실 만한 게] 없어요. 제가 해바라기센터로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음, 애들이 많이 그런 애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처럼 이런 일을 당하는 애들이 솔직히 정신이 없잖아요. 저도 당해보니까 저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한테 이런 일이, 내가 이런 일을 당할 거라고는, 우리 딸이 그런 일을 당할 거라고 생각도 못해봤고 그래갖고 그냥 나는 내가 이제 그렇게 변호사님이 뭘 이렇게 신경 써서 해준 게 없기 때문에 음, 앞으로는 이제 좀 이게 개선이 돼서 만약에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면 그냥 그 사람은 좀 좋아진, 더 좋은 도움을 받고 그 사람들은 빨리 회복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중략) 합의를 해달라고 전화가 왔는데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합의할 마음이 없는데. 어, 합의할 마음 없고 오히려 뻔뻔하다 이렇게 욕이라도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싶은데 그게 혹시나 또 내한테 마이너스가 될까봐 차마 욕은 못하고 전화 끊으라고 할말 없다고 그냥 그렇게 하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그거를 한번 물어봤나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나는데, 물어봤는데 지금 확실하게 기억이 안나요. 물어봤는지 안 물어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만약에 물어봤다면 그렇게 대답을 내가 속 시원하게 이렇게 '아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안해. (중략) 예 그런 이야기를 못들은 거 같아요. 그래서 아 이 변호사는 도움이 안 되고 필요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 같아요. [얘기를 한 거나 안 한 거나 결과가 그냥] 예, 똑같이 답답하고 똑같이 궁금하니까. 물어보나 안 물어보나 뭐 안 물어본 거랑 똑같은 그런 상황이니까. (A-2)

무료로 국선변호사님 그거 해주시는 건 좋은데 이제 그렇게 어차피 해주신다면 그러니까는 이렇게 피해자가 연락 안해줘도 연락을 먼저 안 해도 돌아가는 상황이라든가 궁금한 걸 물어봤을 때 좀 속 시원하게 이야길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A-2)

너무 잘 도와주셨어요. 정말 그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사고 당해서 멍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해야 되는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원스탑하고 국선변호사님하고 두 분이 진짜 잘해줬어요. (A-3)

국선변호사가 뭐 필요있는지 모르겠어요. (A-4)

[내가 그분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 생각이 들어요?] 아니요. 아니요. (A-6)

마. 소결

청소년피해자들은 중고등학교 학생인 경우가 많아 보호자와의 심리적/물리적 거리감에 따라 보호자가 아닌 학교 교사나 교우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신고와 지원 절차를 밟기도 하였다.

통합지원기관에 대한 정보를 피해사실 인지 이전에 알고 있던 경우는 없었으며 학교에서 교육을 받음에도 지원기관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지 못했다. 학교에서의 교육에 있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서 가까운 통합지원센터 등을 우선적으로 상세히 안내받아야 할 필요가 보인다.

참여자 중 1명은 피해자지원에 대해 정보를 특히 늦게 접하여 안정을 취하지 못했으며 경찰의 부적절한 진술 조사와 지원기관에 대한 정보 미제공으로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었다. 결국 주민센터를 통해 지원정보를 접했는데 피해자들이 어떤 시점이나 경로에서든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접촉 가능한 경로를 파악하고 정보 전달력을 높이는 방안이 요구된다. 참여자들은 지원기관의 심리적 정서적 지원 및 법률적인 지원에 대해 도움이 되었으며 고맙게 생각한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사춘기에 있는 자녀와 원만한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주는 심리적 지원 서비스에 만족도가 높았다. 심리상담에 있어 동행서비스, 파견서비스, 상담연장 등 피해자의 상황에 맞게 서비스하고 있었다. 당사자 모임은 매우 한정적으로만 운영이 되어서 극소수만이 당사자모임을 통해 도움을 받았다고 회고하였으며 다른 피해자에게서는 당사자 모임을 통해서 고충을 나누고 싶다는 요구가 드러났다.

경찰 수사 과정에 있어 피해상황을 수차례 상기시키는 반복된 진술조사, 공개된 곳에서의 피해상황 진술 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아직 부족한 측면과 2차 피해에 대한 인식 부재가 드러났으며 성폭력 피해의 증거 확보 노력, 피해자 안정 후 녹화를 통한 진술, 국선변호인과 진술조력인 확보 등의 과정을 적절히 수행하지 않은 사례가 보였다. 수사 담당관이 직접 대면이 없는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이해가 낮아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화해와 조정으로 종결하려 시도하고 수사가 필요한 범죄로 보지 않았다. 통신 환경과 콘텐츠가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경찰

의 의식 변화가 요구된다. 범인이 특정되지 않고 검거에 어려움이 있어 추가 진술을 받기 위해, 입원 중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한 사례가 있었다. 추가 진술로 인해 피해자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가이드가 필요하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관할지점이 계속 이동되는 중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가해자가 도주한 사례가 있었다. 피해자에게 이 사실이 즉각 알려지지 않았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피해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가해자의 합의 의향을 검찰로부터 전달받은 사례에서 피해자는 검찰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꼈다. 피해자 측은 다양한 경로로 가해자 측의 합의 요구를 전달받는데 이러한 제안에 분노와 불안을 느꼈으며, 특히 가해자 가족으로부터 직접 피해자측에 연락이 간 경우 더욱 그러했다.

대개의 피해자들은 공판에 출석하여 피해 과정을 상기하는 상황을 꺼려 출석하지 않았다. 출석하는 경우 범행을 부인하거나 타당하지 않은 변명을 하는 가해자의 태도에 심리적 타격과 분노를 느꼈다. 또한 가해자가 예상보다 가벼운 형을 받았을 경우엔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재피해, 피해자의 심리적 동요에 대한 염려 등으로 고통받았다.

국선변호인마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있어 차이가 있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만족도에도 큰 차이를 보였다. 국선변호인을 요청했으나 선임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으며 참여자의 절반 이상이 국선변호사가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사건 해결 초기부터 원활히 국선변호사와 연락이 되고 접촉이 잦은 경우, 정보 제공에 적극적이고 답변 내용이 명확한 경우, 피해자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경우에 만족도가 높았다. 친족성폭력의 경우 가해자 가족과 피해자 가족이 같기 때문에 피해자 국선변호인에게 가해자에 관련된 문의가 들어올 수 있는데 국선변호인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축감을 주고 적절히 지원받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선변호인의 법률적 지원이 미흡한 경우 피해자들은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한 통합지원센터의 상담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였다.

3. 장애인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례 분석

가.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의 접촉

1) 장애인성폭력 피해 노출의 특성

가) 피해자 당사자의 피해 인지와 고지

지적장애인은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향은 연령이 어릴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장애인 아동의 경우, ‘성 인지 부족’이라는 아동의 특성과 ‘지적 판단 부족’이라는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이중으로 갖고 있어 피해사실이 즉각적으로 밝혀지기 어려운 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아동 성폭력 가해자의 경우 낯선 사람보다는 아동의 생활 반경에 있는 친분이 있는 권위자인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경우 아동의 입장에서 익숙한 대상으로 본인에게 성적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행동인지 자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초등학교 2학년이고 이 아이가 사실은 다른 아이들보다 지적능력이 좀 낮아요. (중략) 갑자기 “엄마! 선생님이 나를 사랑해.” “.....누가?” “바둑선생님이 나를 사랑해.” (중략) “휴지로도 닦아.” “휴지로? 그래 어떻게?” 했더니 (제스처어) “닦아.” “어떻게? 엄마한테 고대로 해봐” 그랬더니 (시늉을 하며) “이렇게!” 내가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했더니 “더 뒤쪽에 이렇게 닦아!” (중략) “선생님이 이것도 했어.” 나를 탁 얹어놓더라고요, 그리고 올라타는 거예요 “이것도 했어.” (D-1)

○○이가 그랬대요, 아빠한테. “아빠 나는 오줌도 안 썼는데 선생님이 날 닦아 자꾸.” 그러니까 애 생각에는 유치원 때 선생님은 배변해주잖아요, 닦는 거. 그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 애길 ○○이가 했대요, 아빠한테. (중략) 못 느끼는 거죠. 오줌 쌀 때 닦아준 거랑 와서 부비고 (하는 행위가 다르다는 걸) (D-1)

때로는 일련의 상황들이 피해자 본인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목격자가 가해자와의 관계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나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피해 사실을 인지한 주변인의 초기대응에 있어서도

가해자를 추궁하기보다는 피해아동을 질책하고 주의를 주는 등 부적절하게 대처함으로써 피해자가 스스로의 잘못으로 느끼는 경우가 있다.

“선생님이 화를 냈어. 화를 내고” 애는 그러니까 지가 잘못된 건 줄 아는 거예요. 화를 내니까. “화를 내고 나를 상담실로 데려가서 앞으로 선생님이 또 그러면 싫어요, 말하고 상담실로 얼른 와서 도와주세요 하라고 했어.” (중략) “사모님이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어.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고” 그게 어떤 말하고 겹치냐 하면, 사모가 저랑 통화했을 때, “보셨다면서요?” 했을 때 사모는 뭐라 했냐 하면 “아 예, 둘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하고 소리 지르고” 애한테 가서는, 뭐 아 애가 매달려서 장난치고 있더라. 선생님 뭐하시는 거예요 소리지르고 애는 상담실로 데려가서 그러면 안된다고 타일렀어요 라고 했거든요. (D-1)

친족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지적장애 3급인 D-2는 자활작업장에서 있었던 성폭력 피해 경험을 숨기고 작업장을 옮기고 싶다는 요청만 거듭하다가 임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친언니와 상의를 하던 차에 성폭행 피해가 밝혀지게 되었다. 이전에 겪은 성폭력 피해로 원스톱지원센터를 이용하고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번거로웠던 경험이 있었고, 작업장을 이용하는 다른 장애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가해자를 형사 처벌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스톱지원센터에 접촉하는 대신 자활작업장에 먼저 해결을 요청하게 되었다. 그러나 자활작업장 운영구성원들은 작업장을 지키기 위해 오히려 피해자를 공격했고, 이러한 초기 대처는 성폭력 피해 신고나 적절한 지원서비스 연결까지의 과정을 지연시키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언니 나 다른 직장 알아봐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갈 데가 없잖아요? (중략) “니가 갈 데가 어딴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길 하더라구. 성폭행 당했던 얘기까진 못하고 “언니. 몸이 좀 이상한데” 표현을 이렇게.. 자꾸 속도 울렁거리고, 뭐 이러는데 “임신한 거 같애.” (중략) 경찰을 왔다 갔다 하고 원스톱을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저희가 아니까 그리고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센터에... 근데, 그 센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한 통속이 돼서 제 동생을 모함을 하고 뭐 정신병자 취급..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바로 신고를 했겠지만 어머니, 아버지 생각에 종교단체에서 하는 데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크리스찬이시거든요? 그니까 거기에 피해가 가면 안 되지 않느냐? 애처럼 일이 필요하지만 다른 데 못 가는 애들이.. 만약에 이게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 센터에 문제가 생기면 못 가게 되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애(가해자)가 나이가 스물아홉인가 서른인가 이래요. 아직 젊은데 젊은 애 인생

망쳐가지고, 요새 뭐 보복 이런 것도 많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개가 나중이라도 돼서 애들한테 별로 득될 게 없지 않느냐? 일단 그 센타 측으로 알려서 해결을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하이튼 나오는 태도가 애가 너무 불량하고 그러구...(중략) 한 달 정도 지나고 도저히 애는 그냥 뒤서는 안 될 애다. 가서.[가서 그럼 바로 진술하셨겠네요?] 네. 상담소 통해서 연락하고. (D-2)

지적장애 2급인 D-3 피해자는 사회적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로 인해 가출을 자주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그때마다 보호자가 원스톱지원센터와 상담소에 직접 도움을 요청하였다. 원스톱지원센터와 상담소의 도움을 통해 초기 성폭행 피해 진술과 산부인과 지원을 받게 되었다. 이 사례에서는 지적장애인의 취약함을 이용해 장애인당사자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하고 요금은 실제 이용자가 아닌 피해자가 부담하는 사건이 2차례 발생하여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했으나 정작 피해 당사자는 그 심각함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성적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보호자와 피해자의 인지가 달랐다.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재정적으로 갈취하고 성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았지만 피해자는 다르게 인지하고 있어서 강간으로 기소한 2건 중 1건은 화간으로 처리되었다.

말두 안 듣고 오로지 그쪽에서만 꽃혀가지고 그 애들만 어울리더라고. 그다음 사건사고가 하도 많아서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하다가 원스톱센터에 가서, 오후 2시엔가 가서, 밤 12시, 1시에 오기도 하고 [오후 2시에 들어가서 12시, 1시에요? 원스톱에서] 검사받고 하다보니까.. 예. [원스톱도 한 번 간 게 아니고 여러 번 갔어요?] 가서 검사받고 진술받고.[그러면 굉장히 사건이 여러 개가 있었던 거네요?] 예, 예, 예, 예. (D-3 어머니)

친구한테 전화기를 막 해줬어요. 엄마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래서 거기에서 전화기를 해줘서 (중략) 그래서 애가 신불자 되고 (중략) 두 통, 두 대나 해줘가지구. 그래서 하나는 해결됐는데 하나는.. 하나가 지금까지도 속을 썩여 [같은 사람한테 두 개를 해준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 [각각 다른 사람한테 하나씩?] 예, 예. (D-3 어머니)

[쉽터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계속] 예. [계속, 아.. 1년 정도까지? 그러면 재작년 한 해 정도까지?] 예. [대략 건수가 몇 건 정도 될까요?] 헤아릴 수 없는 것 같은데 [열 건?] 엄청. 밤만 되면은 찾으러 다니기도 하고.. [그러면 그 가해자로 기소를 한 게] 두 건.(D-3 어머니)

개가 그냥 밤에 실수로 고백을 했는데, 저한테. 제가 싫다고 했어요. OO라는 애랑 사귀고 있는데. 싫다고 했는데도 해서 신고를 했어요.(중략) OO는 그냥, 그냥 서로 좋아서 한 거고. (D-3 피해자)

지적장애인이 본인의 피해를 인지한다 해도 가족들에게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리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D-4의 피해자 가족들은 피해자에 대해 평소 정신이 온전치 않다든지, 거짓말을 하는 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피해자 역시 예전에 성추행 경험을 알렸을 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경험이 있어서, 피해자의 습관을 이해하고 있는 친언니가 전화를 걸어 질문을 해왔을 때에서야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되었다.

그날 저녁에도 언니가 인제 큰집으로 밥을 먹으러 갔대요, 생일이니까 밥을 먹으러 갔는데 OO이가 애가 문에 기대갖고 자꾸 언니 얼굴 쳐다보더래요. 그러구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OO이가 거짓말하거나 뭐 잘못을 했을 때는 그런 버릇이 있다고, OO이한테 전화를 했대요. OO아 무슨 일이 있냐? 전화했더니 인제 그때 인제 언니한테 그런 얘길 했다 그러더라구요. 큰아빠가 성추행했다고. (중략) 왜냐면 저는 떨어져서 있고 언니도 떨어져 있으니까. 애 말을 안 믿으니까, 큰아빠도 워낙에 잘 했으니까. 그래서 애 식구들도 다 그래. 애가 정신이 나가서 그런다고 헛소리하는 거라고 저는 그때는 인제 왜 그때.. 형사 분도 그래, 그때 왜 신고를 안 했냐고? 왜냐면 저두 애 말을 못 믿었으니까요. (D-4 어머니)

지적장애인의 경우 사리분별이 어려워 금전적인 피해 등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D-3처럼 D-4의 피해자도 사회적 관계에서 친구라고 접근하는 이들에게 경계심 없이 대하고 대출 및 본인 명의로 핸드폰 개통을 해줌으로써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고 민사소송까지 겪고 있었다.

대출도 받아줬어요. 머시매한테. 고등학교 친구 대출도 받아주구, 아이폰 3대나 해주구요. (중략) 개는 애가 애 명의로 아이폰 해준 거를 이제 뭐 인터넷이나 그런 데 팔아먹구요. 머시매가. 그러고 애뿐만 아니라 고, 개네 고등학교 때 친한 열 몇 명한테 개가 머시매가 그랬더라구요. 애는 대출까지 받아줘서 미즈사랑인가 어딘가. 민사소송 해놨어요. (D-4 어머니)

나) 지적장애 판정에 대한 보호자의 불인정

보호자들은 자녀가 지적장애자로 판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싫어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D-1 피해아동의 보호자는 어떻게 해서든 남들이 보기에 아이가 보통의 평범한 아이로 보이도록 온갖 교육을 시켰다. D-4의 보호자는 단순히 아이가 착할 뿐이지 선천적인 지적장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D-4의 장애를 위해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게 하거나 성폭력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도 쉽게 결정내리지 못했다. 피해자지원기관에서 이런 보호자들을 설득하여 자녀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었다.

장애 등록을 하면 국가보조도 받을 수가 있고 그런 언어치료나 경제적으로도 좀 가벼울 수 있지만 저는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중략) 저는 애 교육의 목표는 뭐였나하면 '남 보기에 멀쩡해 보이면 된다. 남 보기에 사회생활 할 정도만 키우면 난 죽어도 편하다. (중략) 제 고집이 많았죠. 숨기고, 그런 걸 숨기고, 얼른 남들 눈에 안 띄는 만큼만 하면 된다. (D-1)

[언제 등급이 판정이 나왔어요?] 올해요.(중략) 생활기록부는 보통 선생님이 일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애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안 써주시잖아요? 그냥 성실하고 착하고 그런 내용만 써줘. 거기서 3급이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급 됐어요.[그러면은 이게 인제 등급이 나올만한 어떤 그런 장애라고 생각을 안 하신 거네요? 그 전에는?] 저는 병원도 입원 안 시켰어요. 왜냐면 아직은 나이도 어리고 기록에 남을까봐. 그래갖고 이번에 장애등급 할 때도 많이 고민했어요. (D-4 어머니)

2) 장애인성폭력 가해자의 특성

성폭력 가해자는 일반적으로 낮모르는 타인보다 지인인 경우가 더 비중이 높지만 지적장애인은 특히 더욱 그렇다. 교류 과정에서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그 취약성을 이용해 쉬운 범행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가해자들은 지적장애인들이 친절하게 다가오는 사람에 대해 경계심이 낮다는 것을 이용해 친근한 태도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범행 사실을 피해자가 폭로했을 때 피해자가 의사전달 능력이나 상황 이해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공격하며 범행 사실이 없는데 피해자가 오인한 것이라고 강변하거나 자신의 상황을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진술 외의 증거가 없을 경우 지적장애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하고, 지적장애인의 상황 파악 능력에

결함이 있다든지, 정신병적 망상이라는 식으로 약점을 공격하며 피해자 측이 지칠 때까지 버티기도 했다. 이런 태도는 가해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소속 조직 전체에 배어 있었다. D-1은 강사와 학원운영자들이, D-2는 장애인재활작업장을 관리하는 종교인과 사무직원들이 가해자와 함께 피해자를 공격했고, D-4의 경우는 가해자 가족 전체가 그러했다.

D-1의 피해 사례에서는 성추행 가해자인 학원강사뿐만 아니라 범행 장면을 목격하고도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이를 은폐한 학원운영자 역시 초기엔 보호자에게 인정했던 목격 사실을 수사와 조사 과정에선 목격 사실조차 부인하거나 그 의미를 몰랐다는 등 계속 말을 바꾸며 앞뒤가 맞지 않는 언행을 보였다. 피해자가 지적장애에 아동이기 때문에 진술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것처럼 행동한 것이었다. 보호자는, 장애아동이 지속적인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은폐 후 거짓말을 한 학원운영자들도 형사고발을 한 상태였다.

“제가 애를 좀 예뻐합니다. 예뻐서 애를 좀 안았습시다.” 요런 쪽으로 말이 갈 거 같아서 제가 “휴지가 뭐야!” (중략) 당황하더니 “저 사실은 제가 ○○이가 혼자 남았는데 성욕이 느껴져서 자위를 하다가 휴지로 닦은 걸 ○○이가 본 것뿐입니다.” (중략) 더 잔인했던 건 팔이 부러진 애를 갖다가 그렇게 한 거예요. 팔 수술한지 얼마 안되는 애를 갖다가. (중략) 그 시기가, 애가 팔이 부러져서 밥도 오른손으로 못 먹는 그런 애를. 인간이 아닌 거예요. 지적장애에다가 말도 못하는 애, 몸도 성하지 않은 애를! (D-1)

제가 그랬죠. “사모님도 보셨다면서요!” 당황하더니 “아 네 그거요. 아 그게..... ○○이가 매달려 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러다가 그러면 안 된다고 따끔하게 얘기한 거밖에 없어요. 상담실에 데려가서 얘기했어요.” (중략) 더했던 얘기는 그날 전화가 왔어요. 그날 경찰서 데려다주고 전화가, 술 한잔 하세요. 그럼서 애 계속 보내래요.(중략) 그 학원비 10만원에. 10만원 떨어져나갈까 봐 그랬던 인간들이예요. 아휴. 이런 인간들이 지금 죄를 안 받겠다고 다 부인하고 있는데 (중략) 이 가해자와 이 사람(학원원장)이 내통하고 있다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서로 짜고. 애길 하지 않고, 짜주고. 대가가 오간 느낌이야.(D-1)

경찰관이 왔어요. 해바라기센터로. 애를 애들 없을 때 책상 밑에 넣어놓고 바지를 벗기고 그 위에서 자기가 성기를 부본다. 엉덩이에다 대고. 그렇게 진술을 했대요. 경찰관에서는. 부비고 그럼 휴지가 뭐냐 그랬더니, 말을 망설이더니, 그놈이 그럼 발기가 안된다는 놈인데 자위를 했다고 하니까 진술서를 보니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자기가 변명을 하는 거야. 자기는 월남전

참전한 사람이고 고엽제 피해자라 자기가 제정신이 아니고..... 자기를 감싸는 거죠 어차피 난 받기도 안 되는 사람이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함당하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도 실수로 붙었다는 걸 안 거죠. (D-1)

D-2의 피해자는 이혼 후 전남편과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분쟁 상태에서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유리하다는 판단으로 장애인재활작업장을 이용하던 중 성폭행과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 사건 발생초기, 피해자 측은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재활작업장과 그곳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성폭력 사건으로 형사고발하지 않고 작업장 관리자들에게 피해를 보고하여 내부적으로 처리하려 했다. 하지만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에 한 달 후에는 형사고발을 했고, 그러자 작업장의 관리 책임자인 종교인과 사무직 직원들 모두 태도를 바꾸어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를 공격하였다.

동생이 피해를 당했던 사실도 정말 저희한테 큰 상처지만 작년부터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그 재활센터 신부, 거기가 천주교에서 운영한다 해서 제가 믿고 보냈거든요? (중략) 팀장, 거기서 사무를 보던 선생님이란 사람들까지. 처음에 저희가 신고하기 전에는 저희 편들 것처럼 와서 무릎 꿇고 빌고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이러더니 (중략) 그랬는데 그러고는 저희가 신고하고 나니까 다시 그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전부 한 패겨린거예요. (D-2)

그렇게 해놓고 자기들끼리 말 짜맞추고 애를 이제 혐의가 없는 걸로 몰고 가야 센터 저것도 입에 안 오르내릴 거 같으니까. (중략) 저희 지금 생각은 거기 폐쇄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략) 여기 전체 다 조사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D-2)

D-4 피해자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했지만 자녀들만은 백부와 왕래를 돈독히 계속하고 있는 상태였다. 보호자가 부재하는 상황에서 자매 모두 같은 친족에게 성추행을 당했는데, 본 사건 이전의 성추행 사건 때, 지적장애자인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폭로한 바가 있었다. 하지만 당시 가해자 가족은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약점으로 잡아 협박하였고 오히려 피해 사실을 허위로 보고했음을 인정하고 가해자에게 사과하도록 종용했다. D-4의 친언니도 초등학교 때, 친부와 백부로부터 성추행을 경험하였지만, 친족이기에 고소 고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가해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의 증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정신지체로 생겨난 문제라고 치부해버리거나 설득시키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가해자 가족 전체가 성인남성이 어린 여성을 성추행하는 것에 대해 큰 죄의식이 없었고 있을 수 있는 일로 생각하고 있었다.

어머니: 큰아빠가 워낙 잘 했어요, 애들한테. 잘 해갔구.. 이런 거는 생각도 못했죠 (중략) 애가 정신과 약을 먹은 지가 고등학교 때부터 약을 먹었거든요. 그니까 그때도 이제 애는 OO에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때 큰아빠가 와서 한 번 그랬대. (피해자를 향해 질문)한 번? 두 번? / 피해자:두 번 / 어머니: 어, 그랬는데.. 왜냐면 저는 떨어져서 있고 언니도 떨어져 있으니까 애 말을 안 믿으니까, 큰아빠도 워낙에 잘 했으니까. 그래서 애 식구들도 다 그래. 애가 정신이 나가서 그런다고. 헛소리하는 거라고. (D-4)

피해자: 아, 그때 고모가 신고를 하지 말, 았, 말고 그 돈도 안 주겠다고 하고 생활비도 안 주겠다고 하고 학교도 안 보내겠다고 그래서. 사과하라고 고모가 그래서/ 어머니: 광주에서 대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큰아빠가 그렇게 했다는 거 이제 고모한테 얘기를 했나봐요. 그러니까 '내 동생은' 동생이니까 '내 동생은 그럴 리가 없다', '니가 정신이 나가' (중략) 그니까 고모가 이제 만약에 큰아빠한테 용,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라, 아니면 너는 학교도 못 보내고 OO에 쫓아낼 것이다. (D-4)

OO(피해자) 말고 이제 저희 큰애가 또 아빠한테 성추행을 당했어요. (중략) 그러구 큰애한테 또 큰아빠도 또 한 번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애네 아빠랑 저랑 같이 목격을 했어요. (중략) 너무 처음부터 애가 (정신적으로 불안하다) 그거로 밀고 나가시더라구요, 큰아빠가. 정신이 오락가락한다, 사람도 못 알아볼 정도다, 엄마, 아빠도 못 알아볼 정도라고 경찰서에서 그렇게 얘기해버리니까 굉장히 서운하고 껄뽀하더라구요. (중략) 아빠는 제가 빼달라고 했어요. 왜, 근데 왜 아빠 얘기를 했냐면 이 집안 남자들이 그랬다. [내력이] 큰아빠도 그렇고 (중략) 시누가 하는 얘기가, 자기도 아빠가 그랬대요, 어렸을 때. [집안 내력이] 그니까, 어, 그니까 너도 그냥 잊어버려라. (D-4)

나.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의 서비스

1) 지원 서비스에 대한 피해자 측 평가

가) 전반적인 평가

지원기관과 서비스에 대해 참여자들은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상담을 통한 정서적 지지와 심리적인 안정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다.

재판 과정에 직접 출석 없이 지원기관의 담당자가 대리함으로써 심적인 고통을 덜 수 있는 것도 그중 하나였다.

[해바라기 같은 데서 좀 도움은 받으셨나요?] 어우 많이 받았죠. (D-1)

해바라기 센터가 거기 상담소 쌤들은 많이 도와주셨어요. [좀 도움이 됐어요?] 네. 많이 됐어요. 저도 의견을 제 얘기를 다 들어주시니까. (D-2)

별로 신경 안 쓰이게 상담선생님, 선생님하고 변호사님하고 잘해주시니까.. 별로 그렇게 일은 없었던 거 같아요. (중략) 법정에 직접 출두하라고 했으면은 맘,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런 거 없이 넘어가주시니까 감사하죠. (D-3 어머니)

[상담소나 아니면 해바라기에 갔을 때 조금 아, 나 이게 좀 불편한데 요거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느껴셨던 부분이 혹시 있어요?] 없어요. (D-4 어머니)

나) 접수 과정

D-1의 경우엔 경찰에 우선 신고를 한 후 경찰을 통해 해바라기센터를 안내받은 후 상담을 신청하고 일주일 정도 후에 방문하였다. D-2는 기존에 경찰의 안내로 상담소와 해바라기를 이용했던 경험이 있던 터에 재촬영작업장 내부적으로 해결을 시도하다가 그곳에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한 달 뒤에 지원기관에 피해를 보고하였다. D-3은 기존에 이용하던 장애인 상담소를 통해 연계하여 들어왔다. D-4는 피해 사실을 들은 언니가 인터넷에 ‘성폭행’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지원센터를 알게 되었다.

아침 9시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런 해바라기센터 연결이 될 거고 국선 변호인이 도움을 줄 거고 그리고 해바라기센터가 진술을 받을 거다. (중략) [해바라기센터는 그럼 언제 갔어요?] 다음 주 수요일 정도? 한 일주일 정도 걸렸던 거 같아요. (D-1)

그 과정에 저희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원스탑이나 상담소 지원을 받고 (D-2)

[여기 이 상담소는 언제 알게 되신 거예요?] 그. 계속 애가 장애가 있다 보니까는 계속 그 일 터지고 나서 어떻게 연계, 연계해서. (D-3 어머니)

그냥 성폭행상담소 하나까 그렇게 뭐 여러 가지 00도 나오고 뭐 00도 나오고 네이버에 그렇게 나오더라구요. 성폭행만 쳐도. (D-4 어머니)

다) 지원 과정

성폭력과 성추행 피해 경험을 한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 4명은 모두 해바라기지원센터를 통해 통합 서비스를 지원 받았다. 지원은 크게 의료적 지원, 심리상담 지원, 법적 절차 지원이 있다. 의료적 지원에 있어 사례 D-1의 경우, 피해 자녀가 사건 이전에도 신체적으로 허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성추행으로 인한 통증을 선천적인 병증에 기인한 것으로 오인하였는데 지원센터에서 ‘선생님이 부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신체적 피해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피해자의 신체적 고통이 경감되었을 것이다. D-1의 보호자는 상담 과정을 통하여 성폭력 피해뿐 아니라 자녀의 지적장애를 대하는 인식과 태도가 전환되어 긍정적인 회복과정을 경험하였다. 피해 당사자인 자녀 역시 가해자가 강요한 ‘비밀 지키기’로 억압된 무의식적 분노를 놀이치료를 통해 해소하고, 다른 피해자의 사례를 접하면서 본인의 잘못이 아닌 것을 인식하였다.

애가 아프다고 우는 거예요. 보니까 빨갛더라고요. [그런데 해바라기 갔을 때 그거 체크를 안 했어요?] (중략) 그걸 의심을 못한 게 피부가 워낙 약했어요. 워낙 약해서 항상 아팠어요. 유치원 때도. (중략) 갑자기 눈물이 그렇그렁하면서 절망적인 눈빛, 원망의 눈빛, 두려움의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엄마, 선생님이 나를 여기를 자꾸 휴지로 닦아서 내가 이렇게 아픈 게 아닐까?” 우는 거예요. (D-1)

[어떤 도움을 받으셨어요?] 어, 일단, 이 성범죄에 대해서 인식을 좀 달리했고 숨겨야 될 부분 이기보다는 치료받아야 되고 극복하고 사는 것일 뿐이고 극복하고 살아가야 하는 거다. 이런 느낌으로 하루하루 극복하고 있고. (D-1)

엄마가 기다려야 되는 거라고 지금은. 애가 (지적장애에 필요한 과정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저도 지금은 그걸 이 사건으로 깨우치고 지금은 (학습지와 받아쓰기 공부 강요하거나) 안 그래요. (D-1)

애 진술에 의하면, 그러기 전에 ○○이한테 그랬대요. “○○아 사랑한다.” 말을 하고 그러면서 “엄마한테는 꼭꼭꼭꼭꼭꼭 비밀이다!” 그렇게 하고나선 그렇게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말하지 마라고(중략)놀이치료를 해서, 너가 그 선생님에 대한 인형을 갖고 와봐. 그래서, 이 선생님을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 같이 막 죽이고 어 이 선생님은 죽었어. 나쁜 사람은 어떻게 됐어? 죽었어. 그러면 이제 좀 후련해지고 지난 주에는 어떤 치료를 했나 하면 애한테 사례를 읽어줬대요. (중략) 집에 와서도 얘기하더라고요. 아빠한테. “아빠 해바라기센터에는 이런 다른 애들도 많이 온대.” 아 그때 제가 ‘애한테 이게 치유의 방법이 되겠구나.’ 오히려 숨기지 않고 (D-1)

D-2의 경우,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정신 상태에 대해 부당한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정신과적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정신과 소견서를 받는 과정을 지원받았다. 또한 이후 보호자들도 해바라기센터 상담소를 통해 상담지원을 받으며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

1심에서 저희가 정신과 감정한 소견서도 냈거든요? 제 동생이 망상장애다, 수 개념이 없다, 5까지밖에 못 센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다 입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됐어요. 근데 그 과정에 인제 뭐 ○○에 장애인 여성장애인 통합상담소랑 해바라기 센터, 거기 선생님들 도움을 받아서 (D-2)

상담사 선생님께서 이제 그 동생하고도 상담해주시고 어머니나 저하고도 한 번씩 얘기 좀 나눠주시고 이러면서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 ○○씨(피해자)한테 접근을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얘기도 해주시고 이래서. 사실 거기서 도움 많이 받았어요. (D-2)

D-4의 사례에서는 초기에 사건 접수시 즉각적으로 증거물을 보존하도록 조언을 얻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 의뢰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가해자의 항변과 달리 가해자의 체액이 검출되어 성추행 피해가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형사사법절차로 넘어갈 수 있었다. 피해자 가족조차도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하는 등, 진술 신빙성을 공격받기 쉬운 피해자들에게 특히 증거물 확보가 긴요함이 드러난 사례이다.

○○이(피해자) 상태 물어보구 바로 또 속옷이랑 이렇게. 그런 걸 챙겨갖고 오라고 하시드라고요, 비닐에 넣어갖고. (D-4 어머니)

저두 긴가민가했죠. 또 OO이가 애가 또 잘못 생각하고 그랬나 해서.. 그런 문제는 참.. 그러
또 큰아빠니까 조심스럽게 되잖아요? 그러구 국과수에서 넘기고 (중략)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액반응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건화가 된 거예요. (D-4 어머니)

다. 형사사법기관

1) 경찰서비스

연구에 참여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보호자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경찰과 접촉하였다. D-1의 보호자는 직접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신속히 출동하여 가해자를 경찰서로 이송함과 동시에 보호자는 경찰서에서 진술을 시작하였다. 신고절차에 따라 가해자는 아동성범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지방경찰청으로 이송함으로써 경찰서비스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제가 긴급전화로 112 눌러 여기 아동성범죄자 있으니까 차 보내달라고 (중략) [빨리 왔어요? 경찰이?] 전화하자마자 5분 정도 진짜 빨리 오더라고요.(중략)그리고 나서 경찰서로 같이 데려갔어요. 그때가 밤, 학원 끝나고 저녁 먹을 때니까 여덟시 아홉시 열시쯤 됐을 때냐? (중략)저는 경찰에서 진술을 해서 저는 곧장 집으로 왔고 이 사람(가해자)은 중앙경찰 이쪽으로 아동성범죄가 중앙지방경찰청인가 그쪽으로 이송을 한 거죠. (D-1)

D-4는 경찰 조사 과정에 대해 매우 만족함과 고마움을 표현하였다. 수사기관의 안내에 따라 조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체포, 사후 관리까지 경찰로부터 배려를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국과수에 증거물 검사를 의뢰하고 성폭력피해를 입증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해자 조사를 연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찰로부터 적절히 전달받았으며, 증거 검출 후 가해자 체포 과정에 있어 가해자 거주지로 이관하지 않고 피해자 거주지의 관할 경찰이 직접 가해자 쪽으로 출동하여 긴급체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였다. 이후에도 성폭력 가해자의 거주지 관할지점에서 조사가 실시되지 않고 피해자 거주지 관할지점에서 조사되었다. 가해자 측 가족인 친가가 폭력 전과자들이 다수 있는 상황이어서 보복이 매우 우려되는 사례였기에 피해자와 보호자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이사 비용 및 안전 지원

이 실시되었다. 보호를 위해 위치추적기가 지원되었으며 지원 이후 방치되지 않고 업데이트되었다. 이후로도 경찰로부터 수시로 안전을 확인받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되며 매우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불편한 거 없었어요. (중략) 다들 인자 자기 일처럼 대해주셨어요. (중략) 돌봐주시고, 어우, 예, 그 보호를 많이 받았다고 느끼는 거 있잖아요? 무슨.. 뭐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신 거는 없는데 마음적으로 말 한 마디래도 굉장히 너무 너무 고마워요. (D-4 어머니)

(국과수) 검사 결과 나오면 그때 (가해자 조사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중략) 제가 본인, 싸인 해주면 연장은 된다고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검사결과 나온 다음 가서 인제 체포해 갖고 왔어요. (중략)[사건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러면 인제... 서울에 계시잖아요?] 예. 공문을 보냈나 봐요, 형사님이. 언제 몇 시, 언제 출두해라, 조사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안 왔나 봐요. 그래서 서울에 한 번 가셨어요. 서울에 가서 조사를. 그 관할 경찰서에 가서 애네 큰아빠를 불러서 조사를 받았고 두 번째 가서 긴급 체포를 하신 거 같아요. [어, 여기 분이 올라 가셔서 연행해 갖고 오신 거예요?] 예, 예, 예. OO에서. [그러면 검찰도 여기 검찰에서 진행하셨겠네요?] 예, 예. (D-4 어머니)

형제가 전부 다 건달이에요.(중략) 애네 할머니가 전에 소원이 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명절 보내는 게 소원이라고 했어요. 이게 한 놈이 나오면 한 놈이 들어간다고 해 갖고, 그니까 (형사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호를 해주셨어요. 혹시 인제 보복이나 애네 아빠랑 같이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이혼돼 있는 상태니까 그래 갖고 굉장히 많이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중략)근 한 달? 넘게까지는 집에 못 들어갔어요. (중략) 그리고 이사도 가고, 도움 많이 받았어요. (D-4 어머니)

저희 위치추적기.[아,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예. 굉장히.. 저기 그걸 다 신청 해주시더라고요.[네 그럼 지금도 하고 계세요?] 네. 가지러 오래요, OO경찰서로 바뀌었다고 이렇게, 시계처럼 차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 같으면 그런 것까지 위치추적기까지 검찰에서 안 나온대요. (D-4 어머니)

[이사 비용 같은 것도 혹시 나오나요?] 예. 다 저기 해주셨어요. 지원해주셨어요. (중략) 두 군데에서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구 형사 분들이 오셔 갖고, 다섯 분이 오셔 갖고 또 이사하실 때 또 도와도 주시고 작은 애도 책상도 바꿔주시고 [받는다든 그 자체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그, 그런 식으로 누군가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그럼요. [지지를 한다는 게 되게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맞아요. OO경찰서 다섯 분이 오셨드라고요. 사실 뭐 그 분들이 오셔 갖고 뭐 얼마나 전문가처럼 잘 해주겠어요? 그치만 너무 너무 고맙잖아요? 그 시간을 내서 해주셨다는 자체가 너무 고맙죠 응, 세상은 이렇게 따뜻한 사람도 있구나라는 거를 티비에서만 봤지, 아 이런 사람들이 진짜 있구나. (D-4 어머니)

2) 피해자 진술조사

사건 접수 후 피해자 진술은 사건 조사의 시작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피해일시와 장소 및 구체적 정황을 정확히 진술하기 어려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에게서 보다 효과적으로 진술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자의 전문성을 더 높일 필요가 D-1의 사례에서 좀 더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D-1 보호자는 피해자 진술녹화에 진술조력인이 동석하였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하였는데 이는 실제로 진술조력인이 동석하지 않았거나, 동석했다라고 진술조력인이 해당 지적장애 피해자에 대해 보호자와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진술에 도움이 될 만한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피해자와 대면했음을 의미한다. D-1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이자 아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진술조력인이 필요한 사례인데 진술조력인이 없었거나 피해자가 효과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 못하여 초기 진술녹화에 유효한 진술이 상당히 누락되었다. 그런 탓에 담당 경찰이나 국선변호인조차도 피해자의 진술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후 검찰조사 과정에 이르기까지 보호자가 피해자와 일상생활을 같이 하면서 점차적으로 추가 진술을 받아내고 이를 탄원서에 그대로 반영하여 기소에 성공할 수 있었다. D-1 보호자가 지적장애아동에게 진술을 받아낸 과정이 심층면접에서 상세히 드러났는데 이를 보면, 효과적인 진술조력을 위해 사례에 따라 보호자와 진술조력인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해 보이며 보호자에게 진술오염에 대해 보다 상세히 설명하고 진술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얻는 과정이 요구된다.

[진술할 때, 그러면 진술하는 데 경찰관이 하시잖아요, 그 방 안에 누가 들어갔어요?] 엄마는 안 들어가고, 변호사가 들어갔는지 모르겠고, 조사관이라고 있더라고요. (중략) [혹시 진술조력인이라고 아이 말하는 거 도와주는 그런 사람 혹시 오지 않았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D-1)

근데 이제 자꾸 경찰이나 변호사측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가 지금 오해하는 걸 수도 있다. 애가 오해하는 걸 수도 있다. 기억이 막 섞여가지고. (D-1)

진술조사관들이 물어볼 때는 그랬대요, 봄이니 여름이니 가을이니? 애가 모르더라고요. (중략) “○○아 그 선생님이 너를 학교 갔다와서 바둑학원 갈 때 그랬어? 아니면 방학 때 집에서 있다가 학원 갈 때 그랬어?” 그러면 이제 시기가 확정이 되잖아요.(중략)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니까

애가 답이 나오는 게 “엄마, 학교 끝나고 갔을 때도 그랬구 방학 때 곧장 갈 때도 그랬구.” 한 마디 더 “유치원 끝나고 갔을 때도 그랬어.” (중략) 도면을 그려서 “어디서 그랬어? 니가 짚어 봐.” 그랬더니 아무데나 벽쪽에 가서. 벽쪽에 붙어서. 벽쪽 이런데 여기여기 구석에 가서 막 그랬어.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상당실에서도 그랬어.” (중략) “어, 화장실 갈 때 애들 가면 위에 올라타서 이리다가.” “그러면?” “애들 화장실 오고 발자국 소리 들리면 벌떡 일어났어.” 그럼 이게 거짓말이냐고요. (D-1)

이게 봄인지 여름인지를 추정을 해야되니까 그게 언제냐고 물어보려고 어떻게 말을 해야 알까 하다가 “에어컨 틀었어?” 물어봤더니 “에어컨은 안 틀었어.” “그래? 그러면 선풍기는?” “어, 선풍기는 틀었어.” (중략) 어쩌면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 학원 시스템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 같기도 해요. (D-1)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인 부모 앞에서 진술하기 불편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담소 상담가가 신뢰관계자로 동석하였다. 여성 피해자의 경우 진술실 동석자에 남성이 포함될 경우 상세한 진술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D-2의 경우 검찰청에서 이와 같은 경험을 하였는데,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상담소 선생님이 같이 [같이 거기 들어갔어요?] 예. 같이 들어가셨어요. [아, 그분이 들어가셨어요?] 네, 네. [그래서 좀 그분이 도움이 됐어요?] 저나 엄마가 있을 때 얘기하는 거보다 (도움이 됐어요.) (D-2)

OO검찰청에서 검사님이 여자 검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여자 검사님, 그다음에 사무장님, 남자분, 남자분 한 분 계셨고 엄마랑 저랑 들어갔는데 거기도 진술녹취를 하는 과정이었어요. (중략) 갑자기 애가 너무 너무 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남자분도 안 계셨으면 좋겠고 엄마랑 언니도 자리에서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인제 (여자) 검사님하고 둘이만 얘기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랬었어요. (D-2)

피해자 진술은 심리적으로도 힘든 과정임과 동시에, 한 시간 이상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체력 면에서도 힘든 과정이고 기억을 정확히 되풀이해서 발설해야 하는 측면에서 지적장애인들에게는 특히 어려운 과정이다. 진술조력인은 경우에 따라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했다. 진술이 장시간 진행될 때 피해자들이 조력인의 도움으로 에너지를 덜 소진할 방안이

요구된다. 참여자들은 대개의 경우 피해당사자 진술 외에 추가로 참고인 진술을 같이 진행하였다.

[그러면 해바라기 센터에선 진술 처음에 했던 거는 그때는 좀 잘 됐나요? 진술이?] 예, 그니까 일관성 있게. OO의료원 가서 했을 때 시간이 꽤 길었는데도 그 인제 선생님들 말로는 일괄적으로 죽 이렇게 피해당한 내용들을.. [몇 시간 했나요?] 거의 한 두세 시간 (D-2)

[경찰청은?] 어.. 그니까 속도가 느리다는 느낌이 들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제 또 제 동생이 진술녹화한 거라든지 그런 걸 봐야 되니까 그러긴 했는데 참고인 저, 엄마랑. 저랑 엄마랑 어떻게 알게 됐니? 그런 참고인 진술하고 했는데 성심성의껏. (경찰이 잘 해주었다.) (D-2)

[맨 처음에 진술녹화 했을 때 기억나세요? 맨 처음에 진술녹화 했을 때. 보통은 진술을 도와주는 조력인이 한 분 들어가시잖아요?] 거기 계신 분들. [어디에?] 병원 내에. (D-3 어머니)

[진술조력인도 무난하게 잘 해주시고 변호사도 굉장히 신경 많이 써서 해주시고] 상담할 때도 많이 신경써주셔서 불편한 적은 없었어요. (D-3 어머니)

[(진술녹화를) 두 시간 넘게? 어땠어요? 그 처음에 카메라로 진술하는 거 녹화할 때 어려웠나요?] 아, 긴장됐어요. [아, 긴장되시고 그 같이 간 상담선생님이 많이 잘 도와주셨어요?] 네, 많이 도와주셨어요. [경찰 분은 좀 어땠어요? 뭐.. 뭐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안. 이렇게 얘기한 거랑 이렇게 얘기한 거랑 뭐 다르다든지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사실대로만 얘기하라고만 그것만 얘기하셨어요. (D-4 피해자)

OO이(피해자)는 거기(해바라기)에서만 했고 제가 OO경찰서 가서 제가 또 (참고인 진술)조사 하구. (중략) 해바라기 센터에서 (OO경찰서로) 자동적으로 넘어갔어요. (D-4 어머니)

3) 검찰 조사 과정

진술한 바와 같이 D-1 피해자는 직접적인 가해자뿐 아니라 피해 아동을 방치한 목격자도 기소했는데, 초기에는 경찰 진술 조사 과정에서 진술녹화가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않은데다가 가해자와 결탁한 것으로 의심되는 목격자가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여 추가적인 범법 사실을 밝혀내기가 어려웠다. 이에 보호자가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사실을 밝히고자 노력하여 효과적으로 진술을 작성하고 탄원서에 반영함으로써 추가적인

기소에 성공하였다. 검찰에서는 탄원서 내용에 근거해, 철저한 조사를 피해자 측에 약속하고 추가 기소된 피의자가 범행을 시인하지 않을 것으로 예견되어 조사를 위해서는 피의자와 참고인 추가 진술 위주로 조사하되 부득이한 경우 피해자에게 추가 진술을 받아야 함을 보호자에게 설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되도록 추가 진술의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려는 배려가 보였다.

제가 변호사한테도 진술서에 써 보냈거든요. (중략) 사모도 상담실로 데려가서 너는 여자잖니, 너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얘기했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냐. 그걸 제 의견을 낸 게 아니라 따옴표를 쳐 냈어요. 왜냐면 와전될까봐 그대로 한 말을 따옴표쳐서. (중략) 애가 절대 부족한 애가 아니고 청각이 100%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다. 엄마가 안 물어봤던 것뿐이었어요. (D-1)

사모가 (범행 현장 목격에 대해) 아니라고 우기니까. 사모는 불기소로 하겠다고 경찰에서 그랬거든요. 그냥. 안 넘기겠다. “○○아, 사모님이 본 거 맞아?” 그랬더니 “응 맞아” 그러더라고요. (중략) “화를 내고 나를 상담실로 데려가서 앞으로 선생님이 또 그러면 싫어요, 말하고 상담실로 얼른 와서 도와주세요 하라고 했어.” (중략) 변호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경찰에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경찰과 변호사가 그 얘기를 듣고 추가적인 진술을 듣고 아 뭐가 있구나 싶어서, 제 생각엔 그것 때문에 검찰에 기소로 넘어간 것 같아요 (D-1).

(계절, 장소 등등) 진술을 받아냈어요. 그렇게. 제가 그걸 그대로 검찰에 탄원서로 냈고 검찰에서 이제 전화를 해봤을 때 자기들도 이 사건을 중하다고 보고 철저히 조사를 하겠다. (중략) 제가 제출한 탄원서가 신빙성이 있고, 일단 탄원서를 가지고 애네를 아주 무섭게 무섭게 압박을 하겠대요. 수사를 해보고 [검찰이 추가 진술이 필요하다 그랬었어요?] 예, 하지만 애이기 때문에 추가 진술을 시도해서, 안 되면 부르자고 하더라고요. 자꾸 부르지 말고 [그럼 이제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 거예요. 지금. (D-1)

D-2 피해자의 보호자는 가해자와 대면 시에 느꼈던 분노와 정서적 고통에 대해 검사가 이해하고 위로함으로써 지지를 받고 조사 과정을 버틸 수 있었다.

제가 한 번은 속상해서 조사받으러 갔다가 제가 너무 많이 막 울었어요. 그 거기 제가 거기 있는 그 그 상대방 그 놈이랑 같이 불려서 가 있는 상황이 분해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우니까 그렇게 조연하시더라고요. 아버지한테 성폭행을 계속 당하던 아이와 얘기를 한 적이 있

는데 어 검사님이 생각했던 거보다 너무 답답해서, 그래 어쨌면 그렇게 답답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까 나이가 어린 학생이었.. 열..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선생님. 이십대 초반이나 뭐 이랬던 거 같은 그 사람이 그냥 사고다, 한 번 지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기가 버텼지, 매번 그 일을 당할 때마다 막 이렇게 낙담을 하고 이랬으면 자기는 못 견뎠을 거다,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구요. (D-2)

4) 공판과 판사

공판은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의 공방이 오가면서 여러 차례 열리게 된다. 피해자 가족은 첫 공판 현장에서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이나 가해자 측의 혐의 사실의 부인으로 인해 힘겨워한다. D-2의 경우 공판 때마다 달라지는 변호사의 지치지 않는 질문공세로 피해자의 아픔이 가중되었고, 증거물로 채택된 성폭행 피해를 적어놓은 기입장 내용을 복기하라는 압박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 판사의 권유로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한 공판 현장에서, 평범한 사람의 기억력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지나친 질문이 이어졌음에도 저지되지 않았다. 재판의 이런 정황에 대해 보호자는 ‘잔인하다’고 표현하였다.

너무 웃긴 게 끝까지 부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2심에 동생을 꼭 증인으로 나오게 했으면 좋겠다, 판사님이 그러셔서 같이 갔었고 제가 신뢰동석인으로 참석을 했는데.. 아,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서 못 볼 정도로.. 너무하드라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너무 잔인하다고 어떻게 이런 질문까지 할 수 있냐고.[그쪽엔 변호사 왔나요?] 네.(중략) 세 번이나 바뀌었어요. 검찰에 조사받을 때 변호사 달랐고 1심 변호사 달랐고 지금 2심에 변호사가 또 다른. [근데 왜 자꾸 바뀌나요?] 그 이모, 이모부가 변호사래요 그.. 가해자의.. 제 동생한테 그런 짓을 한 사람의 이모, 이모부가 변호사다 보니까 뭐 자기들끼리 수소문해서 자기 성에 안 차니까 같이 치우는 거겠죠. (D-2)

동생이 그 용돈기입장 같이 거기다가 똥그라미를 표시를 하고 지가 메모를 해놓은 게 있었어요. [자기 피해를?] 네. 그랬는데, 선생님, 너무 웃긴 거는.. 근데 이제 애가 일기 썼던 것도 찢어서 없애버리고 그 전에...[누가요?] 제 동생. 이걸 뭘 보고 썼어? 일기장 보고 썼는데 그거는 찢어 버렸어, 이러길래 제가 그거를 경찰에서.. 그걸 뭐라 그러지? 증거로 제출했다가 애한테 맡기면 또 이거를 훼손을 할 거 같아서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구 요번에 법원에서 2심에서 재판부에서 그거를 증거를 제출하라고 그래서 제가 보냈어요. 택배로 해서. 그러면 제 동생은 거의 1년 반 가까이 그 자료를 못 봤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아, 내용...] 거기 나와 있는

날짜가 수십 겐데 몇 월 며칠, 몇 월 며칠, 전 죽는 줄 알았어요.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도 그럴 건데. (D-2)

또한 D-2의 가해자는 피해자 측을 지지해 하기 위해 없는 사건을 지어내서 맞고소를 하고 피해자가 제대로 반박을 못할 것이라는 예상 하에 허위 진술을 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실대로 효과적으로 진술함으로써 고소는 기각되었다.

그쪽에서 저희를 또 폭행으로 고소를 했어요. 사건을 막 부풀려 가지고 [폭행을 했다구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래갖고는 그거는 다 기각됐거든요? 근데 오늘 가니까 또 물어보더라고요? 제 동생한테? 그러면서 뭐 형부가 뭐 발로 차고 뭐 어떻게 해서 갈비뼈가 부러지고 다리 그런 얘기 들은 적 있냐면서. 엄마한테 들은 적이 있다. 뭐라고 하시드냐? 이러니까는 발로 차지도 않고 그랬는데 슬쩍 밀고 그랬는데 거짓말 한다고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은 적이 있다. 제 동생이 그렇게 진술하니까 입 딱 다물어 버리고. 그래 그 사건도 골치 아팠어요. (D-2)

재판을 구성하는 검사, 판사, 변호사 등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당 피해자 특유의 행동 패턴이나 언어적 특징을 배려하지 못한 채로 재판을 진행하기도 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다는 소견서 내용이 참고되지 않았으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문의가 재판 진행과정에서 설명하는 과정도 누락되었다. 보호자가 피해자의 특성을 탄원서에 적어낸 내용이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한 정황이 포착되며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보였다. 피해자의 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재판 구성원들이 전달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피해자에게 불리한 재판이 될 수 있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특정 목소리 톤 등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이 사항들도 참고되지 않았다. 이 모든 면에서 재판 구성원은 피해자를 배려하고자 했어도 그런 의도를 뒷받침할 만한 사전 교육이 부족했고 가해자 측 변호인은 진술분석관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무시하고 진행하였다.

동생의 언어로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판사가?] 아니 그 변호사가. (중략) 그래서 그런 거는 질문이 잘못됐었다, 제 동생한테 물으려면 이렇게 물어야 했었다. (중략) (판사가) 중간에 심하다 싶은 분은 컨트롤 어느 정도는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했어요. (중략) 지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고 또 어떻게.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이런 거 있잖아요? 제 동생은 당황하면 웃어요. (중략) 저는 마음이 아픈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있다는 소견서도 냈는데 자기들 보기에 제 동생이 거기서 뭐 이런, 저런 말 이렇게 하다보면 씩 웃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보였을 수도 있지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 사람들은 제 동생이 아무런 그것도 없이 대답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거 같았거든요? (D-2)

배려하시려고 노력은 하시려는 것 같았어요. 판사님, 검사님도. 애는 쓰시는 것 같았으나. [잘 모른다...] 예, 예. (중략) 제가 의사소견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다는 의사, 그 정신과 쌤님, 의사 소견서와 함께 제 동생의 특징을 적어서 보냈어요. (중략) 낯선 공간에서 긴장을 아주 잘한다, 그리고 반복해서 계속 그렇게 물으면 이제 그렇게 그냥 인지돼서 대답을 할 수도 있고... 남자의 목소리, 성인 남자의 왜 톤이 좀 높아지는 그런 목소리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 [두려워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제 동생의 특징을 쭉 이렇게 써서 제가 보냈거든요? 많이 미흡했던 걸 제가 오늘 가보고 정말 많이 느꼈어요. (D-2)

재판을 보시기 전에 증인지원실이라든지, 물론 바쁘시겠지만 그런 데를 통해서 얘기도 몇 마디 나눠가면서 얘가 가진 특성을, 아니면 해바라기 센터 도움을 받으시든지 가족들한테 이렇게 조언을 구하시고 해서 그 장애인의 특성을 아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중략) 그제 좀 선행되지 않고서는 쉽게 얘기한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언어, 정상인들의 언어로는 개들은 이해를 할 수 없거든요? (D-2)

[질문을 할 때 동생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쵸.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이해를 못한다는 걸 저는 아는데! [대답을 안 한다라고 생각을...] 그분들은 모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특성이나 뭐 말하는 방식이나] 네, 네. 행동의 특징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최대한 자료를 모으고 공부하고 아니면 면담을 하고 사전에 그거를 좀 알고] 그쵸. (중략) [아니면은 뭐 좀 이 분들은 바쁘고 아무래도 모르니까 그러면 전문가. 장애인이면 전문가가 와서 면담을 해서 어떻다라고 해서 소견서를 써서] 그쵸! 네, 네, 맞아요. [그런 게 없었나요?] 행동 특성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건 없었던 거 같아요. (D-2)

[진술분석관이라고 그런 자료가 만들어졌나요?] 예, 그제 들어가서 분석가 선생님도 1심에 증인으로 나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중략) 저희는 그제 신빙성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쪽 변호사측은 또 뭐 그런...[아니라고?] 응. [생각하시기에 그 분석관은 잘 이해를 했든 거 같나요?] 네. 그런 거 같아요. (D-2)

D-4의 피해자는 동일한 가해자에게 친언니 또한 성추행피해를 입었기에 피해자가 2명인 재판으로 같은 사건번호를 부여받고 비공개재판으로 진행하였다. 지적장애인인 D-4보다 효과적으로 피해상황을 진술할 수 있는 언니가 탄원서를 통해 가해자의 죄를 엄중히 처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가해자 측 변호사는 가해자 측 집안의 교우 관계에 있으면서 변호를 맡았고 사건과 관련이 없는 질문, 비합리적이고 부적절한 질문으로 상황을 왜곡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판사가 효과적으로 제지하였다. 재판 참석은 피해당사자나 보호자는 참석하지 않고 변호사가 출석하였으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철저히 분리되어 재판이 진행되었다.

판사님한테 탄원서를 썼어요. (중략) (언니 자신도) 엄마를 많이 찾고 되게 무서웠는데 제 동생은 또 얼마나 되게 많이 무서웠을 거 같다고, 뭐 죄를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썼어요. (D-4 어머니)

[재판도 같이 해요? 같은 날? 같이 똑같이 해요?] 예. 근데 저희는 이제 비공개로. [참석은 하셨어요?] 예, 참석은 다 하시죠. [OO씨(피해자)도요?] 아니요, 저는 OO이. [어머님만?] 저두 안 해요. [아.. 변호사님만] 재판 때마다.. 그러니까 판사님이 저를 부르실 때 그때만 가지, 참석은 안 해요. 그리고 부르실 때 이제 증인 재판 할 때는 비공개로.. 아무도 없고 큰아빠도 없는 상태에서 재판하니까. (D-4 어머니)

(가해자 측) 변호사가 이제 재판 받을 때 그러잖아요, 그 정액이 애네 아빠 거일수도 있다고. (중략) (피해자 측) 변호사님이 그거는 말도 안 된다, DNA는 아무리 형제라도 같을 수가 없다고. (중략) 옛날에 애네 아빠 친구예요, 변호사가. [그 사람도 뭐 워낙에] 예, 알죠. [폭력적이고, 다 자기] 네. 저도 알고 애들하고도 옛날에 같이 살 때는 같이 여행도 다녔던 그런 변호사더라고요. (중략) 증인재판 나갔을 때도 그 사건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 건데, 변호사가 집에 남자가 있냐, 없냐? 그런 것만 물어본대요. 엄, 엄마가 남자친구를 만나냐, 안 만나냐? 이 사건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집에는 새아빠가 있냐, 없냐 그래서, 아니 그냥 엄마랑 동생이랑 산다고. [어떻게든 다른 사람 거로 엮어 보려고.....] 예. 판사님한테 많이 혼났어요. 사건하고 관련도 없는데 질문을 한다고. (D-4 어머니)

라. 국선변호인과 법률조력인

1) 법률전문인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제공

사법절차를 밝게 되면, 피해자는 지원기관에서 국선변호사에 대한 안내를 받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국선변호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알게 되고, 진술서 및 탄원서 작성,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률전문인과 피해자와의 위계적 관계 속에서 피해자는 적극적인 도움을 요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국선변호사는 좀 어땠어요? 그때 뵈고 그랬을 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없는 거보단 낫다. 없는 거보단 낫다. [그럼 국선변호사가 도와준 게 어떤 건지 좀 여쭙봐도?] 음, 법적 절차도 알려주고 진술서나 탄원서도 받아주고 음, 어, 음, 그리고 앞으로 절차, 손해배상 청구 이런 부분도 언질을 해주고, (중략)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선변호인이 편하지 않아요, 저는. (중략) 물론 전문가고, 전문가가 돈을 쫓아다니는 거 맞죠. 뭘 물어보기가 겁이 나요. (D-1)

“어머니처럼 맨날 이렇게 전화하는 사람 없다.” 다들 사건 하나 맡으면 재판 갈 때까지 아무도 전화 안 온다. 전 계속 전화 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접을 건 접고 편하게 기다려야지. 나쁜 의도, 뭘 뜻이 있을거라고 생각하고 전화하기가 그다음엔 조금 안했어요, 그 뒤론. [전화를 했을 때 설명을 충분히 하던가요?] 나름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욕하진 않지만 (D-1)

변호사 말은 그래요, (중략) 경찰하고 변호사끼리 어떻게 얘기했냐 하면 이 사모도 형사처벌을 하는 걸로 해서 사모에게 초점을 맞췄대요. 맞췄는데 안 나오는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아닌, 사모는 아닌 것 같다. (중략) 봤다는 것 자체를 부정을 하니까. 안 봤다고 하니까 (중략) 아무 것도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원장 사모가. 그래서 경찰하고 통화를 했을 때 변호사도 마음을 접으라 그러더라고요, 아동청소년법, 아니 아동학대법에 해서 경찰하고 조사를 했는데 원장 사모가 그쪽은 불기소로 가고 김○○이는 기소로 가겠다. 경찰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괴로웠어요. (D-1)

합의부분에 대해서 합의나 앞으로 진행절차를 얘기해줬지만 예를 들면 손해배상청구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한테는 이천에서 삼천만원 정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얼마정도 받을 수 있냐 물어봤죠, 손해배상 저는 할 수 있는지도 몰랐지만 그런 절차가 있고 원장 부부도 이천만원에서 삼천만원 정도 관리감독 소홀로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받아내요? 그러면 어떤 절차인지 궁금하잖아요.(중략)이 얘기가 지금 자기가 나를 그때까지

계속 고용을 해서 그때 의뢰를 해서 나에게 돈을 주고 의뢰를 하란 말인지, 국선변호로 계속 남아 있어서 계속 같은 절차로 가라는 건지 구분이 안 갔고 (중략) 국선변호인이 (돕는 영역이) 어디까지고 정말 이런 거를 물어보면 안되는 건지. 내가 뭐 날로 먹으려고 물어본 건지. 그런 것들이 혼란스러웠어요. (D-1)

2) 법률전문인에 따른 서비스 수준의 차이

법률서비스의 질은 해당사건을 맡은 법률전문인이 사건에 대해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D-2의 경우, 보호자의 경우 국선변호인이 배정된 이후 첫 공판이 있기까지 국선변호사로부터 별다른 연락을 받지 못하는 등 원활한 연결이 어려웠으며, 심지어 사건번호가 바뀐 이후로 정보가 없어 고등법원 1심 재판에 참석할 수 없는 불상사를 경험하기도하였다. 이로 인해 오히려 보호자가 개인적으로 해바라기 센터나 통합장애인 여성 상담소, 또는 개인의 법조계 인맥을 통해서 법률 자문을 구하는 일도 이뤄지고 있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D-3의 보호자의 경우, 상담소를 통해 국선변호사와의 연계가 이뤄졌는데, 해당 변호사는 주기적으로 공판이 돌아가는 사정에 대해 안내해주고, 피해자와 보호자를 안심시키는 등 피해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D-4의 경우 피해자가 2명이기 때문에 국선변호사를 각각 배정 받게 되었으나, 한명의 국선변호사는 적극적인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에 또 다른 한명의 국선변호사는 연락조차 쉽지 않았다. 이처럼 어떤 법률전문인을 만났느냐에 따라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선변호사고 이러니까 그, 변호사님 남자 분이신 걸로 아는데 상황 보니까. 거기에서 일하시는 사무장님이신지 여자 분이 전화를 주셔서 할튼 국선변호사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고 첫 재판은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언제, 일시에. 말씀해주셨었고 그 뒤부터는 그 뭐죠? 그리고 그 뒤에는 제가 법원 사이트 들어가서 사건 번호 알아보고... [근데 사실은 공판 있기 전까지 경찰조사도 있고...] 검찰. [검찰조사도 있고 하는데 사실 그 과정까지 다 인제 변호사가 연락을 한다든지 정보를...] 일절 없었어요. [그랬던 건 없었죠?] 예. 그래서. [전화로만 하고.] 지금 제가 후회되는 게 뭐냐면요. 물론 2심 올라가고 재판. 검사님하고 이쪽 피해자 변호사 싸움이 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그 때 조금만 더 생각을 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샘, 저는

쉬운 말로 평범한 사람이니까 우리 편이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내 동생 얘기를 내 동생이 진 실이라고 말한 걸 더 잘 어필해줄 수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국선변호사를 그냥 아무 생각 없 이.. 또 나라에서 해준다니까 믿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저는 그때 민선변호사를 했으 면 싶었어요. 지금 생각이..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중략) 그리구 그게 항소를 해서 OO지 방법원에서 지금 고등법원으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저는 넘어가면 사건 번호가 바뀌는 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고등법원 1심 재판 때는 참석도 못했어요.[네, 네. 그런 것도 알려주지 않은 거네요.] 네. 항소한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국선변호사니까 굉장히 믿고 의지를 했는데 전혀 서포트가 없었고 그래서 많은 걸 놓치고 너무 지금 속상하고 아쉽고.] 네. 그래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해바라기 센터나 여기 통합장애인여성상담소를 전화를 하든 해바라기 센터에 전화 를 하든지 아니면 인제 거기 지인 분의 지인 분 이렇게 그냥 법조계 일하시는 분. (중략) 근데 저희 남편 후배가 이제 변호사 사무장 이렇게 계시니까 거기 제가 오죽했으면 전화해서 제가 사정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좀 도움을 받으셨어요? 거기서는?] 네. 그래서 뭐 절차 적인 거라든지, 뭐 이렇게 코치 같은 것도. (D-2)

[대략 건수가 몇 건 정도 될까요?] 해야될 수 없는 것 같은데 [얼 건?] 엄청. 밤만 되면은 찾으 러 다니기도 하고.. [네. 그러면 그 가해자로 기소를 한 게..] 두 건.[나머지 다른 건수들도 원 스톱이나 상담소나 이런 지원 받으셨구요?] 예. [그러면 그 그렇게 하면서 국선변호인 소개 받 으셨어요?] 네. [몇 번? 몇 명 정도 만나신 거예요, 그럼? 각각 다른 분을 만나셨죠?] 아니 한 분이 다 하시고. [아 한 분이 한꺼번에 다 하셨어요?] 아.. 전담으로 붙어서 하셨구나. 그, 그러 면은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래도 조금 챙겨서 해주셨겠네요? 예. [어떤 식으로 해주셨어요, 예 를 들면?] 그때가 한 번. 사무실에 가서 한 번 상담하고, 그 뒤로는 계속 전화로다가 돌아가는 사정이든지 그런 거를 다 설명을 해주시드라고요, 변호사님께서. [변호사님이 이제 전화도 자 주 하시고.] 네.네네 (D-3)

별로 신경 안 쓰이게 상담선생님, 선생님하고 변호사님하고 잘해주시니까.. 별로 그렇게 일은 없었던 거 같아요.(중략) 아니면은 법정에 직접 출두하라고 했으면은 맘,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런 거 없이 넘어가주시니까 감사하죠.(D-3)

[그럼 그거는 그러고는 검찰로 넘어갔어요? 그, 직접 신고한 거는? 조사 받고?] 다 그러니까 사건을 다 그 O변호사님께서 일임해서 다 맡아서 다 (중략) 처음에 변호사님께서 저더러 출석 을 하라 했으면 어떻게겠느냐? 그래서 안 가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럼 편하실 대로 하시라 고 하시면서 상담선생님도 같이 나오신 거예요. (D-3)

[변호사님이 문자를 주신 거예요?] 전화로 받아서. 제가 변호사님이 두 분이세요. 큰애 하나 있 고 OO이 하나 있는데 저기 큰 애가 변호사님이 ◇◇◇변호사님이라고 그분은 상세하게 전화 를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있고 이런 일 있다 그러는데 OO이 변호사님으요, 통화하기 정말 힘 들어요. 지금 한 네.. 여태까지 한 세네.. 번 했나? [어머님이 먼저 전화를 주로 하세요? 아니면

그분이 하세요?] 제가 먼저 해요. [어머님이 먼저 하세요?] 예. [◇◇◇변호사님은 그분이 하시고] ◇◇◇변호사님은 변호사님도 자주 주시고 저도 ◇◇◇변호사님은 전화를 잘 받으시니까 제가 항상 그분한테 전화를 하게 돼요. 근데 OO이 변호사님은 제가 전화해도 통화하기 진짜 힘들어요. (중략) [그러면은 뭐 ◇◇◇변호사님에 대해서는 뭐 딱히 하실 말씀 없으시겠네요? 이것 때문에 힘들었다, 이런 부분이] 아니요, 없어요. [예. 그리고 이쪽 변호사님은] OO이 변호사님이요? [연락이 잘 안 되고] 원래 연락. 바쁘신가 봐요. [사건 안내는 좀 해주세요? 사건 어떻게 되가고 있다, 뭐 이런 거.] 그것도 제가 ◇◇◇변호사님한테 재판 끝나면 물어봐갖고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또 변호사님이 또 제가 전화도 못 드리면 변호사님께 전화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말씀을. OO이 변호사님하고는 아직도 그런 소리는 못 들어봤어요..(D-4)

OO이 변호사님하고 딱 얼마 전에 한 번 통화하고 그 전에 통화. 한 번 인제나면 영장 실질검사 떨어질 때. 그때 통화하구요. 한.. 그때 통화 한 번 하고 이변에 한.. 한 20일 전에 한 번 통화하고 그게 다예요. [통화내용은 주로 어떤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거를 물어보고 싶은데 좀 바쁘셔서 하시는 거 같애, 느낌예요. 그래서 자세한 거도 못 물어보구...(D-4)

마. 소결

지적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해 상황 판단력이나 의사표현능력이 불충분하고 불완전하여, 성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 실제로 이들은 성범죄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고, 피해를 당했음에도 피해사실을 외부로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따라서 사건에 대한 대응이 늦고, 피해자 조기 개입 및 보호가 어렵게 되는데, 특히 연령이 어릴수록 이러한 어려움이 심화되었다.

지적장애인의 피해신고는 주로 피해자 본인보다는 보호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보호자가 피해사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사건대응 및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지적장애인을 가해한 가해자는 대부분 친분이 있는 권위자나 친족 또는 아는 지인이었다. 이들은 피해자의 취약하고 미약한 지적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낮은 자기방어능력 등의 약점을 범죄에 적절히 이용할 수 있었다. 가해자가 친족인 경우, 피해자의 보호자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개입 시기를 놓치거나,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지적장애인들의 경우 사회적 관계망이 좁기 때문에, 외부체계로부터 독립

되기 쉽고, 성폭행이나 성추행 피해를 입었을 때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며, 외부로부터의 적극적인 도움이 사례의 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

통합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나 원스톱지원센터의 역할도 주목할 만하다. 센터에 대한 접근성은 피해자가 공식 지원체계로부터 연결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였으며, 각 센터의 신속한 서비스 연계능력은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보호 및 회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들이 제공하는 통합지원서비스는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건 이후의 재적응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연계되어 있는 경찰 서비스는 조사 시작부터 사후관리까지 피해자와 보호자를 철저하게 보호함으로써 이들이 안정을 취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반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지적장애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질문으로 인해 진술이 왜곡되기도 하고, 공판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제도상의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국선변호사 제도의 경우에도, 국선변호사에 따라 서비스 질적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등 서비스 및 제도의 양적확대에 비해 질적 수준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드러났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와 서비스에 대한 허점을 보완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보호체계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V. 형사사법절차 등에서의 피해자 지원 현황

1.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본
형사사법과정에서의 지원 현황 91
2.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본 피해자
지원 현황 194

1.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본 형사사법과정에서의 지원 현황

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1) 활용 현황

성폭력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형사사법 과정에서의 정보제공과 법률적 지원을 통해 소송과정에서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활용 면에서 상담소 간, 지역 간 차이는 있으나 장애인성폭력상담소나 해바라기센터는 제도의 목적에 맞게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활용 대상은 주로 지적장애인이었다.

장애인 성폭력상담소나 해바라기센터의 대다수가 경찰단계에서 국선변호사가 지정되어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성폭력상담소의 경우 해바라기센터 상담 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변호사 간에 차이가 많다고 응답하였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변호사 간에 전문성이나 역할을 수행하는 내용에 있어 개인차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난 반면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서 파견하여 대부분 해바라기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성폭력 사건 지원이 전담 업무이므로 적극적으로 임하는 반면에 랜덤(random)으로 사건을 배정받는 비전담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성폭력 사건 및 피해자에 대한 이해 정도, 사건에 대한 적극성 여부 등에 따라 만족도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문제점

응답자들은 일부 국선변호사는 피해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피해자나 보호자와 전화 통화를 하지 않거나 만나지 않는 등 소통을 거의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조사 및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고, 피해자 지원기관

과의 협조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가) 국선변호사의 전문성 부족

응답자 대부분은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답변 반면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경우에는 법률적인 전문성은 갖추고 있으나 대부분 성폭력이나 아동·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으며, 변호사마다 차이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어떤 응답자는 국선변호사 보다 오히려 검사가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더 높은 경우도 있었다고 답하였다. 간혹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우는 변호사가 피해자를 직접 상담을 하여 피해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담소에 신뢰관계자 요청을 하거나 변호사가 직접 재판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피해자 지원기관 상담원에게 재판모니터링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가 접한 변호사들은 주로 장애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거나 이해가 높거나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을 잘 알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A)

국선전담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장애라든지 그런 특성을 좀 이해하시고자 노력도 많이 하셨어요. 상담소로 연락해서 지적 장애의 특성이라든지 피해자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질문을 하시고 또 알아 가시고 그랬는데 랜덤 변호사(비전담 국선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연락도 안 되는 경우가 수시로 있고 그리고 뭐, 장애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으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도와야 될 지 이런 것들도 전혀 모르시고.... (G)

그래도 국선 전담변호사는 장애든 성폭력 특성에 대해서 알려고 했었고 그리고 피해자의 장애 유형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고 피해자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그 보호자의 얘기도 듣고 그 보호자의 어떤, 그 문제까지도 같이 해결해줄려고 하는 노력들이. 전담변호사 되게 많이 있었어요. [전담변호사는 재판에 오죠?] 와요, 100퍼...(중략) 위촉변호사(비전담 국선변호사)도 변호사 나름인데요. 그래도 지금 얘기를 해보니까 나름 위촉변호사도 열심히 하는 변호사는 있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피해자의 얘기를 들으려고 특성을 이해하려고 하고 사회복지적인 마인드까지 가지면서. 변호사가 사건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는 변호사도 있었어요. 위촉변호사 중에서. 전담변호사는 어쨌든 간에 피해자 장애인 특성을 또 알려고 변호사가 일단 노력을 했고..위촉변호사는 장애 유형과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 같아요. (E)

일반 성폭력 피해자와 장애인 피해자와는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장애의 특성을 잘 모르다 보니까 비장애인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해서 뭐 그냥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그런가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많아서..(C)

그냥 잠시의 파트타임처럼 생각을 하다보니까 장애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이 없어요.(B)

전문성, 거의.. 거의 전무해요, 그니까 이런 법률적인 절차는 본인들의 업무시니까 전문성 갖고 있는 분이니까 법률적인 절차에는 되게 전문성도 있고 잘 아시는데, 저희가 놓치는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 뭐, 욕심은 안 내지만 그래도 뭐 여성주의 의식이나, 아 님 또 장애 감수성,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은 거의 전무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한테 오히려 의견서나 이런 것들 좀 써달라고.....(H)

전담 변호사님은 초창기부터 있어서 굉장히 많이 노하우도 쌓이시고 나름 정리가 돼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는 데요, 그 외에 국선변호사 신청하셔서 랜덤으로 가시는 분들은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확인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지역에서 말했던 그 변호사 있죠? 여고생들 전부 다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그래서 심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책임 전가를 하시던 그 변호사도 국선변호사.(F).

전문성 부분은 이게 어떤 아동이나 청소년이나 장애의 특성을 잘 알고 성폭력에 대한 민감성도 있어야 되는 거고, 전문성 프라스 인간에 대한 따듯함.. (중략)... 피해자가 저희 센터와 국선변호사가 같이 이렇게 충분히 했는데도 만일 안 됐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굉장히 옹호해줬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치유가 많이 됐다고 이야기하더라구요....(O)

그거를 피해자들이 느껴요, 근데 사실 그게 엄청난 힘이거든요, 이게 뭐 사실은 성폭력이라는 게 결국 그런 사회적으로 이 사람에게 수치심을 조장하고 뭔가 잘못했다는 것들을 조장하는 담론들이 있는데 가장 법적으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확실하게 옹호해주고 확실하게 지지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P)

전담은 거의 좀 많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공부하는 거나 모르는 장애에 대해서는 공부하거나 이런 부분도 자문을 구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랜덤(국선) 변호사님들은 어, 사건 자체에 대한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보이질 않기 때문에 장애 특성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특히 장애 특성에 관련돼서는..(J)

국선변호인 지정을 경찰에서 지정을 하는데 아이의 특성 같은 거 이런 거를 많이 고려하지 않고 그냥 지정을 한대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경찰도 경찰 나름이고..(중략)... 피해와 가해에 대한 통념을 그대로 갖고 있는. 그리고 어떤 피해자하고 가해자 분리 이런 것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그야말로 경찰들이 툭툭 던지는 2차 피해 그 말들을 그 변호사가 그 마인드를 갖

고 있으면 도저히 변호사를 할 수 없는 거죠. 전담변호사라고 하기에는, 피해자의 바로 옆에 접근하는 사람들 거기부터 아주 촘촘하게 교육을 시켜나가야 될 거 같아요. (N)

나) 피해자 국선변호사로서의 역할 미흡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절차 전반에 대한 정보제공과 피해자 상담, 법률적인 자문, 수사기관과 법원 재판 동행 등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보장이나 보호에 도움을 주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문제 중 하나가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와 비전담인 피해자 국선변호사 간에 전문성뿐만 아니라 국선변호사로서의 역할에서조차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국선전담변호사의 경우에는 피해자 및 보호자, 상담소와 소통이 잘 이루어지며, 피해자와의 수시 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하고, 소송과정에 대한 안내나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재판 모니터링, 상담소나 센터와의 협업 등 피해자를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스스로 찾는 등 적극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보호자 등)과의 소통 부재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소통의 부재’를 지적하고 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피해자 상담을 통해 피해 상황과 정도를 파악하고 피해자와 가족(보호자) 등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수사나 재판 준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나 보호자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피해자 측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아 국선변호사가 지정되어 있는 지조차 모르는 피해자도 있었다.

또 피해자에 대한 정보나 사건 파악이 되지 않은 채 수사나 재판에 임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나 가족(보호자)을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소통하지 않은 변호사가 피해자의 상황과 입장을 이해하고 인권을 보호하면서 피해자 지원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없고, 피해자 역시 공감

대(rapport) 형성이나 소통과정이 없는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수사나 재판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피해자를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의 취지나 목적에 맞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신뢰는 더욱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이유가 ‘소통의 원활함과 적극성’이라는 점을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내담자들이 호소하는 내용들 중에는 전화도 잘 안 받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전화를 하면 국선변호사들이 “어 그래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답변들을 대부분 하고 있거나 그 후에 파악이 돼서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많은 경우는 사건에 대해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었고.. (중략). 국선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그리고 복불복으로 랜덤으로 돌아가는 그 중에 한명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내담자가 그 국선변호사에 대한 너무 높은 기대치가 있고 이 사람이 최소한의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는 갭이 생기고요. 둘 사이에 갭이 생기고 그리고 내담자가 본인의 위축감 이런 게 있을 경우는, 소통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M)

국선전담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통이 원활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화통화 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시로 잘되고 있고 그리고 피해자 지원 과정이라든지 소송 진행 과정도 안내를 잘 받고, 피해자 분들한테도 적절하게 고지를 잘 해주시는 거 같더라고요. 국선전담변호사님은 매우 만족. 랜덤으로 배정받는 (국선)변호사는 연락이 거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후로 뭐 수사라든지 소송단계에서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랜덤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사건 파악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G)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잘한 역할들을 보면 일단 1차적인 거는 피해자에게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었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적 장애인 피해자가 수십 번씩 전화와도 변호사가 친절하게 받아주었다는.....(E)

변호사가 적극 지원을 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피해자한테는 그렇게 많은 도움을 주지 않고 피해자가 오히려 내 사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담원한테 묻는 것도 어려운데 변호사한테 일일이 다 내가 어떻게 됐냐고 물어 보기는 참 어렵죠.(B)

한 번도 전화 없는 변호사도 있어요... 처음에 진술녹화할 때 오고 그 다음에 한 번도 연락 안 되는. 그래가지고 뭐 저희한테 피해자 분이 연락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시면 저희도 연락하잖

아요? 그러면 변명이 많죠. 재판중이었다, 어쨌다, 저쨌다....(P)

지역에 따라서 변호사 개인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른 거 같고 어떤 지역에 신인변호사였던 거 같은데 그분은 정말 하나에서 열까지 다 챙기고 심리치료가 되는지까지 살펴주시고 우리하고 연계를 이렇게 소통을 전화로, 지역이 멀어서 전화로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하는 분이 있는 반면, 어떤 분은 사건문의를 한다거나 우리가 또 알려줄 게 있어서 전화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어, 상담소가 뭇 때문에 거 나서서 뭘테 개입이 되느냐, 내가 알아서 할 건데. 그런데 막상 그 변호사는 우리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하고 소통 자체를 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한테 문의가 오는 거고 하여튼 그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직접 좀 만나고 싶다, 한번 데려와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가서 변호사님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I)

피해자의 지금 현재 상태. 상태라는 게 어떤 정서적인 상태도 있을 거고 아니면 실제 생활하는데 있어서 그 뭐 가해자와 분리가 돼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다 체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보호자하고 이야기기도 해야 하는데.. 보호자들이 전화를 하면 잘 안받고...(중략).. 충분히 피해자랑 소통이 될 수 있는, 이런 게 충분히 돼 있어야 되고. .(N)

해바라기센터에 동행해 주지도 않고 좀 그런 경향이.. 그래서 그 차이는 조금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전화를 드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지적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뭐 변호사가 누가 선임돼 있고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냥 하겠다 하면 그냥 무작위로 받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전화를 하고 알아봐야 되는데 그런 과정도 안 되고 하니까. (K)

② 수사나 재판 과정에 참여 미흡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법률전문가로,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에 대해 피해자나 가족에게 법률적인 상담과 자문을 하고, 경찰이나 검찰에 동행을 하고, 재판에 참석하거나 모니터링을 하는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지정받은 후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사건에 임하는 변호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고, 재판정에서 피해자나 가족을 처음 만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재판에조차 나가지 않는 등 사건의 조사와 재판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 외 지방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변호사 수가 적은 것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듯하다.

피해자 측에서는 변호사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우선은, 만나 본 적도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다음에 인제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해도 변호사하고 직접 통화하기보다는 뭐 그쪽 사무장이나 누가 사건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설명해주는 정도?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변호사 사무실에다 그렇게 물어보니까 또 우리도 힘드니까, 차라리 검찰청에 다이렉트로다가 전화를 해서 상황을 살피고 그 다음에 오히려 저희 쪽에서 지원을 하고 역으로다가 변호사한테 진행 여부를 알려주고 이렇게 되는 케이스도 있죠. (B)

나아진다고 보긴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은 국선변호인들이 1인당 몇 건의 사건을 하는지, 그리고, 그런 것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몇 케이스들 중에, 서비스라고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원의 정도가 그냥 동행하는 정도로 끝나는지, 의견서를 작성해서 주는지, 그리고 피해자하고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로 진행하고 있는지를 그런 걸 파악해야 될 거 같아요.(M)

전담변호사하고, 위촉되어 있는 (국선)변호사하고 차이는 많은 거 같은 거죠, 전담변호사는 그래도 비교적 제가 모니터링을 계속 가면 거의 꼬박꼬박 참석하고 다른 일정이 없으면 참석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인제 뭐, 소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더 많다고 얘기하면, 그 위촉되어 있는 변호사들은 그런 것이 좀 어려워요.(B소장)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님은 그래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협조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소송단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신다든지 피해자 분을 변호를 하시는데, 랜덤(피해자 국선)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사건 파악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G)

전담변호사는 이 사건 자체에 대한 관심부터 시작을 해서 재판 모니터까지 다, 의견서까지 다 이루어지니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요, 랜덤(국선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상담소에서 따로 전화하지 않으면 본인들이 지금 어떤 사건을 맡고 있는지 먼저 연락오는 경우도 없고요, 전화했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연락이 오고 제일 어려운 점은 재판 모니터를 안한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고 중간에 바뀌게 되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J)

아니 정말 법정에 가서 모니터링을 좀 해야 그분들이 아 내가 이 의견서를 이 시점에 내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알 텐데. 어떤 변호사님은 정말 꼬박꼬박 외주시는 분이 있고 대부분은 안 오십니다, 대부분은. 대부분은 안 와갖고 우리가 보고 국선변호사한테 이래 이래 하는데요 알려주고 그리고 앞으로 어찌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하는 상황이고 국선변호사들이 재판 모니터링까지 할 만큼의 여유는 없다고 우리는 모니터링 안 합니다, 이렇게 딱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I)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에 대한 고마움 이런 거는 이야기 들은 적은 없고, 일단은 사건 전체를 저희가 옆에서 다 모니터 하니까 중간에 누가 변호사인지, “네 제가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연락을 해도 모든 부분을 저희한테 연락을 하지, 변호사한테 이야기하는 부분은 별로 없고요. 그걸 저희가 중간에서 변호사한테 전달하는, 이런 구조입니다.(J)

③ 피해자 지원기관(피해자 국선변호사 포함)과의 협업 부족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효과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및 가족(보호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상담소, 해바라기센터)과의 협업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피해자 지원기관과의 협업은 피해 상황이나,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 피해자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의견서나 소견서 등 피해자 보호나 가해자 처벌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협조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연락을 해도 받지 않거나, 오히려 피해자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고 귀찮아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피해자 지원기관은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좀 더 성실하게 사건에 임해줄 것과, 지원기관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협업하는 태도를 보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

상담소에서 전화를 해도 뭐, 거의 받지 않고 안 계시구 사건 진행 뭐, 사건 파악도 못하고 계시고... 그래서 소송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담소에서 오히려 변호사님께 전달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많이 있고.(G)

전화도 잘 안받고 물어도 대답도 잘 안 해주고... 좀 그런 편이에요. 그 피해자에 대해서 너무 그 변호사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한? 전화로도 목소리를 들으면 알잖아요?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아 좀, 변호사가 좀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하는구나라는 걸 생각하죠. ..(중략).. 우리가 참석하고 싶어 하는 것도 자꾸만 이렇게 우리를 빼놓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계속 전화하고 막 이런 것에 대해서 귀찮아하고...(C)

변호사가 지정이 되지만 변호사가 그만 뒤서, 근데 피해자는 그만 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상담소에 연락도 안 해 주구 이래 가지구 뭐, 나중에 변호사 그만 났다는 걸 알고 우리가 새로 바뀌야 되는 상황까지도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B).

변호사들이 상담소와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상담소도 피해자를 위해서 도와주는 기관이라는 거를 인식하고 정보도 주고 정보도 공유해주고 또 이런 여러 가지를 같이 알려줘서 이렇게 하면 피해자 도움이.. 자기들은 그렇게까지 해줄 수 없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도와주면 우리가 피해자를 위해서 크게 사건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죠. 그런 것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C)

최근에는 그래도 조금 나아지는 것 같긴 한데. 최근엔 좀 나아지는 것 같긴 한데, 초기에는 국선변호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아예 아무것도 안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초기에는 그래서 사실은 상담소에다가 의견을 물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었던 거 같아요.(M)

고소를 할 때 저희는 기본적으로 국선변호사가 선임되었으면 좋겠다.. 진술 녹화 때부터. 이런 충분한 설명이나 근데.. 변호사님들이 비싼시다, **에 없다, 뭐 이런 식의 경우를 몇 번 들었어요.(H)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요구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응해주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삼박자로 갈 수 있나요? 저희가 치료를 한다면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또 법률 지원인가 그거 같이 가면서 해야지 ..(중략).. 저희가 좀 알아야 될 정보도 있고, 그렇게.. 그리고 판결문을 받는다거나.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변호사 입장에서 그거를 내가 기관에까지 저희가 어떤 법적인 그런 권리를 갖고 있는 기관은 아닌데 뭐 해줄 필요가 있겠느냐 하고 생각하셔서 그런 거를 좀 요구에 응해주지 않으시는 부분이...(N)

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가해자 변론 중복성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또 다른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변론도 함께 하는 경우가 있어 피해자 국선변호사로서의 전문성과 신뢰에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지방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원인은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수가 적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전문성 확보 및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해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수를 늘이는 것이 필요하다.

위촉변호사들이 그래서 피해자를 전적으로 지원을 안 하더라구요. 왜냐면 피해자 돈, 돈 해봤자 얼마 안 주잖아요? 근데 이제, 피고인, 아니 가해자를 하면 많이 받잖아요? 그런 것도 문제가 좀 있는 거 같고, 전담은 다른 거 안 하고 이것만 하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전담을 많이 늘리는 게 좀 방법인 듯... 그 또 가해자에 대해서 막 들었던,

그 인제, 생각들을 피해자를 볼 때 가해자가 했던 말들로 피해자를 바라본다면, 어이, 무슨, 그렇게 성폭력을 해놓고도 화간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C)

피해자를 변호하던 사람들이 가해자를 변호하게 되면 아마 저는 국선변호사 제도가 그렇게 악용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뭐냐하면 피해자를 지원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가해자를 변호하게 되면 피해자가 이런 이런 이런 거를 받아가지고 요런 상황을 알고 있을 것이라라는 이런 논리들을 가해자 변호에 악용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해자 (변호)하는 사람은 가해자만 하고 피해자 (변호)하는 사람은 피해자만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M)

그 국선변호사가 가해자 옹호를 엄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국선변호사 문제 중에 하나가 가해자 변호를 맡았을 때...(중략).. 좀 얼마 전 얘기라서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1심에 피해자 저기 지원했던 변호사가 2심에서는 가해자 지원하고.. 그래서 그런 게 말이 되냐구요?(O)

나. 진술조력인 제도

1) 활용 현황

진술조력인 제도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의 아동과 장애인을 위해 해 수사·재판 과정에서 아동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의사소통 및 절차 참여 상의 필요를 조력함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사 및 증인신문 등이 가능하게 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그런데 진술조력인 제도는 타 제도에 비해 활용도나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자 조사 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경찰단계나 검찰단계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지역에 따라 진술조력인이 없거나 경찰이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특정 지역의 경우 경력이 많은 상담원이거나 소장을 진술조력인의 역할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진술조력인을 적극 활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등 진술조력인 제도 활용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2) 문제점

가) 진술조력인의 전문성 부족

진술조력인은 13세 미만의 아동,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조사 및 재판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진술조력인이 장애 특성(지적장애, 정신장애 등) 이해 부족과 소통능력 부족, 아동발달 특성 등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진술조력인도 있었으며,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용어를 쉽게 설명해야 함에도) 의사소통 중개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진술조력인의 판단이나 해석이 재판에 미칠 영향과 진술조력인의 역할이 법적 증거자료가 되는 현실에 대한 위험성 등 때문에 진술조력인 제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응답도 있었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성폭력 사건에 있어 진술조력인의 자격요건 및 전문성 확보가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진술 시 대상(아동, 장애인)에 따라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나 특이성, 내용의 의미 등을 파악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진술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피해자를 만나 특성을 파악하고, 신뢰관계자로 동석을 하고, 피해자가 질문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조력을 해야 한다. 그런데 진술조력인의 역할에 한계가 있고,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면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으로 도움도 되지 않는 ‘낮선 지원자’ 한 사람을 더 만나는 의미밖에 없다.

그분은 정신장애가 있으신 40대 정도 아주머니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인제 의사소통이 정신장애가 있기 때문에 어렵겠다 하면서 진술조력인을 붙인 거죠. 진술녹화하는 그 상황에서. 음... 진술조력인이... 단어를 뭐 선택해서 쉽게 이야기를 해준다든지... 의사소통 중개를 전혀 안 하셨어요. 정신장애라든지 장애 이해를 못하시고 계신 걸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음... 진술조력인 같은 경우에는 조사관이 단어선택이라든지 좀 어려운 용어에 대해서 좀 풀어서 설명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분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 같고...(G)

피해자가 장애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자가 조사자의 말을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 단어가 어려워서 이해도가 떨어져서 그때 조금 더 진술조력인이 피해자의 언어나 그런 이해능력이 떨어졌을 때 그거를 빨리 캐치를 해서 개입을 해서 그 피해자가 조사를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쉬운 단어로 설명을 해준다는가 그런 좀 적극적인 개입을 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E)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고 실제로 전문성에 대한 부분. 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가 없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중략)... 진술조력은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거 같다...(P)

00에서 했던 그분은 역할을 잘 모르고, 녹화진술 할 때 안에서 피해자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의 의미나 이해를 경찰이 잘 못하거나 할 때, 조사가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아, 이 장애인 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또 알려주고, 경찰 말을 못 알아들으면 진술조력인이 풀어서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고 이런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I)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특성에 대한 이해가 참, 좀 없지 않나. 배우기는 하는데 일단은 실제로 배운 거와 또, 장애인을 만나가지고 대면하고 상담을 해보고 했던 경험이 좀 장애인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텐데... 그런 것들, 실제적인 그런 것들이 없어서 장애인을 더 이해를 잘 못하는...(중략)... 진술조력인의 역할이 의사소통이잖아요? 의사소통과 그 장애인이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완해주고 보조해주기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좀 자기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C)

우리도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전문가다운 전문가가 없구요. 실제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문가가 있을 수 있겠죠. 48명 중에 한 명은... 한 명이라도 있겠지만. 전문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제도 자체가 정말 과연 이 피해자들에게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이 많이 고민이 됐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모르면 엄마가 모르면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 다 몰라요. 근데 그거를 의사소통 중계를 한다? 그건 좀 어불성설...(K)

나) 진술조력인 활용 대상의 비현실적, 비효과적인 문제

법률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말을 잘해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의사소통이란 대화를 주고받는 동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상대방의 말에 반응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할

때의 생각이나 감정,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의도까지도 알고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의 다수를 차지하는 3급 지적장애인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지만, 성폭력 발생과 관련한 진술을 하는 것은 다른 상황이다. 그런데 피해 상황에 대한 판단, 평소 자주 사용하는 언어표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해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어표현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성폭력 피해 3급 지적장애인에게는 진술조력인이 거의 지원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면 실효성이 있도록 성폭력 피해 3급 지적장애인을 포함하여 진술조력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모두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진술조력인은 주로 개인적으로 상담소나 기관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진술조력인으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 지역별로 모두 진술조력인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진술조력인의 일정에 맞추어 피해자 진술녹화가 이루어지거나 조사가 이루어지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

장애인인 경우에 지적 장애인이 성폭력 피해를 많이 입는데 그분들이 주로 3급이 많단 말이에요? 경도 장애인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분들을 지원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의사소통 지원이니까. 그분들이 쓰는 어떤 언어 패턴 이런 것들인데, 실제로 대부분 들어오는 게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만 도와달라고 들어온단 거예요. 실제로 3급들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도 있는데 그분들한테 기회 자체가 또 안 된다는 거죠.(P)

엄마도 그러고 아빠도 그러고 말 그대로 성인 남성 2-3명이 안아서 휠체어 태워야 되고 이런 피해자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산부인과 진료나 다 이렇게 장애인 콜택시를 활용을 했었는데 진술조력인이 그때 시간이 돼가지고 몇 월 며칠 토요일에, 토요일에 언제 진술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조력인의 스케줄에 맞춰단 얘기죠. 해바라기 수사팀장이 직접 저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아, 조력인 바쁘시다, 그리고 뭐, 한 번 부르기 힘든 사람이다, 막 이러는. 정말 상주하는 전담 조력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H)

다) 진술조력인의 한계(진술조력인의 자격 및 진술조력 환경의 문제)

진술조력인은 아동·장애인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중개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 피해자가 사용하는 용어나 언어 표현의 의미를 파악하고 피해자의 행동 특성도 알고 있어야 한다. 전문적인 진술조력을 위해서는 아동·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지식적 이론과 오랜 기간의 임상경험이 필요하다. 특히 피해자 당사자의 개인적 특성(의사소통 능력, 언어 표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피해자 진술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진술조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진술조력인 제도 활용이 미흡한 이유 중 하나가 피해자의 특성을 진술조력인이 충분히 조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진술조력인이 피해자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조사관(경찰)이 진행하는 진술조사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위한 진술조력인의 개입(중개)이 조사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진술조력인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진술조력인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부처 간의 한계도 있는 듯하다.

정말 피해자를 위한 의도에서 시작된 거냐. 그건 좀 아닌 거 같고 역시나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제도인 거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은 뭔가 좀 그 진술조력인의 자격요건이 명확해야 될 거 같아요. 특수교육해서 정말 계속 애들 학교에서 특수학급에서 애들 데리고 교육하고 이런 사람들의 더 조력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 특수학급의 선생님은 애를 안다고 애가 말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애는 어떤 상황이 되면 말을 못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사람이 저는 차라리 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격 조건 안에.. 기본적으로 특수 교육이나 하여튼 장애인과 관련된 잘 아는 사람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 그 풀 안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교육을 받고.(P)

결국은 아이가 잘 말하게 하려면 그 아이를 잘 알고 아이도 믿을 만하고 그 사람도 아이를 아는 사람이 해야 되지 않나요? ...(중략)... 그러니까 결국은 차선택은 이 [진술조력인] 풀을 가지고 풀 속에서 움직이는 거 같은데 그런 풀을 잘 골라야 되는 거죠. (O)

만약에 그런 기관 연계 되어있는 그런 게 없다면 적어도 진술녹화 당일날 만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일정 정해지기 전에 미리 만날 수 있는 찬스(chance)들은 그건 경찰들이 줘야 돼요. 제가 보기에. 경찰들이 다 어레인지(arrange)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정을 미리 잡아서 아이랑 충분히 면담해서 그냥 어쨌든 상황을 알고 들어가야지, 거의 그때 가서 잠시 만나가지고는 [소통하기가 어렵죠].. (O팀장)

나보다 더 못 알아듣더라니까. ‘호텔’이란 단어를 하여튼 이상하게 ‘어테’, ‘어테’ 이렇게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호텔’이라고 나는 들어봤기 때문에 알아듣지만 두 분은 이게 안 되잖아요.(I)

진술조력인이 비장애인 상담소 소장이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진술조력을 한다? 그게 무슨 몇 시간 교육만 받으면 가능한 건가. 비언어적인 모습들을 다 파악할 수 있는가 말이죠. 중복장애를 그분들이 다 아는가. 저는 그거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술조력인이 실제 그대로 진술조력인 제도가 되려면 정말 이 복잡하고 중복장애 내지 피해자들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10년이 돼도 진짜 어렵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분이 와서 조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중략)...유형별로 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언어청각장애인일 경우에 이 농아인들의 어쨌든 언어 소통 방식이나 이런 걸 충분히 좀 아는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적이나 자폐성 장애일 경우에는 그쪽 영역에 예를 들면 특수교육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더 이 특성에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J)

(지적장애) 3급 정도 어떻게 좀 (소통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1, 2급은 불가능이에요 .. 별 역할이 없어요. 사전면담 외에는. 별 역할이 없고 사실 우리가 특성들을 얘기해줬을 때에 그대로 움직여주는 경찰들이 있는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코멘트를 해줘도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시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효율성이 있는가, 효과성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항상 의문이에요. ...(중략)... 소아 정신과에 근무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장애인 쪽으로 특수 장애, 특수 영역을 전공했던 그런 분들이 와서 해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구요. 심리나 뭐 심리 부분도 사실 우리는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피해자의 특성들을 잘 모르잖아요. 심리적 특성들을. 그런 특성들을 정말 잘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진술조력을 해야 하지 않겠나.(K)

라) 진술조력인의 활용 부족

진술조력인 제도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로, 경찰, 검사, 판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며, 피해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법적 용어나 말을 쉽게 설명하는 등 의사소통 중개를 통해 피해자를 조력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인터뷰 결과 현재 이 제도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진술조력인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진술조력인 제도는 경찰, 검찰, 법원에서 다양하게 활용되어야 하나 활용이 잘 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진술조력인 제도에 대한 홍보부족, 법무부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진술조력인과 제도 취지에 대한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이해부족 등이 그 이유라고 생각한다.

또한 진술조력인은 경찰(해바라기센터 포함)의 진술조사, 검찰의 참고인 조사, 법원 증인 출석 등 형사절차 단계에서 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되어야 하나 진술조력인의 전문성 문제뿐만 아니라 진술조력인 역할과 지위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것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단계에서 조력인을 많이 활용을 하는 거 같더라고요. 검찰단계에서. 경찰에서는 잘 활용 안 하는...아예 불만이나 그런 건 없구요. 조금 만족이긴 해. 왜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검찰단계에서 또 진술조력인을 저희를 활용을 했을 때 굉장히 되게 도움이 됐어요. 검찰 단계에서..(H)

진술조력인제도, 제도만 있고 시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제도가 있는 것도 몰라요. 내부자들이 진술조력인의 역할을 모른다는 거죠... 진술조력인이 필요한 건 법원이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부터 귀찮은 거야. 또 한 존재가 들어오는 게. 여기 피해자 변호사도 와 있고 진술조력인 또 부르고 이게 복잡하니까 안 부르는...(F)

다. 비디오 녹화진술과 신뢰관계자 동석

1) 활용 현황

비디오 진술 녹화는 주로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 및 통합형)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조사관의 임상 경력과 대상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 여부에 따라 녹화 진술에 따른 만족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화 진술 시 신뢰관계자 동석은 주로 상담소 상담원과 피해자 국선변호사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해바라기센터는 상담원이나 가족이 동석하는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원활한 법률적인 지원을 위해서, 상담원은 피해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피해자 지속상담과 사례관리 및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참석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역마다, 또는 진술녹화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신뢰관계자에 대한 범위와 인식에 차이가 있었다. 즉 상담소와 오랜 기간 협력

체계를 통해 유대감 형성이 잘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담소 상담원이 신뢰관계자로 참석을 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었으나, 피해자 진술 시 동석을 하는 사람(상담소 상담원 포함)이 많은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 법률적으로 동석이 가능한 국선변호사 외 사람이 동석하는 것을 꺼리는 기관도 있었다.

현재 성폭력상담소 상담원은 거의 신뢰관계자로 동석하지 않는 상황이다. 상담원이 신뢰관계자로 참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는, 피해자 진술조사가 끝난 후 상담소로 연계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얻기 힘들고, 이로 인해 피해자 지원에 어려움이 많아 상담원이 신뢰관계자로 동석을 하거나 참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부모 등 보호자가 신뢰관계자로 동석을 할 경우 오히려 피해자가 보호자와의 관계나 보호자가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 상황을 알게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나중에 혼날 것에 대한 두려움 등 다양한 이유로 피해자 진술이 왜곡되거나 축소되는 문제점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문제점

가) 조사관의 피해자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

피해자 진술조사는 형사소송과정의 시작으로 가해자 처벌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조사관(경찰)의 대상(아동, 장애인) 특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피해 사실이 가능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하는 점이 핵심이다. 그런데 응답자의 대부분이 해바라기센터 조사관(경찰)이 수시로 바뀌고, 조사기법 등 전문성 부족으로 피해자가 대답하기 어려운 수사 및 법적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질문을 한다든가, 조사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게 적절한 질문을 하지 못해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나름대로는 굉장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 거는 알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오랫동안 피해자 분들 지적 장애 특성을 많이 만나본 건 아니잖아요? 다시 그때, 그때 단편, 단편으로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한계점은 있는 거 같고 또 하나는 조사를 할 때 조사기법이 NICD라고 아동 면담조사기법?..(중략).. 그 기법 자체도 사실 아동 중심으로 되어있는 기법이기에 때문에 사실 장애인 쪽에 관련된 조사기법을 마련을 해서 사실은 교육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 그분들도 그 조사를 하려고 많은 훈련을 받으실 텐데 본인 스스로들도 그거에 관해서 시행착오를 이제 겪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많은 노력들을 하시고는 계시지만 아직은 더 많은 보완이 필요할 거는 같아요.(A)

피해자는 답을 했는데 조사자가 잘못 알아들어서 몇 번 질문을 하는 거죠. 지적장애인들이 하는 그.. 그런 언어들을 조사자가 이해를 못한 거죠. 근데 분명히 답은 나온 거 같은데 다시 재차 물으면 지적 장애인이 다른 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 지적장애인에 대한 좀 특성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그쪽에 대한 부분을 더 알고 조사자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D)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질문을 할 때 보면, 참 답답한 질문을 많이 해요. 장애, 장애인을 저렇게 질문을 하면 못 알아들을 텐데, 그 참, 저렇게 질문을 할까.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진술실이라는 게 원래 긴장이 되고 그러긴 하지만, 자기 얘기하고 싶지 않은 부분 얘기하니까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럴 때도 잘 좀 해야 되는데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참 답답할 때도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잘 하게 하는데 어떤 분은 정말 피해자한테 말 한 마디를 못 들어요. 수사관을 바꿔서 했어요. 노련하신 분이 내가 한 번 해보시겠다 해서 그분이 들어와서 막 하니까 애가 술술 이야기를 잘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정말, 수사관님들도 뭔가 노하우가 있고 장애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해서 침착하게 얘기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기술도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C)

그니까 피해자..피해자를 배려하거나 피해자 관점에서 뭘 전혀.. [그냥 수사관으로서만 하는군요.] 네, 네(F)

단순히 피해자한테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제도들은 혹시 조금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하더라도 그 이 지원제도를 설명 드리고 이것을 하계끔 하셨으면 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뭔가 설득을 해서 피해자가 정말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사실 필요한데, 지금 제가 보면 그냥, 물론 어떤 분들은 잘 이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고지 정도? 물론 고지하는 건 맞지만 좀 더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자의 언어로 잘 설명해주는 부분들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이분들이 고지는 분명히 받은 건 맞는데, 고지를 받고 나서라도, 그리고 그분들 되게 경황이 없으시잖아요? 고지는 받았는데 결국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나중에는, 이걸, 아 내가 안 한 부분에 대해서 후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잘 좀, 피해자의 언어로 잘 설명해서 피해자가 충분히 이해했는지에 관한 것도 좀 점

검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피해자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A).

근데 피해자 각 개인의 장애에 대한 어떤, 그 전문성. 그 피해자에 맞게끔 질문을 해야 되는, 그 장애도 다 다르잖아요. 발달장애 유형도 근데 그 피해자 개인에 맞게끔 하는 전문성은 조금 부족하다. 근데 그게 경험이 많은 사람은 덜 해요. 뭐 3년, 4년, 5년 했는 분은 괜찮은데 이제 갓, 뭐 1년 정도 된단, 1년 미만이다, 이제 시작이다 하는 분들은 되게 그게 좀 떨어져요..(E)

[진술조사관] 거의 수시로 바뀌시는 거 같아요. 수시로 바뀌어 가지구.. (중략).. 많이 바뀌시고 그리고 전문성이 거의 없으시죠. 많이 만나보질 못하니까.. 성폭력에 대한 특성도 그렇고, 전혀 모르시고.. 일단은 의사소통을 돼야 되니까 단어를 어려운 내용을 진술을 할 때 인제 그 어려운 단어를 쓰시는 게 가장 문제가 됐었고 그리고 피해자가 준비가 안 된 상태인데 막 추궁하듯이 계속 질문에 질문을 거듭하시는 거. 그답에 지적 장애의 경우에 한 문제에 하나의 답을 한다거나 이렇게 좀 하셔야 되는데 질문을 뭐 두, 세 개, 서너 개 덧붙여가지고 질문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시간 순서에 맞지 않으면 진술을 하는 거를 막 자르거든요. 그러면서 그거말구 이거부터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피해자 분들은 또, 얘기하던 거 다 까먹으시고, (G)

당연히 그 성폭력 피해자, 아동, 청소년 대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어떻게 했나요? 예 들면 왜 말을 안 했나요가 아니라 어떻게 가해자가 말을 못하게 했나요? 예를 들면 똑같은 질문도 그런 게 어떻게 피해자의 죄책감과 이거를 유발하고 아니고 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사실 대상에 대해서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스킬.(P)

많이 되게 훈련받으신 수사관님들은 많으신데요. 근데 그것도 역시나 개인차가 있어서. 제가 어떤 진술 조서 쓴 걸 보면.. 어떤 수사관님은 되게 잘하신 거 같고 어떤 수사관님은 이거 다 유도심문 아니야? 이런 생각. 제가 보면. 그리구 여기선 더 물어봤어야지, 여기서 이거 왜 안 물어봤을까? 이런 생각도 들구 그러더라구요..(O)

단편적인 건 아주 지적능력이.. 지적장애가 있다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지적 능력이 어느 정도 떨어진다, 언어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 이런 거는 알고 있는데 깊이 있게는 모르죠. 조사관이..조사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특성에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조사를 하는 케이스가 있고 또 전혀 이제 한 케이스를 제가 얘기를 한다면 이 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 특성 모르고 무조건 한 시간이 만약에 테드라인이 주어졌다면 이 한 시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니까 그런 게 되게 문제가 됐었고. 쉬지도 않고 이제 쉬라고 내가 코멘트 줘도 쉬지도 않고 꼭 끝까지 가야 되는..(중략).. 오히려 피해자의 특성을 전혀 모르고 하신 케이스가 있는.(K)

나) 조사관으로서의 역할 부족 - 피해자 보호 제도 활용 등에 대한 정보 안내 부족

조사관은 진술조사 시 신뢰관계자 동석, 진술조력인 제도, 국선변호사 제도 등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제도 활용과 관련한 정보를 고지하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도 한다. 피해자나 보호자들은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므로 조사관이 주는 정보는 매우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보를 주고, 쉽게 설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많은 조사관들이 피해자 보호와 관련 제도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거나, 특정 제도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형식적으로 고지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나 가족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분이 거의 지적장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장애인 분들이. 근데 이제 뭐 좀 종이를 그냥 이렇게 주시면서 이거 있으니까 읽어봐라, 라고 한디든지, 아니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냥 국선변호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뭐 이렇다고, 구두로만 그냥.. 살짝.. 기계적인 말만 해요... 여러 가지 제도가 많이 있긴 한데 피해자 분들이 어떻게... 이제, 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거 같고... 네. 부모, 보호자 그분들도 경황없는 상황에서도 그렇고 이런 사건이 거의 처음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시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될 지도 모르시고 그러면서 또 이게 뭐냐고 제대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거의 없으시고...(G)

고지는 잘 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좀 쉬운 말로 피해자가 이해하도록 해서 설명해주는 거? 아뇨, 아뇨 못 하죠 못 하죠. 보험 들어보셨어요? 보험 들면 보험 본사에서 전화와 갖고 고객님의 뭘을 동의하시고 고지하시고 한 30분은 읽어주잖아요. 다 알아요, 내용? 못 알아요. 다 들었다고 하지만 정작 내담자나 가족도 못 알아들어요, 가족도. (F)

이런 녹화진술을 하던 조서를 쓰던 사전에 피해자한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나도 경찰이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으니 그런 걸 (피해자에게) 오티(오리엔테이션)를 주시긴 하거든요? 고거를 대상에 맞게 좀 더 주셨으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 피해. 상담도 와서 초기 상담할 때도 고런 걸 얘기하긴 해요. 그런데 피해자들은 잘 미처 거기까지 생각 못하고 가서 대강 말해놓고 나중에 아! 말 못한 거 같다. 2차 진술하고 싶어요... 막 이러는데 중요성이라든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런 걸 좀 미리 사전 준비 시키는 거.. 그런 걸 시키면 훨씬 더 진술할 때 잘 말할 수 있을 거 같구.. O)

뭐 하여튼 이거 여러 가지 종이를 갖고 와서 이름 적고 사인 받고 하는데 거기를 간단 간단하게 설명은 하는데 그 상황에서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따로 풀어서 설명하지 않으면 알아듣긴 좀 힘들죠. ..(중략).. 해바라기센터에서는 경찰의 역할인데 그 진술녹화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고지를 해서 이 그 진술녹화하기 전에, 이 전담이든 뭐래든 변호사하고 연락이 돼서 변호사가 진술녹화과정을 조금 이렇게 살펴볼 수 있도록...(J)

다) 피해자 지원 전문기관 간 신뢰관계자에 대한 이해도의 차이

신뢰관계자에 대한 인식이 지역마다, 기관마다 차이가 있었다. 현재는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신뢰관계자로 대부분 동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간혹 피해자 지원기관인 (장애인)성폭력상담소의 상담원이 신뢰관계자로 동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담원이 신뢰관계자로 동석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기관 간(경찰과 성폭력상담소)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반면에 해바라기센터 상담원은 오히려 신뢰관계자로 동석을 많이 요청받아 어려움이 많다는 반응도 있었다. 신뢰관계자로 동석을 한다는 의미는 추후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출석을 할 수도 있는 등 형사절차상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전제가 되어야 한다.

즉 피해자에게 안정감을 주어 진술을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피해자 상황에 대한 이해를 통해 추후 피해자 지원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누가 신뢰관계자로 동석하느냐에 대한 판단 기준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이어야 한다. 효과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피해자와 연관되어 있는 지역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상호 신뢰와 협조를 통해 상호 연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제가 생각하는 신뢰관계자 동석이라고 하는 의미는 물론 법률상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법률적으로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도 신뢰자 동석이 필요한데, 상담소에서의 결국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가 편안한 환경에서, 라포 형성을 충분히 한 다음을 말씀드리는 거죠? 피해자가 편안한 환경에서 본인이 겪었던 일을 제대로 말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이 사실은 신뢰자 동석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역할을 제일 잘 할 수 있는 것은 상담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해바라기 센터 내에 그 상황이, 그 자리도 비좁고 하지만 상담소에서 참여하는 신뢰 동석의 의미와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참여하는 신뢰자 동석의 의미를 좀 달리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신뢰관계자 동석으로 사실은 누군가가 들어가야 되는 건 꼭 맞구요. 근데 제가 장애인 상담소에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 어떤 낯선 환경을 갈 때요, 뭔가 본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랑 같이 가면 뭔가 얘기하기가 훨씬 편하잖아요.(A)

그 피해자는 변호사하고 00서 녹화하고 그냥 상담만 하고 집으로 보내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고 어떻게 도와줄 건지도 하고 연계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처음부터 같이 쪽 인제... 법원에까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지원을 하려면 상담소에서 신뢰관계자로 함께, 그니까 대부분 지금 선생님이나 거의 학교에서 발생한 거는 선생님들이 동석을 하더라고요? 상담사나. 상담소는 배제돼요. 차후에 우리가 개입할라 그래도 개입 못하게 해요. 앞으로 이 피해자를 우리한테 연계할 거면 진술녹화할 때 우리를 불러서 옆자리엔 안 앉어도 이쪽에라도 보게 해주면 좋겠다..(D)

지금 비디오 진술녹화에 저희는 거의 참여하는 게 2차 진술, 그니까 재조사, 재조사 과정이 아니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까 많이,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지금 저희 상담소에서 상담소로다 의뢰되는 케이스가 거의 어, 해바라기 센터를 통해서 80% 이상이 지원, 그 의뢰를 되고 있는데 그들이 의뢰를 할 때는 이미 진술 녹화를 끝내고, 끝내고 그리고 사례연계 차원에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서 법률모니터링이나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심리 상담이나 성교육이나? 그런 식으로 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1차 초기 진술에 가서 저희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중략)... 네, 거기에는 변호사나 진술조력인이나 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진술을 마치고 저희한테 연계가 되는 상황이에요...(중략)... 피해자를 지원할 때는, 초기에 이제 저희가 기록들을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까 피해자 당사자가 장애인이다 보니까 기록을 떼가지고 올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변호사하고 잘 협조가 되면 변호사가 보여주기도 하지만 변호사들이 상담원이 뭐 거기까지 하나, 내가 알아서 한다고, 라고 얘기하면 보여주지 않죠. 그러면 미묘한 지점에 있는 거에 대해서 장애인이 자기가 한 말이지만 자기도 잘 모르는데 나중에 기억도 안 나는데 근데 피의자 측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할 텐데 이 장애인은 무방비상태로 당하고 국선변호사가 적극 개입을 해주면 좋지만 적극 개입을 하지 않으면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고 진술조력인은 단순 그 시간에 의사증계만 했으니까. 그러다보니 피해자는 자기 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지점이 생긴 거죠.(B)

관계가 서로 잘돼 있는, 해바라기 센터와 우리와 관계가 잘돼 있을 때는, 우리가 가서 편안하게 피해자를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경찰하고도 편안하게 조언을 할 수 있고 소통이 돼요. 그 관계 맺기를 잘해서 잘 터놓으면 어떤 피해자가 와도 어쨌든 간 상담 쪽에서 먼저 우리한테 의뢰를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만들고 또 경찰하고도 노력을 좀 해서 기관 대 기관으로서 관계 맺기를 잘 해놓으면 서로 도움을, 협조 요청이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전체를 다 듣고 피해자가 그때 느꼈던 감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시 나와서 나누고 그렇게 해서 그 때 자기가 다 하지 못한 말을 다시 그때 당시의 신뢰관계

로 들어왔던 상담원이 다 그걸 다시 기록하고 그렇게 뭐 다시 그 과정을 의견서를 내고 그러면서 변호사하고 협조관계를 이루고 요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이 없는 거죠. (B)

그냥 연계의뢰서만 달랑 오는 거죠. 그거 가지고 우리가 파악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요. 협조적이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은 상담원이 신뢰관계자로 들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는 얘기군요...(중략). 성폭대(성폭력특별수사대)로 바로 연결이 된 피해자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성폭대에다가 저희가 계속 전화를 해서, 지금 피해자 진술 언제냐, 우리가 참여하겠다, 그런데, (우리를) 빼놓고 해요. 결국 우리한테 보내줄 거면서, 우리를, 우리가 거기에 못 들어가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막 따지죠. 그럼 아, 잊어버렸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네, 경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담소를 너무 인식을 귀찮은 존재로 여겼다가 필요할 때만...(C)

신뢰관계자 동석을 아예, 거의 안 하고 있어요. 100%. 해바라기 센터에서 신뢰관계 동석을 하지 우리가 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G)

신뢰관계를 하는 사람은 향후 증인으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잘 아는 사람.. 또는 장애를 잘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신뢰관계자를 해야 된다는. 그러지 않으면 예를 들어 장애인 이하는 사람을 법을 잘 몰라서 법정 모니터링을 가도 뭐 말인지 모르고 또 증인으로 출두를 해도 그 왜 가해자 쪽 변호인 되게 몰아붙이거든요. 증인을 서본 사람만 알아요. 그 가해자 변호사가 엄청 몰아붙이기 때문에 그거를 감당 한 번도 안 해봤던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급 당황해서서 말이 잘못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 그 다음에 근데 법을 너무 잘 알면 장애를 몰라. 신뢰관계자는 전문성 담보를 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아까 같은 부모나 라포 형성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가는 게 맞냐, 라고 하면 이게 끝까지 사건 지원을 이 사람이 증인까지 가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고려,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L)

진술녹화를 다 끝내고 오니까 사건화가 되긴 하지만 진술녹화 상황이거나 신뢰관계자로 동석하는 일이지? 거의 없죠. 피해자의 한 80% 이상은 다 이미 녹화진술은 끝나고 온다는 거죠. 최근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진정한 연계를 한다면 녹화 시에 장애인 사건이 불러야 되는데 왜 안 부를까. 신뢰관계자로서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약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이제 무슨 사례 회의든 뭐든 참여는 시키거든요. 그래서 좀 녹화 전에 연계를 많이 했으면...(H)

해바라기 상담 팀에 있는 상담원이 들어가고 왜냐면 저희에게 인제 연계 의뢰서를 보낼 때 처음에는 피해 내용이나 이런 상담 내용이 굉장히 간단하게, 그냥 의료 지원했고 진술녹화했고 변호사 누구 참여한다 이 정도로 짧게. 몇 월 며칠 누구로부터의 성폭력 피해를 입어서, 강간 이든 추행이든 유사강간이든 간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단 2줄, 3줄로 이렇게 연계의뢰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연계를 하는데 우리는 이걸 보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시 물어봐요. 물어봤더니 세부적으로.. 물어보면.. 그, 또, 물어봤다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피해자한테 다시 똑같은 얘기를 물어볼 순 없잖아요. 다시 또 재차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했죠. 네트워크 회의 때 그 부분을 두 번 세 번 얘기를 했더니 지금은 별지로...(H)

신뢰관계로 들어가 암말 못하고 그러니까 대답할 때가 막 있잖아요. 정말 이 아이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뜻인데 경찰이 못 알아먹을 때. 경찰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날 한 번 만나서 그 아이의 언어패턴이나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대변에 알아듣기 쉽지 않은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면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알려줄 수 있고 이래 하는데. 저번에 맨 처음에 뭣도 모르고 너무 답답해서 무슨 글자 하나를 얘기해줬어요. 하도 못알아들어서. 그랬더니 경찰이 하 여튼 나한테 성을 내면서...(I)

국선변호사가 있다고 해서 국선변호사를 최우선으로 보고 나머지를 고려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봐요. 저는요. 그런데 현재 제가 문제로 생각하는 거는 국선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신뢰관계자는 필요 없다, 그리고 국선변호사 동시에 했을 경우에 최우선 선택을 국선변호사를 한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제기돼야 된다는 거죠. 상담원하고 변호사가 있는데 변호사가 있으니까 상담원은 오지 마세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선택을 해야 하니까 두 분 다 오셨네요? 그렇다면 뭐 변호사부터 하죠, 이렇게.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신뢰관계 자체가 사건만이 아니잖아요? 법률적인 지원과 상담 지원은 함께 굴러가야 된다고 봐요. (F)

라) 신뢰관계자 범위에 대한 갈등

신뢰관계자 동석의 범위를 누구로 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 최근에는 신뢰관계자로 대부분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동석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소의 상담원, 피해자 모, 교사 등이 상황에 따라 동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일단 신뢰관계자는 피해자가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을 잘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을 줄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 부모 등 가족이 동석을 할 경우에 오히려 보호자가 흥분하여 조사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 조사에 개입하여 진술을 오염시키는 등 피해자가 사실을 말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신뢰관계자 동석의 법적 의미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신뢰관계자로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폭력 사건에서 유일한 목격자이고 경험자인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이며 가해자 처벌과 직결되기 때문에 신뢰관계자가 누구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일단은 상담원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 부모님이나 교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피해자 분들이 좀 그래도 어려워하는 그런 게 있어 가지구 피해 내용을 잘 얘기를 못하는 그런 게... 네. 근데 이제 부모님이나 교사가 들어갈 경우에 신뢰관계자로 피해자 분들이 이제 다 이야기를 편하게 못하시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특히 부모가 들어가면 눈치 보느라고 말 잘 못해. 그런데 아직도 해바라기센터에서 부모를 신뢰관계자로 앉힌다는 게 좀... 그렇다고 피해자 분이 싫다고도 못하는 상황이고 자신이 피해당한 사실을 이야기를 다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나랑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좀 꺼려하기 땀에 이제... 나중에 혼날 것 같고,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다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G)

신뢰관계자를 정말로 권익보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호자가 있어도 보호자가 그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B)

부모가 했을 때는 진짜 진술에 오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강압적인 성폭력이 요만큼 했는데 작게 했는데 이만큼 당한 경우도 있고 크게 됐는데 작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엄마들이 벌써 알아가지고 그러면 피해자가 있을 때 엄마가 딱 들어가면 사실적으로 얘길 못하니까 엄마가 원하는 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중략)... 그니까 부모가 사건 지원을 하는 데 깊이 개입하는 게...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거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진술의 오염이 상당히...(L)

신뢰관계자 동석은 꼭 필요한 거 같은데 대신 이제 오히려 여기 써 있는 거 보니까 부모는 사실 자녀문제에 있어서 별로 도움이 되는 거 같지 않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눈치를 보는 경우도 있고...(중략)... 신뢰관계자 동석하면서 저는 사실은 국선변호사보다는 내담자하고 어느 정도 안면이 있고 좀 신뢰관계가 형성된 상담원들이 같이 가는 것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M)

수치심... 그게 그 있으면은 오히려 더 상처 받을까봐.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엄마 말을 안 들어서 엄마가 바로 집에 오라 그랬는데 누구 따라가지 말라 그랬는데 어쨌든 유인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애들이 항상 다 야단 맞을까봐 말 못하다가 다른 사람 통해서 알게 되거나 부모한테 얘기할 때 첫 번째 나 절대 야단치지 마, 그러구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애들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불편해하고 청소년은 더군다나 그렇고. 그니까 제가 본 결론은 제일 애들이 무서워하는 건 엄마예요. 엄마가 절대 알면 안 돼요, 엄마한테 알리면 안 돼요, 엄마한테 야단 맞아.... (P)

눈치 보고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피해자인 경우는 저희가 신고한 경우는 이제 얘기를 해요. 그 피해자가 동의를 했을 때. 그래서 나는 우리 엄마 없으면 저 선생님 없으면 얘기 못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한 번 먼저 점검을 해줘요. 그래서 신뢰관계자 동석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한 제도예요...(H)

청소년 같은 경우는 엄마한테 보고한 내용이라(조사에서)) 진술하는 내용이 좀 다른 경우도 많더라고요. 엄마한테는 대충 그냥 조금 좋게 얘기하고.(중략).. 아이의 입장이 중요할 거 같아요.(O)

도움이 될 사람도 있고 아동 같은 경우, 특히 경찰이라 라포 형성이 안 됐거나. 근데 요새는 경찰도 라포 형성을 미리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너는 누가 옆에 있는 게 좋겠니? 그것도 선택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싫어요. 무조건 있어야만 된다는 건 비디오테이핑이 다 되고 애가 나는, 사실 어떻게 보면 경찰이 돌이 얘기하는 게 더.. 정말 이랬어요, 더 얘기하기 편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국선변호사 같은 경우도 모니터링실에 있으면서 옆에 사실 내가 내밀한 얘기를 한다, 그럼 이게 테이핑이 된다는 건 안다고 하더라도 하다보면 좀 잊어버리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아,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 그러면 돌이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선택.. 이것도 좀 선택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중략)... 피해자 위한다고 치고서는 너무 많은 사람이 관여하면서 이 사람들 시간에 맞춰서 진술도 나 지금 하고 싶은데..(P)

라. 기타 피해자 지원제도(상담 의료, 지역사회 전문기관 연계 등)

1) 지원 현황

아동이나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 지원은 대부분 해바라기센터로 연계하고 있으며, (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해바라기센터 외에 지역의 성폭력전담병원 또는 상담소와 연계되어 있는 병원을 통해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바라기센터(통합)는 대학병원 내에 위치해 있고, 해바라기센터(아동)의 경우도 대학병원과 연계되어 있어 의료 지원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 해바라기센터의 경우 일반 국민에게도 신뢰도가 높은 대학병원으로, 의료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의료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지방의 경우 의료진의 인력풀이 부족하여 센터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 기관에 연계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상담지원 등 기타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상담지원 외에 장애인단, 의료지원, 방문상담,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자조모임 지원, 사회복지기관 연계, 주거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통합적인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에는 장애진단이나 주거지원 등 생활지원과 자립지원도 해야 할 경우가 많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는 특성 상 피해 사실이 노출되어 전문기관으로 연계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고, 주로 주변사람들에 의해 신고가 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들은 성폭력인 줄 모르고 있다가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으면서 성폭력으로 인식되면서 혼란을 겪기도 한다. 이는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누군가를 만나고 싶고 소통하고 싶은 욕구를 가해자가 채워주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폭력으로 인식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이나 사회보호체계가 부족한 지적장애인 대상의 지속적인 피해와 정신장애인 대상 성폭력도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실정이다.

2) 문제점

가) 장애인성폭력상담소의 피해자 지원의 현실적 한계

① 타인과 소통하고 싶고, 사람을 좋아하는 장애인의 특성을 악용하는 가해자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방임·학대·알콜·빈곤 등의 문제로 인해 보호체계가 미흡한 장애인이나 아동의 경우 성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고, 피해 사실이 즉각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몇 달, 몇 년 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성폭력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주변 사람에 의해서, 알게 돼서 신고가 되었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은 거 같고. 그래서 이제 피해자는 사실 그 상황들이 성폭력 상황인 줄도 모르고 있다가 그 이후에 처음 사건 신고하고 하면 좀 저항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별 안 줄 거라고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 이제 사건 진행되면서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이용했고 막 이런 거. 돈을 심지어 다 뜯어가도 그거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못 느끼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보면, 억울함, 속상함, 그렇게 돼서 결국은 그 관계, 관계하고 싶기 때문에, 누군가 만나고 싶고 소통하고 싶고 이런 욕구들을 그 사람이 어쨌든 가해를 하면서도 채워주니까. 그 사람은 성관계였었는데 우리 피해자는 성관계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나도 애인있다, 남

들처럼. 이렇게 하고 싶다는 그런 거에 의미를 많이 두는 거 같은데 그런 것들을 가해자가 이용을 하는 것 같고. 음, 정말로 이제 피해가 즉각 발견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 같고. 정말 몇 년이나 몇 달이나 이렇게 있는데...(중략)...부모가 그 역할을 못하니까..(I)

보호자가 있는 경우, 보호자가 안정된 보호를 하는 장애인과 어, 보호자도 또 지적장애, 알콜, 조손가정 일원일 경우에는 상담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가족까지 다 설득을 해서 지원해야 되고 특히 청소년인 경우에는 그 가정에 대한 어떤 이런 변화가 없을 때 끊임없는 재피해에 노출되는 것은...(중략).. 보호자 역할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상담을 하러 오거나 치료가 제대로 되거나 그다음에 이 피해자의 어떤 주변 환경에 관한 인식이 되거나 이런 게 되는데, 보호자가 그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피해자를 주로 혼내고 야단치고 용돈도 주지 않고, 어디가든지 관심도 없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다시 재피해에 노출이 된다..(J)

저도 이제, 보호 체계가 확실한, 특히 비장애인 보호자일 때는, 우리 피해자도 그런 부모 가정 밑에서 자란 경우에는 피해가 있어도 자존감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신고의지라든가 나쁜 행동에 대한 벌을 줘야 된다 이게 확고해서 스스로 신고하고 그걸 과정을 자기가 책임지고 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자존감 있게 자란 사람과 부모가 방치하거나 장애인이거나 이런데, 보호가 피해 이후라도 이게 안되잖아요...(I)

② 성폭력 피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다 보니 임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지적장애인의 경우 임신 사실을 모르는 채 몇 개월이 흐른 뒤 주변사람에 의해 발견되어 낙태·출산의 고통을 겪기도 하며, 성병 등 건강상의 문제 등이 나타난다. 반복되는 성폭력 피해로 인한 임신, 낙태, 출산이 반복되면서 피해자 지원기관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원기관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한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신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배가 불러오니까 임신 사실을 알아서 뒤늦게 병원을 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대부분 중절수술을 하거나 출산을 해야 되는 그런...중절수술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돈 몇 백 만원씩 들고 이렇게 하니까..(G)

피임이 시급한 장애인들 있잖아요...(중략)...정부에서 우리 그 지적장애인들 중에 보호체계가 되지 않는 이 장애인들이 이미 보호자가, 보호체계가 안 돼서 이미 성적으로 너무 지금 통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성폭력 피해 후유증의 한 영역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피임에 관련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예를 들어 이미 병리적으로 진행이 돼서 남자가 옆에 없

으면 못 건디는 장애인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이미 초기의 경험들이 그게 다 사랑받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장애인들을 그냥 임신되게 끊임없이 둘 건가? 오히려 피임을 해서 조금 더 안정성을 유지할 건가? 특히 보호자가 없을 경우에 말이에요.(J)

③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면 지원기관의 상담원들은 상담뿐만 아니라 의료, 법률, 사회복지 기관 연계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통합지원을 해야 한다. 피해 정도나 피해자의 환경에 따라 지원을 해야 하는 내용이나 기간도 다양할 수밖에 없고, 주말에도 사건 지원을 해야 하기도 하고, 피해자 한 사람에게 몇 년간의 지원도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상담원의 소진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상담원이 계속 바뀌는 문제가 발생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욱이 아동이나 장애인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 특성에 따른 전문성이 요구되는 데 이 같은 상황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은 상담지원, 치료지원, 의료지원, 이렇게 방문상담, 교육, 사회복지기관 연결 이런 거 모두 다 하잖아. 성교육 성폭력예방 교육도... 진단받게 해주지, 또 이사 가야 되면 또 알아봐서 그런 거 00지원금도 받게 해줘야지,(I)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 일이 굉장히 이제 소진될 수밖에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담원도 그러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토요일 일요일도, 사실 토요일 일요일 사건이 들어오는 경우 전 제가 나가거든요. 상담원들 못 보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상담원에 관련된 치우개선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요, 끊임없이 이 상담원이 바뀌기 때문에 피해자의 지원에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장애인피해자를 지원하는 게 전문성이 요구되잖아요. 전문성이 요구되려면 거기에 맞는, 이 상담원들이 오래 머물게 해야 되는 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없고, 또, 그다음에 해바라기와 상담소의 역할 구분을 여성가족부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지금은 역할구분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중략).. 아예 장애인 부분은 우리한테 조금 지원을 강화해서 어차피 지금 1차부터 우리가 다 지원을 하는 건데. 일만 더 많아. 일은 엄청나게 많아지고 치우는 지금 하나도 개선이 안되는 부분에 있어서 일을 견뎌낼 수가 없다. 전문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로서 특화된 부분으로서 좀 해야 된다. 구분 정립이 전 필요하다고 봐요.(J)

사실은 이게 장애인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의 그 상담원들이 해도, 해도 끝도 없는 일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굉장히 소진이 좀 많이 될 것 같긴 해요.(G)

④ 성폭력 피해자를 모두 보호시설로 분리할 필요는 없지만 친족 피해자이거나 피해자 집 주변에 가해자가 살고 있는 경우에는 재피해 위험성 때문에 피해자 사정(assessment)을 통해 일반적으로 보호시설로 분리를 하게 된다. 2015년 현재 여성가족부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면 일반시설 16개, 특수시설은 전국 4개, 장애인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9개(통합시설 포함),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1개로(여성가족부, 2015a:77),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피해자를 위한 장기 보호시설이나 그룹홈 등도 부족해 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장애인 쉽터도 없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건 맞구요. 두 번째는 이 친구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공간.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일을 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성폭력 피해에 다시 재노출되는 경우가 좀 희박해요. 근데 그냥 무방비로 돼있는 친구들은 되게 많이 노출되거든요.(E)

갈 데가 없고, 그리고 이분들은, 물론 스스로 자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장애 특성상 누군가가 좀 보살펴줘야 하는 건 맞잖아요? 그 역할을 그럼 누가 해줄 것인가? 자립하기 위해서 도움을 어떻게 줄 것인가? 그럼 그들이 자립하기 위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굉장히 사실은,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러지 못한 거 같아요. 그리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갈 수 있는 곳들이 그래도 더러 있지만 부모님이 재산이 있거나 근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못 받고 있는데 이분들은 사실 갈 수 있는 곳이 아무 곳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회의가 들었던 게, 이 분들이 쉽터에서 잘 생활을 하시고 어느 정도 회복하시고 나왔을 경우에 지역사회에 잘 정착해서 잘 삶에 다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사실 해야 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만 지원체계들이 없어서 지원할 수 없을 때! 그냥 마냥 보고만 지켜보는 것밖에 답이 없을 때! 그때가 사실 제일 괴롭고 답답한 것 같아요.(A)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인제 피해자 분들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쉽터를 가진 다든지 이사를 가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쉽터에도 자리도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생활, 공공생활이 가능하셔야 되는데 또 그런 것도 많이 가려서 받으시더라고요.(G)

⑤ 성폭력 피해 장애인의 경우 대다수가 지적장애인이거나, 최근에 정신장애, 시각장애 등 다른 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전문기관이나 전문가가 부족하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에는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받고,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가해자나 가해장소 등에 대한 정확한 진술을 하기가 어려워 가해자 처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적장애인이 제일 많고 요즘에 또 조금 고민되는 부분은 정신장애인들의 성폭력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거의가 여러 측면에서 계속 어렵다. 정신장애의 특성은 지금 거의 상당히 사건하기가 어렵고 보호도 없고 지금 정신장애인 사건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대부분 지적장애인이고 지적장애인 중에도 아까 얘기했듯이 보호체계가 열악한 장애인들이 대부분이고....(J)

⑥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중에는 가정폭력 피해 경험자가 많으며, 장애를 이용하여 돈을 벌려는 사람들에게 유인되어 가출, 조건만남, 성매매 등 위험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피해자도 있다.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장애인 성폭력 피해 예방 및 생활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 장애인 피해자 지원 시스템은 피해자의 의사결정이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관 간의 입장과 역할에 따라 여러 전문기관이 개입하기도 하고, 때론 타 전문기관에 피해자를 연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

성폭력, 가정폭력 사실 구분하지 말고, 폭력 피해자 분들을 전반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아주 촘촘하고 탄탄하게 구성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A)

성폭력 상담소는 성폭력만 지원하게 돼있고 가정폭력 상담소는 가정폭력만 지원하게 돼있고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 센터만 들어가게 돼있고 가정폭력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 센터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기엔 다 이걸 개별화시켜야 된다는 건데 장애인은 개별화시키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장애인 통합! 통합! 통합 상담소, 통합 센터가 맞다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 난 피해자 피해자 한 사람이 성폭력도 가정폭력도 성매매도 다 당했어. 이걸 어떻게 다 잡니까. 장애인은 장애인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특성이 반영이 되고 고려가 되는 어떤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L)

성폭력이. 반복되는 노출의 위험성이 높다. 예, 재피해가 된다거나 아니면 또 그러한 상황. 예를 들면 뭐 채팅을 한다든지 스마트폰 이용해가지고 가해자를 만나서 피해가 발생되었는데 그 뒤에도 똑같은 그런 피해를 입는다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성매매업소라든지 이런 것들도 유

입워서 계속 반복적인 피해가 계속되는 것이.. 근데 그거를 어떻게 지금 막을 수도 없고 그 상황에서 피해자 분들을 보호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것엔 좀 한계가 있다는 게...(G)

나) 성폭력 피해자 전담병원 및 의료기관 연계의 어려움

성폭력 피해자 대부분은 의료지원을 받는다. 산부인과나 비뇨기관, 피부과, 외과 등의 신체적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적 외상으로 인한 정신과적 치료나 심리치료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역 내에 성폭력 피해자전담병원이 지정되어 있으나 성폭력이나 치료 대상(아동·청소년·장애인)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전담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연계할 수 있는 의료기관도 부족한 실정이다. 많은 (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성폭력 장애인 피해자 발생 시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진료하는 전문 의료기관의 부족으로 연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전담의료기관. 전담의료기관이 사실은 지자체에서 관리하게 돼 있는데요. 공무원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리고 전담의료기관이 초기에 해놓고 전담의료기관에 응급키트가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거 체크도 잘 안하고 그담에 전담의료기관에서 어떻게 피해자가 왔을 때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고 교육도 없고 그리고 실제 우리가 연계하려고 몇 군데 전화를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거기도 신경정신과였고 전담의료기관으로 등록돼 있었는데 내담자 집이 그쪽이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분, 거기서 “아 저희가 성폭력 피해자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지원을 못하겠어요.” 이러더라고요. 되게 어렵다고 그러면서. 지원 못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제가 산부인과도 딱 데다 물어봤었는데 거기는 “아 그런 분들은 저희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치료를 못하겠어요...(중략)...”전담의료기관이라고 돼 있는 데 중에 잘하는 데도 별로 없고 그담에 이제 관리가 잘 안되다 보니까 계속 물리는 곳으로 물리는 것 같아요. 내담자들이 두 번 세 번 상처를 안 받게 하려다 보니까 약간 상담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보내다 보니 전담의료기관이 아닌 곳에 이미 많이 보내고 있는 것도 같고요. 지역사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데로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전담의료기관 관리나 좀 새로운 기관들을 찾아가지고 뭔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M)

말 그대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잘 이해하고 감수성이 있는 그런 정신과가 거의 없어요. 그냥 단순히 좀 뭐.. 말 그대로 정신분열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약 처방해주고 그냥 이렇게 상담해주고 이런 걸로 좀 역할을 하시고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 대해서 좀 그에 맞는 정신과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열악하죠.(H)

전담 의료기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의료전담기관으로서 탈락을 시킨 다든가 뭔가 강력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는 한은, 갑자기 어느 날, 피해자를 지원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병원들을 막 갑자기 찾아가지고 그분이란 소통을 해서 어떻게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대부분 기대게 되는 게 전담 의료기관인데, 제가 보기에는 전담 의료기관이 아직 잘 관리가 안 된 것 같고, 또 어느 병원을 가면 그건 그냥 걸어놓는 거예요, 본인 홍보차원에서! 그럼 서울시 전담의료기관이라 하면 의료기관의 역할을 충분히 역할을 수행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시고 뭔가 확인하시고 관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A)

전담 지정 병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관기관 모임에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폭력으로 오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뭘 어떻게 지원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자체하고 얘기를 해서 유관기관 간담회나 그 네트워크 회의나 이런 것들을 주도 좀 해달라고 하려 그래요. 그래서 모여 가지구 일일이 병원에 가면 우리가 이제 성폭력 피해자 지원, 의료 지원 요청서를 가져가잖아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가는 데마다, 이 만약에 정신과를 가면 정신과에 가서 상담원이 이제 이런 저런 설명을 해야 하고, 산부인과 가면 산부인과 가서 또 설명해야 되고... 그니까 이게 너무 어려워요. (C)

네. 그게 해바라기는 입원 병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J)

다) 끊임없이 의료기관을 찾는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는 당연히 의료·상담·법률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강간 피해자는 특히 피해 발생 후 시급히 의료기관과 연계되어야 한다. 가해자 검거와 처벌에 중요한 증거확보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피해 초기에 신체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과적인 전문치료나 상담지원을 받는 것은 상처회복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아닌 경우에도 의료지원을 요구하거나, 타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 이미 수년간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타 전문기관을 찾아가 또다시 지원을 요청하는 등 전문기관을 순회하며 의료지원을 요청하는 피해자들이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어저겐가 그저겐가도 그런 사례 너무 많아요. 밤에 이렇게 일어나는. 술 먹고 일어났는데 자기가 한 40분 정도 기억이 어느 순간 기억이 없는데 혹시나 내가 피해당하지 않았을까? 검사 좀 해주세요, 이런 사례. 일단 의사도 내용 파악이 돼야 진료를 해주는데요. 내용도 없잖아요. 그런데 분만하고 있는 레지던트들 급히 불러요..... 진짜 힘든 일이에요.(O)

사실 의사 입장에서야 야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의미를 두고 하는데 보니까 피해자 같지도 않아. 우리가 봐도 피해자 같지 않아. 의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센터 자체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그 거부감. 아니 국비, 우리가 낸 세금 갖고 니네 이렇게 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사람 피해자 맞나? 우리가 그나마 거르는데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면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거. 제일 큰 스트레스가 그거예요.(O)

이미 받고 와서 또 받는데 사실은 이 분은 이게 성폭력만의 이슈도 아니고 가족 환경 전체가 어려서부터 쪽 결국은 살아온 인생의 문젠데 그런 걸 2년 지원 받았으니까 여기서 2년은 끝났으니까 딱 센터로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센터로 연계하고 싶다고 오셔서 또 정신과 진료 요청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안 된다 그러죠. 원래 가셨던 병원으로 가서서 거기서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지. 그니까 그런 식으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의료 지원에, 이런 부분은 정말 문제인 것.....(O)

라) 상담원 등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부족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대상(아동, 청소년,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성폭력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 관련 경험이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피해자 국선변호사나 진술조력인, 조사관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상담원의 전문성 또한 중요하다. 상담원은 피해 상황에 대한 스크리닝, 상담, 타 전문기관과의 연계 등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전문지식이나 현장경험을 충분히 활용하여 피해자를 지원해야 함이 요구되지만, 상담원 간의 전문성에 차이가 있어 피해자 지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건에 비해서 사람이 너무 적은 거요? 네. 그리고 전문성 있는 사람. 직원 전체의 전문성. 그리고 타 센터 직원들의 전문성과 이 분야 성폭력 분야의 전반적으로 전문성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O)

초보자들이 접수도 안 받고 이거는 접수 못해요. 거기도 인제 별 그냥 경험 없는 사람들이 막 반 이상씩 있다 보니까 인제 그런 빼그덕거리는 게 있는 거예요. 잘 되는 이유는 어쨌든 상호 이해. 서로의 역할에 대한 이해 및 인정. (P)

스크리닝은 제일 처음 상담지원팀이 하죠. 당연히 들어가야 될 사례는 얼른 들어가는 거고 애매한 사례거나 조금 논의가 필요해서 약간 한계 설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사례회의를 통해서 가는 거고 저희 센터 안에서도 지금 전문성에 격차가 있어서 저희도 맨날 머리통이 터지는.. 전체적인.. 전문성...(O)

마) 남성 피해자, 친족 피해자 및 가족을 위한 특화된 전문센터 부재

최근에는 남자 아동이나 청소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전문기관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현재는 대부분 여성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해바라기센터나 상담소 중심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남성 피해자들이 여성 경찰, 의사, 상담사 등을 만날 수밖에 없다. 또한 친부 등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는 그 특성상 오랜 기간 피해가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모두 심각한 역기능 상태에 놓이게 된다. 치료 회복을 위한 기간도 상대적으로 길어질 수밖에 없고, 상담·치료뿐만 아니라 부모교육 및 치료 등 비가해 부모에 대한 개입이나 가족치료도 필요하며 주거 및 경제적 지원 등 사회복지 지원도 확대되어야 한다.

특화된 센터가 있으면 좋겠구요. 친족은 진짜 가족 치료가 필요하거든요? 전부 지금 개별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친족은 아, 이게 참 특화된 센터가 있어야 되겠다...(P)

10대 후반에 남자청소년만 해도 사실 우리 센터 오거든요?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오긴 오는데 애들 되게 쑥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O)

청소년도 사실은 되게 불편해해서 나 여자선생님 싫다, 경찰도 여자 경찰도 싫다, 그래서 수사 경찰이 와가지고 한 경우도 있었구요. 남자도 여자한테 그런 얘기하기 힘들어하는데 그러면 전체는 아니라도 한 센터라도 특화된.. 여기는 남자 상담사도 오고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면 안 되냐? 좀 왜 약간 특화시켜서 못하냐구요. 남자 피해자 오는데...(P)

남자 피해자 특화된.. 지금 남자 피해자가 슬슬 올라오거든요. 남자 피해자도 있어요.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거죠. 근데 지금 다 여자로 구성된 여기에 가서 남자가, 남자 역시 2차 피해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가 특화된 정말 남자 상담사에 남자 정신과 의사에 남자 비뇨기과 의사에 그 남자를 특화된 센터를...(P)

이 아이보다도 지금 엄마를 치료를 일단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한계가. 한계를 자꾸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저 비가해부모도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중략)...그런 부모들은 안 온대는 거죠. 그러 자신도 정말 무기력하고 하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닌.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애 입만 막을라고 그러는 것도. 그렇게 해서 저희가 더 이상 어떻게 계획을 할 수가 없죠.(N)

바) 지역 내 피해자를 위한 전문기관 간의 연계와 협력의 문제

지역에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아동보호전문기관, 여성긴급전화 1366, 피해자 보호시설, 복지관, 주민자치센터, 구청, 사회복지 기관 등 다양한 기관들이 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구축은 피해자 지원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나 지역 특성에 따라 연계하고 있는 기관의 범위나 협력체계에는 차이가 있었다.

연계는 다 해요. 필요에 의해서 이용하지. 복지관, 주민센터, 구청, 뭐, 장애인단체, 쉼터시설. 이렇게 우리가 임의로 이제 이용은 하지만 네트워크이 형성돼있는 건 아니예요. ...(중략)... 일단은 지금 장애인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 반복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체계가 좀 많이 갖추어져 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고...(E)

장애인 성폭력상담소는 역할이 성폭력 피해를 지원하고 그 다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게 예방하고 사회 복지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 개선이 굉장히 필요해요. 환경 개선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지역사회 네트워킹이거든요...(중략)... 네트워킹은 정말 뻘뻘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B)

2.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본 피해자 지원 현황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도입으로 기존 문제시되었던 형사사법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하고 피해자를 지원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절에서는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활동하는 2명을 만나 피해자 지원 관련 활동 및 문제점에 대해서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하려고 한다. 현실에서의 활동이 법무부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역할과 어떠한 괴리가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가. 의뢰인 지정 이후 국선변호사 역할

1) 국선변호사 역할

의뢰인이 지정되는 시점은 영상진술녹화 전후로 다양하며 피해자와 면담할 때 피해사실 등 증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알려준다.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초기 의뢰인을 접촉하는 과정을 보면, 의뢰인이 지정된 이후 연락하여 면담 날짜를 잡고, 피해자 조사와 관련하여 수사관과 일정 및 피의자 조사 내용에 대응하고, 검찰과는 추가조사 및 대질조사에 대해 상의하고,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접근하는 경우 조치를 취한다.

어떤 사건은, 어떤 사건은 영상녹화하기 전에 오고 어떤 사건은 하고 난 다음에 오고 그래서, 오면, 면담하면 물어보죠. “정확히 피해사실을 얘기해주면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고거를 메모를 해서 정리를 하고, 그러면 혹시 뭐 이거에 관련돼서 이 목격자나 아니면 증거가 있을까요? 있다 그러면, 아, 그거, 그거 가져오세요. 이렇게 해서 그걸 경찰서 가기 전에 그걸 준비해서 갖고 가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 그다음에 뭐 피고인이 뭐 반대로 내는 거 있으면 전달해서...음 그렇게 하고 통화를 하죠. 담당 수사관하고 통화를 해서 뭐 그쪽에서 뭐 낸 거 있어요? 그래서 있다 그러면 뭐 다른 반박 증거 대고 이렇게 해서 가는 거고... 경찰하고 통화를 해요. (LAW-2)

일단 (의뢰인이) 지정이 돼서 오면 보통 이제 그날 전화를 해서, 어, 수사 시작하기 전에 상담을 빨리 하는 게 좋은데 가장 빨리 올 수 있는 날이 언제냐 그래서 일단 면담 약속을 먼저 잡죠. 그게 먼저잖아요. 면담 약속을 잡아서 면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담당 수사관하고 통화해서 뭐 그, 피해자 조사 받으러 언제 나갈 텐데 이날 괜찮냐 이렇게 약속 잡고 그다음에 뭐 필요한 뭐 만약에 그제 이제 가해자 쪽에서 접근하면, 접근하지 말게 전화 좀 해서 경고해주세요. 요런 걸 하는 거죠. [진술 녹화 하기 전에 연락이 오나요?] 게 저...대중없어요. (LAW-2)

검찰로 가셔도 비슷하죠. 만약에 검찰에서 뭐 추가 조사, 올라가면 그러잖아요, 추가조사 할 거냐고 [묻고] 한다 그러면, 그럼 언제 갈게요 이렇게 하고 조사 필요 없다고 하면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사건에서는 약간 중요한 게 대질 조사... [검찰에서요?] 경찰에서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 이제 물어봐요. 대질 조사가 싫다고 하면 대질 안 한다 우리는 이런 얘기하고 (LAW-2).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공판에 참석하여 의뢰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기대되고 있다. 그런데, 증인심문에 참석하여 피해자

를 지원하는 것이 국선변호사의 중요한 역할이지만, 여타 재판과 시간이 겹치는 경우가 있기에 공판 출석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많다. 공판에 출석하지 못해도 재판 결과를 확인하고 검사나 판사와 증인신문 사항을 사전에 논의하는 것은 의뢰인에게 도움이 된다.

(공판에는) 어..... 다 가지는 못 하구요. 저는 첫 재판하고 증인 심문하는 날은 꼭 출석을 하고 이게 왜냐하면 시간이 다른 재판하고 막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재판 날을 다 들어갈 수는 없고, 다 들어갈 필요도 없기 때문에, 첫 재판하고 증인 심문 이때는 가고 나머지 날은 그냥 그 재판 결과를 이제 뭐 검사한테 물어보거나 해가지고 추가 자료를 별도로 내거나 이렇게 하구요. 그런데 제 사건은 일단 장애인 사건이 많으니까 증인 심문 할 때 검사나 판사나 이런 분들이 이 장애인한테 뭐를 물어봐야 될지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제가 나왔으면 하는 거죠. 그래 가지고 그 재판 날 잡기 전에 전화하시던데요. 언제 나오실 수 있냐고... 지적장애인 사건은 증인신문사항 만들면서부터 상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검사님이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이 친구가 어떤 질문까지를 알아들을 수 있냐? 내가 어떻게 물어보면 좋으냐? 그래서 뭐 주의사항이 뭐가 있냐 (물어보고).(LAW-2)

2) 국선변호사 교육 및 자질

피해자 국선변호사 교육과 관련하여 특별히 강조되어야 하는 점은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피해와 관련된 고충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장에서 일하는 국선변호사들이 특별히 어렵게 생각하는 대상은 장애인이다. 성폭력 피해자 대다수가 지적장애인들인데, 이들을 지원하는 데 여타 피해자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국선변호사는 법률조력이 기본이고 피해자들 뭐 상담하고 이런 거는 부차적인 거라서. 기본적으로 변호사들은 법률적인 지식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구조교육이 들어간다면, 피해자의 특성을 이해하는 그런 교육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봐요. 특히, 일반 성인이나 아동 같은 경우는 뭐 조력을 하는데 몇 번 하다보면 어느 정도 알아요. 아이들의 특성도 이해하게 되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은 지적장애자들에요.(LAW-1)

지적장애인은... 뭐 라포 형성 기간이 꽤 걸리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러 번 찾아가야 되고, 또 한 번에 오래 하지를 못해요. 집중력이 낮기 때문에. 다음 주에 다시 오자, 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이 빨리 빨리 피해 일시 장소를

특정을 못 해내기 때문에 수사진행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재판도 되게 오래 걸리고요.(LAW-2)

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사건의 어려움

1)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와의 분리조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은 여타 유형의 피해자 지원보다 어렵다. 장애인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조사과정 중에도 피해자는 접근으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국선변호사는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인 관련 사건인데 피해자랑 가해자가 같은 동네 살거든요...이 가해자가 계속 찾아와 가지고 고소 취하하라고 협박하고 이럴 수 있는데... 그래서 가서 이제 보고 사진 찍고 그다음에 네이버 지도 첨부해서 이렇게 가까이 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빨리 구속시켜 달라, 이 구속이 안 되면 이 피해자가 컴퓨터에 들어갈 수 있게 조치를 취해 달라, 이런 거를 해서 냈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피해자 집에 접근하지 않도록 그 엄하게 경고를 해달라라고 했었고... 또 가해자 가족이 또 찾아 가길래 나중에는 그 가족을 고소를 했어요. 협박으로. 그게 이제 고소한 취지 자체가 꼭 처벌하겠다는 게 아니라 접근 못하게 하려고.(LAW-2)

2) 장애상태 인정과 관련된 법적 다툼

지적장애인 2-3급 중에는 채팅을 통해서 가해자를 만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장애인성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및 항거곤란 상태의 장애’를 갖고 있다는 점이나 피의자의 ‘피해자 장애상태 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어 법적으로 치열하게 다투게 된다.

특히 정신 지적장애 2~3급은 (간단히 끝나지 않고) 거의 다툰다고 보시면 돼요. 2~3급은 장애 정도가 낮고요... 보통 채팅으로 만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다툼이 생기는 거죠. 채팅으로 오빠 우리 만나자 연애하자 그래서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는 이제 채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적 능력이 뛰어난 거고 만나서 연애하자 그래서 그 만나는 목적도 알고 나온 것이고 폭행 협박도 없었고 CCTV보면 모텔 손잡고 들어가거든요. 나와서도 이렇게 손 붙잡고 나오거든요. 그래 이제 이게 장애에 대한 준강간이 성립하는가 보려고 하면 이 친구의 장애 정도가 법률상의 항거 불능이나 항거 곤란 상태의 장애라고 볼 수 있는가? 그다음에 피고

인 이 사람이 장애를 알고 그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했는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짧은 증인 심문 중에 검사님이 이 증인 심문 과정에서 이 피해자의 장애를 드러내야 돼요...(지적장애 2~3급 경우) 재판단계로 가면 조금 스마트하게 판단하는데 수사단계에서 그냥 불기소로 끝나 버리는 경우가 더 많아서요. 작년에 경찰청에서 이걸 잡고 이게 초동수사가 잘못 돼서 기소가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경찰청 내에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조사 매뉴얼을 만들었어요.(LAW-2)

3) 장애인 대상 면담과 진술조사의 전문성

장애인대상 진술 조사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한다. 장애인의 언어구사 및 이해 특성을 이해하여 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진술 조사가 매우 중요하다. 성인피해자 조사와 달리 장애인 피해자와의 의사소통 및 진술조사에 앞서 라포 형성이 중요하다. 장애인 의뢰인과 피해사실과 관련된 대화로 바로 들어가기 전의 일상적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할 수도 있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조사 매뉴얼 관련하여] 저희가 그 얘기를 했어요. 피해자가 왔을 때 뭐, 아주 기본적인 거. 겹먹게 하면 안 되는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다음에 피해자한테 이제 중복 질문하지 말라는 거... 중복질문이 뭐냐하면 이런 거죠. 일요일, “일요일날 놀이터에서 아저씨가 꼬추 만졌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일요일날 놀이터에서 아저씨가 꼬추 만졌어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요,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날 아저씨가 놀이터에서 꼬추를 만졌어도, “네.” 하거든요. 그리고 일요일날 놀이터가 아니라 학교에서 만졌어도 “예.” 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 아이한테 의미 있는 단어가 세 개가 들어가, 이게 중복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그렇게 해야 되는.... “아저씨 알아요?” “응.” 안다. “아저씨 어디서 만났어요?” 어디. “아. 그리고 또 어디에서 만났어요?” 이런 식의 것들을 갖다가 그 경찰관들한테 이제 제발 좀 잘해라.(LAW-2)

그 00[지역]에 00학교 사건 피해잔데. 00에 내려갔는데 이제 초반에 이제 라포 형성한다고 저희가 친한 척하면서 이렇게 막 먹을 걸 주잖아요. 막 줬는데 애가 안 먹어요. 안 먹고 이렇게 해서 제가 친한 척, 더 친한 척하려고 이제, 사탕을 까서 줬어요. 저 하나 먹고 “이거 맛있는데. 한번 먹어봐.” 이러면서 줬어요. 그런데 이, 이렇게 가만히 있던, 두 아이가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막, 애들이 막, 이러는 거예요...막 그러면서 막 그중에 한 명이 이제, 한 명은 말을 못 하구요. 한 명이 애길 하는데 헉, 사탕 싫다고 사탕 싫다고 막 그러는데...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놀래서, 그 사탕 이 사탕 왜, “이거 싫어요?” 그랬더니 싫다고 그래서 “왜 싫어요?” 그랬더니 그 사탕 싫다고 선생님이 주던 사탕...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이 목공 교사가 아이들을

계속 강간한 건데 그 강간하고 나서 혹은 강간하기 전에 홍삼 사탕을 준 거예요. 그 사탕이 여러 개 있었고 반응을 안 보이다가 주니까 갑자기 애들이 발작을 일으켜서 말은 그냥 “그 사탕 싫어.” 이게 다였고 나중에 이제 그래서 안정된 다음에 다른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그 얘기가 나와서, 제가 사실은 그 사건 지원하기로 결정하게 된 동기가 그거였어요. 말을, 하는 게 아닌데, 그 많은 사탕 중에 그 사탕에 아이들이 그런 반응을 보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뭐 일시 장소가 엉망이건 앞뒤가 안 맞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그 행동 하나만으로 저는 이게 피해가 확실하다...그렇죠. 그것들을 써서 냈어요. 써서 내고 그때 아마 제가 예, 감사담하고 통화하면서도 그 얘기 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피고인이 대법원 올라갈 때까지 무죄를 아주 강하게 주장을 했어요. 자기는 절대 그런 게 없고 이 지적장애인들의 이런 일관되지 않은 진술만 믿고 억울한 사람을 감옥에 가둔다 이러면서 그랬었는데 그 사실은 그거 사탕 하나로 3년 반을, 3년 반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직 재판이 안 끝났습니다.(LAW-2)

다. 피해자 진술조사와 관련된 주요 이슈

1) 피해자 진술에 대한 조언

성폭력 사건에 있어 진술은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로부터 정확한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사관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성폭력이라는 충격적 사건을 경험하고 형사사법과정에서 피해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해 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 진술이 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데, 국선변호사는 의뢰인에서 진술의 법적의미, 정확한 진술의 중요성 및 방법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상담, 피해자 상담을, 진술하기 훨씬 전에 미리 잘 안 하는 편이에요. 특별히 피해자가 요청하면은 만나 갖고 하는데, 저는 피해자 변호사 때문에 진술이 오염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진술하기 바로 전에 어떻게 진술하라고, 진술은 그냥 사실대로 이야기하시면 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셔라, 추상적인 단어를 쓰지 말고, 예, 나를 강제로 했습니더라는 그런 추상적인 단어를 쓰지 말고 어떻게 강제로 했는지 그걸, 행위 자체를 묘사하는 그런 진술을 하시면 된다고, 진술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게, 말하는 게 좋은지 그런 방법론적인 거만 알려주지, 어떻게 진술을 하면 유리하게 판단된다, 이런 식으로는 진술 조언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술한 이후에는 상담을 하더라도 그 전에는 잘, 미리 안 하는 편이에요.(LAW-1)

2) 적절한 진술조사 시점

원스톱 등 해바라기센터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의 편의성을 위해 의료지원 및 수사지원을 한 곳에서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현장에서 증거채취 등 의료지원과 수사지원이 연이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진술조사를 가능한 빠른 시점에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심리적·신체적 안정이기에, 이것을 고려하여 진술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상으로 녹화된 진술조사 자료는 법적으로 중요하기에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하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작년에 그 지적장애인 피해자 조사 매뉴얼 만들면서 저희가 조사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좀 했었어요 그때 저희는 무슨 얘기 했었냐 하면 이게 보통은 현장이 어떠냐 하면, 사건 발생하고 바로 원스톱에 가게 되면 가서 산부인과 검사 먼저 하거든요...거기 검사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다리 벌리고 있으면서 검사 다 하고 그다음에 바로 그날 조사도 다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 같으세요?]. 특히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겁을 먹고 게다가 그 (증거채취) 조사 검사 그게 또 아파요, 염증이 있고 그러면 굉장히 아픈데...[그러니까 그거 하고 진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얘기했던 건 뭐냐 하면 그때도 뭐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진다” 이 얘기를 경찰에서 하시길래 저희가 그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그게 오늘 하느냐, 내일 모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저희가 했어요. 왜냐하면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기억은 또 굉장히 정확해요, 특징이. 그래서 저희가 그때 뭐 근거를 제시를 하면서 현행법으로 그날 바로 피고인을 체포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같은 날 연이어서 (진술조사를)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또, 심야조사는 안했으면 좋겠다. 밤에. 그러니까 겁 먹어서 진술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LAW-2)

[안정을 시켜주고 그래야 된다.] 결국 그때 초기 진술이 잘못 나오면 무죄로 연결되니까 이것은 신중히 판단을 해야 된다. 경찰에서 우리 할 일 다 끝났다고 무조건 조사하고 넘길 게 아니라는 얘기를 저희가 좀 했었구요 그 얘기는 많이 사실은 나왔어요. 특히 강간 사건. 네 그래서 검사는 그렇게 하고 뭐 어쨌든 그니까 경찰에서, 저희가 그거 권고하기는 현행법으로 체포를 해야 되는 등과 같은 그런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일 날 산부인과 검사 하고 같이 바로 연이어서 조사하는 거 금지, 심야조사 금지. 뭐 이런 것들을 (매뉴얼에) 집어 넣었었거든요. 지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LAW-2).

3) 진술조사시 보호자 동석

아동진술조사라는 것은 낯선 장소에서 성폭력 피해 경험을 낯선 사람에

게 말하는 것인데, 아동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진술조사 전후로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아동에게 보호자는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주요 신뢰관계자이다. 그러나 진술조사에 보호자가 동석하는 것이 피해와 관련된 아동의 정확한 진술을 방해하는 요인일 수도 있기에, 보호자의 동석 및 동석하였을 때 태도에 있어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저희 영상녹화 하러 갈 때 보면 아이랑 엄마랑 같이 오는데요. 아이만 겁먹는 게 아니라 엄마도 겁 먹거든요. 그래서 가서 저희가 아이가 아니라 일단 엄마를 안심시켜요. 그래서 엄마가 안심하면 아이도 안심하거든요. 그러면 진술이 잘 나와요...그게 사람마다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친족 사건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빠가 범인인데 엄마를 신뢰관계로 동석시키는 건 전 반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엄마가 자책감이 되게 크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진술을 할 때 엄마가 아이 말하는 거에 따라서 과도하게 슬퍼하거나 아니면 화를 내거나 이거에 따라서 아이가 눈치를 봐요. 엄마가 속상해하면 얘기를 다 안 하죠...만약에 그냥 낯선 아저씨, 동네 아저씨가 가다가 그랬다 그러면 엄마가 그냥 옆에 앉아 있는 건 괜찮죠... 아동일 때는 어머니가 옆에 있는 게 좋은 하지만, 그럴 때는 엄마한테 병풍처럼 계시라고 해요. 숨소리도 내지 말라고 해요. 한숨 쉬지 말라고 해요. 슬퍼하지 말고 울지도 말 것이며. 어머니 그 말하는 거에 따라서 아이가 보고 기다리고 반응을 보이고 이러면 나중에 그 영상녹화물을 보고 피고인 변호사가 엄마 때문에 진술이 오염됐다고 하면 무죄가 나올 거다. 어머니 행동 때문에 무죄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를 꼭 몰고 참으시고 그러려면 들어가시고 그제 어려우면 그냥 저만 들어가겠다. 그러면서 밖에 계시라는 얘기도 하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재판 하다 보면 피고인 변호사가 계속 지적을 해요. 저기 봐라, 아이가 계속 엄마를, 한 마디 하고 엄마 보고 한 마디 하고 엄마 보고.(LAW-2)

라. 성폭력 사건 공판 진행에 있어서 재판부의 차이

1) 의견진술 및 자료열람 허용에 있어서의 차이

국선변호사가 공판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의뢰인 지원에 중요한 활동인데 이에 대한 허용 여부 및 허용 정도가 재판부별로 상이한 것이 현실이다. 또 수사 및 공판 자료 접근에 있어서도 국선변호사의 접근 정도가 재판부별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자료 접근으로 인한 정보의 제한은 의뢰인을 지원하는 국선변호사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재판부마다 다 틀려요. 그런데 피해자 변호사가 진술하겠다고 하면 제지는 안 하시죠... 그냥 재판부마다 어떤 재판부는 시키지 않은데도 굳이 진술하라고 시키는 재판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재판부는 뭐 시키지도 않는데 뭐 변호사가 손들고 한다고 제지는 안 했던 거 같아요. 의견서 내는 것, 자료(열람)는 제한이 있죠. 피해자 진술 외에는 접근이 안 되죠. [그럼 피의자 변호사가 정보가 더 많은 거네요.] 당연하죠. 원래 피고인 변호사는 모든 기록을 다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피해자 변호사가 접근할 수 있는 게 피해자 진술밖에 없는데, 그 이상의 접근을 하잖아요? 그럼 피해자한테 불리해요. 더 진술이 오염이 된다고 오해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법정에 나가서 증언을 할 때 어려운 것이 있나요?] 그 상대방이 어떤 증거를 내고 어떻게 진술을 했는지 잘 모르니까 그게 좀 답답한 거죠. 저는 이제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 듣고 거기에 이제 의견서를 내거나 증인 심문 과정에서 증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유추해서 의견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답답한 게 있죠. (열람복사 허가를) 1심은 해준 경우는 거의 없구요, 항소심은 거의 해주는 경우는 많아요. (LAW-1)

저는 1심에서 열람복사 허가를 받았어요. (피해자) 지능이 너무 낮아가지고 지능이 뭐 38이던가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열람복사 신청하면서 비고, 비고란에 자세히 썼어요. 피해자가, 피고인이 무죄를 다투고 있는데 피해자가 장애가 너무 심해서 그 피해자 변호사가 대신해서 할 일이 좀 많은데 지금 기록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사건의 진위파악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다 달라고 했어요. 예, 그렇게 해서 그걸 뭐 별지에다가 자세히 써서 냈더니 다 해주더라고요. (LAW-2)

항소심에서는 이제 무죄가 나왔을 경우에는 열람복사 신청을 하면 1심 결과나 1심에 제출했던 증거기록들에 대해서 열람을 신청하면 허가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것도 재판부 재량이에요. 재판부 재량이어서 [해주는 데가 있고 안 해주는 데가 있고]. 어떤 재판부는 다 해주는 경우도 있고, 다 해주되 피고인 조서라든지 피고인이 진술한 것만 빼고 복사해주는 경우는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냥 피고인 진술을 알면 피해자가 그에 맞춰서 증언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LAW-1).

2) 서울지역 법원과 지방법원과의 차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재판부 인식이나 재판과정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지역별 차이가 있다. 서울지역 법원은 공판에서 피해자 인권 침해 발언 제지, 2차 피해 방지, 국선변호인의 의견진술 기회 제공 등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지방에서의 재판부의 성폭력 사건 처리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서울[의 법원]은 명성이 자자해요. 그리고 의견 진술도, 국선변호사 의견진술도 서울은 되게 된가 얘기할 거 없는데도 뭐 한 말씀하세요. 이거를 꼭 기회를 주시는데 지방은 얘기하려고 하면 '나중에 끝나고 말하세요' [그래요]. 재판 끝나고 무슨 말을 해요? 그리고 아예 뭐 출석 얘기도 안 하시고 서울은 어떠냐 하면요, 분위기가 [국선변호사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편이에요].(LAW-2)

뭐 "노래방 도우미가 직업이었죠?" 이런 거 물어보면 판사님이 아예 그 질문 자체를 못하게 하세요. 아예 그래서 "답변하지 마세요." 이라고. "변호인 이런 거 질문하지 마세요." 이렇게 다 해줘요. 그래서 변호사가 별로 할 일이 없어. 근데 이거를 제가 군사법원 재판이나 아니면 지방법원을 가면 피고인 변호사가 그런 질문을 해서, 질문을 했는데 가만있어요. 검사도 판사도 가만있어서 제가 손들고 "이의 있습니다, 재판장님." 이러면서 "답변하지 마세요, 증인." 이러면서 지금 이 질문은, 이 질문은 사건과 관련 없고 그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질문이다. 무슨 법에 따라서 이런 일은 못하게 되어 있다, 이러면서 이 질문 못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판사님이 "그래요?" 이러면서 어느 법? 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하지 말라 그리고 그리고 나서도 이제 뭇까지 했었냐 하면, 이밖에도 다른 이상한 질문이 있으면 재판장님이 좀 걸러달라 그러면 이렇게 보다가, 이거를 보고, 아 이제 몇 번, 몇 번, 몇 번도 빠시죠. 이렇게 해서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그 분위기가 서울하고 지방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제가 보면, 사실은 지방에서 저한테 요청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지방의 단체들이 저한테 요청하는 것도, 그렇게 가서 이 재판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당하는 걸 좀 막아 달라. 그런 걸 서면을 좀 내주고 이의를 좀 해 달라,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요. 사실 서울 쪽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2차 피해당하지 않도록 재판부가) 알아서 잘 해주시니까.(LAW-2)

3) 검찰과 법원의 성폭력 전담제의 문제

성폭력 사건 처리에 있어 피해자 인권보호 및 전문성 증진을 위해 검찰과 법원의 성폭력전담제가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전담제"라는 용어가 표방하는 것만큼 검사나 판사가 해당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나 법원 "전담제"의 지속적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지금 법원에 성폭력 전담 재판부가 있잖아요.] 서울은 (운영이) 되게 잘 돼요. 그런데 이분들이 보통 성폭력 전담을 2년 하고 나면 그다음에 몇 년 동안은 이 전담을 안 하고 다른 부서로 가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에 와서 일을 좀 잘할 만하면 다른 데로 가시는 거죠. 전담이면 계속 전담을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나마 법원이 2년이구요. 검사들은 빠르면 6개월 하다가 가요... 전담 검사가 그래서 잘 몰라요.(LAW-2)

마.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운용 관련 문제

1) 국선변호사 자원의 합리적 배분

국선변호사 제도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공적으로 지원하는 자원이 무한정으로 공급되는 것이 아니기에 국선변호사라는 인적 자원 배분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으로 피해자 지원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동·장애인·청소년 피해자 지원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경미한 사건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하다 정작 심각한 성폭력 피해자를 적시에 지원하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국선 변호인 요청으로 들어온 사건을 보면) 한 10건이 오면 8건은 강제추행 사건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 강제추행이거든요. 지하철이라든지... 그다음에 클럽, 그다음에 길거리에서. 이렇게 강제추행 가볍게 터치하는 정도의 강제추행이라서 이런 사건들은 대부분 그 자리에서 신고가 돼요. 바로 신고를 해서 경찰서에 인제 가서 진술을 해야 되는데 피해자 국선 변호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지정이 되는 게 아니라 검찰로 보낸 다음에 지정이 돼서 그 변호사한테 통지를 하고 다시 경찰서로 통지서가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정이 돼서 다시 일정 잡아서 진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복잡한 거예요. 피해자 입장에서 다시 경찰서에 오기가 싫은 거죠. 그니까 대부분의 강제추행 사건은 신고한 날 그 자리에서 바로 원스톱에서 진술을 해버려요. 그래서 저한테 오는 사건들은 강제추행 건은 거의 대부분이 진술을 하고 온 상태예요.(LAW-1)

강제추행 건도, 다투는 경우에, 극렬하게 다투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되는 경우라고 하면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지정해 주는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법원단계에서 지정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처음부터 일괄적으로 다 지정을 해주니까 이게...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어...[자원의 불공정한 배분?] 어, 그렇죠.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다 해주다 보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아동, 장애인은 해주고, 미성년, 장애인 정도는 해주고 그다음에, 성인인 경우에는 강력 사건들, 강간 이상의 사건들. 뭐 미수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아는 사람끼리 그냥 술 마시다가 술쩍 터치하고 과한 애정표현을 한 경우 장소나 그런 것들을 좀 봐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했으면 좋겠어요.(LAW-1)

2) 피해자 국선변호사 활동의 개인별 편차

앞 장에서 소개한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및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한 인터뷰 내용을 보면 피해자 국선변호사 서비스

스에 대해 적지 않은 불만사례가 소개되고 있다. 국선변호사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 활동은 개인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선변호사) 그제 편차가 진짜 심해서요, 그, 그니까, 그냥 오로지 아무, 정말 아무것도, 피해자 면담도 아무것도 안 하고 전화로, 합의 중개하는 것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LAW-1)

제가 만난 피고인 국선변호사 말씀이,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법원에 나오지도 않고, 보니까, 뭐 피해자도 직접 이쪽에 자기한테 전화오고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오로지 하는 거라고는 재판 끝날 때까지 전화해서 합의금 뭐, 합의하실, 합의하고 싶은데 얼마 주세요, 요거밖에 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리가? 그럴 리가?” 막 이랬는데, 그분이 뭐, 자기는, 자기가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는, 아무튼 법원에 얼굴도 비치지 않는 사람이 태반이다. (LAW-2)

3)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의뢰인의 요구

국선변호사가 피해자의 고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의뢰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데 중요하지만, 의뢰인으로부터 업무범위 이외의 도움 요청이나 휴일이나 심야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접촉 시도로 어려움을 겪는다. 경찰 및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처음 국선변호사의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의뢰인으로서 지켜야 할 원칙에 대해서도 공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 기절할 거 같아요... 카톡 같은 게 오는데, 밤에 이렇게 와요.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해요?” 이래요. (밤) 열두시 반에... 변호사한테 정신과 의사나 아니면 상담사의 역할까지 요구하는데... 잘 안 되면 이 변호사 친절하지 않다고 또 민원을 넣고 그럼 또 그 검찰청 쪽에서는 아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교체하겠다 이라고 뭐 그러는 거죠. 저는 뭐 피해자들한테는 국선전담 제도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이게 저기 어, 지금 제가 알기로 국선전담 변호사님들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것만 하시니까 그분들이 훨씬 (잘하시죠). 그분들도 애로가 많으세요. 하루에 막 카톡 30개 보내고, 한 명이 막. 그걸 제가 봤는데. 카톡을 다 읽을 수가 없어, 너무 길어가지고. 그거를 나중에는 답장 안 보내면 “일부러 답장 안 하시는 건가요?” 막 이렇게 오고 [저도 주말에 연락을 받아서] 월요일 날 연락드리겠다고 하면 지금 급하니까 이거 하나만 여쭙볼게요. 이러면서 (급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분들이 쌓인 게 많아서 힘들어하세요]. 그런데 그거를 용납해주는, 받아주는 순간 나중에 끝도 없어지기 때문에 저는 제가 그런 얘기 법무부에 막 하는데 아 좀 더 친절하심 좋겠고 막 이러길래 제가 ‘못 하는데요.’ 그랬어요.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을 대체 어디까지 요구하시는지 모르겠다. 저희는 변호사고 법률적 구조를 하는 거지 우리한테 상담가의 역할까지 요구를 하시면 이거는 그 무

리한 요구고... 제가 말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할 수 없는 상담이라는) 건 주말이나 밤에 전화해 가지고 막 얘기 들어주고 그냥 정말 사건하고 전혀 관련 없는 얘기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밤에 얘기해서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내일 아침에 찾아오겠다 그래서, 아 내일은 안되는데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상담을 거절했다고 하고 그러시는 거죠.(LAW-2)

4)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의뢰인의 요구

보수 청구를 위해 증빙자료가 요구되는데 증빙자료 준비와 관련하여 국선변호사들은 애로사항이 있다. 보수청구 준비와 관련된 지나친 시간 소요로 일한 사건에 대해 보수 청구를 포기하게 만들기도 하고, 자질 있고 헌신적인 변호사가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 사건을 기피하게 할 수도 있다.

보수 한 건 청구하는 데... 30분씩 걸려요...저번에는 한 건 하는데 한 시간이 걸리더라고, 왜 한 시간이 걸리냐 하면, 피해자랑 내가 통화할 때마다, 통화한 걸 캡처를 해야 돼요. 캡처를 하게 되면, 한 번에 캡처하고 또 핸드폰에 옮겨놓고 이게 아니라 여러 번 캡처한 다음에 한꺼번에 찍 옮기잖아요...(LAW-1)

피해자한테 시달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보수도 일한 만큼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밤낮이 없잖아, 피해자들은 밤낮없이 전화하잖아... 전 (연락처를) 다 가르쳐주는데, 어..... 휴일에 문자오는 사람들 있어요. 자기 생각 날 때, 생각 날 때 오면은, 전 그냥 답문자 '월요일에 출근해서 연락드릴게요.' 그냥 딱 보내요...(LAW-1)

VI. 정책개선 방안

1.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관련
향후 과제 20
2. 형사사법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개선 과제 22

1.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관련 향후 과제

가. 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개선

1)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적극적 홍보

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공공영역의 서비스가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자는 적절한 지원기관을 발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은 일상적으로 성폭력 피해자를 접촉하고 지원하여 관련 정보에 익숙하지만,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성폭력 사건은 “뜻하지 않게 발생한 당황스러운 일”로 어찌할 바 모르고 당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의 사례에서도 아동·장애인 보호자는 피해사실을 인지한 이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정보를 검색하느라 고충을 겪고 “해바라기센터”와 같은 기관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을 소비하기도 한다. 부모로부터 독립적 입장을 취하는 청소년도 지원기관 정보를 잘 알지 못하였다.

최근 학교를 통해 피해자가 연계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피해자 발굴과 연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아동의 보호자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해바라기센터 등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 대한 홍보를 보다 더 체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2) 성폭력상담소와 해바라기센터의 협력체계 구축

성폭력상담소 및 해바라기센터 대상 설문조사에 의하면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의료지원, 수사지원, 심리치료 지원 등은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조와 그에 따른 공공과 민간부문에서의 피해자 지원 서비스가 확대된 결과로 해석된다. 아동·청소년·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학교와 경찰을 통한 연계의 비중이 높은 것도 주목할 만하다.

지원기관 설문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 중 성폭력상담소에서 해바라기센터의 차이가 발견된다. 검찰 및 경찰조사와 공판과정에 피해자와 동행·

동석하는 비율이나 피해자 거주지 방문 비율이 성폭력상담소에서 해바라기센터와 비교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해바라기센터가 의료지원, 수사지원, 심리치유와 관련된 기능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는 어려움이 많지만, 성폭력상담소는 지속지원에 장점이 있다. 전국의 성폭력상담소와 해바라기센터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 해바라기센터로 접수되는 사례에 대해서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거주지 인근 성폭력상담소 관계자가 사례지원에 참여하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해바라기센터 운영위원회에 성폭력 관계자 참여, 지역의 해바라기센터와 지역 성폭력상담소와의 정기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과제이다.

3) 지역 피해자지원기관 간 연계·협력체계 강화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간의 유기적인 연계망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 E의 경우에는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및 장애인성폭력상담소, 피해자 국선변호사 등 피해자 지원기관 간 협조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어, 피해자 진술 조사 이후 법률지원, 상담지원 등 사례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전문기관 간 상호협조체계는 피해자 보호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피해자 조사 초기부터 기관들이 함께 협력함으로써 의견서 제출, 재판 모니터링, 피해자 특성에 대한 정보, 사회복지 기관 연계, 지속적인 사례 관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4) 지역 성폭력 및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의료지원 개선

현재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는 크게 해바라기센터와 민간 성폭력상담소로 구성되어 있다. 해바라기센터는 의료 및 수사에 있어 통합지원의 장점을 갖고 있는데, 이들은 전국 광역시도별로 2개 정도로 분포되어 있다. 지원체계의 피해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국 민간상담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해바라기 센터의 경우에는 대학병원과 연계되어 의료지원에 큰 어려

움이 없지만, 민간 장애인성폭력상담소의 경우 의료비가 부족하고, 지역 내 성폭력 피해자 전담병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정신과 및 산부인과의 부족으로 피해자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 지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임신 및 낙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성폭력전담병원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지역 전문 의료기관과의 연계망 구축이 필요하다.

5) 아동·청소년·장애인 대상 성폭력예방 교육 확대

아동·청소년·장애인 대상 성폭력예방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 여성가족부는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성인권교육 교재를 개발하여 17개시·도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장애인 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성인권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고하거나 특수교사나 사회복지사에 의한 피해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또 사회적지지 및 자원이 취약한 장애인을 위한 전용 문화센터를 통해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6) 친족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 지원센터 설립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장애인을 위한 전문치료와 성폭력 피해 가족 치료를 위한 전문센터가 필요하다. 역기능적 가정 내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고, 비가해 부모에 대한 교육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많다. 가족 전체를 초점으로 가족기능을 회복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7) 아동·청소년을 위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확충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확충이 필요한데, 지역별, 대상별 특성을 고려해서 확대되어야 한다. 보호시설에서 재피해 예방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거주자 중 원가정으로의 복귀가 어려운 친족성폭력 피해자인 미성년 아동·청소년의 비중이 큰데, 이들을 위한 장기보호시설 및 그룹홈과 같은 주거지원시설

과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도 필요하다.

나.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 서비스 개선

1)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

성폭력 피해자 초기 면담을 비롯하여 상처 치유 및 회복을 위한 상담·심리치료와 지역사회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위해서 상담원의 전문성이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들에 대한 교육 및 처우개선이 요구된다.

2) 남아·남자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방식 개선

최근 남아·남자청소년이 성폭력 피해자나 친족성폭력 피해자로 지원기관을 방문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 남아·남자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은 여성 상담사와 면담하거나 여성 경찰이 진술조사 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편안하게 피해 사실을 상담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2. 형사사법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개선 과제

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개선 방안

1) 피해자 국선변호사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보호자 입장에서는 형사사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두렵고 당황스럽다. 지원기관에서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사건조사 등 형사사법 과정에 대해 상세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진술조사에 있어 보호자 동석 및 역할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이들의 안정과 치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국선변호사 지원이 개인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동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 국선변호사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선변호사가 지정된 이후 초기 대면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연락하고 공판에 동석하는 경우 만족도가 높은 반면, 피해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고 문의사항에 대한 답을 주지 않는 경우에 만족도는 낮았다. 가해자 측의 합의시도에 시달리는 것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족관계에 있는 친족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위축되게 만들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편차는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제도 도입 취지에 맞추어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사례도 있고 의뢰인이 배정되었지만 연락도 잘 하지 않는 등 피해자 국선변호사로서 해야 할 기본적인 업무도 수행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 성폭력 피해자는 국선변호사에게 크게 의지하는데 이들만 믿고 있다가 조사 및 공판에 부실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불성실한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은 피해자의 불만을 키우고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서비스에 대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이들의 서비스 내용을 의뢰인을 통해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국선변호사를 선정하고 안내하는 단계에서 국선변호사 서비스가 불만족스러운 경우 이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안내하고 이를 모니터링한다. 이외에도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한 모니터링도 고려해 볼 만하다.

2)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확대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와 전담이 아닌 피해자 국선변호사 간에 법률적 서비스 수준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본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는 변호사 개인의 성향과 철학,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관심 여부, 변호사 상황이나 조건의 차이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의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 수가 부족하여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만 집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확대하여 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3)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대상 교육 강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효과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국선변호사는 아동·장애 유형별 특성, 성폭력 피해에 대한 지식, 피해자 지원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한다. 국선변호사 본연의 역할은 피해자 면담, 신뢰관계자로서의 동석, 수사 및 재판 동행과 참관을 통해 피해자 지원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양성 교육 시수 확대,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자원 활동 의무화,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통해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진술조력인 제도 개선 방안

1) 진술조력인의 피해자 사전 면담 현실화

진술조력인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왜곡되거나 잘못 인지되어 피해자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데, 현재 시스템 상으로는 진술조력인이 피해자를 제대로 알고 지원을 하기에는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성폭력 특별법 36조3항에는 진술조력인이 조사 전에 피해자를 면담하여 조력 필요성에 관한 평가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현장에서 진술조력인이 개입이 되는 시점은 대부분의 경우 조사과정에 신뢰관계자로 동석할 될 때이다. 이 경우 진술조력인은 진술조사 진행 과정에 개입할 수 없고 휴식시간이나 조사가 끝난 후에 간략히 의견을 말 할 수 있는 정도의 역할을 한다.

진술조력인은 진술 조사 전에 피해자와 공감대(rapport)형성을 한 후 피해자의 언어적, 인지적, 행동적 특성을 파악해야 조사관과 피해자 간 의사소통을 중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데, 실제로는 피해자의 특성을 파악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피해자 역시 진술조사 시 낯선 환경과 낯선 사람들과 대면하여 위축되는 상황에서 진술조력인이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해자 사전면담을 현실화하여 진술 중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2) 진술조력인 역할에 대해 구체적 명시

진술조력인의 자격, 역할 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진술조력인에 대한 홍보를 통해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성폭력특별법 제36조, 37조에는 진술조력인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참여나 역할이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활용도는 낮다. 진술조력인의 역할을 조사 전, 진술조사 시, 수사과정, 재판과정 단계별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수사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이 피해자 면담을 통해 조력의 필요성과 아동발달 상황과 특성, 장애정도 및 특성, 의사소통 능력 정도, 각 개인이 가진 특성과 성폭력 피해와의 연관성 등 수사에 참조하거나 도움이 될 만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진술조력인은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 요구하는 사항을 충분히 수사기관 및 법정에 전달해야 한다.

3) 진술조력인에 대한 수사기관 및 법원의 인식 제고

수사기관과 법원이 진술조력인 제도를 잘 인식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진술조력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고지해주지 않는 경찰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진술조력인 제도의 활용이 타 제도에 비해 낮은 편이며, 응답자 대부분은 제도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진술조력인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진술조력인 제도가 현실적으로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의 취지나 목적에 맞도록 진술조력인 역할의 명료성과 주어진 역할에 대한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 진술조력인 피해자와 공감대 형성을 하고, 피해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면담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

4) 3급 지적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인 지원

성폭력 피해자 다수가 지적장애인이며 이들 중 3급 장애인이 성폭력에 가장 많이 노출되고 있다. 그러나 3급 지적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이 가능

하다는 이유로 진술조력인이 거의 지원되지 않는다. 중증 피해자인 경우에 진술조력인이 지원되고 있다. 진술조력인이 배치되는 중증 장애인은 대부분 의사소통이 쉽지 않아 진술조력인도 소통에 어려움이 많아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어렵다. 지원 효과가 큰 3급 지적장애인에게도 진술조력인이 배치되어야 한다.

5) 아동·장애인성폭력 피해자 대상 진술조력인 의무화

진술조력인이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돕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제도 취지에 맞게 아동 및 장애인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진술조력인이 항상 배치될 필요가 있다. 성폭력 특례법 제36조에 의하면 피해자, 법정대리인,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동이나 장애인 및 이들의 보호자가 이를 판단하여 요청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의무적으로 참여를 고려해 볼 만하다.

6) 진술조력인의 전문성 강화

본 연구에서 진술조력인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들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전문성이란 성폭력 피해자 장애 정도에 대한 이해, 아동의 발달 정도에 따른 특성 이해, 아동·장애인의 의사소통 특성 및 이들이 사용하는 특정 용어 등에 대한 이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해 및 의사소통 능력을 말한다. 진술조력인이 이러한 능력이 갖추어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 연구에서 면담한 피해자 지원기관 관계자들은 말한다. 아동·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대상별 성폭력 피해자 특성에 대한 교육 및 현장 실습이 강화되어야 한다.

다. 진술조사 및 신뢰관계자 동석 관련 개선 과제

1) 진술조사관의 전문성 강화

비디오 진술녹화(성폭력특례법 제30조 영상물의 촬영·보존 등)와 신뢰관

계자 동석(성폭력특례법 제34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이 피해자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도입되어 운용되고 있다. 진술조사관의 전문성 확보와 역량강화가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대상 진술조사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아동·장애인의 특성상 일시와 장소에 대한 명확한 진술이 어려운데,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 진술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적으로 질문을 받아 힘들어 하기도 한다. 청소년피해자의 경우 반복된 진술조사나 공개된 장소에서의 피해상황 진술하기도 한다. 또 진술조사는 피해자가 안정을 취한 후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확인되고 있다. 진술조사에 있어 조사관의 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 및 전문성이 요구된다.

아동이나 지적장애인은 성인과 달리 인지기능 및 기억 능력의 발달적 한계, 높은 피압시성 등으로 인해 보호자 및 진술가의 영향을 받아 오염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반복된 진술을 할수록 이러한 진술 왜곡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여성가족부, 2010:104).

아동과 장애인 피해자로부터 일관성 있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이끌어내는 것을 조사관의 역량에 달려있다. 진술조사관은 대부분의 경우 여성 경찰관이나 필요한 경우 검사가 담당하기도 한다. 성폭력 피해자 진술조사와 관련된 조사관의 현장 실무 경력에 따라서 아동·장애인 특성 및 성폭력 특성에 대한 이해 정도가 상이한데, 이들의 전문성은 진술조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진술조사관의 전문성은 피해자 보호제도 관련 정보 제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피해 발생이후 현장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이 처음 대면하게 되는 형사사법관계자가 진술조사관이다. 조사관을 통해 신뢰관계자 동석, 진술조력인, 피해자 국선변호사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전문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된다. 거의 대부분의 성폭력 피해자나 가족들은 피해자 보호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 특성에 맞는 조사관의 정보 제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나 보호자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은 중요하다.

2) 신뢰관계자의 신중한 선정

신뢰관계자로 동석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아동이나 장애인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뢰관계자 동석은 의무로 실시되고 있다. 신뢰관계자 동석 여부나 누가 동석하느냐가 피해자 진술에 중요하다. 현장에서 신뢰관계자로 동석하는 사람은 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이며, 부모 등 보호자, 진술조력인, 상담원 등이 필요에 따라 동석을 하고 있다.

지속적 지원에 강점을 갖고 있는 성폭력상담소가 해바라기 등 여타 기관과 초기부터 진술조사에 참여한다면,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지원방법이나 지원 내용에 대한 미리 고민할 수 있다. 부모 등 보호자의 신뢰관계자 동석에는 피해자 진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신뢰관계자 동석은 ‘피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진술조사 시 경찰,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등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는 피해 아동·청소년·장애인에게 혼란과 당혹감을 줄 수 있어 피해자 배려에 노력해야 한다.

라. 공평한 형사사법 지원 서비스 제공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 제도는 형사사법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 설문조사에 의하면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위의 2가지 유형의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차이가 나는데, 성폭력상담소에서의 만족도가 해바라기센터에 비해서 낮게 나타난다. 성폭력 피해자는 어떤 유형의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하든 동일한 혹은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도 성폭력 피해자가 최초로 피해자가 접촉한 지원기관이나 지원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건 수사·재판 및 피해자 치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와 관련하여 지원기관을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일정 수준 이상의 양질의 서비스가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마. 관련 법 개정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관련 규정에서 변호사는 조사도중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는데, 이러한 규정은 조사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할 때 피해자 보호를 어렵게 할 수 있다(권순민, 2013: 218). 이와 관련하여 의견진술을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조사방해나 피해자 진술을 왜곡시킬 구체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참여를 배제시키거나 의견진술을 제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권순민, 2013:218). 이를 위해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2항의 단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진술조력인의 중립의무 강화를 위해서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규칙」 제19조에서 피해자 상담·치료 중 해당 사건의 내용을 알게 된 사람이 진술조력인으로 선정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이진국, 2013:49).

참고문헌

- 권순민(2013), “성폭력특례법상 피해자 변호사의 피해자 조력 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1호, 2013.12, pp.184-222.
- 권희경·장재홍(2003), “청소년 성피해자들의 성폭력 인식과 자기손해적 성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8권 제1호, 2003.4, pp.35-47.
- 김은주(2000), “정신지체인 성폭력에 대한 지역복지 서비스 연계 방안”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논문.
- 김정혜(2010), “장애인 성폭력 판결의 흐름과 쟁점” 장애인성폭력사건쟁점토론회 자료집 2010년 10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김태경·윤성우·김경옥·서민재·한은미(2013), 『진술조력인 양성교육 프로그램개발』 법무부·백석대학교.
- 김한경·박용숙(2003),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교육』 나눔의 집.
- 박선영(2014),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 지정토론”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움,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 주최, 2014.3.19., 변호사교육문화관.
- 배화옥(2012), “여성장애인의 폭력대처행동 실태와 관련요인 연구” 『사회과학연구』 28(1): 229-246.
- 백미순·김정혜·정유석·최영지(2013), 『성폭력 범죄 피해아동 법률조력인 제도시행 평가 연구』 법무부.
- 법무부(2014), 『피해자 국선변호사 업무매뉴얼』 2014.9.
- 법무부(2015), 『2014년도 진술조력인 연간보고서』 백석대학교.
-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2012), 『2013년 사업보고서』
- 서울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2013), 『2014년 사업보고서』
- 신서영(2013), “피해자 변호사와 진술조력인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과 법』 제5권 제1호, 2013.8, pp.147-181.
- 여성가족부(2010), 『성폭력 피해 아동 진술과정 참여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개발』.
- 여성가족부(2013a), 『2012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적』.
- 여성가족부(2013b), 『2012년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실적 보고』.
- 여성가족부(2013c), 『2013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 여성가족부(2014a), 『2013년 성폭력 피해자 등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사업안내』.
- 여성가족부(2014b), 『2014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 여성가족부(2015a), 『2015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 여성가족부(2015b), 『2015년 해바라기센터사업안내』.
- 여성가족부(2015c), 『2014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적 보고』.
- 여성가족부(2015d), 『2014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적 보고』.
- 원혜옥(2011), 「성력 피해아동을 위한 법률조력인 제도 도입 방안」 법무부
- 윤덕경·이미정·장미혜·주재선·송효진(2014), 『2014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2013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 이선경(2014), “공판과정에서의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연구”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움,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 주최, 2014.3.19., 변호사교육문화관.
- 이미정(2012), 『성폭력 2차 피해를 통해 본 피해자 권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미정·이인선·김기현(2013), 『성폭력 피해자 사례분석을 통한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여성정책연구원
- 이유진·강지명·윤옥경·조윤오·이상희·이재연(2012),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 대책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2.12, pp.1-354.
- 이인선·이미정·김기현(2014), 『성폭력 피해자 가족개입 및 지원방안 연구』, 여성정책연구원
- 이진국(2013), “진술조력인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몇가지 제안”, 「형사정책 연구」제24권 제3호(통권 제95호), 2013. 가을호, pp.31-56.
- 이현혜(2008), 「성폭력 피해 장애인 사례분석을 통한 상담적 접근」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장애상담소권역(2013), 「여성장애인폭력추방 주간 캠페인 행사를 열면서: 전국상담소협의회 장애인상담소권역920개소」 2013년 상담 통계 및 분석결과 보도요청자료」 2013.3.27.
- 정진수(2000), 「아동증언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영아(2014),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움 지정토론”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움,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 주최, 2014.3.19., 변호사교육문화관.
- 한정수·조성진·배승민(2015),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사실 폭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소아청소년정신의학」제26권 제3호, 2015. 9, p.176-182.
- 황만성(2004), 「형사절차상 성범죄 피해아동의 보호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해외문헌

Sobsey, Dick. 1994. Violence and Abuse in the Liv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Baltimore : Paul. H. Brookes.

Westcott, H. 1993. Abuse of Children and Adults with Disabilities. London: National Society for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

■ 사이트 방문

법무부 인권국 사이트(201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자료실, ‘연도별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현황’,

<http://www.hr.go.kr/doc_html/attach/hum/f2015//20140326188987_1_%B9%FC%C1%CB%C7%C7%C7%D8%B1%B8%C1%B6%B1%DD%20%C1%F6%B1%DE%20%C5%EB%B0%E8.hwp.files/Sections1.html> [접근일자 2015.10.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http://www.law.go.kr/법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2889,20141230\)](http://www.law.go.kr/법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2889,20141230))> [접근일자 2015.10.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법령/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12361,20140128\)](http://www.law.go.kr/법령/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12361,20140128))> [접근일자 2015.10.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http://www.law.go.kr/법령/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2341,20140128\)](http://www.law.go.kr/법령/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2341,20140128))> [접근일자 2015.10.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http://www.law.go.kr/lsBylInfoPLinkR.do?lsiSeq=176455&lsNm=%EC%9E%A5%EC%95%A0%EC%9D%B8%EB%B3%B5%EC%A7%80%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Y>> [접근일자 2015.10.12]

스마일센터 사이트, ‘조직구성’ <<http://resmile.or.kr/intro04.html>>

[접근일자 2015.10.18]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사이트, ‘여성긴급전화 1366’, 지원서비스,

<http://womenhotline.or.kr/images/sub/1366_leaflet.jpg>

[접근일자 2015.10.20.]

부 록

부록 1. 성폭력피해자 지원 현황 조사 설문지	227
------------------------------	-----

부록 1. 성폭력피해자 지원 현황 조사 설문지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지원 현황 조사	I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40px; height: 20px; margin: 0 auto;"></div>
-----------------------------------	---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지원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전국 해바라기센터와 성폭력피해자 지원상담소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장애인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애로사항에 대해서 여쭙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외의 어떠한 목적에도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주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5년 9월

연구책임자: 이미정 여성권익연구센터장
조사담당자: 박선주 위촉연구원
주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25 (우)122-707
Tel : 010-2563-8236/winter-bud@hanmail.net

#. 일반현황

기관 지역	① 서울특별시 ② 부산광역시 ③ 대구광역시 ④ 인천광역시 ⑤ 광주광역시 ⑥ 대전광역시 ⑦ 울산광역시 ⑧ 경기도 ⑨ 강원도 ⑩ 충청북도 ⑪ 충청남도 ⑫ 전라북도 ⑬ 전라남도 ⑭ 경상북도 ⑮ 경상남도 ⑯ 제주특별자치도 ⑰ 세종특별자치시
기관 유형	① 성폭력상담소 ②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③ 통합상담소 ④ 해바라기센터 (아동형) ⑤ 해바라기센터 (위기자원형) ⑥ 해바라기센터 (통합형)
기관 설립연도	() 년
귀 기관 재직기간	() 년 () 개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I. 조사개요

- ※ 지난 1년간 귀 센터 및 상담소에서 수행한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지원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 ※ 상담(피해자 및 보호자 면담), 의료지원(연계 및 동행 포함), 피해자·보호자 심리치료(연계 및 동행 포함), 진술녹화 지원, 재판동행 중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대면하여 지원한 피해자를 염두에 두시고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소의 경우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어도 연계 및 동행을 통하여 내담자를 지원한 경우를 포함해주시시오.
- ※ 아동 혹은 청소년피해자 내담자 지원 경험이 없는 경우 ‘비해당’에 표시해주세요.

II. 기관 이용 경로

- 1** 지난 1년간 귀 센터 및 상담소에서 지원하시는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은 어떠한 경로로 오게 되었습니까?
- ※ 귀 센터 및 상담소가 아래 제시된 유형의 기관인 경우 여타 지역 센터 및 상담소로 부터의 연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 해당 장애인이 아동이거나 청소년인 경우 장애인으로 표시해주십시오.

구 분	피해자 유형	거의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자주 그렇다	비해당
(1) 피해자가 홀로 내방하였다.	아 동	①	②	③	④	⑤
	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장애인	①	②	③	④	⑤
(2) 피해자가 보호자와 함께 내방하였다	아 동	①	②	③	④	⑤
	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장애인	①	②	③	④	⑤
(3) 지인의 소개로 내방하였다	아 동	①	②	③	④	⑤
	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장애인	①	②	③	④	⑤
(4) 우리센터나 우리상담소가 피해자를 직접 발 견하였다	아 동	①	②	③	④	⑤
	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장애인	①	②	③	④	⑤
(5)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연계되었다	아 동	①	②	③	④	⑤
	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구 분	피해자 유형	거의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자주 그렇다	비해당
	장애인	①	②	③	④	⑤
(6) 경찰을 통해 연계되었다	아 동	①	②	③	④	⑤
	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장애인	①	②	③	④	⑤
(7) 검찰을 통해 연계되었다	아 동	①	②	③	④	⑤
	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장애인	①	②	③	④	⑤
(8) 외부 병원을 통해 연계되었다	아 동	①	②	③	④	⑤
	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장애인	①	②	③	④	⑤
(9)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 및 관련 상담·복지기관을 통해 연계되었다	아 동	①	②	③	④	⑤
	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장애인	①	②	③	④	⑤
(10)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연계되었다	아 동	①	②	③	④	⑤
	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장애인	①	②	③	④	⑤
(11) 해바라기센터(아동형)에서 연계되었다	아 동	①	②	③	④	⑤
	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장애인	①	②	③	④	⑤
(12)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에서 연계되었다	아 동	①	②	③	④	⑤
	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장애인	①	②	③	④	⑤
(13) 해바라기센터(통합형)에서 연계되었다	아 동	①	②	③	④	⑤
	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장애인	①	②	③	④	⑤
(14) 성폭력상담소에서 연계되었다	아 동	①	②	③	④	⑤
	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장애인	①	②	③	④	⑤
(15)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연계되었다	아 동	①	②	③	④	⑤
	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구 분	피해자 유형	거의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자주 그렇다	비해당
	장애인	①	②	③	④	⑤
(16) 범죄피해자센터 및 스마일센터를 통해 연계되었다.	아 동	①	②	③	④	⑤
	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장애인	①	②	③	④	⑤
(17)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연계되었다	아 동	①	②	③	④	⑤
	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장애인	①	②	③	④	⑤
(18)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연계되었다	아 동	①	②	③	④	⑤
	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장애인	①	②	③	④	⑤
(19)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연계되었다.	아 동	①	②	③	④	⑤
	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장애인	①	②	③	④	⑤

Ⅲ. 서비스 지원 예로사항

1 지난 1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지원 등과 관련하여 기관 상황은 어떠하십니까?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접수된 피해자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길다	①	②	③	④
(2) 우리센터 혹은 우리 상담소는 피해자가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공간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3) 우리센터 혹은 우리상담소에서는 종사자의 이직이 잦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4) 우리센터 혹은 우리상담소에서는 종사자가 이직하면 후임자를 구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2

지난 1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현황이 어떠하였는지요?
 ※ 서비스의 직접 제공, 연계, 동행을 통해 지원한 모든 경우를 고려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구 분	피해자 유형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비해당
(1) 피해자를 위해 신속한 증거채취 혹은 증거채취를 받도록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아 동	①	②	③	④	⑤
	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장애인	①	②	③	④	⑤
(2) 피해자에게 산부인과 진료를 신속하게 제공하는데 혹은 제공받도록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아 동	①	②	③	④	⑤
	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장애인	①	②	③	④	⑤
(3) 기타 신체외상 등 의료 진료를 제공하는데 혹은 제공받도록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아 동	①	②	③	④	⑤
	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장애인	①	②	③	④	⑤
(4) 피해자를 위해 정신과 진료를 제공하는데 혹은 제공받도록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아 동	①	②	③	④	⑤
	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장애인	①	②	③	④	⑤
(5) 심리치료 혹은 상담치료를 제공하는데 혹은 제공받도록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아 동	①	②	③	④	⑤
	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장애인	①	②	③	④	⑤
(6) 피해자 진술을 녹화하는데 혹은 녹화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아 동	①	②	③	④	⑤
	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장애인	①	②	③	④	⑤
(7) 피해자 국선변호사(전담변호사와 비전담변호사 모두 포함)를 요청하면 잘 연결되는 편이다	아 동	①	②	③	④	⑤
	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장애인	①	②	③	④	⑤
(8)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피해자 조사시 동석하는 편이다	아 동	①	②	③	④	⑤
	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장애인	①	②	③	④	⑤
(9) 전담이 아닌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피해자 조사시 동석하는 편이다	아 동	①	②	③	④	⑤
	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장애인	①	②	③	④	⑤
(10)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의 피해자 지원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	아 동	①	②	③	④	⑤
	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장애인	①	②	③	④	⑤
(11) 전담이 아닌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피해자	아 동	①	②	③	④	⑤

구 분	피해자 유 형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비해당
지원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	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장애인	①	②	③	④	⑤
(12)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는 성폭력피해 및 피해자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아 동	①	②	③	④	⑤
	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13) 전담이 아닌 국선변호사 는 성폭력피해 및 피해자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아 동	①	②	③	④	⑤
	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14) 진술조력인 을 요청하면 잘 연결되는 편이다 ※ 진술조력인 을 직접 요청하지 않아도 지원 사 례에서 진술조력인 의 도움이 필요했던 경우 를 고려하여 응답해주십시오	아 동	①	②	③	④	⑤
	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15) 진술조력인 의 피해자 지원은 전반적으로 만 족스럽다	아 동	①	②	③	④	⑤
	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16) 성폭력 피해와 피해자 특성에 대한 진술 조력인 의 이해도가 높다	아 동	①	②	③	④	⑤
	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17) 우리가 지원한 피해자 사례의 경우 진술 녹화물 이 법정 증거로 잘 채택된다	아 동	①	②	③	④	⑤
	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18) 경찰 수사과정에서 성폭력피해와 피해자 특성에 대한 경찰 의 이해도가 높다	아 동	①	②	③	④	⑤
	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19)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와 피 해자 특성에 대한 검찰 의 이해도가 높다	아 동	①	②	③	④	⑤
	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20) 경찰·검찰 수사과정에 동행·동석하여 피 해자를 지원하는 편이다	아 동	①	②	③	④	⑤
	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21) 재판과정에 동행·동석하여 피해자를 지원 하는 편이다	아 동	①	②	③	④	⑤
	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22) 재판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와 피해자 특성 에 대한 판사 의 이해도가 높다	아 동	①	②	③	④	⑤
	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구 분	피해자 유 형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비해당
	장애인	①	②	③	④	⑤
(23) 가족상담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아 동	①	②	③	④	⑤
※ 여건 상 어려움으로 가족상담을 진행하지 못 하는 경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표시해주세 요.	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장애인	①	②	③	④	⑤
(24) 보호자가 피해자 심리치료 및 치료회복프 로그램을 거부한다	아 동	①	②	③	④	⑤
	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장애인	①	②	③	④	⑤
(25) 피해자를 보호하는 역량이 부족한 가족이 많은 편이다	아 동	①	②	③	④	⑤
	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장애인	①	②	③	④	⑤
(26) 지원을 위해 피해자 거주지를 방문하는 편이다	아 동	①	②	③	④	⑤
	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장애인	①	②	③	④	⑤
(27) 종결사례에 대해 사후관리를 하는 편이다	아 동	①	②	③	④	⑤
	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장애인	①	②	③	④	⑤
(28) 필요한 경우 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아 동	①	②	③	④	⑤
	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장애인	①	②	③	④	⑤

IV. 기관 연계

1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지원/연계에 있어 관련 기관과의 협조는 잘 되고 있나요?
 ※ 귀 기관이 아래 제시된 선택지에 해당되는 유형의 기관이면 여타지역 센터 및 여타 상담소와의 협조 정도를 고려하여 표시해주십시오.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비해당
(1) 해바라기센터(아동)	①	②	③	④	⑤
(2) 해바라기센터(통합형)	①	②	③	④	⑤
(3) 해바라기센터(위기형)	①	②	③	④	⑤
(4) 성폭력피해상담소	①	②	③	④	⑤
(5) 장애인성폭력피해상담소	①	②	③	④	⑤
(6) 성폭력피해자 쉼터	①	②	③	④	⑤
(7) 장애인성폭력피해자 쉼터	①	②	③	④	⑤
(8) 산부인과 외과 등 전문의료기관	①	②	③	④	⑤
(9) 정신과 및 심리평가·심리치료 관련 기관	①	②	③	④	⑤
(10) 아동보호전문기관	①	②	③	④	⑤
(11) 경 찰	①	②	③	④	⑤
(12) 검 찰	①	②	③	④	⑤
(13) 지자체 공무원	①	②	③	④	⑤
(14) 학 교	①	②	③	④	⑤
(15) 지역아동센터	①	②	③	④	⑤
(16) 건강가정지원센터	①	②	③	④	⑤
(17) 사회복지기관(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 및 관련 상담 및 복지기관)	①	②	③	④	⑤
(18) 여성긴급전화 1366	①	②	③	④	⑤
(19)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①	②	③	④	⑤

- 바쁘신 가운데도 끝까지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Abstract

Support for Child, Youth, and Disabled Victims of Sexual Violence: Current Situation and Measures to Improve Policy

Mijeong Lee
Deuk-kyoung Yoon
Hyun-hye Lee

This research surveys the current situation of various support services related to victims of sexual violence who are children, youth,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It examines problems and intends to present measures to improve support services and policy. To collect data, we surveyed support agencies for victims of sexual violence and interviewed child, youth, and disabled victims of sexual violence, as well as their guardians.

Emotional support and the course of psychological counseling given by support organizations for child, youth, and disabled victims of sexual violence and their guardians are the most positive points, according to our evaluation. Points of improvement demanded are, first, that awareness about sexual violence is improved among the police handling

the investigation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doing the detective work. The problems that were pointed out are that court-appointed attorneys are lacking in expertise, the people who take testimony are lacking in expertise, the investigators who record the affidavit are lacking in their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victims, and there is also a lack of specialized center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is research proposes the following tasks: active promotion of support agencies for victims of sexual violence; strengthening of ties and building a cooperative system among support agencies for victims of sexual violence; expansion of education for the prevention of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youth,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establishment of a specialized support center and expansion of protection facilities for child victims of incest and disabled victims of sexual violence; improvement of the way that male child and youth victims are supported; strengthening of monitoring and education about attorneys appointed by the court for victims; expansion of the use of court-appointed public attorneys who are exclusively for victims; actualization of pre-interviews of victims before they give testimonies; and expansion of support for people with Level 3 mental disabilities when giving testimony.

2015 연구보고서-24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황 및 정책개선 방안

2015년 10월 29일 인쇄

2015년 10월 31일 발행

발행인 : 이 명 선

발행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25

전화 / 02-3156-7000 (대)

인쇄처 : 도서출판 한 학 문 화

전화 / 02-313-7593 (대)

ISBN 978-89-8491-764-4 93330

<정가 13,000 원>